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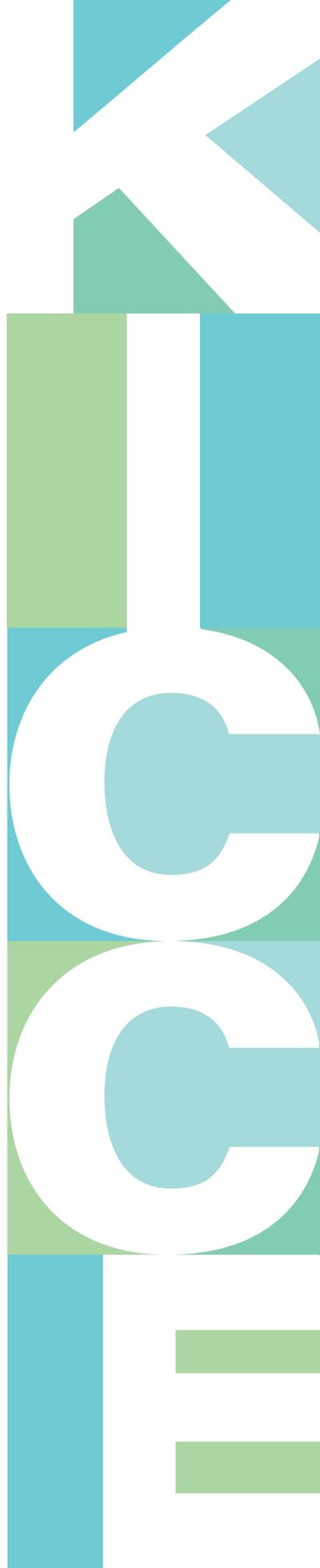
www.kicce.re.kr

2024년도

해외 육아정책 동향 정보 자료집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목차

일본	3
임신·출산지원	4
일·가정 양립	13
양육지원	18
유아교육·보육	27
아동·청소년지원	36
기타	38
미국	47
임신·출산 지원	48
일·가정 양립	54
양육지원	57
유아교육·보육	59
아동·청소년지원	71
기타	73
독일	79
임신·출산 지원	80
일·가정 양립	82
양육지원	89
유아교육·보육	94
기타	112
영국	123
양육지원	124
유아교육·보육	127
기타	148



스웨덴 -----	151
임신·출산지원-----	152
양육지원-----	156
유아교육·보육-----	157
아동·청소년지원-----	171
호주 -----	177
임신·양육지원-----	178
유아교육·보육-----	184
아동 청소년 지원-----	213
기타-----	217

2024년도 해외 육아정책 동향 정보 (국가별, 주제별)



일본

임신·출산지원		
1	육아기 성장에 관한 기본 계획(첫 100개월의 성장 비전)	4
2	산모를 지원합시다! 교토시 스마일맘·안심 사업(산후조리 사업)	5
3	임부 원거리 분만 시설에 대한 교통비 및 숙박비 지원 사업 실시	7
4	지역 저출산 대책 중점 추진 교부금	9
5	지역 저출산 대책 중점 추진 교부금의 활용	11
일·가정 양립		
1	마더스 헬로 워크 아마가사키	13
2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 방침 2024(육아 단축근무 지원금)	14
3	한부모 가정 등 일상생활 지원사업	15
4	휴일 보육	16
양육지원		
1	2023년도 교토시, 어린이 공간 및 육아 세대 식품 배송 사업에 대한 임시 지원금 지급	18
2	육아 지원 포털사이트 '하구쿠모(키우자) KYOTO', 교토 하구쿠미(육아)앱	19
3	육아 응원대 파견사	21
4	2024년도 치바현 육아지원단 연수	22
5	엄마 케어 데이 서비스	24
6	신(新) 육아 가족 지원 사업	25
유아교육·보육		
1	어린이집 등의 업무 효율화 추진 사업(보육 시설 등에서의 ICT 도입 실태 등 조사 연구 사업) (2024년도 추경예산)	27
2	제1회 '어린이 누구나 등원의 제도화, 본격 실시를 위한 검토회' 개최	29
3	어린이 누구나 통원제도의 제도화, 본격 실시를 위한 검토회	31
4	교육·보육시설 등의 중대사고 방지책을 생각하는 전문가 회의(제22회)	33
아동·청소년지원		
1	018 서포트 지원금	36
기타		
1	'아기 후랏토' 사업	38
2	여성 복지 기금 대출	39
3	아동 중앙 실행 계획 2024(개요)	41
4	장애 아동 시설 등 정비 사업자 모집	44

❖ 임신·출산지원

1. 육아기 성장에 관한 기본 계획(첫 100개월의 성장 비전)

■ 유아기는 평생에 걸친 웰빙(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행복한 상태) 향상에 가장 중요한 시기임. 모두가 뒤처지지 않고 한결같은 성장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음. 또한, 출생, 등원, 취학 전후, 가정, 원(園), 관련 기관, 지역 등의 환경 간에 틈이 많아 사회 전체의 인식 공유 및 관련 시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한 나침반이 필요함.

※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례의 약 절반이 0~2세임.

※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다니지 않는 아동은 가정환경에 따라 다른 아동이나 성인, 사회나 자연 등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좌우됨.

■ ‘첫 100개월’은 본 계획의 핵심 키워드로, 엄마의 임신기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등원을 하는 중요한 시기(이른바 5세~초1)가 대략 94~106개월임을 참고로 하여 정립한 개념임. 이에 ‘첫 100개월’의 성장 비전을 수립하고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함. 더 나아가 ‘첫 100개월’부터 평생에 걸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지향하며 평생에 걸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관점에서의 포괄적인 행복이 인간의 삶의 질 향상으로도 이어질 것임.

■ 「어린이기본법」 이념에 따라 5가지 비전 정립

1) 아동의 권리와 존엄성 수호

- 영유아는 태어났을 때 이미 권리의 주체임.
- 영유아의 생명과 생활을 보장함.
- 영유아의 생각과 소망을 존중함.

2) ‘안심과 도전의 순환’을 통해 아동의 웰빙 증진

- ‘애착’ <안심>: 불안한 때 가까운 어른이 다가가거나 안정감을 주는 경험을 반복함으로써, 안심할 수 있는 토대를 확보함.
- 풍성한 ‘놀이와 체험’ <도전>: 다양한 아동과 성인, 사물·자연·그림책·장소 등 친근한 사물과의 만남·관계 형성을 통해 아동의 흥미·관심에 맞춘 ‘놀이와 체험’을 보장함으로써 도전을 응원함.

- 3)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지속적인 육아 지원
 - 출생 준비부터 지원함.
 - 유아기와 초등기 이후를 연결함.
- 4) 보호자·양육자의 웰빙과 성장 지원 및 응원
 - 보호자·양육자가 지원·응원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도록 함.
 - 모든 보호자·양육자를 연결함.
 - 성별과 상관없이 보호자·양육자가 함께 육아하도록 함.
- 5) 아이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환경과 사회 구축
 - ‘아동 중심’의 관점(다양한 입장의 사람들이 육아를 응원)
 - 아동을 포함시킨 환경과 사회를 구축함.
 - 지역 내 전문직 연계와 코디네이터의 역할도 중요함.

■ ‘첫 100개월’의 성장 비전을 토대로 한 시책 추진

- ‘어린이 대강’을 기초로 만든 ‘아동 중심 실행 계획’ 시책에 반영하도록 함.
- 모든 사람의 구체적 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대응을 포함하여 ‘어린이가정청’이 사령탑이 되어 구체적인 방안을 통합·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2024년 03월 07일

출처 : https://www.cfa.go.jp/policies/kodomo_sodachi

2. 산모를 지원합니다! 교토시 스마일맘·안심 사업(산후조리 사업)

- 일본 교토시에서는 산후 여성이 가까운 지역에서 안심하고 육아를 시작하여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스마일 맘·안심 사업(산후조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산부인과나 조산소 등에서의 산후 단기체류나 산후 데이케어를 통해서 조산사 등 전문가가 산모 심신 조리와 육아지원 등 산후 1년까지 산모와 영아를 지원함. 또한 산후조리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24년 4월 1일(10시)부터 전자신청 절차를 시작함.

※ 임신 중 신청은 불가

※ 이용 개시일로부터 4일 전까지 신청

■ 이용 대상(2024년 4월부터 이용 대상자 확충)

- 교토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생후 1년 미만의 산모와 그 자녀 중 본 제도 이용을 희망하는 자

※ 단, 입원 치료가 필요한 자는 제외

※ 모자 모두 교토시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제도 내용

구분	이용 시간	이용 가능일 수	서비스 내용
산후 단기 체류	원칙상 이용 개시 시각부터 24시간 이내 사용을 1일로 봄	7일 (7박 8일)	1. 산모 산후 몸관리 및 생활 상담·지도 2. 유방 케어, 유방 트러블 케어 3. 발육 및 발달 체크 4. 체중 및 대소변 체크
산후 데이케어	원칙상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이용을 1일이라 함	7일	5. 스킨 케어 6. 수유 방법에 관한 조언·지도 7. 목욕 및 목욕 방법에 관한 조언·지도 8. 흡 육아에 관한 조언·지도 9. 상담 등 심리 케어 10. 이유식에 관한 조언·지도 11. 그 외 필요한 보건 상담·지도

■ 이용 시기

- 생후 1일~1세 미만 영아가 이용할 수 있고, 시설에 따라 이용 가능 시기가 조금씩 다를 수 있음.

■ 이용료(1일 기준)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산후조리사업을 이용하기 쉬운 환경을 마련하여 육아에 대한 불안이나 부담감을 줄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아래와 같이 이용료를 감면하고 있음.

소득 구분	산후 단기체류		산후 데이케어	
	감면 전	감면 후	감면 전	감면 후
A *	12,320엔	9,820엔	6,100엔	3,600엔
B	4,930엔	2,430엔	2,440엔	0엔
C1 **				
C2 ***	490엔	0엔	240엔	0엔

주: * 이용자 및 배우자의 전년 소득(1월~5월 신청의 경우는 전전년의 소득) 합계액이 730만 엔 이상인 세대(소득의 범위 및 계산 방법은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를 준용함.)

** 서비스 이용 연도(4월~5월 사이에 신청하는 경우는 전년도)의 개인 시민세가 비과세인 세대

*** 생활보호법 규정에 따른 피보호 세대

■ 이용료 감면

- 1) 시민세 과세 세대: 산후 단기체류 또는 산후 데이케어 이용일 중 최대 5일까지를 상한으로 이용료에서 1회당 2,500엔을 감면함.
- 2) 시민세 비과세 세대 및 생활 보호 대상 세대: 산후 단기체류 및 산후 데이케어 이용료(각각 7일까지)를 무료로 제공함.
- 3) 대상 기간: 2024년 4월 1일 ~ 2025년 3월 31일 사이에 이용한 서비스

2024년 03월 29일

출처 : <https://www.city.kyoto.lg.jp/hagukumi/page/0000323959.html>

3. 임부 원거리 분만 시설에 대한 교통비 및 숙박비 지원 사업 실시

■ 사업 목적

- 원거리 분만 시설에 대한 교통비 및 숙박비 지원 사업은 지방의 부족한 출산 의료체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임부의 거주지와 상관없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임신, 출산을 할 수 있고 적절한 의료 및 보건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전국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제도임.
- 원거리 분만 시설에서 출산할 필요가 있는 임부에게 해당 분만 시설 이동에 드는 교통비 및 출산까지 해당 분만 시설 근처에서 대기하기 위한 인근 숙박시설의 숙박비(출산일 기준 입원 전날까지)를 지원함으로써 임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함.

■ 실시 주체

- 본 사업의 실시 주체는 지자체(특별구 포함)로 함. 또한 본 사업의 취지를 이해하고 적절한 실시를 기대할 수 있는 단체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음.

■ 지원 대상

- 지원 대상자는 이하 1) 또는 2)에 해당하는 임부로 함.
 - 1) 주소지(본가에 거주 중인 경우는 본가 주소지를 기준으로 함)에서 가장 가까운 분만 시설(임산부 수용이 가능한 분만 시설에 한함)까지 약 60분 이상의 이동 시간이 필요한 임부
 - 2) 의학적 이유 등으로 출산 전후 모자(母子)의료센터에서 분만을 해야 하는 임부로, 주소지에서 가장 가까운 모자의료센터(해당 임산부 수용이 가능한 모자의료센터에 한 함)까지 약 60분 이상의 이동 시간이 필요한 임부

■ 사업 내용

- 지리적 이유(지원 대상 1))에 해당하는 임부를 대상으로 1) 및 2)를 지원함.
 - 1) 교통비: 해당 임부의 주소지에서 가장 가까운 분만 시설까지의 이동에 소요된 비용(왕복분)을 ‘교통비 및 숙박비 지원금 산출 방법’을 기준으로 산출한 교통비로 지원함.
 - 2) 숙박비: 해당 임부가 출산까지의 기간 동안 주소지에서 가장 가까운 분만 시설의 인근 숙박 시설(해당 분만 시설까지 신속히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숙박 시설을 말함)에서 숙박한 경우, 숙박에 소요된 비용(출산 기준 입원 전날까지로 최대 14박분)에 대해 ‘교통비 및 숙박비 지원금 산출 방법’을 기준으로 산출한 숙박비를 지원함. 이 경우 1)의 교통비는 ‘가장 가까운 분만시설’을 ‘가장 가까운 분만시설 인근의 숙박시설’로 대체함.
- 의학적 이유(지원 대상 2))에 해당하는 임부에 대하여 1) 및 2)를 지원함.
 - 1) 교통비: 해당 임산부의 주소지에서 가장 가까운 모자의료센터까지의 이동에 소요된 비용(왕복분)을 ‘교통비 및 숙박비 지원금 산출 방법’을 기준으로 산출한 교통비를 지원함.
 - 2) 숙박비: 해당 임부가 출산까지의 기간 동안 주소지에서 가장 가까운 모자의료센터의 인근 숙박시설에서 숙박한 경우, 해당 숙박에 소요된 비용(출산일 기준 입원 전날까지로 최대 14박분)에 대하여 ‘교통비 및 숙박비 지원금 산출 방법’을 기준으로 산출한 숙박비를 지원함. 이 경우 1)의 교통비는 ‘가장 가까운 모자의료센터’를 ‘가장 가까운 모자의료센터의 인근 숙박시설’로 대체함.

■ 교통비 및 숙박비 지원금 산출 방법

- 1) 교통비: 지원 대상 임부가 주소지에서 가장 가까운 분만 시설 또는 모자의료센터까지 택시로 이동한 경우 실비에 0.8을 곱한 금액, 기타 이동수단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여비규정에 준하여 산출한 금액(실비를 상한으로 함)에 0.8을 곱한 금액으로 함.
- 2) 숙박비: 지원 대상 임부가 주소지에서 가장 가까운 분만 시설 또는 모자의료센터 인근 숙박 시설에서 숙박한 경우 실비에서 1박당 2,000엔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 정부 보조 등

- 지자체의 본 사업 실시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지자체가 속한 도도부현이 보조하고, 정부는 해당 도도부현이 보조한 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교부 요강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함.

2024년 04월 18일

출처 : https://www.cfa.go.jp/assets/contents/node/basic_page/field_ref_resources/d4a9b67b-acbd-4e2a-a27a-7e8f2d6106dd/74cc36be/20240416_policies_boshihoken_tsuuchi_2024_21.pdf

4. 지역 저출산 대책 중점 추진 교부금

■ 2024년도 당초 지역 저출산 대책 중점 추진 교부금 예산은 10억엔이며, 2023년도 추경예산은 90억엔임.

■ 지역 저출산 대책 중점 추진사업

- 지방 공공 단체가 실시하는 다음의 저출산 대책을 지원함.

1) 지역 결혼 지원 중점 추진 사업(보조율: 3/4, *2/3)

- 지자체 간 연계가 필요한 시책
- AI를 비롯한 매칭 시스템 고도화 사업
- 지역의 결혼 지원 자원봉사자·사업자 등을 활용한 결혼 지원 확충 사업
- 객관적 데이터 등에 기초한 지역 과제 분석을 토대로 결혼 지원 시범사업
- 청년 세대를 위한 종합적인 라이프 디자인 세미나

* 기타 지원 사업은 보조율 2/3 지원

2) 결혼 지원 컨시어지 사업(보조율: 3/4)

- 각 광역자치단체에 전문적인 식견을 지닌 자를 관리자로 배치하여 각 지자체의 결혼 지원을 기술적·정보적으로 지원

3) 결혼, 임신·출산, 육아에 따뜻한 사회 분위기 조성 사업(보조율: 2/3, *1/2)

- 지자체 간 연계가 필요한 시책
- 지역 전체에 결혼·육아를 응원하는 분위기 조성
- 남성의 육아휴직 부여와 가사·육아 참여 촉진
- 다양한 근로 방식의 실천 모델 확보
- 육아 세대와 아동과의 만남 체험사업
- ICT 활용, 민관 연계 등을 통한 결혼 지원을 확충하기 위한 조사연구

* 기타 사업은 보조율 1/2로 지원

■ 결혼 신(新)생활 지원 사업(보조율:1/2, 2/3)

- 지방 공공 단체가 실시하는 결혼 신생활 지원사업(결혼으로 인한 새로운 생활을 경제적으로 지원(월세, 이사비용 등을 보조)함.
- 대상 가구: 부부 모두 39세 이하 및 가구 소득 500만 엔 미만
- 대상 경비: 혼인에 따른 주택 취득 비용, 리모델링 비용, 주택임차비용, 이사비용

1) 도도부현 주도형 지자체 연계형(보조율: 2/3)

- 광역 자치 단체가 주도하여 관내 기초지자체 내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확대하고 지역 내에서 끊임없는 결혼·육아 지원 체제 구축을 촉진하고자 함. 최대 지원금은 부부 모두 29세 이하인 경우 60만 엔, 30세~39세 이하는 30만 엔임.

2) 일반형(보조율: 1/2)

- 최대 지원금은 부부 모두 29세 이하인 경우 60만 엔, 30세~39세 이하는 30만 엔임.

2024년 05월 24일

출처 : https://www.cfa.go.jp/assets/contents/node/basic_page/field_ref_resources/2c421502-e00a-4b6f-b1be-a6840f16ee9d/869b7c30/20240524_policies_shoushika_koufukin_r6_01.pdf

5. 지역 저출산 대책 중점 추진 교부금의 활용

■ 치바현과 현내 지방 공공 단체는 지역 사회의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해 어린이 가정청의 '지역 저출산 대책 중점 추진 지원금'을 활용해, 결혼, 임신, 출산, 육아의 '끊임없는 지원'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실시하고 있음. 본 지원금을 활용하는 각 지자체가 지역의 실정이나 과제에 맞는 종합적인 저출산 대책을 실시함.

■ 지원 예시

- 1) 지역 결혼 지원 중점 추진 사업: 결혼에 관한 이벤트 및 상담, 매너 등을 배우는 스کیل업 세미나 실시 등
- 2) 결혼, 임신, 출산, 육아에 따뜻한 사회 만들기·분위기 조성 사업: 초·중·고 학생과 영유아 부모&자녀의 만남 체험, 라이프 디자인 교육, 육아 지원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등. 일례로, LINE 공식 계정을 통해 육아 관련 새로운 제도나 거주 지역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 정보, 어린이 식당, 육아 세대 우대 점포, 그 외 상담 대응 등 각종 기능을 제공함.

■ 2024년도 치바현 실시 계획 공표

- 1) 현내 기업 등과 연계한 라이프디자인 세미나
 - 젊은 세대가 결혼, 육아, 일 등 인생에서 맞이하는 여러 가지 이벤트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종합적으로 습득하여 미래의 라이프 디자인을 희망을 가지고 그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라이프 디자인 세미나를 개최함.
 - 각각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프리 콘셉트 케어 동영상 '당신의 라이프 디자인에 대해 생각해 볼래요?'를 총 5종 제작, 2024년 2월부터 2026년 3월 말까지 공개함.
- 2) 메타버스를 활용한 결혼 활동 지원 사업
 - 인터넷상의 가상 공간(메타버스 공간)을 활용해 참가자 본인이 작성한 아바타를 통한 1대 1 대화 매칭 등을 제공해 결혼을 희망하는 자에게 만남의 기회를 제공함.
- 3) 저출산에 관한 청년층의 의식 등 조사 사업
 - 치바현의 '희망 출산율' 등 주로 현내 거주하는 만 18세~39세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저출산, 결혼, 임신, 출산과 같이 아이를 갖는 것, 육아 등에 관한 인식을 조사함. 치바현에서 저출산 대책을 목적으로 한 인식 조사는 실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출산 대책의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해 본 현의 실정이나 과제를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4) 육아 응원! 치패스(pass) 사업(기업 참여형 육아 지원 사업)의 협찬 점포 확대 사업

- 치바현에서는 현 전체가 육아 가정을 응원하기 위해 2012년부터 기업 참여형 육아 지원 사업으로 사업주의 협조를 얻어 '육아 응원! 치패스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2021년도에 자녀의 대상 연령을 '중학교 수료까지'에서 '18세 미만까지'로 확대하고 웹사이트 앱 '치패스 스마일'*에서 '치패스'의 전자판을 배포하기 시작함. 2024년도는 해당 지원금을 활용해 신규 협찬 점포를 늘릴 수 있도록 사업주 대상 활동을 실시할 계획임.

※ 치패스 스마일: 결혼, 임신, 출산, 육아까지 각 단계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치바현이 개발한 전용 웹사이트 및 앱

2024년 08월 08일

출처 : <https://www.pref.chiba.lg.jp/kosodate/syousikakouhukin.html>

❖ 일·가정 양립

1. 마더스 헬로 워크 아мага사키

■ 7월 29일 아мага사키시에 오픈한 마더스 헬로 워크는 ‘헬로 워크 아мага사키’의 마더스 코너가 리뉴얼한 것으로, 효고현 내에서는 고베·산노미야에 이은 두 번째 시설임. 마더스 헬로 워크에서는 주로 육아 중인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면서 육아와 병행하기 좋은 직업 소개나 어린이집 정원 현황 등 육아 지원 정보도 제공하며, 그 외에도 취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도 개최함. 이 시설에서는 보육교사가 있는 키즈 공간과 수유실을 완비하고, 상담 창구는 유모차를 둘 수 있도록 넓게 설계되는 등 아이를 동반해도 안심하고 상담하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음. ‘마더스 헬로 워크 아мага사키’는 온라인 상담도 대응함.

■ 대상

- 아이와 함께 방문하여 취업 상담을 받고 싶은 자
- 육아와 병행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은 자
- 육아가 안정되어 취업 활동을 시작하고 싶지만, 경력에 공백이 있어 불안한 자
- 미래에 일과 육아의 병행을 희망하는 자

■ 지원 내용

- 직업 상담 및 직업 소개(Zoom을 이용한 온라인 상담 및 소개도 진행함)
- 담당제 및 예약제를 통한 상담 및 지원
- 지원 서류 작성 지원 및 면접 시 필요한 내용 조언
- 육아와 병행하기 좋은 구인 정보 제공
- 어린이집 정원 정보 등 육아 지원 정보 제공
- 취업 지원 세미나 개최

■ 장점

-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을 접수함
- PC로 지원 서류 작성 가능
- 전담 상담자가 배정되어 꼼꼼한 상담이 가능

2024년 07월 29일

출처 : https://jsite.mhlw.go.jp/hyogo-roudoukyoku/newpage_00551.html

2.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 방침 2024(육아 단축근무 지원금)

■ 젊은 세대의 소득 증가와 사회 전체의 구조·의식의 변혁, 모든 아동·육아 세대에 대한 끊임없는 지원이라는 관점에서 개정판 <아동·육아 지원법>을 시작으로 가속화 플랜*에 포함된 시책을 충실히 실시할 예정임.

■ 구체적으로는 경제적 지원 강화(올해 10월분 아동수당부터 근본적인 확충, 출산 등 경제적 부담 경감, 고등교육비 부담 경감, 주택 지원 강화 등), 모든 아동·육아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확충(반주형 상담 지원, 보육교사·유치원 교사 등의 처우 개선, 보육교사 배치 기준 개선, 어린이 누구나 통원 제도, 방과후 아동 대책, 다양한 지원 요구에 대한 대응 등), 맞벌이·공동육아 추진(2025년도부터 산후 휴직 지원금과 육아 단시간 취업 급부 창설 등)에 힘씀.

■ 관련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개혁 공정에 근거한 철저한 세출 개혁 등을 추진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부담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2026년도부터 아동·육아지원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 정비 등을 추진함. 아울러 민관이 연계하여 사회 전체가 아동·육아 세대를 지원하는 의식을 양성하는 제도를 추진할 것임.

※ ‘어린이 미래 전략’ (2023년 12월 22일 각의 결정)에 기초한 아동·육아지원 가속화 플랜

■ 육아 단축근무 지원금이란 육아를 위해 단축 근무를 하여 수입이 줄어든 경우, 그 수입을 보충해 주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임. 구체적으로는 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단축 근무를 한 경우, 단축 근무 전 급여의 약 10%가 지급됨.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육아와 취업을 병행하기 쉬운 직장 환경을 갖추는 것에 있음.

■ 지급 요건

- 육아 단축근무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1) 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단축 근무를 하는 경우
 - 2) 이하 A~C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A: 단축 근무 개시 전 2년간 피보험자 기간이 12개월 이상일 것
 - B: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경우, 육아휴직 종료 후 계속해서 육아 단축근무를 사용하는 경우
 - C: 출생 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경우, 육아휴직 종료 후에 계속해서 육아 단축근무를 사용하는 경우

■ 육아 단축근무 지원금 지급액

- 지원금은 원칙상 육아 단축 근무를 개시하는 시점의 임금의 10%임. 다만, 단축 근무기간 중에 지불된 급여 금액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급여 금액에 따라 지급액이 감액됨.

2024년 07월 03일

출처 : <https://www.mhlw.go.jp/content/12401000/001270729.pdf>

3. 한부모 가정 등 일상생활 지원사업

- 한부모 가정에서 1) 취업 활동이나 질병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생활 지원이나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2) 영유아 또는 초등학교 취학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 야근으로 인하여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가정 생활 지원원(홈 헬퍼 2급 등의 자격을 보유하고 육아 지원 연수를 수료해, 한부모 가정 지원 센터에 등록된 자)을 파견함. 이용은 1, 2의 경우 모두 원칙상 연 20회에 한하여 실시함. 지역이나 날짜, 지원 내용, 세대 상황에 따라 파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한부모 가정 지원 센터로 문의해야 함.

■ 지원 내용

- 영유아, 아동 돌봄
- 식사 지원
- 주택 청소

- 잠자리 돌봄
- 생필품 구매, 장보기 등
 - 1) 사전등록이 필요하며 신청처는 한부모 가정 지원 센터임
(신청서는 각 구청 육아지원과 가정 아동상담실에도 비치되어 있음)
 - 2) 이용을 희망할 때마다 한부모 가정 지원 센터에 전화로 파견을 요청함.

■ 이용요금(시간당)

-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주민세 비과세가구: 무료 (육아지원) (생활지원)
- 생계 중심자의 전년(1월부터 7월까지 전전년) 소득이 아동부양수당법 시행령 제2조 4 제2항에 규정된 금액 미만인 가구: 70엔(육아지원), 150엔(생활지원)
- 기타 세대: 150엔(육아지원), 300엔(생활지원)
 - ※ 육아 지원은 아동 수에 따라 비용 부담이 다를 수 있음.

2024년 11월 27일

출처 : <https://www.city.fukuoka.lg.jp/kodomo-mirai/k-katei/child/hitorooyakateinitijouseikatushien.html>

4. 휴일 보육

■ 휴일 보육이란 후쿠오카 지역 내 인가보육시설 등에 입소한 아동의 보호자가 일요일, 공휴일에 취업 등으로 인해 아동을 보육할 수 없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임.

■ 이용 안내

- 1) 대상 시설: 현재, 시내 13개 시설에서 휴일 보육을 시행하고 있음(공립 5곳, 사립 8곳).
- 2) 대상 아동: 현재 후쿠오카 지역 내 인가보육시설 등에 다니고 있는 아동으로, 보호자의 업무 등 보육시설 이용 요건과 동일한 이유로 휴일에 보육이 필요한 아동
- 3) 이용 시간: 오전 7시에서 오후 6시까지
- 4) 이용 요금: 월 보육료에 포함됨.

■ 이용 시 주의사항: 휴일 돌봄을 이용한 경우, 월~토요일 중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날, 즉 대체 휴일을 정해야 함.

■ 이용 절차: 휴일 보육 시설에 사전 신청이 필요함.

2024년 11월 27일

출처 : https://www.city.fukuoka.lg.jp/kodomo-mirai/hoiku/child/Index_2_2_2_2.html#kouritsuhoikusyo

☞ 양육지원

1. 2023년도 교토시, 어린이 공간 및 육아 세대 식품 배송 사업에 대한 임시 지원금 지급

■ 교토시에서는 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도 육아 세대를 지원하는 어린이 식당 등의 어린이 공간 조성 및 육아 세대에 식품 배송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가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함.

■ 지급 대상 단체

- 대상 사업을 운영하고 교토시에 본사가 있는 단체 및 그룹

■ 지급 대상 사업

- 어린이 공간 또는 육아 세대를 대상으로 한 식품 배송 사업

1) 공통

- 이용자 부담이 무료 또는 저렴할 것
- 2023년도를 기준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을 것(단, 연 도중에 개시한 사업도 포함함)

2) 어린이 공간

- 어린이 공간 서비스를 월 1회 이상 실시할 것
- 어린이 식당은 회당 약 5끼 이상 제공할 것
-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은 하기의 사항을 실시하고 있을 것
 - ① 후생노동성이 배포한 ‘어린이 식당의 위생 관리 포인트’에 유의하여 어린이의 식품 알레르기 유무 등에 대한 배려를 할 것
 - ② 교토시 식품위생법 등의 시행에 관한 요강을 기초로 신고할 것

3) 육아 가정을 대상으로 한 식품 배송 사업

- 1회당 약 20세대 이상에 배송할 것

■ 지급액

구분		지급금액	요건1	요건2
어린이 공간	어린이식당 (식사제공 있음)	100,000엔	월 복수 실시	지원금은 지급 대상 사업에만 사용할 것
		50,000엔	월 1회정도 실시	
	학습지원 등 (식사 제공 없음)	30,000엔	-	
육아 세대 식품 배송 사업		500,000엔	-	

※ 사업을 지속 시행하고 연간 12일 실시하였으면 월 1회 실시로 인정함.

■ 신청기한 및 방법

- 2024년 3월 22일까지, 전자 신청서 또는 메일/우편으로 자료 제출

2024년 01월 22일

출처 : <https://www.city.kyoto.lg.jp/hagukumi/page/0000321497.html>

2. 육아 지원 포털사이트 ‘하구쿠모(키우자) KYOTO’, 교토 하구쿠미(육아)앱

■ 교토시는 2015년부터 당시 육아 세대를 중심으로 급속히 보급되던 스마트폰 전용 ‘교토 하구쿠미 앱’ 등을 독자적으로 개발·운영하며 육아 관련 정보를 적극 전달해 왔음. 이에 최근 육아 관련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받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육아 지원 포털 사이트와 육아 앱을 전면 리뉴얼할 계획임.

■ 육아 지원 포털 사이트 하구쿠미 KYOTO는 육아 정보를 종합적으로 얻을 수 있는 도구로, 필요한 정보를 보고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교토시의 매력적인 육아 환경을 알릴 수 있도록 향후에 충실하게 운영할 것임.

■ 육아 지원 포털 사이트&교토 하구쿠미 앱 리뉴얼 개요

1) 육아 지원 포털 사이트 리뉴얼

- 매력 있는 육아·교육 환경을 충실히 전달할 것
- 육아 지원 정보, 이벤트, 시설 정보 등 육아 지원 시책을 체계적으로 알기 쉽게 전달할 것

2) 교토 하구쿠미 앱 업데이트

- 임신 단계부터 육아 시책을 푸시 알람으로 전달
- 각종 검진 등의 기록, 예방접종 일정 관리도 앱에서 가능하게 함.

3) AI 챗봇 도입

- 24시간 365일 이용 가능한 자동 응답 서비스
- 육아 시책에 관한 일반적인 궁금증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육아 지원 포털 사이트

- 육아 관련 행정 정보를 정리하여 열람 가능
- 교토시의 육아, 교육 환경의 매력 포인트를 볼 수 있음.
- 행정 서비스와 이벤트 정보 등을 연령, 목적별로 검색 가능
- 지도에서 보육 시설, 교류, 놀이 시설을 찾을 수 있음.

■ 교토 하구쿠미 앱

- 아이의 성장과 일정을 편리하게 관리 및 공유
- 기록: 예방 접종이나 건강 진단 결과, 임신 중이나 육아 중의 성장 데이터와 메모 등
- 공유: 임신 중 정보나 아이의 성장 기록을 가족과 공유 가능
- 공지사항: 거주 지역에 맞는 맞춤형 알람, 접종 예정일 알람
- 24시간 365일 대응 가능
- 인터넷 환경을 쓸 수 있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
-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각종 단말기에서 일반적인 브라우저로 이용 가능
- AI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음 ※생성AI 아님.

2024년 01월 04일

출처 : <https://www.city.kyoto.lg.jp/hagukumi/page/0000321278.html>

3. 육아 응원대 파견사

■ 임신 중이나 출산 후에 가족이나 친족의 도움을 받을 수 없거나, 육아와 가사 병행이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간단한 가사를 돕는 '육아 응원대'를 파견함.

■ 이용 대상

- 1) 임신부(아이즈시에 거주하는 자)
- 2) 3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보호자(아이즈시에 거주하는 자)
 - 1) 또는 2)에 해당하는 자로, 핵가족 세대나 가족이 전원 취업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가족이나 친족으로부터 육아나 가사의 협조를 받을 수 없는 자가 대상임.

■ 서비스 내용

- 1) 가사에 관한 일
 - 식사 준비와 뒷정리
 - 옷 세탁, 단추 달기와 같은 간단한 수선
 - 방 청소 및 정리정돈
 - 상기 지원에 필요한 생활용품 구입(법령상 구입만 하는 행위는 불가)
 - 관련 기관과의 연락 조정
 - 기타 시장(市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가사 지원
- 2) 육아에 관한 일
 - 수유나 식사 시의 아이 케어
 - 기저귀 갈기
 - 목욕 지원
 - 놀이 제공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육아 지원

■ 이용 시간

-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 사이(주말, 공휴일, 연말연시(12. 29~1. 3) 휴무)

■ 이용 요금

- 1회 2시간 파견이 기본 단위이며, 1회 이용 시 500엔(한화 약 4,430원)을 부담

■ 이용 횟수

- 임신부: 출산 후 40시간까지(다태아 임신부는 60시간까지)
- 만3세 미만의 자녀 양육자: 3세 때까지 최대 120시간(신청 당시의 자녀 나이에 따라 횟수가 달라짐)

2024년 02월 08일

출처 : <https://www.city.yaizu.lg.jp/child-edu/kodomo/mokuteki/torikumi/support/ouentai.html>

4. 2024년도 치바현 육아지원단 연수

■ 치바현에서는 보육이나 육아 지원에 관심을 갖고 해당 분야에 종사를 희망하는 자, 또는 종사하고 있는 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지식이나 역량 등을 습득하기 위한 연수를 실시함.

■ 대상

- 현내에 거주 또는 재직(보육 등 육아 지원 관련)하는 자로, 치바현 내에서 보육이나 육아 지원 등의 분야에 종사를 희망하는 자, 또는 종사하고 있는 자 등(연령·보유자격에 따른 제한은 없음).

■ 연수 종류와 대상자

1) 공통 과정

- 치바현 거주 또는 재직자로 육아 경험 및 관련 경력 등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지역의 육아 지원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다음의 육아 지원 분야의 각 사업 등 직무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자 및 현재 종사하는 자

2) 지역사회 보육 과정

① 지역형 보육

- 소규모 보육의 보육종사자(보육교사 외)
- 가정 보육의 가정 보육 보조자
- 사업소 내 보육종사자(보육사 외)

② 임시 보호 사업

- 임시 보호 사업 관련 보육 종사자(보육교사 외)

③ 가족 지원 센터 사업

- 육아 보조 활동 지원 사업 제공 회원

3) 지역 육아 지원 과정

① 지역 육아 지원 거점 사업의 전임직원: 육아 가정의 수요를 파악하여 지역의 보육 시설에 대한 정보 제공과 상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의 전임 직원용 과정

- 이용자 지원 사업(기본형)
- 이용자 지원 사업(특정형)

4) 방과 후 아동 과정

- 보육이나 육아 지원 분야 중 방과후 아동 건전 육성 사업(방과 후 아동 클럽)의 보조원 직무에 현재 종사하는 자 및 종사를 희망하는 자

5) 사회적 양육 과정

- 보육이나 육아 지원 분야 중에서 사회적 양육 시설(보육원, 아동양육시설 등)의 보조적 직원 등의 직무에 현재 종사하는 자 및 종사를 희망하는 자, 또는 치바현에 거주하는 입양 부모 및 입양 부모에 관심이 있는 자

■ 신청 및 연수 문의처

- 연수 내용에 관한 질문, 신청 등은 위탁처인 (주)도쿄 리걸 마인드에 문의

2024년 09월 25일

출처 : <https://www.pref.chiba.lg.jp/kosodate/sougou/kosodatesienin/kensyu/kosodatesienin/r6kensyu.html>

5. 엄마 케어 데이 서비스

■ **엄마 케어 데이 서비스**는 1세 미만의 아기가 있는 엄마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도와주는 휴식 공간임. 보육교사 등 전문가에게 육아 상담을 받거나 다른 엄마와의 교류를 즐길 수 있으며, 엄마가 재충전을 위한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음. 필요에 따라 직원이 육아를 도와주기도 함.

■ 이용 자격

- 시즈오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생후 4개월 이상 1세 미만의 자녀와 엄마
- 방문 시 '시즈오카시 어린이 의료수급자증' 등 자녀의 주소와 생년월일을 알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해야 함.
- 미취원 형제와 동반 참가도 가능함.
- 엄마와 자녀 모두 의료행위가 필요 없는 자(발열 등 감염병이 의심되는 자는 이용 불가)

■ 이용 시간 및 요금

- 이용 시간은 대략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시설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1회 1,500엔. 별도로 점심값 등은 시설에서 현장 지급해야 함. 추후 시즈오카시에서 납부서가 청구됨.
 - ※ 미취원의 형제를 동반한 참가의 경우도 기본 추가 이용료는 발생하지 않음.

■ 프로그램 구성

- 1) **엄마와 자녀의 교류·놀이 타임**
 - 선배 엄마와의 교류, 아이와의 교감 놀이나 그림책 읽어주기 등 놀이 시간
- 2) **육아 상담**
 - 육아에 관한 상담을 직원(전문가나 선배 엄마)이 대응해 줌.
- 3) **휴식 타임**
 - 엄마의 요청에 따라 직원이 자녀를 돌보는 것도 가능함. 가령 '천천히 식사를 하고 싶다', '여유롭게 샤워를 하고 싶다', '몸을 움직이고 싶다' 등

2024년 09월 30일

출처 : <https://www.city.shizuoka.lg.jp/s2873/s001934.html>

6. 신(新) 육아 가족 지원 사업

■ 신(新) 육아 가족 지원 사업은 육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의뢰자)’와 ‘지원하는 자(제공자)’가 회원이 되어, 보육 시설 등의 등하원이나 방과 후 돌봄, 보호자의 급한 응무나 질병 시, 가벼운 질병을 앓는 아동의 돌봄 등을 지역 안에서 서로 지원하는 사업임. 지금까지, <안심 육아 만남 사업>을 통해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한 지원 범위를 확장하였는데, <신(新) 육아 가족 지원 사업>을 통해 육아 세대가 보다 이용하기 쉽고, 지원하는 쪽도 보다 활동하기 편한 구조가 되도록 제도를 개편함.

■ 활동 내용 및 이용 순서

1) 활동 내용: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 아동(돌봄교실) 클럽 등의 시작 전 및 종료 후 영유아 및 아동의 보육, 어린이집 등하원 등

2) 이용 순서

<의뢰자>

- 회원가입(의뢰 내용 확인) → 제공자 소개 → 의뢰자와 제공자 간 사전 협의 → 매칭 성립 (지원 필요 시 즉시 활동)

<제공자>

- 회원가입+연수회 수강 → 신(新) 육아 가족 지원 센터로부터 의뢰자 지원 신청 연락 → 의뢰자와 제공자 간 사전 협의 → 매칭 성립(지원 필요 시 즉시 활동)

■ 자격 요건

- 의뢰자: 기타큐슈시 거주 또는 근무자로 생후 3개월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의 아이를 맡기고 싶은 자
- 제공자: 기타큐슈시에 거주하며, 심신이 건강하고 자택 등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자. 특별히 자격이나 경험은 무관하나, 활동 전에 연수를 수강해야 함.

■ 이용 시간과 요금

- 의뢰 회원이 제공 회원에게 지불하는 이용 요금을 기존 800엔에서 500엔으로 인하함. 반면, 제공 회원이 받는 보수액은 800엔에서 1,000엔으로 인상함. 차액 500엔은 지자체가 부담함.
- 월요일~토요일 7시부터 19시(1시간: 500엔)
- 상기 외 시간 및 일요일, 공휴일(1시간: 600엔)
- 질병 지원(가벼운 감기 등) (1시간: 600엔)

■ 택시를 이용한 이동 지원(2024년도 시범사업)

- 기타큐슈 시의 택시 협회와 연계하여 택시를 이용한 이동을 지원함. 제공 회원은 편리한 배차 어플리케이션으로 전자쿠폰 등을 이용하여 배차부터 픽업까지 원활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대상 회원 1인당 1,000엔 쿠폰을 3개월마다 6장씩 발급해줌.

2024년 12월 03일

출처 : https://www.city.kitakyushu.lg.jp/contents/924_10272.html

❖ 유아교육·보육

1. 어린이집 등의 업무 효율화 추진 사업(보육 시설 등에서의 ICT 도입 실태 등 조사 연구 사업) (2024년도 추경예산)

■ 보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보육교사의 구인 비율이 전 직종의 평균을 웃도는 등 인재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으로, 보육 업무의 ICT화 등을 통해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함. 또한 어린이가정청에서는 보육 현장에서의 DX(디지털 전환) 추진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 본 실태조사는 보육시설 등에서의 ICT 도입 상황 등을 조사함으로써 향후 정책 검토를 위한 기초적인 데이터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실시 주체

- 지원 조건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체여야 함.
 - 1) 법인 규모
 - 2) 본 사업을 적확하게 수행하기에 충분한 조직, 인원 등을 보유할 것
 - 3) 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영 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자금 등에 대해 충분한 관리 능력 및 정산을 적정하게 실시하는 경리 체제를 보유할 것
 - 4) 어린이가정청으로부터 보조금 등이 지급정지된 기간이 아닐 것

■ 조사 항목 및 방법

- 조사 항목에 하단 기술 항목을 최소 포함시킬 것. 기타 항목은 별도 협의를 통해 결정함.

- 1) 시설 기본 정보
 - ① 시설 종류
 - ② 운영 구분(공립, 사립) 및 법인 종류별
 - ③ 소재 지역
 - ④ 시설 정원 수(이용 정원)
 - ⑤ 사용 환경(단말기 수, 네트워크 환경 등)

- ⑥ 직원 체제(배치 수 등)
- ⑦ ICT 도입 상황(시스템 유무, 도입 비용, 경상 비용 등)
- ⑧ 기타 (협의 후 결정)

2) ICT 활용

- ① 원아의 등원 및 하원 관리에 관한 기능
- ② 보육료·연장 보육료 계산에 관한 기능
- ③ 보호자와의 연락에 관한 기능
- ④ 직원 간의 연락에 관한 기능
- ⑤ 직원의 출퇴근 관리에 관한 기능
- ⑥ 보육에 관한 계획·기록에 관한 기능
- ⑦ 아동표 작성에 관한 기능
- ⑧ 카드 결제 기능
- ⑨ 낮잠 센서 등 ①~⑧을 제외한 기타 ICT 도구
- ⑩ 각 기능 도입에 따른 업무 개선 효과 등
- ⑪ 기타 (협의 후 결정)

■ 지원 기준액 등

- 1) 지원 기준액: 10,206,000원을 상한으로 함.
- 2) 지원율: 정액(대상 경비의 10/10 상당)
- 3) 실시 기간: 지원 결정일~2025년 3월 31일로 함.
- 4) 지원 대상 경비: 어린이집 등 업무 효율화 추진 사업(그 중 '보육 시설 등의 ICT 추진 상황 등 조사연구 사업'이라 함)을 시행에 필요한 보수, 보상비, 여비, 운영비(인쇄 제본비, 소모품비, 회의비), 역무비(잡역무비, 통신 운반비), 위탁료 및 사용료 등

■ 사업자 결정 방법

- 제출 서류는 별도로 마련한 어린이집 등 업무 효율화 추진 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등 평가 기준 및 채점표를 근거로 엄정하게 심사함.

1) 사전 심사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전 심사에서 채택하지 않음.
 - 가. 사업 내용이 조사항목에서 정한 대상 업무와 명백히 일치하지 않은 경우
 - 나. 사업 내용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
 - 다. 재무제표 등의 회계 서류상 법인 경영 상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라. 제출 서류가 모두 제출되지 않은 경우
- 또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서류를 받지 않고 반려함.
 -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지원한 경우
 - 복수의 단체가 연속으로 신청한 경우
 - 지정된 기한을 넘겨 서류가 제출된 경우

2) 검토 위원회의 심사

- 신청자 중 사전 심사에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검토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채택 여부를 결정함.

2024년 06월 03일

출처 : https://www.cfa.go.jp/assets/contents/node/basic_page/field_ref_resources/2493bbde-4ee2-459f-b20a-e8f748d58a0f/cbe72a02/20240530_procurement_r6hoikuictkoubo_01.pdf

2. 제1회 ‘어린이 누구나 등원의 제도화, 본격 실시를 위한 검토회’ 개최

■ 2024년 6월 26일(수) 10시, 어린이가정청에서 어린이 누구나 등원 제도의 제도화, 본격 실시를 위한 제1회 검토회를 개최함.

■ 어린이 누구나 등원 제도<아동·육아지원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24년 법률 제47호)

1. 제도 개요

○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유아 등원 지원 사업'(※1)

(※1) 어린이집, 기타 내각부령에서 정한 시설이 만 3세 미만 영유아에게 적절한 놀이 및 생활 공간을 제공하고, 이와 동시에 해당 영유아 및 보호자의 심신 상황과 육아 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보호자와 면담 및 보호자에게 육아 정보 제공, 조언, 기타 지원을 실시하는 사업임.

○ 아동·육아지원법에서 '아동을 위한 교육·보육 지원금'과는 별도로 '유아 등을 위한 지원금'을 규정함.

○ 이용 대상자는 만3세 미만의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으로, 아동을 위한 교육·보육 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2)로 하며, 월 일정 시간까지 정해진 범위(※3)에서 이용 가능

(※2) 0세 6개월까지는 반주(伴走: 옆에서 함께 움직이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안내해주는 지원)형 상담지원 사업 등 별도의 제도가 있음. 많은 사업소에서 0세 6개월 이전에 등원하는 것은 아동 안전 등의 우려가 있어 0세 6개월부터 만 3세 미만을 기본 대상으로 정함.

(※3) 시정촌은 이용 대상자에게 영아 등 지원금을 지급함. 구체적으로는 내각 총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비용 금액에 이용 시간(10시간 이상이며 통원 지원 체제의 정비 및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내각부령에서 정한 시간이 최대 시간)을 곱한 금액을 지급함.

○ 본 제도를 실시하는 시설은 시정촌의 인가 시스템, 시정촌의 지도 감사, 권고 등을 마련해야 함(※4).

(※4) 정부, 도도부현 및 시정촌 이외의 자가 유아 등 등원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지자체장의 인가가 필요하며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인가함(시정촌은 내각부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거나 참작하여 설비 운영 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

■ 본격 실시를 위한 향후 일정

- 2024년도: 제도의 본격 실시가 시작되며 총 115개 지자체가 참여(2024년 4월 26일 기준)함. 지원 기준 1인당 최대 월 10시간임.

- 2025년도: 법률상 제도화하여 실시 지자체 수를 확충함. 법률상의 지역아동·육아지원 사업의 하나로 정착하도록 함. 2025년도의 지역아동·육아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시정촌에서는 실시

에 앞서 해당 기준을 바탕으로 시행하는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야하며, 시정촌장(長)에 의한 시설 인가 절차가 필요함.

- 2026년도: 법률에 의거한 새로운 지원 제도로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하도록 함(※경과조치 있음). 내각부령에서 정한 이용 범위에 월 일정 시간을 포함함.

2024년 06월 25일

출처 : https://www.cfa.go.jp/assets/contents/node/basic_page/field_ref_resources/38c7e7f0-cf48-480f-8a77-fc324acc9cd7/f0316313/20240620_press_38c7e7f0-cf48-480f-8a77-fc324acc9cd7_02.pdf

3. 어린이 누구나 통원제도의 제도화, 본격 실시를 위한 검토회

■ ‘어린이 누구나 통원제도’를 2025년도에 <어린이·육아지원법>에 기초한 지역아동·육아지원사업으로 제도화하고 실시 지자체를 늘린 후, 2026년도부터 <어린이·육아지원법>을 근거로 한 새로운 지원금 형태로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하기로 함. 따라서 2025년도 제도화 및 2026년도 본격 실시를 위하여 검토가 필요한 쟁점을 안건으로 ‘어린이 누구나 통원제도의 제도화, 본격 실시를 위한 검토회’를 개최함.

■ 어린이 누구나 통원제도란?

- 보호자의 취업 유무나 이유와 상관없이 0~2세의 미취원 아동이 보육 시설을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임. 2023년 6월에 <어린이 미래 전략 방침> 중 하나로 발표된 후 2026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각지에서 시범 사업과 제도 정비를 진행하고 있음. 지금까지 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취업 여부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했으나 향후에는 보호자가 전업 주부(남편)이더라도 이유를 불문하고 이용할 수 있음.

■ 제도의 목적

- 0~2세 아동 중 약 60%는 보육원이나 유치원 등에 다니지 않는 미취원 아동임. 미취원 아동을 키우는 가정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핵가족화나 지역 유대감 저하 등으로 육아가 점점 고립화되는 경향이 지적되고 있음. 이러한 육아 가정의 고립감과 불안감을 경감시켜 모든 아이의 성장을 응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이 누구나 통원 제도가 창설됨.
- 새로운 제도를 이용하면 아이는 가정과 다른 환경이나 사람과의 관계를 경험할 수 있어 성장도 도모할 수 있고, 보호자는 일시적으로 육아에서 해방되어 육아의 고립·불안감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보육자를 통해서 자녀의 성장을 실감하거나 육아 상담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음. 또한

시설측은 비어 있는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과 지원이 필요한 가정의 조기 파악에 기여할 수 있음.

■ 임시 보육과의 차이

- 어린이 누구나 통원제도와 비슷한 제도로 ‘임시 보육’이 있음. 두 제도 모두 임시로 아이를 맡는다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주요 차이는 실행하는 지자체 수와 사업 목적임. 임시 보육은 1,296개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보호자의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가정 보육이 어려운 경우에 임시로 영유아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임. 한편, 어린이 누구나 통원제도는 모든 지자체에서 목적을 불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임.

	어린이 누구나 통원제도	임시 보육
시행 지자체 수	1,718개 시설(전국 지자체)	1,269개 시설(전국 지자체의 약 74%)
시행 장소	어린이집, 인정어린이집, 지역형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 육아거점 등	
대상	0세 6개월~2세의 미취원 아동	가정 보육이 일시적으로 어려운 영유아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질의 육아 환경 정비 • 보호자의 다양한 근로 방식과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자의 육아에 대한 부담 경감 • 영유아의 일시적인 보호와 필요한 보호 실시
이용 방법	지자체와 시설에 따라 정기 이용·자유 이용 등 다양한 방법	
이용 시간	한 달에 최대 10시간 정도로 예상 ※ 1시간 단위 등으로 이용	이용 시간에 제한 없음 ※ 지자체별로 이용 시간 및 횟수 상이
이용 요금	시설에서 직접 징수 ※ 시간 당 약 300~400엔	
계약	사업자와 직접 계약	
시행 방법	일반형, 여유활용형	일반형, 여유활용형 ※ 장애 아동은 주거 방문형 이용이 가능

■ 어린이 누구나 통원제도의 종류

1) 일반형(기존 원생과 합동)

- 보육 시설에 이미 다니고 있는 아동과 함께 보육을 실시하는 방법임. 아이 입장에서 기존 원생과 접촉할 기회가 많다는 것이 특징임. 보육시설의 기존 정원과 상관없이, 어린이 누구나 통원제도의 인원 기준을 충족하면 수용 정원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음.

2) 일반형(전용실 독립 실시)

- 기존 원생과는 별도의 전용 공간을 마련하여 보육을 실시하는 방법임. 전담 직원이 대응하기 때문에 기존 이용 정원에 영향을 주지 않음. 직원과 보육 공간이 확보되면 수용 정원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음.

3) 여유 활용형

- 이용 정원이 미달된 보육시설이 정원 범위 내에서 수용하는 방법임. 아이 기준으로는 기존 원생과의 관계가 많은 점이 특징임. 또한 직원 확보가 비교적 용이함.

2024년 10월 09일

출처 : <https://www.cfa.go.jp/councils/newkyuufudaredemotsuuen/8a6f9bf7>

4. 교육·보육시설 등의 중대사고 방지책을 생각하는 전문가 회의(제22회)

■ 2024년 7월 30일(화) 어린이가정청에서 교육·보육시설 등의 중대사고 방지책을 생각하는 전문가 회의를 실시하였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처 관련 지자체 사례를 공유함.

■ 재발 방지를 위한 대처1

- 어린이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철저한 인식을 위해 인가 외 보육시설 등의 사업자에게 ‘사고 발생 방지의 재철저에 대하여’(통지)를 발표하고, 검증 보고서의 ‘사업자 대상 제언’의 주지, 정부 가이드라인 등의 시설 내에서 철저히 주지할 것을 요청함. 또한 인가의 시설 내에서 유의사항이 직원 등에게 잘 전달되고 있는지에 대해 현장 방문 조사 및 방문 지원 지도를 통해 직원에게 확인함.

■ 재발 방지를 위한 대처2

- 정보 수집을 위한 서식의 배포로서 원 등록 전 건강상태 파악표나 낮잠 체크표의 작성·주지를 추진함.
- 사고 방지에 도움이 되는 보조적인 기기 등을 주지시키기 위해 ‘인가 외 보육시설 보육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수면 중 사고 방지에 필요한 기기의 도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함.

- 출입조사 강화를 위해 지도 감독 기준에 '낮잠 체크시트 활용이나 수면 중 사고 방지에 대해 게시하고 주의 환기에 노력할 것'이라는 항목을 추가함.
- 지도감독 실시요강에 '개선 지도를 반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개선 전망이 없는 경우에는 개선 지도에 그치지 않고 개선 권고를 한다.'는 항목을 추가함.

■ 재발 방지를 위한 대처3

- 수면 중 사고 방지에 필요한 기기의 도입 추진, 체크리스트 확인과 현장 조사 및 순찰 지원 지도 등으로 확인, 철저하게 주지시키고 있음.
- 관리 연수의 충실화 및 시설장 등에 대한 연수 기회 확보를 위해 '시설장은 직원에게 운영 연수 참여를 촉진'이라는 항목을 자체 점검표에 추가하고,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인가 외 시설장을 위한 연수회 DVD를 연수 종료 후 참가 여부에 상관 없이, 연수 DVD를 전 시설에 배포하고 있음. 또한 낙도(落島)에서의 연수 개최, 온라인 연수 실시 등 실시 방법을 변경함으로써 연수 기회를 확보하고 있음.

■ 재발 방지를 위한 대처4

- '인가 외 보육시설 순회 지원 지도 사업'을 실시하고 인가 외 보육시설의 중대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순회 지원 지도원(위탁사업자) 및 지역 순회 지원 어드바이저(각 지역의 인가 어린이집 등의 원장)가 인가 외 보육시설을 방문해 조언·지도를 실시하고 있음.
- 지역 순회 지원 어드바이저는 인가 외 보육시설이 인허가 취득 시나 어려움 등이 있을 때, 같은 지역에 있는 설치자로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같은 지역의 인가 어린이집 등의 원장에게 요청하고 있음.

〈위원들의 주요 의견〉

- 임시 보육의 개념, 배치 기준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누구나 통원제도에서도 같은 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음. 또한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 아이가 오면 보육교사가 그곳에 집중하게 되어 다른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주거나 리듬이 바뀌어 사고를 일으키는 부정적 영향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음.
- 보육교사가 확보하지 못한, 즉 안전 대책을 충분히 취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면 개선 권고, 공표 또는 사업 정지를 포함하여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었을까 생각함.

- 국가의 지도 감독 기준은 있지만, 이러한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폐쇄 명령을 낼 수 있다고 하는 매뉴얼은 정립되어 있지 않음.
- 불이익 처분에 행정이 주저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하나, 불이익 처분에 대해 모든 지자체가 다른 곳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눈치를 보는 느낌이 들고 있음.

2024년 07월 30일

출처 : <https://www.cfa.go.jp/councils/child-safety-kyoiku-hoiku/89345aaa>

❖ 아동·청소년지원

1. 018 서포트 지원금

■ 도쿄에 거주하는 18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에게 인당 월 5,000엔(연간 6만엔)을 지급함으로써 학업 등 아이의 성장을 끊임없이 서포트 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쿄'를 실현하고자 하는 제도

■ 대상자(2024년도분 신청)

- 아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자가 대상이며 소득 제한은 없음.

1) 0세부터 18세가 된 후 첫 3월 31일이 지나지 않은 자

2) 2024년 기준 도쿄에 거주하거나 거주했던 자

※ 매월 1일 기준으로 거주 상황을 확인함.

※ 2024년에 태어난 자, 도내로 전입한 자, 도외로 전출한 자도 대상이 됨.

■ 지급액: 아이 1명당 월 5,000엔

※ 도내에 거주 중이거나 거주하던 시점 기준 개월 수에 맞게 지급함.

※ 매달 1일 기준으로 거주 상황을 확인함.

■ 지급 시기: 2024년도 지급 시기는 다음과 같음.

- 2024년 8월: 4월~7월분

- 2024년 12월: 8월~11월분

- 2025년 4월: 12월~3월분

■ 신청 조건

- 대상자(자녀)가 만 18세 미만인 경우는 보호자 등이 신청해야 함.

- 대상자(자녀)가 만 18세인 경우는 보호자 등 또는 대상자 본인이 신청 가능함.

※ 만 18세는 성인이므로 보호자 등이 신청할 경우에는 대상자의 위임장이 필요함. 대상자가 해외 유학 중인 경우나 신청자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은 상기 외 서류가 추가로 필요함.

- 온오프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함.

■ 유의 사항

1) 과세 관련

- 018 서포트 지원금은 대상자(자녀)의 소득으로 분류됨. 대상 자녀의 1년간 소득이 018 서포트 지원금만 있는 경우는 과세 대상이 아님. 단, 대상 자녀의 수입이 018 서포트 지원금 외에 있는 경우나, 대상 자녀가 일본 외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과세될 수 있음.

2) 기초 생계 급여 지급자의 경우

- 기초 생계 급여를 지급하는 자는 018 서포트 지원금이 수입으로 인정되지 않음.

2024년 12월 03일

출처 : <https://www.fukushi.metro.tokyo.lg.jp/kodomo/kosodate/018>

❖ 기타

1. '아기 후랏토' 사업

■ '아기 후랏토(불쑥, 훌쩍하고 예고 없이 나타나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란 어린 자녀를 둔 보호자가 안심하고 외출할 수 있도록 돕는 정비된 수유나 기저귀 같이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부르는 애칭임. 도쿄도에서는 공원이나 아동관 등의 공공시설과 그 외 어린아이를 데리고 외출하는 인근 지역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음.

■ 아기 후랏토 사업 내용

- 실시 주체: 도쿄도 내에 '아기 후랏토'를 설치하는 자(행정 기관, 민간 불문)
- 사업 내용: '아기 후랏토'를 설치하고 운영·관리 하면서 도가 교부한 적합증(證)을 '아기 후랏토'의 출입구나 창문 등 이용자가 알기 쉬운 장소에 표시함.
- 사업 절차: 사업주는 '아기 후랏토 사업 개시 신고'를 필요 서류와 함께 도쿄도 복지국 어린이·육아지원부 가정지원과 육아사업 담당부서에 제출함.
- 적합증 교부: 제출된 사업 개시 신고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아기 후랏토 마크'가 부착된 적합증을 교부함.
- 신고 시설 공표: 당 홈페이지 및 '도쿄 육아 스위치'에서 '아기 후랏토'의 소재지 및 사업주의 명칭 등을 공표하고, 어린 자녀를 동반한 보호자에게 이용을 홍보함.

■ 설비기준 및 유의점

- 1) 수유 가능 설비: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커튼이나 칸막이 등으로 수유 장소를 구분해야함.
- 2) 기저귀 갈이가 가능한 설비(아기침대, 기저귀 갈이대 등)
- 3) 분유용 급탕 설비: 급탕 설비가 없을 경우, 분유용 정수를 제공하기 위한 대체 방안을 마련해야함.
- 4) 손 씻기 설비
- 5) 냉난방 설비

- 6) 아기 후랏토를 포함한 시설이 전체를 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아기 후랏토 내에 별도의 냉난방 설비를 설치할 필요는 없음.
- 7) 1~4)는 반드시 동일한 실내공간에 마련할 필요는 없으며,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안내하면 충분하다고 인정함.
- 8) 수유나 기저귀 같이 공간은 전용 공간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시설 여건에 따라 다른 용도와 병용해도 무방함. 아기 후랏토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체 장소를 제공해야 함.
- 9) 아기 후랏토 정비 시에는 시설 여건에 따라 다음 사항에 힘써야 함.
 - 아기 후랏토 내 및 출입구의 단차를 없애고, 출입구 부근에 아기 유모차 보관소를 설치하는 등 유모차 이용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함.
 - 영유아를 동반한 부모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마련해야 함.

2024년 02월 21일

출처 : <https://www.fukushi.metro.tokyo.lg.jp/kodomo/kosodate/akachanflat.html>

2. 여성 복지 기금 대출

■ 도쿄도는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여성 복지 기금을 빌려주는 사업을 운영함. 자금의 내용과 대출 한도액, 상환 기간 등은 목적에 따라 11개의 기금으로 구분되며, 각 자금의 한도액 내에서 대출을 실시함.

■ 사업대상

- 도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며, 배우자가 없는 여성 중 1) 또는 2)에 해당하는 자
 - 1) 부모·자녀·형제자매 등을 부양하고 있는 여성(소득제한 없음)
 - 2) 연소득 2,036,000엔 이하로, 과거 한부모 가정에서 20세 이하 자녀를 부양했거나 혼인 경력이 있는 40세 이상 여성

자금종류	대출금 내용	대출 한도액	상환기간 (최장)
사업 개시 자금	사업 개시에 필요한 설비, 기기 등의 구입 자금	3,260,000엔	7년 이내
사업 지속 자금	현재 운영하는 사업 지속을 위해 필요한 상품, 재료 등 구입 자금	1,630,000엔	7년 이내
기능 습득 자금	사업 개시 또는 취업을 위해 필요한 지식 기능 습득을 위해 필요한 자금(수업료, 입학금 등)	월 68,000엔	20년 이내
취업 지원 자금	취업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피복, 신발 등 구입 자금	105,000엔	6년 이내
의료 간병 자금	의료 또는 간병 보험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요한 자금	의료: 340,000엔 특별(소득세비과세 대상): 480,000엔 간병: 500,000엔	5년 이내
생활자금	1. 기능 습득 기간 중 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금 2. 의료 또는 간병을 받는 기간 중 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금 3. 실업 기간 중 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금	월 141,000엔	20년 이내
주택자금	자기 소유 주택의 건축, 구입 등 및 현 거주 주택의 증축 및 개축, 리모델링 또는 유지에 필요한 자금	1,500,000엔 재난, 노후 등으로 인한 건축, 증축, 개축: 2,000,000엔	6년 이내
이사자금	이사에 필요한 토지비, 월세, 이사 비용을 위한 자금	260,000엔	3년 이내
결혼자금	혼인에 필요한 자금	310,000엔	5년 이내
수학자금	고등, 전문대, 대학, 대학원 등 학습에 필요한 자금 (수업료, 시설비, 통학료, 식비, 도서 구매비 등)	160,000엔 ~ 590,000엔 까지 등급별 상이	20년 이내

■ 대출 절차

- 상담원이 대출 상담 후 심사함. 상담에서 대출까지 1~2개월 정도 소요되며 여러 요건이 충족되어야하므로 희망자는 육아 응원과 모자·부자 자립 지원 담당부서에 문의해야 함.

2024년 04월 10일

출처 : https://www.fukushi.metro.tokyo.lg.jp/kodomo/hitorioya_shien/keizai/zyosei.files/R5zyosei.pdf

3. 아동 중앙 실행 계획 2024(개요)

■ ‘아동 중앙 실행 계획 2024’은 <아동기본법>을 기초로 한 아동 대강(2023년 12월 22일 국무회의 결정)에 담긴 6가지 기본 방침 및 중요 사항을 토대로 폭넓은 아동정책의 구체적인 방침을 종합적으로 나타낸 첫 액션 플랜임.

■ 아동과 청년의 권리 보장에 관한 방침과 ‘가속화 계획’ 등의 저출산 대책, 아동 빈곤 대책을 비롯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 아동과 청년 및 가족에 관한 지원 시책 등 387개의 항목을 제시함.

■ 아동 대강의 6가지 기본 방침

- 1) 아동 및 청년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그 다양한 인격·개성을 존중하여 권리를 보장, 아동 및 청년의 현재와 미래의 최선의 이익을 도모할 것
- 2) 아동과 청년, 양육자의 관점을 존중하여 그 의견을 듣고 대화하면서 함께 진행해 나갈 것
- 3) 아동과 청년, 양육자의 생애주기(Life Stage)에 따라 끊임없이 대응하고 충분히 지원할 것
- 4) 양질의 양육 환경을 마련하여 빈곤과 격차 해소를 도모하고, 모든 아동과 청년이 행복한 상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 5) 젊은 세대의 생활 기반을 안정화하고, 다양한 가치관·사고를 고려하여 젊은 세대 입장에서 결혼, 육아에 관한 희망과 실현을 저해하는 문제 해결에 힘쓸 것
- 6) 종합적인 시책을 확보하는 동시에 관련 부처, 지방 공공단체, 민간단체 등과의 연계를 중시할 것

■ 향후 아동 가정 심의회에서 시책 실시 상황과 지표 등을 검증·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매년 근본적인 방침까지 개정하여 관련 부처의 예산 요구 등에 반영하고자함. 이를 통해 시책 점검과 개선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임.

■ 신규·확충 시책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는 동시에 기존 아동 대강에서 정한 지표(75개 지표)와 시책의 진척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288개의 지표를 제시함.

■ 아동 시책에 관한 중요 사항

1) 생애주기를 관통하는 중요 사항

- ① 사회적으로 아동·청년이 권리의 주체라는 인식 제고
 - <아동기본법>과 아동 권리조약에 관한 보급·계발, 학교 교육에서의 인권교육 추진, 상담 구제기관의 사례 주지 등
- ② 다양한 놀이와 체험을 통해 활약할 수 있는 기회 만들기
 - 체험활동 추진, 교육을 통한 남녀 공동 참여 추진 등
- ③ 아동과 청년에게 지속적인 보건·의료 제공
 - 임신 사전 건강 관리(Preconception care) 추진, 모자 보건 정보의 디지털화 등
- ④ 아동 빈곤 대책
 - 교육 지원,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 학부모 취업 지원, 경제적 지원 등
- ⑤ 장애아 지원, 의료적 돌봄 아동 등에 대한 지원
 - 지역의 지원 체제 강화·통합 추진, 통합 교육 시스템(장애 유무로 나누지 않고 모든 아이들을 같은 공간에서 가르치는 이른바 포괄형 교육) 실현을 위한 활동 등
- ⑥ 아동학대 방지 대책과 사회적 돌봄 추진 및 영케어러(Young carer) 지원
 - 아동 가정센터 정비, 가정 지원 추진 등
- ⑦ 아동 및 청년의 자살 대책, 범죄 등으로부터 아동과 청년을 지키는 활동
 - 아동 자살 대책 강화 계획 추진, 아동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마련, 아동 성폭력 방지 법안 제출 등

2) 생애주기별 중요 사항

- ① 아이의 탄생 전부터 유아기까지
 - 출산에 관한 지원 등 추가 강화, 산전·산후 지원 마련과 체제 강화, 영유아 검진 등의 추진, '첫 100개월의 성장 비전'을 바탕으로 한 방안 추진, 유아교육·보육의 질 향상 등

② 학업기·사춘기

- 학교의 업무 방식 개편과 처우 개선, 지도·운영 체제의 통합적 추진, 공간 마련, 따돌림 방지 대책 강화, 등교거부 아동 지원 체제 정비·강화, 교칙 개선, 체벌이나 부적절한 지도 방지 등

③ 청년기

- 고등 교육 확충, 청년 취업 지원, '임금 인상'을 위한 제도, 결혼 지원 등

3) 양육자에 대한 지원

① 육아나 교육에 관한 경제적 부담 경감

- 고등교육비 부담 경감, 아동수당 확충 등

② 지역 육아 지원, 가정 교육 지원

③ 맞벌이·공동육아 추진

- 남성의 가사·육아에 대한 주체적인 참여 촉진·확대, 남성의 육아휴직 지원, 유연한 업무 방식 추진, 장시간 노동 시정 등

④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 부모와 자녀 교류·양육비 확보 등

2024년 05월 31일

출처 : <https://www.cfa.go.jp/councils/suishinkaigi/3bbf70e9>
https://www.cfa.go.jp/assets/contents/node/basic_page/field_ref_resources/3bbf70e9-27d7-45dc-b6bb-2a8145d6ba0c/7f5559a7/20240530_councils_suishinkaigi_3bbf70e9_12.pdf

4. 장애 아동 시설 등 정비 사업자 모집

■ ‘차세대 육성 지원 대책 시설 정비 교부금 교부 요강’, ‘오카자키시 장애 아동 시설 등 정비비 보조금 교부 요강 (안)’ 및 ‘제5차 오카자키시 장애인 기본 계획’, ‘제7기 오카자키시 장애 복지 계획’, ‘제3기 오카자키시 장애 아동 복지 계획’을 바탕으로 장애 아동 시설 등의 정비를 촉진하고 오카자키시의 장애 아동 대상 서비스를 확충함.

■ 내용 및 대상 시설

- 1) 내용: <차세대 육성 지원 대책 추진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교부금에 관한 내각부령(2005년 후생노동성령 제79호) 제1조 제2항에 규정된 시설(이하 ‘장애 아동 시설 등’이라 함)의 신설, 수리, 개조, 확장 또는 정비
- 2) 정비 구분: 신설, 대규모 수리, 증축·증개축·개축, 확장, 스프링클러 설비 등 정비, 노후 민간 사회복지시설의 정비, 방법대책 강화에 관한 정비, 응급 임시 시설 정비, 대피 공간 정비
- 3) 대상 시설: 아동 발달 지원, 방과 후 등 주간 서비스, 주거·방문형 아동 발달 지원, 어린이집 등 방문 지원 또는 장애 아동 상담을 지원하는(지원 예정인) 시설
※ 거주 돌봄, 중증방문 돌봄, 동행 지원, 행동 지원, 단기 입소, 요양 돌봄, 생활 돌봄, 자립훈련(숙박형 자립훈련 포함), 취업 지원, 취업 계속 지원, 취업 정착 지원, 자립 생활 원조, 공동생활 원조 또는 상담지원을 하는(지원 예정인) 시설 및 장애인 지원 시설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함.

■ 2024년도 공모 관련 우선 정비 대상

- 2024년도 공모에서는 9가지 정비사업을 우선으로 지원함.
- 1) 건축기준법에 따른 내진 기준에 미달된 시설 등의 내진화 정비(내진화를 위한 개축, 노후화에 따른 개축 등)
- 2) 재해로 인한 정전 시 전원 확보 필요성이 높은 장애 아동 입소 시설 등의 비상용 자가 발전 설비의 정비
- 3) 재해로 인한 단수 시, 식수·생활용수 확보 필요성이 높은 장애 아동 입소 시설 등의 급수 설비 정비

- 4) 홍수 침수 예상 구역(수방법 제14조)의 위험 구역에 소재한 시설의 대규모 리모델링이나 이전 공사 정비
- 5)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조적식 구조 또는 콘크리트 블록 구조의 담장 개축 정비
- 6) 바이러스성 감염증 등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장애 아동 입소 시설 등의 다인실을 개인실로 변경
- 7) 스프링클러 설비 및 자동 화재 경보 설비의 설치 기준 변경으로 인한 정비
- 8) 석면 제거 등의 정비
- 9) 중증 심신 장애 아동 및 의료 케어가 필요한 아동이 가까운 지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 아동 통원 지원 확충

■ 신청 자격 및 신청 요건

- 1) 신청 자격: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사회복지법인
 - 나)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 다)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료법인, 일본 적십자사, 공익 사단법인, 일반 사단법인, 공익 재단법인 또는 일반 재단법인 등)
 - 라) 영리 법인
- 2) 신청 요건: 신청 사업자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가) 아동복지법 제21조 5-15 제3항에서 정한 결격 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것
 - 나) 확실한 사업 및 운영을 위한 충분한 경제 기반, 사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함.
 - 다) 실무를 담당하는 간부 직원이 사회 복지 사업에 대해 열의와 이해를 갖고, 또한 실제로 사업 운영의 책무를 다할 수 있어야 함.

2024년 08월 05일

출처 : https://www.city.okazaki.lg.jp/1300/1303/1322/p038853_d/fil/R6_zisedaibosuyuyoko.pdf

미국

임신·출산 지원		
1	유타주, 산모 의료 보장 제도 산후 12개월 동안 연장 제공	48
2	농촌 지역 모성 건강 및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1,500만 달러 투입	49
3	모성 건강 개선 및 가정 방문 프로그램에 재정 지원 발표	50
4	보건복지부, 산모 정신 건강 상담전화 홍보 캠페인 시작	51
5	바이든 행정부, 산모 건강 관련 새로운 정책 발표	53
일·가정 양립		
1	직장여성의 모유수유 여건 조성에 관한 모성 보호법	54
2	임신 근로자 공정 대우법 주요 내용	55
양육지원		
1	기저귀 배포 시범사업에 1,590만 달러 지원방문	57
유아교육·보육		
1	보육 강화를 위한 미국 세법 조항 개정 촉구	59
2	보육료 보조금을 받는 가구의 재정 부담을 낮추기 위한 새로운 규칙	60
3	바이든 행정부, 유치원 확장 및 만3~4세 교육 지원 지침 발표	61
4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 이용 자격 요건 완화	62
5	부모의 영유아 보육·교육 기관 검색 경험에 대한 보고서	63
6	교육부, 영유아 교사의 공공 대출 감면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절차 착수	64
7	보육비용 절감을 위한 초당적 법안 발표	65
8	보건복지부, 교직원 임금 인상을 통한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개선 계획 발표	67
9	바이든 행정부, 교육 기회 증진 및 학업 성취도 향상을 위한 센터 설립 발표	68
10	영유아 보육 및 교육 현장에서의 코칭: 코칭 건수와 소요된 시간 중심으로	70
아동·청소년지원		
1	바이든 행정부, 여성·영유아·아동·청소년 HIV 치료를 위한 자금 지원 발표	71
기타		
1	연방 최초 물 지원 프로그램 시행 및 영향 보고서 발간	73
2	미국 어린이 학습자에 대한 주요 국가 데이터, 2023-24년 유아기 종단연구 착수	74
3	바이든 행정부, 공공 기관의 권한을 확대하여 아동 복지 관련 법적 비용 지원 예정	75
4	보건복지부, 이혼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 이행을 돕기 위한 고용 및 훈련 지원 제안	76
5	어머니 정신 건강 개선 프로그램 MOMS 사업 수행 보고서 발간	77

❖ 임신·출산 지원

1. 유타주, 산모 의료 보장 제도 산후 12개월 동안 연장 제공

■ 2024년 3월 8일, 미국 보건복지부는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CMS)를 통해 유타주의 메디케이드(Medicaid, 미국 저소득층 의료 보장 제도) 및 아동 건강 보험 프로그램(CHIP)이 산모 개인에 대한 포괄적인 의료 보장을 산후 12개월로 연장한다고 발표함. 이번 발표는 소외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산모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 산모 건강 청사진의 일환으로, CMS 산모 관리 실행 계획 구현에 있어 중요한 단계임.

■ 해리스 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함. "미국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여 너무 오랫동안 출산 전후 과정에서 여성의 사망률이 높아 산모 건강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흑인, 원주민, 지방에 거주하는 산모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사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저는 산모 사망을 국가 위기로 인식하고 양질의 산후 관리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 주정부에 메디케이드 산후 보장 범위를 2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45개 주에서 연장 처리가 되었으며, 미국 전역 수백만 명의 여성과 아동의 이익을 위해 다른 여러 주와 함께 이번에 동참한 유타주에 박수를 보냅니다."

■ 제이비어 베세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에서는 어떤 여성도 출산으로 사망해서는 안됩니다. 이제 45개 주에서 출산 후 12개월 동안 산모에 대한 지속적인 의료 보장을 확대했습니다. 이번 결정을 통해 유타주의 4,000명의 여성은 출산 후 12개월 동안 의료보장과 함께 부모의 역할이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삶의 단계에서 안전하고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거주지에 상관없이 모두가 산후 의료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나머지 5개 주와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전함.

■ 오늘 발표로 유타주에서 추가로 4,000명이 출산 후 1년 동안 메디케이드 및 아동 건강 보험 프로그램 혜택을 받게 됨. 메디케이드는 미국 전체 출생 41%의 의료 혜택을 보장함. 유타주 메디케이드 연장 제공 계획의 승인으로 45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 미국령 버진아일랜드의 691,000명의 미국인이 연장된 산후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됨. 남은 5개 주를 포함하여 모든 주에서 연장하기로 결정하면 약 725,000명이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됨.

■ 산모의 의료 보험 보장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산모 사망률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함. 미국에서는 2019년 754명, 202년 861명, 2021년 1,205명의 여성이 산모사망으로 기록되었으며, 3명 중 1명은 임신 관련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발표됨.

2024년 03월 08일

출처 : <https://www.hhs.gov/about/news/2024/03/08/biden-harris-administration-announces-utahs-medicaid-chip-postpartum-coverage-expansion.html>

2. 농촌 지역 모성 건강 및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1,500만 달러 투입

- 2024년 6월 3일 미국 보건복지부의 보건자원 및 서비스국(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 이하 HRSA)은 농촌 산과 및 산부인과 관리 전략(Rural Maternity and Obstetrics Management Strategies, 이하 MOMS) 프로그램을 통해 4년 동안 1,500만 달러(한화 약 195억원)를 투자한다고 발표함. MOMS는 알라바마, 알칸소, 일리노이, 캔터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미주리, 테네시주 등 델타 지역의 모성 관리를 강화하고 불균형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둔 새로운 프로그램임.
- HRSA 부국장 조던 그로스만은 애리조나 주에서 열린 모성 건강 증진 집회에서 전략적 투자를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말함.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산모들은 병원까지의 긴 이동 거리 등의 이유로 모성 관리 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전국 농촌 지역에 효율적인 모성 관리 서비스 구축 및 유지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 보건복지부 장관 자비에 베세라는 “미국의 모성 사망률과 이환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입니다. 고위험 농촌 지역에서 모성 관리를 확장하는데 투자하는 것은 어머니와 아이들의 삶을 지원하는 데 필수적입니다.”라고 말함.
- 오늘 발표된 농촌 MOMS 프로그램 수혜자들은 4년 동안 400만 달러(약 52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농촌 지역의 산부인과 진료와 모성 관리 접근 지원, 향상, 및 확장에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하게 됨. 농촌 MOMS 프로그램은 농촌 병원, 의료 센터, 지역 건강 센터 및 건강 클리닉 간의 협진을 위해 네트워크 모델 접근 방식을 중점으로 함.
- HRSA는 미국 남부 및 중서부의 델타 지역에서 임신 전, 임신 중 및 출산 후의 의료 서비스 접근 및 조정을 확대할 예정임. 이 자금은 해당 지역의 모성 이환율과 사망률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HRSA는 델타 지역의 수혜자에게 4년 동안 최대 4개 협력 계약을 체결하여 총 약 700만 달러(약 91억원)를 지원 할 예정임.
- HRSA의 모성 건강 증진 계획은 여성, 지역 사회 조직 및 전국 지방 보건 당국과 협력하여 모성 사망률 및 모성 건강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모성 건강에 중점을 두고 있음.

2024년 06월 03일

출처 : <https://www.hhs.gov/about/news/2024/06/03/hrsa-announces-15-million-new-investments-address-maternal-health-needs-disparities-rural-communities.html>

3. 모성 건강 개선 및 가정 방문 프로그램에 재정 지원 발표

■ 2024년 8월 27일 미국 보건복지부는 모성 건강 개선을 위해 5억 5,800만 달러(한화 약 7,472억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함. 이는 “모성 건강 위기 해결을 위한 백악관 청사진(White House Blueprint for Addressing the Maternal Health Crisis)”을 통해 미국의 높은 모성 사망률을 낮추겠다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약속을 반영한 것임.

■ 또한 보건자원 및 서비스 관리국(이하 HRSA)은 일정 자격을 갖춘 가정에 모성-영유아 가정 방문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4억 4,000만 달러(한화 약 5,890억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임. 이와 함께 질병통제예방센터(이하 CDC)는 임신 관련 사망을 예측하고 예방하기 위해 향후 5년 동안 46개 주, 6개 영토 및 자유 연합 주에 1억 1,850만 달러(한화 약 1,586억원)를 신규 투자한다고 발표함.

■ 2022년 바이든 대통령은 모성-영유아 가정 방문 프로그램의 자금을 5년 동안 두 배로 늘리는 초당적 법안에 서명함. 이는 연방 가정 방문 프로그램이 거의 10년 만에 처음으로 확대된 것임.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기관들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지속적인 산전/산후 관리를 제공하도록 함. 이들은 모유 수유, 아기 안전 수면, 조기 언어 발달을 촉진하는 학습 및 의사소통 방법, 발달 선별검사, 학교준비도, 보육서비스 이용, 취업 및 교육 기회와 같은 지역 사회의 주요 서비스 및 자원과의 연결을 지원함. 오늘 발표된 자금으로 각 가정은 기본 보조금 외에도 연방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음.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모든 주와 미국 영토는 가정 방문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이 증가함.

■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여성들이 다른 선진국보다 더 높은 비율로 출산 전후에 사망하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며 모성 건강 위기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정부에 메디케이드 산후 지원을 두 달에서 12개월로 연장할 것을 촉구했고, 모성 건강 위기 해결을 위한 백악관 청사진 출범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례 없는 범정부적 모성 건강 개선 전략입니다. 오늘 우리는 미국 전역의 모성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5억 5,800만 달러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향후 수년간 자발적 가정 방문 프로그램을 통해 임산부, 신생아 및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4억 4,000만 달러가 포함됩니다."라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말함.

■ HRSA 국장 존슨은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 있는 웨인 주립 대학교에서 열린 “모성 건강 증진 계획(Enhancing Maternal Health Initiative)”과 관련한 지원금을 발표함. 이 계획은 엄마와 아기들을 지역사회 리더, 보건 당국자, 복지서비스 제공자 등과 연결하여 모성 건강 위기를 해결하고자 함. 가정 방문 프로그램은 각 주와 관할 구역이 자발적이며 근거에 기반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여 지역 사회의 필요에 가장 잘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임. 가족들은 임신부터 유치원 입학 시기까지 가정 방문 프로그램에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건강-사회 서비스, 아동 발달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가족과 아동이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지원함. 이 프로그램은 아동의 학교 준비도와 학업 성취도 향상, 여성의 건강 개선, 건강보험 가입률 증가, 아동 부상, 학대 및 방임 예방 등에서 중요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입증됨.

- CDC의 새로운 1억 1,850만 달러 투자는 향후 5년 동안 임신 관련 사망을 더 잘 예측하고 예방하기 위한 공공 보건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임. 이번 투자는 “모성 사망 검토 위원회(Maternal Mortality Review Committees)”에 대한 지원을 46개 주에서 52개로 확대함. 위원회는 각 주의 여러 학문 분야에 걸친 전문가로 구성되며, 임신 종료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사망을 검토하고, 그 사망이 예방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며, 향후 이를 예방할 방법을 권고함. 이 새로운 “모성 사망 감소를 위한 검토 및 추적(Enhancing Reviews and Surveillance to Eliminate Maternal Mortality)”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는 바이든 행정부의 모성 건강 위기 해결을 위한 백악관 청사진 구현에 기여할 예정임.

2024년 08월 27일

출처 : <https://www.hhs.gov/about/news/2024/08/27/biden-harris-administration-awards-over-558-million-to-improve-maternal-health.html>

4. 보건복지부, 산모 정신 건강 상담전화 홍보 캠페인 시작

- 보건자원서비스청(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 이하 HRSA)이 산모 정신 건강 상담전화(1-833-TLC-MAMA)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전국적 공익 캠페인을 발표함. 산모 정신 건강 상담전화 서비스는 바이든 행정부의 산모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산모 사망률과 산모 간 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한 HRSA의 주요 사업임. 정신 건강 상태는 임신 관련 사망의 주요 원인이지만,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임신 관련 사망의 80% 이상은 예방 가능함.
- 이번 캠페인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는 소매업체, 식료품점, 약국, 건강 및 지역 사회 협회와 같은 조직 및 법인과 협력하여 일상적인 장소를 지역거점으로 활용하여 모(母)와 임산부를 위한 정신 건강 자원을 홍보할 예정임. 오늘 발표된 최초 6개 산모 정신 건강 지역거점은 전국 수천 개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50개 주, 워싱턴DC, 푸에르토리코, 버진 아일랜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음.
-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어머니 날에 산모 사망률 감소와 치명적인 산모 질환 예방을 위한 노력으로 전국 산모 건강 상담전화 서비스를 시작함. 영어, 스페인어 구사가 가능한 전문 상담사는 전화 및 문자 메시지를 통해 상담이 필요한 산모에게 24시간 연중무휴 무료 익명 서비스를 제공함. 상담사는 면허가 있는 의료 전문가, 공인 교육자 등이 포함됨. 상담사는 산모의 요구 사항을 경청하고 필요시 직접 지원을 제공하고, 산모를 지역 지원 단체 및 조직에 연결하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 전문가를

추천함. HRSA는 2025년 5월 전국 산모 정신 건강 인식 주간을 앞두고, 이번 공익 캠페인을 통해 산모 정신 건강 상담전화 서비스 홍보를 이어나갈 예정임.

■ 이번 모성 정신 건강 캠페인은 전국 지역거점에서 상담전화 서비스를 홍보하여 모(母), 임산부 및 그 가족을 위한 자원에 대한 인식을 확대할 것임. 눈에 띄는 위치에 상담전화 홍보 자료를 게시할 예정임. 최초 지역거점으로 지정된 조직 및 법인은 다음과 같음.

- 1) Albertsons Companies (Safeway, Vons, Jewel-Osco, Shaw's, Acme, Tom Thumb, Randalls, United Supermarkets, Pavilions, Star Market, Haggen, Carrs, Kings Food Markets, Balducci's Food Lovers Market 등 34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에 2,200개 이상의 매장을 둠)
- 2) Babylist (2023년 기준 9,700만명 사용자를 보유한 기업, 가족을 위한 상거래, 미디어, 건강 전반에 걸쳐 제품과 서비스 제공)
- 3) Children's Hospital Association (전국 200개 이상의 소아 병원)
- 4) CVS Health (Aetna, CVS Pharmacy, MinuteClinic, CVS Caremark, Oak Street Health 및 Signify Health에서 1억 8,500만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
- 5) National Diaper Bank Network (50개 미국 주, 컬럼비아 특별구 및 푸에르토리코의 가족을 지원하는 240개 이상의 기저귀 은행 프로그램)
- 6) Walgreens (50개 미국 주, 컬럼비아 특별구, 푸에르토리코 및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약 9,000개 매장을 보유)

2024년 11월 14일

출처 : <https://www.hhs.gov/about/news/2024/11/14/hhs-launches-nationwide-public-awareness-campaign-promote-maternal-mental-health-hotline.html>

5. 바이든 행정부, 산모 건강 관련 새로운 정책 발표

- 2024년 11월 1일, 미국 보건복지부는 Medicare & Medicaid 서비스 센터(이하 CMS)를 통해 산부인과와 중환자 병원에 새로운 기본 건강 및 안전 기준을 발표함. 이번 조치는 임신, 출산 및 산후 관리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또한, CMS는 의료 서비스 취약 지역 주민들이 치료를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장벽을 제거하고 있음. 이 정책은 2025 회계연도 병원 외래 환자 비용 지불 시스템 및 외래 수술센터 최종 규칙에 포함되었으며, 이 규칙을 적용하면 외래환자 및 외래수술 지불 효율이 2.9% 인상됨. 이를 통해 2025년 병원 지급액은 2024년 대비 약 22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CMS는 산부인과와 중환자 병원에 대한 건강 및 안전 기준을 확정함. 이 기준은 산부인과 부서의 조직, 인력, 치료 제공에 대한 기본 표준을 마련하고, 품질 평가 및 성과 개선(QAPI)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며, 직원들에게 증거 기반 산모 건강 관행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함.
- CMS는 취약 계층의 건강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Medicare 서비스 이용 장벽을 제거하고 있음. 특히, 보석금, 가석방, 보호 관찰, 가택 연금, 또는 임시 주택에서 생활하는 Medicare 가입자가 Medicare 서비스를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음. 또한, 과거 수감자를 대상으로 특별 등록 기간의 자격 기준을 확대하여 이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음.
- 이번 최종 규칙은 Medicaid 적용 범위를 여러 방식으로 확대하여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격차를 줄일 것으로 예상됨. Medicaid 및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CHIP)에 등록된 아동에게 12개월 연속 자격 요건을 법적으로 보장하여 아동 의료 서비스의 안정성을 강화함. 이번 정책은 산모 사망률 감소와 의료 형평성 증진이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줌.

2024년 11월 01일

출처 : <https://www.hhs.gov/about/news/2024/11/14/hhs-launches-nationwide-public-awareness-campaign-promote-maternal-mental-health-hotline.html>

❖ 일·가정 양립

1. 직장여성의 모유수유 여건 조성에 관한 모성 보호법

■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성 직원이 있는 기업이 더 높은 성과를 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Forbes에 의하면, 성별 다양성을 갖춘 회사의 60% 이상이 여성의 노동참여로 수익성과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보고했으며, 여기에는 창의성 증가, 소비자 이해력 향상, 직원 유지율 개선 등이 포함됨.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은 직장에서 많은 장애물에 직면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 연방법으로 제정된 Providing Urgent Maternal Protections Act(긴급 모성 보호법, 이하 PUMP) 덕분에 모유 수유는 더 이상 직장 여성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음.

■ PUMP 법은 모유 유축 중인 여성을 불공정한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고용주가 이들의 유축 요구를 배려하도록 요구함. 모유에는 신생아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수많은 항체와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직장에 복귀한 후 모유 유축을 지속하는 엄마들의 비율은 크게 감소하는데, 이는 주로 유축 시설 부족과 체계적인 휴식 시간 부재 때문임. PUMP 법은 이러한 장애물을 완화하고자 다음과 같은 조항들을 마련함.

- 1) 휴식 시간: 고용주는 모유 수유 중인 엄마들이 유축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휴식 시간을 제공해야 함.
- 2) 전용 공간: 고용주는 유축을 위한 지정된 공간을 제공해야 함.
- 3) 보상: 유급 휴식 시간을 이용해 유축하는 경우, 유축 중인 엄마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4) 차별 금지: 이 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여성은 차별이나 직장에서의 불이익으로부터 보호됨.
- 5) 법 집행: 고용주가 이러한 조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여성이 직장 내 권리를 행사한 이유로 차별을 받을 경우, 이 법은 이러한 기본적인 수요를 강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 이러한 보호 조치는 아이가 태어난 후 최대 1년까지 적용되며, 모유 유축 중인 엄마들이 불필요한 직장 내 차별에 대한 걱정 없이 자녀를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유축 전용 공간이란?

- 고용주는 모유 유축을 위한 지정된 공간을 제공해야 하며, 화장실은 모유 유축을 위한 사적인 공간으로 간주되지 않음. 유축 전용 공간은 사적이고, 밀폐되어 있으며, 직장 업무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함. 잠금 가능한 문과 편안한 좌석, 흐르는 물에 접근할 수 있는 공간, 작업대 및 적절한 전기 콘센트가 필요함.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좋은 유축 공간은 별도의 냉장 시설도 갖추고 있음.

■ 휴식 시간이란?

- PUMP 법에 따라, 고용주는 모유 수유를 하는 직장 여성에게 합리적인 횟수의 휴식 시간을 제공해야 함. 정해진 최대 또는 최소 시간, 또는 일정(예: 4시간 마다)등 은 없으며, 휴식 시간은 날마다 상이할 수 있음. 대신, 직원들은 근무 시간 중 필요에 따라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함. 휴식 시간이 완전히 업무와 무관하다면, 고용주는 이 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음.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급여 지급이 의무임.

- 1) 회사 정책에 따라 유급 휴식 시간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 2) 직원이 정규 유급 휴식 시간을 사용하여 유축할 경우
- 3) 직원이 유축을 하는 동안에도 계속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휴식 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선택한 고용주는 직원이 이메일 확인이나 기타 단순 작업을 포함한 모든 업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지 확인해야 함. 어떤 여성도 자신의 직업과 자녀의 영양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필요가 없어야 함.

2024년 10월 10일

출처 : <https://www.kreisenderle.com/the-pump-act-supporting-and-protecting-nursing-moms-at-work/>

2. 임신 근로자 공정 대우법 주요 내용

■ 2022년 12월, 의회는 2023 포괄적 예산 패키지의 일환으로 임신 근로자 공정성 법(Pregnant Workers Fairness Act, 이하 PWFA)을 통과시켰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12월 29일 이를 법으로 서명하였음. 2023년에는 법률의 적용에 대해 근로자와 고용주에게 추가적인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권장 사항을 담은 상세한 의견을 평등 고용 기회 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이하 EEOC)에 제출함.

■ 이후 PWFA는 2023년 6월 27일에 시행되었음. 2024년 4월 15일, EEOC는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최종 규정을 발표하였고, 이 최종 규정은 2024년 6월 18일에 발효됨.

- 일반적으로 PWFA법은 임신, 출산 등의 조건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직원에게 고용주가 “합리적인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하며, 이 편의시설이 고용주에게 과도한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는 한 가급적 마련해야 함. PWFA는 오직 편의시설에만 적용됨. EEOC가 시행하는 다른 법률은 임신, 출산 또는 관련 의료 조건을 이유로 직원이나 지원자를 해고하거나 차별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함.
- PWFA법은 임신, 출산 또는 관련 의료 조건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구직자 및 직원)를 보다 보호하는 법으로, 연방, 주 또는 지방 법률을 대체하지 않음. 30개 이상의 주 및 도시에서는 임신한 근로자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할 것을 고용주에게 요구하는 법률이 있음.
- PWFA법은 15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한 민간 기업과 공기업(주 및 지방 정부)에 적용됨. 또한 의회와 연방 기관, 그리고 취업 연계 기관 및 노동 단체에도 적용됨.
- “합리적인 편의시설”은 근무 환경이나 직장 업무 처리 방식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함. PWFA에 따르면 가능한 합리적인 편의시설의 몇 가지 예는 아래와 같음. 이 목록은 몇 가지 예를 제공할 뿐이며, 많은 다른 합리적인 편의시설이 존재할 수 있음. 또한, 근로자는 임신 중이나 출산 후에 필요로 하는 편의시설이 다를 수 있음.

〈예시〉

- 물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거나 휴식을 취하거나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이고 더 긴 또는 더 유연한 휴식 시간 제공
- 물병이나 음식을 허용하기 위한 음식 및 음료 정책 변경
- 앉을 수 있는 의자를 제공하거나 서서 작업할 수 있는 방법과 같이 장비, 기기 또는 작업 공간 변경
- 유니폼 또는 복장 규정을 변경하거나 적합한 안전 장비 제공
- 근무 일정 변경(짧은 근무 시간, 시간제 근무 또는 늦은 출근 시간)
- 재택근무
- 임시 재배치
- 직무의 필수 기능 중 하나 이상을 일시적으로 중단(업무 경감)
- 의료 예약을 위한 휴가
- 가벼운 업무 또는 물건을 들거나 기타 육체 노동에 대한 도움 제공
- 출산 또는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된 기타 의료 조건에서 회복을 위한 휴직

2024년

출처 : <https://www.kreisenderle.com/the-pump-act-supporting-and-protecting-nursing-moms-at-work/>

● 양육지원

1. 기저귀 배포 시범사업에 1,590만 달러 지원방문

- 2024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가정청(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은 지역 사회 서비스국(Office of Community Services)을 통해 기저귀 배포 시범사업 연구(Diaper Distribution Demonstration and Research Pilot)의 네 번째 수혜 단체 명단을 발표함. 이번 발표는 국가 기저귀 필요 인식 주간(National Diaper Need Awareness Week)에 맞춰 이루어졌으며, 6개 주와 1개 부족에 있는 7개의 신규 수혜 단체에 총 840만 달러(한화 약 113억원)을 지원할 예정임. 이번 자금 지원은 앞선 두 그룹에 속한 13개 수혜 단체에게 750만 달러(한화 약 101억원)의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여, 기저귀 배포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 이번 발표된 1,590만 달러(한화 약 209억원)의 자금으로 2022년 9월 이후 기저귀 배포 시범사업에 할당된 총 자금은 4,020만 달러(한화 약 528억원)에 이르게 되며, 24개 주와 4개 부족 공동체에서 시행됨.
- 보건복지부 장관 엑스에비어 베세라는 “가족이 기저귀를 구매할 수 없으면, 아이의 신체 건강부터 양육자의 정서적 안녕까지 모든 것이 영향을 받습니다. 기저귀 구매 자금 지원을 통해 우리는 가족 전체의 전반적인 건강과 경제적 안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백악관의 모성 건강 위기 해결 청사진의 일환으로, 모성 의료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전략입니다”라고 강조함.
- 이번에 새롭게 선정된 7개의 보조금 수혜 단체는 인디애나, 조지아, 오클라호마 초크토 부족, 콜로라도, 플로리다, 위스콘신, 오클라호마에서 활동하고 있음. 이들은 지역사회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기존 기저귀 배포 인프라를 강화하고 확장하며, 기저귀가 필요한 가족들을 돕기 위한 추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 추가 지원 서비스는 직업 훈련, 교육 지원, 주거 서비스 및 식품과 영양 서비스 등을 포함하고 있음.
- 13개의 추가 지원금을 받는 수혜 단체들은 애리조나, 아이오와, 버지니아, 워싱턴,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앨라배마, 캘리포니아, 메릴랜드, 오하이오, 유타, 매사추세츠 및 시세톤 와페톤 오야테 부족에 위치함. 이번 추가 자금으로 기존 기저귀 배포 시범 프로그램을 한 해 동안 연장할 예정임. 이 추가 자금은 프로그램에 등록된 가족들에게 기저귀 및 기저귀 관련 물품을 계속 제공하는 한편, 그들을 지역사회의 추가 지원 서비스와 연결함.
- 아동가정청 부청장 제프 힐드는 “기저귀 구매 비용은 가정에 부담이 됩니다. 어떤 양육자도 기저귀를 사는 것과 음식을 사는 것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중요한 보조금을 통해 기저귀 필요를 해결하는 것은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양육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입니다”라고 말함.

■ 가족들이 기저귀와 기저귀 관련 물품을 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가계경제 스트레스를 줄이고, 노동력 참여를 증가시키며, 가구 소득을 증대시키고, 아이들과 양육자의 건강과 안녕을 개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2024년 09월 27일

출처 : <https://www.hhs.gov/about/news/2024/09/27/national-diaper-needs-awareness-week-159-million-support-diaper-distribution-pilot-announced.html>

❖ 유아교육·보육

1. 보육 강화를 위한 미국 세법 조항 개정 촉구

■ 미국 보육 관련 양당의 간부회의 지도자들이 세입위원회에 보육 강화를 위한 미국 세법 조항 개정을 촉구함. Suzanne Bonamici, Joaquin Castro, Ashley Hinson 의원은 편지에 공동성명하여 다음 네 가지 주요 세금 조항에 대한 개선을 요청함.

■ 자녀 및 부양가족세금 공제(Child and Dependent Care Tax Credit: CDCTC)

- 최저 소득 가족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
- 결제시스템 선진화를 통해 납세자들이 보육비 연중 지불 가능
- CDCTC 최대 지출 금액을 인플레이션 지수에 따라 조정

■ 자녀 세액 공제(Child Tax Credit: CTC)

- 세액공제 금액 증가
-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가치 인상
- 세액공제를 인플레이션 지수에 맞추어 조정

■ 부양가족 지원 프로그램(Dependent Care Assistance Program: DCAP)

- 돌봄비용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 공제액수를 증가
- DCAP 제외 사항을 자녀 및 부양가족 세금 공제 지출에서 분리. 이 방법을 통해 고용주의 DCAP 기여와 상관없이 납세자가 최대 허용 비용까지 어떤 현금 지출에 대해서도 자녀 및 부양가족 세금 공제를 청구 할 수 있음.

■ 고용주 제공 아동 돌봄 세액공제(Employer Provided Child Care Tax Credit)

- 최대 세액공제 및 세액공제율 증가
- 소규모 고용주 및 지역 고용주를 위한 세액공제 청구를 재정적으로 더 현실적으로 만들기 위해 더 높은 세액공제율과 최대 세액공제를 반영한 계층 시스템 개발

- 다수의 고용주가 합동으로 보육 서비스 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세액공제를 청구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간소화

2024년 01월 12일

출처 : <https://www.ffyf.org/wp-content/uploads/2024/01/Caucus-Tax-Letter.pdf>

2. 보육료 보조금을 받는 가구의 재정 부담을 낮추기 위한 새로운 규칙

■ 2024년 2월 29일, 미국 보건복지부는 아동가족청을 통해 보육료 보조금을 받는 가구의 재정 부담을 낮추고 가족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새로운 규칙을 발표함. 이 최종 규칙은 2023년 4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고품질 보육 및 보육 서비스 제공자 지원 접근성 향상에 관한 행정 명령”(Executive Order on Increasing Access to High-Quality Care and Supporting Caregiver)이 이행된 결과이며, 이는 보건복지부에 가정 부담 보육료를 줄이고 보육료 지불 관행을 개선하도록 지시한 바 있음. 이번 규칙 개정으로 약 100,000명의 아동이 보육비용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개정된 부분은 가족의 보육시설 이용을 늘리고, 보육환경 질 향상을 지원하는 미국 최대 규모의 자금인 보육 및 개발 기금(Child Care and Development Fund: CCDF)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

■ 보육 및 개발 기금(CCDF)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가구의 재정 부담 절감: 가족이 보육료로 지불하는 금액을 가구 소득의 7%로 제한함. 주 정부로 하여금 빈곤 수준이 150% 미만인 가구, 장애아동, 기타 취약계층에 대한 자기부담금 면제 절차를 간편화함.
- 가족의 보육 선택권 확대: 가족의 필요에 따른 보육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함.
- 보육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조금 인상: 주 정부가 보육기관에 보조금을 적시에 지원하고 보육서비스 제공 비용에 대한 충당금을 더 많이 확보할 예정임. 이는 보육기관이 보육 및 개발 기금(CCDF)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으며 기관 운영을 안정화 하는데 도움이 되는 보편적인 방법임.
- 관료주의 지양: 가족이 이미 다른 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며 적격성이 인정된 경우 보육 지원을 더 쉽게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함. 온라인 신청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더 많은 가족이 보육 서비스를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부모의 취업, 훈련 또는 교육에 방해되지 않도록 함.

2024년 02월 29일

출처 : <https://www.acf.hhs.gov/media/press/2024/new-rule-reduce-costs-more-100000-families-receiving-child>

3. 바이든 행정부, 유치원 확장 및 만3~4세 교육 지원 지침 발표

■ 2024년 2월 26일, 교육부는 개정된 지침을 발표하여 주 정부, 지역 교육기관(Local educational agencies) 및 학교들이 Title I 자금을 사용하여 만3~4세 고품질 유아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공표함.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유아교육기관은 공립학교,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지역사회 기반 기관 등이 포함됨.

■ 이 지침은 더 많은 어린이들이 초기 학교에서의 성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 전국적으로 유치원이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 간의 단단한 가교 역할을 하도록 지원함.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부터 Title I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자금 19억 달러(한화 약 2조 5천억원)를 포함하여 역사적인 교육 예산을 확보함.

■ 고품질 유아교육기관과 학업성취도 사이의 명확한 연관성을 고려하여,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ESEA)의 Title I, Part A를 통해 미취학 아동 서비스에 대한 비규제 지침을 개정함. 해당 지침을 따라 다양한 유아교육기관은 자원을 활용하여 기관 접근성을 확대하고 프로그램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

■ 이 지침이 마지막으로 개정된 것은 2012년으로 초중등교육법(ESEA)이 최근 재승인된 2015년보다 이전임. 이번 개정 발표는 바이든이 교육부에 지시한 행정명령이 이행된 결과이며, 학교와 지역 교육기관의 고품질 돌봄서비스 접근 확대 행정명령(Executive Order to Increase Access to High-Quality Care and Supporting Caregivers)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음.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양질의 유아교육기관이 다양한 환경에서 모든 가족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함.

■ 이번에 개정된 지침은 지방자치 및 주 정부 교육기관이 지역 유아교육기관,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및 지역사회 기반조직과 협력할 것을 권고함. 협력을 통해 주 및 지역자금을 계층화하고 연계하여 유아교육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지침에 포함시킴. 이외에 교사 전문성 개발 및 초임 교사 성장 지원 방안, 미취학 아동, 특히 장애아동과 비영어권 학습자의 발달 및 언어발달을 돕는 방법을 강조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교육 형평성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명시함.

2024년 02월 26일

출처 : <https://www.ed.gov/news/press-releases/biden-harris-administration-releases-resources-support-preschool-expansion-and-early-school-success>

4.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 이용 자격 요건 완화

- 2024년 3월 23일, 바이든 대통령은 부족 공동체 어린이와 농업 종사자의 자녀를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더하는 두 가지 개정사항에 서명함.
- 이번 개정사항이 적용되면 부족 헤드 스타트(Tribal Head Start) 프로그램 또는 아메리칸 인디언 및 알래스카 원주민(American Indian and Alaska Native, 이하 AI/AN) 프로그램에 부족 공동체의 어린이가 가구 소득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등록 할 수 있게 됨.
- 일반적으로 헤드 스타트 이용 자격은 연방 빈곤선 이하의 가족, 노숙자, 공공 지원 수혜 가족, 위탁 보호 시설에 있는 가족으로 제한되어 왔음. 이번 변화를 통해 더 많은 어린이가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을 이용 할 수 있고 지역 사회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게 됨. 부족 헤드 스타트는 고품질의 조기 학습경험과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언어와 문화 관습에 대한 내용도 프로그램에 포함시킴. 2022년도 헤드 스타트 사무국은 총 16,870명의 어린이가 등록한 202개의 AI/AN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함.
- 다른 개정사항은 이주 및 계절 농업 종사자의 자녀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Migrant and Seasonal Head Start (이하 MSHS)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임. 농업에 종사하는 가족 구성원이 한 명 이상 있는 모든 아동은 가구 소득에 관계없이 MSHS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음. 개정 이전에는 MSHS 등록 자격을 얻으려면 헤드 스타트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것 외에도 가구 소득의 50% 이상이 농업에서 나온 것임을 입증해야 했음.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MSHS 프로그램은 다른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에 비해 적어도 한 명 이상의 부모가 고용 상태인 경우가 많으며,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해 일부 MSHS 프로그램의 기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을 찾기 어려워지는 것으로 나타남.
- MSHS 프로그램은 이사가 잦고, 연중 특정 기간 동안 장시간 근무하며, 이중 언어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 많은 집단에 필요한 서비스임. 이러한 가족들에게는 보육 선택지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으며, 이번 변화를 통해 MSHS를 더 많은 가정에게 제공하고 부모가 자녀를 동반하여 출근하지 않고 고품질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2023년 회계연도 기준, MSHS에는 총 55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고 20,169명의 어린이가 이용함.
-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개정사항이 특정 지역사회와 프로그램의 요구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함. 현재 헤드 스타트가 부족한 지역 사무소가 기존 요구 사항, 규제 및 지원이 어린이와 지역 사회의 요구를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공개 의견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AI/AN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에 추가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음. 새로운 정책은 즉시 발효되며 시행에 대한 지침이 곧 제공될 예정임.

2024년 04월 08일

출처 : <https://www.ffyf.org/resources/2024/04/the-biden-administration-gives-added-flexibility-to-serve-more-children-in-head-start/>

5. 부모의 영유아 보육·교육 기관 검색 경험에 대한 보고서

■ 이 보고서는 2019 전국 보육·교육 가구 설문조사(National Survey of Early Care and Education, 이하 NSECE)를 분석해 영유아 보육/교육 기관 검색 및 의사 결정에 대한 최신 내용을 다루고 있음. 주요 연구 내용은 (1) 6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기관을 검색하는 경향, (2) 기관 검색 이유, (3) 검색 후 부모가 돌봄 방식을 변경한 비율, (4) 부모가 돌봄 방식을 변경하지 않은 이유 등을 포함함.

■ 기관에 대한 가정의 필요 사항, 선호도 및 선택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2019 NSECE 가구 설문조사에는 무작위로 선택된 아동에 대한 정보가 포함됨. 이 보고서의 데이터는 6세 미만(즉, 유치원 입학 전 0~72개월) 아동에 대해 응답한 16,372,451 가구를 조사한 결과임. 특히, 설문조사 실시 24개월 이전 자녀를 위해 기관을 검색해 본 5,959,051 가구에 중점을 둠.

■ NSECE를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6세 미만 자녀가 있다고 신고한 가구의 1/3 이상이 2019 NSECE 데이터 수집 이전 2년 동안 보육·교육기관을 검색함.
 - 소득이 높은 가구는 소득이 낮은 가구 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로 기관을 검색함.
 - 자녀가 히스패닉 또는 라틴계인 가구는 비 히스패닉, 라틴계 백인, 흑인, 아시안 가구보다 기관 검색 비율이 낮음.
 - 자녀가 다인종인 가구는 자녀가 백인, 아메리칸 인디언 또는 알래스카 원주민인 가구보다 기관 검색 비율이 높음.
2. 부모가 기관을 검색한 주요한 두 가지 이유는 부모의 필요 충족과 자녀의 발달 지원이었음.
 - 부모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기관을 검색하는 경우는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와 가구 소득이 낮은 부모 사이에서 흔히 발생함.
 - 자녀의 발달 지원을 위해 기관을 검색하는 경우는 유아를 양육중인 부모, 가구 소득이 높은 부모, 아시안인 경우가 많았음.

3. 기관을 검색한 가구 중 절반 이상이 검색 후 돌봄 방식을 변경함.
 - 소득이 높은 가구는 소득이 낮은 가구 보다 돌봄 서비스를 변경할 가능성이 더 높았음.
4. 부모가 새로운 돌봄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경제성 및 합리적인 노력과 관련됨.
 - 부모가 자녀를 새로운 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가구들의 소득, 자녀 연령, 인종 등을 비교한 결과 큰 차이가 없었음.

■ 보고서 전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함.

<https://www.acf.hhs.gov/sites/default/files/documents/opre/2024-064%20Parents%20E2%80%99%20Reasons%20for%20Searching%20for%20CCEE.pdf>

2024년 04월 09일

출처 : <https://www.acf.hhs.gov/opre/report/parents-reasons-searching-child-care-and-early-education-findings-2019-national-survey>

6. 교육부, 영유아 교사의 공공 대출 감면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절차 착수

- 미국 교육부는 영유아 교육 현장 종사자들에게 공공 대출 감면 프로그램(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 이하 PSLF) 확대 노력의 일환으로 해당 프로그램의 운영적 측면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정보 요청서를 발행함.
- 교육부 차관 제임스 크발은 다음과 같이 말함. “영유아 교사는 아이들이 배우고 성장하며 번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적절한 금전적 보상을 받지 못하며 학자금 대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사들이 공공 대출 감면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어린이들과 그들의 가족 및 지역 사회를 돕는 것입니다.”
- PSLF는 2007년부터 정부 또는 특정 비영리 단체에 근무하는 연방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제공됨. 이들은 약 10년 동안 120회 학자금 대출 상환 후 남은 대출 잔액을 감면받음.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으로 PSLF를 전면 개편하고 수혜자를 대폭 늘렸으며, 현재까지 90만 명 이상이 680억 달러의 대출 감면을 승인받음.

- **현행 PSLF 규정에 따르면 영유아 교사들 특히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많은 사람들이 고용주의 세금 상태 때문에 감면 대상에서 제외됨.** 영유아 교사 집단은 고용주의 세금 상태와 관계없이 거의 대부분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유색인종 및 이민자임. 또한 영유아 교육 종사자는 미국에서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직종 중 하나임.
- **보건복지부 산하 기획 연구 및 평가 사무소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PSLF 자격을 고용주에 대한 세금 상태와 무관하도록 변경할 경우 약 45만 명의 영유아 교육 종사자(가정어린이집 약 6만 8천명, 기관어린이집 약 39만 명)가 연방 학자금 대출 감면 혜택을 받는 것으로 예상됨.** 이는 전체 영유아 교사 집단의 약 3분의 1 수준임.
-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첫날부터 불완전한 학자금 대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PSLF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킴.** 이번 정보요청은 영유아 교육 종사자들을 위해 PSLF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교육부가 수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 **교육부는 학계, 정책 전문가, 관리자 및 영유아 교육기관 운영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로부터 고용주 자격을 결정하는 방법 및 고려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공공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은 30일이며, 제출된 의견은 교육부가 검토할 예정임. 공공의견은 규제 제정의 일부로 사용되진 않으나 교육부가 다양한 운영 접근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됨.

2024년 06월 20일

출처 : <https://www.ed.gov/news/press-releases/us-department-education-issues-request-information-operational-approaches-extend-public-service-loan-forgiveness-early-childhood-educators>

7. 보육비용 절감을 위한 초당적 법안 발표

- **2024년 7월 31일, 보건교육노동연금 위원회 위원이자 버지니아주 상원의원인 팀 카인과 앨라배마주 상원의원인 케이티 브릿은 보육 비용을 낮추고 보육 제공자를 늘리기 위한 두 가지 법안을 발표함.** 이 법안들은 보육 가용성 및 경제성 법안(Child Care Availability and Affordability Act)과 보육 인력 법안(Child Care Workforce Act)으로, 세액 공제를 강화해 보육 비용을 낮추고 보육 서비스 공급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함.
- **“버지니아주에서 합리적인 보육 서비스를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한 낮은 임금으로 인해 헌신적인 보육 노동자들이 보육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가정과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초당적 제안을 도입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라고 팀 카인이 말함.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앨라배마주를 비롯해 전국의 가정에 상당한 부담입니다. 이로 인해 특히 어머니들이 직장을 떠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발표한 초당적 법안은 미국

의 노동력을 강화하고, 지역소상공인들을 지원하며,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입니다.”라고 케이트 브릿이 말함.

■ 현재 많은 가족이 고품질 보육기관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높은 보육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지난 30년 동안 보육 비용이 220% 증가하여 많은 가족, 특히 어머니들에게 어려운 선택이 강요되는 실정임. 또한, 보육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고, 기관장들은 보육기관을 경영하고 유지하는 것조차 힘든 상황임. 이 문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더욱 심각해짐.

■ 오늘 발표된 보육 가용성 및 경제성 법안(Child Care Availability and Affordability Act)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보육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아동 및 부양가족 세액 공제(Child and Dependent Care Tax Credit, 이하 CDCTC) 금액을 늘리고 환급이 가능하게 하여 저소득 가구가 이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한 자녀당 최대 2,500달러(한화 약 342만원),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는 최대 4,000달러(한화 약 547만원)까지 공제가 확대됨.
- 부양가족 지원 프로그램(Dependent Care Assistance Program, 이하 DCAP)을 강화하여 가족이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을 최대 7,500달러(한화 약 1,026만원)까지 늘림.
- 자녀 보육 비용이 DCAP 한도를 초과할 경우, 해당 가정이 DCAP와 CDCTC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함. 이는 현재 CDCTC를 이용하지 않지만 높은 보육 비용을 지출하는 중산층 가정에 큰 혜택임.
- 기존에 잘 활용되지 않았던 고용주 제공 보육 세액 공제를 대폭 강화하여 기업이 직원들에게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함. 최대 공제 금액을 15만 달러(한화 약 2억원)에서 50만 달러(한화 약 7억원)로, 공제 비율을 25%에서 50%로 늘림. 소규모 기업을 위한 최대 공제 금액을 60만 달러(한화 약 8억원)로 늘리고, 소규모 기업 그룹의 공동 신청을 허용함.

■ 보육 인력 법안(Child Care Workforce Act)은 보육 공급을 늘리고 이직률을 줄이기 위해 보육 노동자 임금 보조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확장할 수 있도록 주, 지방 자치단체, 부족 및 부족 단체에게 경쟁 보조금을 제공함. 이 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인가 받은 가정 및 센터 기반 보육 기관에 분기마다 직접 임금 보조금을 지급함.
- 이직률, 보육의 질, 합리적인 보육 서비스 접근성 및 보육 제공자의 재정 부담 완화에 대한 영향을 평가함. 버지니아, 네브래스카, 오클라호마, 메인 및 워싱턴 D.C. 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평가가 보육 인력 채용, 이직률, 복지 및 만족도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24년 07월 31일

출처 : <https://www.kaine.senate.gov/press-releases/kaine-and-britt-introduce-bold-bipartisan-proposal-to-make-child-care-more-affordable>

8. 보건복지부, 교직원 임금 인상을 통한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개선 계획 발표

■ 2024년 8월 16일 미국 보건복지부는 아동가족청(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을 통해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의 인력 채용, 고용 유지, 교사 임금과 복지 개선, 프로그램의 질 제고를 위한 최종 규칙, “헤드스타트 인력 및 프로그램 품질 유지를 위한 지원(Supporting the Head Start Workforce and Consistent Quality Programming)”을 발표함. 이번 규칙의 적용으로 대부분의 헤드스타트 교사 연봉이 약 10,000달러(한화 약 1,300만원) 인상될 예정임.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은 거의 60년 동안 교육 기회가 적은 아동들에게 고품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해 옴. 이 규칙은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며, 행정부와 의회가 헤드스타트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길을 마련하고, 헤드스타트가 오랜 기간 동안 아동과 가족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온 전통을 이어가는데 의의가 있음.

■ 오늘 발표된 규칙은 헤드스타트에 등록된 아동 수를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임. 바이든 행정부는 헤드스타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자금을 마련하고 의회와 협력하기를 기대하고 있음.

■ 이번 규칙은 헤드스타트 교직원의 임금, 복지, 직업의 질을 개선하고, 아동과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음.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 1) 공립학교의 유치원 교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임금 인상
- 2) 헤드스타트 직원들의 건강보험과 유급 휴가를 포함한 복지 개선, 건강과 웰빙 지원 강화
- 3) 소규모 헤드스타트 기관에 임금복지 필수조건에 대한 유연성 제공
- 4) 프로그램 서비스 전반에 걸친 정신건강 지원의 통합 개선
- 5) 프로그램 시설에서 아동 건강과 안전 향상
- 6) 가족 참여 서비스 개선
- 7) 프로그램이 지역사회의 요구를 파악하고 충족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의 현대화

- 새 규칙에는 직원들의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고 가족 지원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이 규칙은 아동과 직원들을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을 창의적인 방식으로 확대할 수 있게 하는 것 외에도, 정신건강 지원이 가족 및 임산부를 위한 서비스 등 다른 영역과 더 긴밀하게 통합하도록 요구함.
- “우리는 헤드스타트 커뮤니티와 다른 전문가들이 제출한 의견을 바탕으로 아동과 직원들의 필요를 새 규칙에 반영했습니다. 해당 규칙은 유연성을 확대하며 소규모 프로그램의 특성에 맞춘 실행방안을 제시합니다.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교직원을 지원하고 프로그램 질을 개선하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를 희망합니다.”라고 아동가족청 헤드스타트 사무국장 카리 가빈이 말함.
-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은 영유아 학습, 건강, 가족의 웰빙 등 핵심 분야에서 아동과 가족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부모의 적극적인 교육참여를 유도함.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은 출생부터 5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센터 기반 및 가정 기반 서비스를 제공함.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은 미국 내 모든 주, 많은 원주민 부족, 푸에르토리코를 포함한 여러 미국 영토에서 운영되며, 1,600개의 기관을 통해 각 지역의 가족 요구에 맞게 연방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함.

2024년 08월 16일

출처 : <https://www.acf.hhs.gov/media/press/2024/hhs-strengthens-head-start-higher-wages>

9. 바이든 행정부, 교육 기회 증진 및 학업 성취도 향상을 위한 센터 설립 발표

- 미국 교육부는 학교의 자원 형평성 증진, 학업 회복 가속화, 교육 인력 강화, 학령 초기 성공 경험 및 영어 및 다중언어 학습자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보조금 4,600만 달러(약 621억원)를 발표함. 이 자금으로 전담 기술 지원 센터를 설립하고 종합 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 및 지역 교육 기관(Local educational agencies, 이하 LEAs)을 지원할 예정임.
- 종합 센터 프로그램은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연방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개선 대상 학교의 성과를 향상시키며, 교육 리더들이 유치원~12학년을 포함하는 학교가 직면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수준의 지원 네트워크를 제공함. 교육부는 1개의 국가 센터, 14개의 지역 센터, 그리고 올해 초 공공 의견 규칙 제정 때 도출된 주요 우선순위를 반영한 4개의 콘텐츠 센터에 자금을 새로 지원하고 있음. 총 19개의 센터는 종합 센터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LEAs가 모든 학생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성과를 향상시키며, 학업 성취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됨. 특히 저소득 가정 출신 학생 및 열악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과 같은 소외된 학생 그룹을 위한 교육의 질을 개선함.

■ 새로 설립된 4개의 콘텐츠 센터는 아래 분야에서 국가 센터, 지역 센터 및 기타 연방 자금 지원 제공자와 협업함.

- 1) 재정 형평성 센터: LEAs가 국가 및 지역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하고 자원 할당 전략을 갖도록 함. 학교 재정 데이터의 질과 투명성을 개선하며,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자원을 보다 전략적으로 사용하도록 함. 이 센터는 주 정부와 지역사회가 연방, 주 및 지역 자금을 통합하여 사용하고,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미국 구제 계획 자금을 통해 시작되고 확대된 고효과 개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
- 2) 교육 인력 강화 및 지원 센터: 교육부의 교사 모집, 고용 유지 개선 노력, 교사 다양성 확대를 지원함. 여기에는 보수 인상 및 근무 조건 개선, 합리적인 비용으로 고품질 교육을 제공하는 교사 양성 프로그램(고품질 레지던시 프로그램, 자체 양성 프로그램, 등록 견습 프로그램 등), 교사 리더십 및 경력 발전 기회 확대, 그리고 신입 교사부터 경력 교사까지 교사 생활 전반에 걸친 지속적인 보수 교육이 포함됨.
- 3) 학령 초기 성공 경험 센터: LEAs가 유치원부터 3학년까지의 초기 학령기의 학습 시스템을 포괄적이고 일관되게 구현하도록 지원함. 효과적인 유치원 전이경험을 돕고, 학부모와 협업하여 출석을 관리하며, 사회 및 정서적 발달, 초기 문해력 향상에 적절하고 증거에 기반한 교수 실습을 지원함.
- 4) 영어 및 다중언어 학습자 센터: 영어 학습자의 언어적, 학문적,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및 문화적 강점과 요구를 다루는 것을 지원하며, 이들이 모든 학생과 함께 다중언어, 다문화력 및 다문화적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고품질 언어 프로그램, 고급 과정 및 진로 관련 학습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함.

■ 국가 센터는 LEAs가 직면한 교수학습 관련 실행 과제와 국가적으로 떠오르는 교육 주제에 중점을 두고 고품질/고효과 기술 지원 및 역량 구축 서비스를 제공함. 각 주는 14개의 지역 센터 중 하나에 할당되며, 해당 지역 센터는 종합 센터 네트워크에 접근하는 창구 역할을 함. 지역 센터는 주에 지역별 자원을 제공하여 저소득 가정 학생들, 개선 대상 학교의 학생들, 역사적으로 소외된 학생들에게 증거 기반 정책 및 실천을 구현함.

2024년 09월 27일

출처 : <https://www.ed.gov/about/news/press-release/biden-harris-administration-announces-new-centers-advance-educational>

10. 영유아 보육 및 교육 현장에서의 코칭: 코칭 건수와 소요된 시간 중심으로

- SCOPE 연구(The Study of Coaching in Early Care and Education Settings, 이하 SCOPE)는 영유아 보육 및 교육 현장에서 코칭 활용도의 변화 추이를 조사하기 위해 설계됨. 연구 표본은 지리적으로 분산된 7개 주에서 모집되었으며, 코칭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기관이 적어도 한 곳 이상인 지역 중 선정함.
- SCOPE 연구 표본은 센터 기반 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이 포함되며, 이들 어린이집은 주로 헤드 스타트 보조금 및/또는 아동 보육 및 개발 기금 보조금을 수혜받는 저소득 가정의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함.
- 설문 조사는 코칭 전문가, 센터 기반 어린이집에 근무하며 코칭을 받은 교사, 그리고 가정 어린이집 기관장을 대상으로 실시됨. 설문 데이터는 2019년에 수집되었으며, 2019년 설문 조사에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2022년에 후속 설문 조사가 진행됨.
- 초기 설문 조사에서는 광범위한 코칭 기능 및 과정, 프로그램 특성, 그리고 코치에게 제공된 지원을 조사함. 후속 설문 조사에서는 COVID-19가 코칭 실행에 미친 영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봄. SCOPE 연구의 데이터는 아동 및 가족 데이터 보관소(Child and Family Data Archive)를 통해 2차 분석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
- 이 보고서는 SCOPE 2019 설문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코치의 코칭 건수와 코칭 시간에 대한 정보를 설명함. “코칭 건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함. 일반적으로 코칭 건수란 코칭을 받는 교사 또는 기관장의 수”로 간주될 수 있음. 그러나 코칭 건수를 계산할 때는 센터 수준과 교사/기관장 수준에서의 계산 방법, 코칭 대상 기관들의 지리적 분포, 미팅 빈도와 같은 기여 요인, 그리고 코칭 내용의 편차(각 교사나 기관장이 동일한 코칭을 받았는지, 맞춤형 코칭을 받았는지 여부) 등이 해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교사/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코칭 건수는 매우 다양했으며, 일반적으로 센터와 가정 어린이집을 모두 담당하는 SCOPE 2019 코치들의 코칭 건수가 더 많았음. 상당수의 SCOPE 2019 코치들은 정규직으로 근무하며, 근무 시간의 대부분을 코칭 관련 활동에 사용했는데, 이는 현장에서 교사 및 기관장에게 직접 코칭하는 것이 그들의 주요 업무였음을 시사함. 기관의 종류, 코칭 건수에 상관없이, SCOPE 2019 코치들은 교사 및 기관장들과 자주 만나고 소통한 것으로 나타남.

2024년 12월 11일

출처 : <https://www.acf.hhs.gov/opre/report/coaching-early-care-and-education-settings-snapshot-coach-caseloads-and-time-spent>

❖ 아동·청소년지원

1. 바이든 행정부, 여성·영유아·아동·청소년 HIV 치료를 위한 자금 지원 발표

- 2024년 7월 31일, 미국 보건복지부는 보건자원 및 서비스 관리국(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 이하 HRSA)을 통해 저소득 여성, 영유아, 아동, 청소년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이하 HIV) 감염자에게 가족 중심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6,800만 달러(한화 약 930억원) 규모의 Ryan White HIV/AIDS 프로그램을 발표함.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 HIV/AIDS 대책을 지원하고 발전시킨 것임.
- HRSA 관리자 캐롤 존슨은 모성 건강 증진 전략을 위한 최근 주정부 회의에서 보조금 수혜자를 발표함. 메릴랜드 주 볼티모어에 위치한 모건 주립 대학에서 열린 회의에 메릴랜드 지역 지도자, 주 및 지역 보건 당국자, 보조금 수령자들이 참석함. 지난해 HRSA는 모건 주립 대학을 필두로 16개 이상의 대학과 협력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모성 건강 연구 협력을 시작함. HRSA는 이 연구에 5년간 5천만 달러 한화 약 684억원)를 투자함.
- “보건복지부는 출산모와 아기들이 건강을 유지하도록 돕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우리는 HIV 감염자에 대한 치료를 포함한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오늘 HRSA가 발표한 지원금은 전국의 여성, 유아, 어린이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쓰일 예정입니다”라고 보건복지부 장관 자비어 베세라가 말함.
- “우리는 많은 HIV 감염 여성들이 HIV 치료에 있어 사회적 낙인과 지원 부족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으로 전국의 지역 사회 기반 조직들이 HIV 감염 여성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문화적인 접근방식으로 HIV 치료를 제공할 것입니다.”라고 HRSA 관리자 캐롤 존슨이 말함.
- HRSA의 Ryan White HIV/AIDS 프로그램은 56만 명 이상의 저소득 HIV 감염자에게 종합적인 HIV 일차 의료, 약물 및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 이 프로그램은 HIV 감염자와 그들의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음식, 육아, 주택, 교통 접근과 같은 문제 요인을 해결하여 환자가 지속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함.
- 2022년 기준, Ryan White HIV/AIDS 프로그램을 통해 142,000명 이상의 여성이 의료 혜택을 받았으며, 이는 프로그램 전체 이용자의 4분의 1에 해당함. 이 중 89.9%가 HIV 바이러스 억제 상태에 도달했으며, 이는 HIV를 타인에게 성적으로 전염시킬 수 없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의미함.

■ 오늘 Ryan White HIV/AIDS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금 발표는 모성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HRSA의 포괄적인 작업의 일환임. HRSA의 모성 건강 증진 대책은 지역사회 및 전국에 위치한 보건 당국과 협력하여 모성 사망률 및 모성 건강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HRSA의 모성 건강 작업을 가속화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임.

2024년 07월 31일

출처 : <https://www.hhs.gov/about/news/2024/07/31/biden-harris-administration-announces-more-68-million-improve-access-hiv-care-women-infants-children-youth.html>

❖ 기타

1. 연방 최초 물 지원 프로그램 시행 및 영향 보고서 발간

■ 2024년 1월 23일, 미국 보건복지부는 아동가족청을 통해 저소득 가구 물 지원 프로그램(Low-income Household Water Assistance Program: 이하 LIHWAP) 시행 및 영향 보고서를 발간함. 보고서에 따르면 LIHWAP를 통해 2023년 6월 말까지 100만 가구 이상이 보조금을 수령했으며 이는 프로그램 시행 후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임.

■ LIHWAP는 총 11억 달러 규모의 연방기금을 지원받아 아동가족청 내 지역사회 서비스 사무국(Office of Community Services)에서 운영함. LIHWAP는 상하수도 서비스를 복원하고 단절을 방지하며 저소득 가구의 수도세 인하를 위한 최초 긴급 프로그램임. 프로그램에 할당된 연방기금은 주와 지자체에 보조금 형태로 배포됨.

■ 아동가족청 차관대행 제프 힐드는 “LIHWAP 시행 이전에는 수도세를 지불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가족과 개인을 지원하는 연방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LIHWAP는 아동, 가족, 및 개인을 더 잘 지원할 수 있도록 자원을 제공했으며 오늘 발표된 보고서 및 관련자료는 프로그램의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세히 설명합니다”라고 말함.

■ 2023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LIHWAP 기금의 93%가 집행되었으며 일부 보조금 수령자는 이미 할당된 보조금을 모두 지출하고 프로그램을 종료한 상태임. 추가 예산 책정없이 나머지 보조금 수령자의 프로그램은 2024년 3월 31일 또는 그 전에 종료될 예정임. 보건복지부는 LIHWAP 시행 모범 사례와 프로그램 운영 결과를 통해 지속적인 교육 및 기술 지원을 제공 할 예정임. 보고서 전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음.

<https://acfhs.foleon.com/lihwap/impact-report>

2024년 01월 23일

출처 : <https://www.acf.hhs.gov/media/press/2024/hhs-releases-initial-implementation-and-impact-report-first-ever-federal-water>

2. 미국 어린이 학습자에 대한 주요 국가 데이터, 2023-24년 유아기 종단연구 착수

■ 2024년 봄, 2023-24년 유아기 종단 연구(ECLS-K:2024)는 전국 수백 개 학교의 수만 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한 첫 해를 마무리함. 미국 교육통계센터(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NCES)는 유아기 데이터 수집 프로젝트를 의회를 통해 위임받았음. NCES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종단 연구를 수행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이전 연구에서는 1998-99년, 2010-11년 유치원 재학 아동을 조사했음. 또한 출생부터 유치원 입학까지 영유아를 추적하는 출생 코호트(ECLS-B) 연구도 실시했음.

■ 작년에 착수된 ECLS-K:2024는 아동과 성인(예: 부모, 교사, 학교 관리자) 모두에게 데이터를 수집하여 가정과 학교의 다양한 요인이 아동의 발달과 학습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더 잘 이해하는데 도움을 줌. ECLS-K:2024를 통해 유치원 재학생 뿐만 아니라, 유치원 교사와 학교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 할 수 있음.

■ ECLS-K:2024 종단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치를 지님.

- ECLS-K:2024는 공교육 개선을 위해 데이터 기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필요한 통계 자료를 정책 입안자에게 제공함.
- ECLS-K:2024는 연구자들이 유아 및 유아교육과 관련된 오늘날 가장 시급한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함.
- 부모, 가족, 교사, 학교를 위한 자료를 제작하여 아동의 교육 및 발달에 대해 잘 알릴 수 있음.

■ 소규모 연구를 통해서도 교육 및 발달에 관한 수많은 질문에 답변할 수 있지만 ECLS-K:2024는 국가 차원의 답변을 제공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유치원에 입학한 아동의 기술 및 능력과 출신지역 간 연관성 여부, 영유아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한 아동과 이용하지 않은 아동의 차이 여부, 소득수준이 다른 가정의 자녀에 대한 차이 여부 등 ECLS-K:2024 국가 데이터를 통해 다양한 문제에 대한 관계성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음.

■ ECLS-K:2024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을 경험한 학생 집단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최초의 유아기 종단연구임. 코로나19는 아동의 초기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학교 교육에는 어떠한 변화를 일으켰는지 15년 또는 25년 전 유치원 재학 아동의 경험과 비교하여 연구 할 수 있음.

- ECLS-K:2024는 이전 유아 종단연구에서 조사하지 않은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이 연구에는 가정의 유치원 선택, 가정용 컴퓨터 및 기타 디지털 장치의 가용성 및 사용, 학부모교사 기여도, 공평한 학교 관행 등이 포함됨.
- 초기 ECLS는 아동 발달 및 조기 교육에 대한 미국의 이해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학습능력 및 학교 성과, 학습을 촉진하는 가족 활동, 아동의 사회·정서·신체 발달 및 건강 등에 대한 수백 건의 연구 간행물이 출판됨. ECLS는 언론매체와 연방 및 주 의회 보고서에도 참고됨. ECLS-K:2024 출시로 새로운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수행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됨.

2024년 03월 11일

출처 : <https://ies.ed.gov/blogs/nces/post/celebrating-the-ecls-k-2024-providing-key-national-data-on-our-country-s-youngest-learners>

3. 바이든 행정부, 공공 기관의 권한을 확대하여 아동 복지 관련 법적 비용 지원 예정

- 2024년 5월 10일, 미국 보건복지부는 아동가족관리청을 통해 주 정부와 아동 복지 기관이 연방 기금을 사용하여 위탁 양육 자격이 있는 아동, 부모, 친족 보호자, 인디언 보호자 및 부족에게 법적 대리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대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함.
- 보건복지부 장관 자비에르 베세라는 “아동 복지 제도가 보호하는 아동과 가족들은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여 그들의 안전을 보장 할 수 있는 많은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규정은 아동의 필요를 지원 할 때 발생하는 민사 법률 서비스 비용을 연방 기금을 사용하여 충당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고 말함.
- 아동복지기관 지원 대상 가족들은 건강, 주거 또는 경제적 어려움 중에 있거나 회복 중인 상황에 있는 경우가 많음. 연구에 따르면 민사 법적 절차에서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독립적인 법률 대리인을 제공하는 것은 아동이 위탁 양육되는 것을 방지하고, 가족재결합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아동가족청 차관보 제프 힐드는 “위탁 양육 시스템 이용은 항상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우리는 문제 발생 전 예방적 접근을 통해 가족이 변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더 많은 가족, 청년 및 소수 부족이 중요한 법률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고 말함.
- 해당 규정은 인디언 아동이 주 법원 위탁 양육 절차를 밟게 될 때 부족의 법적 대리인 고용을 위한 연방 기금 사용을 허용함. 예를 들어, 새로운 규정에 따라 아동복지기관은 위탁 양육 시스템에 들어갈 위험이 있는 가족에게 안정적인 주택을 확보하고, 공공 혜택을 제공하며, 아동과 가족의 분리를

방지하기 위해 양육권 또는 후견인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법률 대리인을 제공할 수 있음. 연방기금은 위탁 양육된 인디언 아동의 중요한 정보를 법원에 제공하기 위해 가족의 변호사 또는 대표자의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음.

- 또한, 아동복지기관은 아동이 위탁 양육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경우 학대자에 대한 보호 명령을 받기 위해 발생하는 법률 대리 비용을 연방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음. 더불어, 이 규정은 법률 대리인 고용 비용을 지원하여 위탁 양육을 떠나는 청소년이 독립성과 안정성을 보장받는데 필요한 법적 문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

2024년 05월 10일

출처 : <https://www.hhs.gov/about/news/2024/05/10/biden-harris-administration-finalizes-rule-expanding-public-agencies-ability-fund-legal-representation-on-behalf-families-involved-child-welfare.html>

4. 보건복지부, 이혼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 이행을 돕기 위한 고용 및 훈련 지원 제안

- 2024년 5월 31일, 미국 보건복지부는 아동가족청을 통해 주 정부 자녀 양육비 프로그램이 연방 자금을 사용하여 비양육 부모(noncustodial parents, 이혼 후 친권은 없지만 양육비를 지급 할 의무가 있는 부모)에게 고용 및 훈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 규칙을 발표함. 이러한 서비스는 부모의 수입을 늘리고, 자녀와 가족의 삶을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양육비 지급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남.

- 보건복지부 장관 자비에르 베세라는 다음과 같이 전함.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고용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부모에게 필수적입니다. 이 규칙은 비양육 부모가 안정적인 재정의 원천인 직업을 구하기 위한 훈련을 제공받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돕고 재정적 안정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지원 서비스를 계속해서 투자하고 시행할 것입니다.”

-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실업 및 취업 부모에게 고용 및 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음. 이러한 프로그램은 고용률과 수입 증가 뿐만 아니라 양육비 금액, 횟수 및 정기적 양육비 지급을 증가시킴. 최소 25개 주에서 이미 이러한 고용 및 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연방 지원은 없었음. 이번에 제안된 규칙은 주 정부 자녀 양육비 프로그램이 직업기술 평가, 훈련 및 취업 서비스에 연방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아동가족청 차관보 제프 힐드는 “아동가족청은 자녀 양육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부모가 자녀 양육과 웰빙에 기여할 의무를 다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 정부는 일정 자격을 갖춘 부모를 위한 고용 및 훈련 서비스를 유연하게 제공하여, 더 많은 자녀가 이혼 후에도 부모 모두가 양육에 기여하는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말함.

■ 자녀 양육비 서비스국 위원장 탱글러 그레이는 “많은 주에서 부모의 노동력 참여를 증가시키고, 양육비 지급명령 준수율을 높이며, 가족에게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은 기존의 주 정부의 노력을 지원하고, 다른 자녀 양육비 프로그램이 고용 및 훈련 노력을 시작하고 지속하도록 도울 것입니다.”라고 전함.

2024년 05월 31일

출처 : <https://www.acf.hhs.gov/media/press/2024/hhs-proposes-rule-promote-employment-and-training-services-help-parents-meet-their>

5. 어머니 정신 건강 개선 프로그램 MOMS 사업 수행 보고서 발간

■ 이 보고서는 Western Mass Mental Health Outreach for Mothers Partnership(Western Mass MOMS, 이하 MOMS) 프로그램 실행 전반과 비용을 다룸. MOMS는 여성과 성소수자들 중 우울증 증상을 경험하는 저소득층 어머니 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설계됨. 프로그램의 목적은 우울증 증상 감소, 사회적 연결 개선, 노동 시장에서의 경쟁력 향상임. MOMS는 저소득층과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고용 전략을 평가하려는 NextGen(Next Generation of Enhanced Employment Strategies, 이하 NextGen)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실행됨. NextGen 은 무작위 대조군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매사추세츠에서 MOMS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고 있음.

■ 이 보고서는 2011년에 개발된 MOMS 파트너십 모델을 기반으로 어머니의 정서적 웰빙을 개선하고 교육 및 취업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 MOMS의 기획, 실행 및 비용 전반을 다룸. MOMS는 인지 행동 치료에 기반을 두고 스트레스 관리 교육과정을 제공했으며, 개별 상담 및 단체 취업 연결 프로그램도 추가로 제공함. 비영리 인적자원 서비스 제공업체인 Viability는 매사추세츠주 스프링필드 지역과 홀리오크 지역에서 MOMS를 실행함.

■ 결과적으로 MOMS 프로그램은 대부분 기획대로 실행되었으며 참가자당 비용은 1,719달러(한화 약 223만원)였음. 프로그램 그룹에 무작위로 배정된 연구 참가자의 대부분은 MOMS 스트레스 관리 교육과정을 마침. 직원 간, 직원과 참가자 간, 참가자 간의 강한 유대 관계는 MOMS의 성공적인 구현의 근간이 됨. MOMS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지역 사회에서 제공되는 정신 건강 서비스 간의 구분이 분명했으며, NextGen은 불안과 우울증 등 특정 심리에 의한 영향을 감지하는 데 적합했다고 평가됨.

■ 반면, MOMS는 보육서비스와 대중교통 등 취업에 필수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고려없이 설계되어 프로그램의 효과를 감소시켰다는 평가가 있음. 프로그램 효과의 주요 원인은 앞서 언급한 무작위 대조군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확인할 예정임. NextGen 연구팀은 MOMS에 무작위로 배정된 참여자와 비교 그룹을 서비스 이용 차이를 분석할 예정임. 프로그램 종료 후 6개월 후속 기간을 다루는

첫 번째 성과 보고서는 2026년 가을에 발표될 예정이며 18개월 후속 기간을 다루는 다음 보고서는 2027년 가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2024년 12월 17일

출처 : <https://www.acf.hhs.gov/opre/report/building-skills-and-peer-connections-improve-mothers-mental-wellness-implementation>

독일

임신·출산 지원		
1	낙태 관련 임신부 보호법 초안 채택	80
2	앞으로 임신부 괴롭힘은 범법 행위로 처벌됨	81
일·가정 양립		
1	엄마의 일·가정양립 과제	82
2	가정과 일의 균형은 전문인력 확보에 있어 중요한 사안임.	86
양육지원		
1	육아(부모)수당 개편	89
2	아빠들의 육아수당 신청이 최고치를 기록했음	90
3	가족부, 아동과 가족을 위한 지원을 강화	91
4	부모 가이드를 통한 가족 지원	92
유아교육·보육		
1	연방 지원을 통한 어린이 보육 서비스 개선	94
2	아동돌봄 질적 향상을 위한 협력	96
3	어린이집 환경의 질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가 다음 단계로 접어들	97
4	어린이집과 종일반 교사인력 확보: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전략	98
5	교육 보고서 2024: 저소득층 가정의 필요가 충족되지 못함.	100
6	가정 돌봄에서 자리가 보장된 어린이집 돌봄까지	103
7	연방 내각이 더 향상된 어린이집 환경개선법 초안을 채택함.	104
8	전국적인 종일반 돌봄 서비스 확대	106
9	가정외 육아 돌봄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	107
10	독일 연방 정부는 어린이집 환경 개선을 위해 40억 유로를 추가 투자하기로 함	109
11	어린이집의 연방주별 격차 및 통합 지원 현황	111
기타		
1	남녀 돌봄 시간 차이에 관한 통계청의 발표	112
2	가족 구조와 이혼 가정의 아동돌봄 현황 조사	115
3	가족 보고서 2024	116
4	부모의 이혼에 대처하기	117
5	2025: 가족, 돌봄 그리고 민주주의에 관한 새로운 원동력	120

●● 임신·출산 지원

1. 낙태 관련 임신부 보호법 초안 채택

- 2024년 1월 24일, 연방 정부는 연방 여성부 장관 리사 파우스가 제출한 제2차 임신 갈등법 (Schwangerschaftskonfliktgesetz) 개정법 초안을 채택했음. 이 법안을 통해 연방 정부는 임신 상담 센터와 낙태 시술 시설에서 낙태 반대 운동가들의 불법적인 괴롭힘으로부터 임신부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음.
- 연방 여성부 장관 리사 파우스 장관은 “우리는 임신부의 권리를 강화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담 센터, 수술실, 진료소 앞에서 일어나는 괴롭힘과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 임신부를 효과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열려있는 임신 갈등 상담을 통해 태어날 수도 있는 생명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에 제한을 걸 것입니다. 개정법은 이러한 내용을 담기 위한 초석을 마련한 것입니다”라고 전함.
- 임신 상담소 및 낙태 시술 시설 앞에서 임신부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괴롭힘이 금지됨. 여기에는 괴롭힘을 처벌할 수 있는 벌금형 규정이 도입될 예정임. 임신부를 보호하는 것 외에도 임신 상담소 및 낙태 시술 시설의 직원도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함.
- 이 법 초안은 여성이 임신 갈등 상담을 어느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고, 낙태 수술 기관에 방해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법 초안은 이른바 “길거리 괴롭힘” (Gehsteigbelastigung)에 대처하기 위한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며, 이 법의 목적은 연방 주정부가 괴롭힘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법적 안전장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 이 법 개정안은 또한 지역별 진료 상황을 더 잘 파악하기 위해, 임신중지법에 따른 낙태 현황에 관한 연례 평가를 각 연방 주 단위로 연방 통계(Bundesstatistik)에 보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4년 01월 24일

출처 : <https://www.bmfsfj.de/bmfsfj/kabinett-beschliesst-gesetzesentwurf-gegen-gehsteigbelaestigungen-235866>

2. 앞으로 임신부 괴롭힘은 범법 행위로 처벌됨

■ 임신부 괴롭힘 방지법이 11월 13일부터 시행됨. 이로써 임신부들이 임신 상담소 및 낙태 시술 시설에서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됨. 연방 및 주 정부는 임신 갈등법 개정 2법(Schwangerschaftskonfliktgesetz)을 통해 낙태 반대 운동가들의 불법적인 괴롭힘으로부터 임신부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이를 통해 임신부의 권리와 상담 및 보호에 대한 법적 개념이 강화됨.

■ 리사 파우스 연방 가족부 장관은 “길거리 괴롭힘 방지법(Gesetz zur Verhinderung von Gehsteigbelästigung)이 시행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상담 센터를 찾는 여성들이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됩니다. 이 법은 임신부 자신의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를 책임감 있게 다룰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임신부는 편견 없는 상담을 받을 권리와 임신 중절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법으로 여성의 권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연방 주에 명확하고 실용적이며 법적으로 안전한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법적 허점을 메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함.

■ 개정된 임신 갈등법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방해받지 않고 시설을 사용하는 것: 임신 갈등 상담 센터와 낙태 수술을 하는 수술기관, 센터 또는 병원에 대한 어떠한 방해도 없이 접근 및 사용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연방 주에 있음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임.
- 상담을 원하는 임신부에 대한 보호 강화: 개정안은 임신 갈등 상담 센터 근처와 병원 및 수술 센터 앞에서 임신부를 괴롭히거나 협박 또는 출입을 막는 등의 행위를 금지함.
- 직원 보호 강화: 임신 갈등 상담 센터와 낙태를 시행하는 시설의 직원도 보호받게 됨. 이는 이들이 방해받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임.
- 일관된 처벌: 괴롭힘과 업무 방해에 대해 최대 5,000유로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벌금형 규정이 도입됨.
- 데이터 현황 개선: 낙태를 시행하는 시설의 수에 대한 정보 획득을 개선하기 위해 임신중절법에 따라 연방 통계 작업이 추가될 계획임. 이로써 지역의 공급망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게 됨.

2024년 11월 13일

출처 :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alle-meldungen/belaestigung-von-schwangeren-zukuenftig-ordnungswidrigkeit-246008>

❖ 일·가정 양립

1. 엄마의 일·가정양립 과제

■ 오늘날의 엄마들은 30년 전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은 교육을 받고 노동 시장에서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음. 대학 학위를 가진 여성의 비율은 밀레니엄 시대에 접어들어 이후 16%(1999년)에서 27%(2022년)로 증가했음. 또한 1995년에는 15~64세 여성의 절반 이상, 자녀를 가진 여성의 60%만이 직업 활동을 한 반면, 2022년에는 18~64세 엄마 중 4분의 3 이상이 직업 활동을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 상당수가 재정적 독립에 어려움을 겪으며, 노년기에 빈곤에 처할 위험이 높음.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65세 이상 여성 5명 중 1명이 빈곤 위험에 처한 것으로 나타남.

■ 연구 저널 DJI Impuls의 최신호에서 크리스티나 볼 박사는 이러한 현상이 어떻게 발생했으며, 엄마들의 경제적 자립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석함. 독일 청소년 연구소(DJI)의 가족부 책임자인 그녀는 DJI에서 가족과 엄마들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의 결과를 바탕으로 성 역할 모델, 부모됨의 개념, 고용 패턴,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화하는 가족 형태의 영향을 설명하며 “교육과 고용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엄마들은 여전히 무급 돌봄과 가사 노동의 대부분을 수행하고 있다”고 요약함. 지난 몇 년 동안 경제 활동 시간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가정 엄마들의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도 늘어남. 따라서 엄마들에게 “가정과 직장 사이의 일상적인 균형, 가족, 자녀, 직장 그리고 자신의 요구 사이의 정서적 균형”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음. 크리스티나 볼은 어린이집과 같은 구조적 지원이 항상 신뢰롭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 요구 사이에서 균형잡기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고 함.

연구 원문(지난 60년간의 엄마들에 관한 연구 요약)

■ 지난 60년 동안 엄마들의 삶은 여러모로 변화했음. 1950년대와 1960년대 결혼의 황금기에는 젊은 나이에 결혼하고, 자녀 둘에, 남자가 단독으로 생계를 책임지는 중산층 핵가족이 표준이었지만, 결혼이라는 제도의 중요성이 감소하고 동거 커플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 오랜 결혼 생활 후 이혼하는 경우가 예전에 비해 흔하기 때문에 노년기에 배우자로부터 부양을 받는 일은 흔하지 않음. 2022년도 통계에 의하면, 은혼식(실버웨딩: 25주년)을 경험한 부부 6쌍 중 1쌍이 이혼한 반면, 1995년에는 10쌍 중 1쌍이었음(Destatis 2023a).

■ 가족의 동거 형태는 점점 더 세분화되고 있음: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 5곳 중 1곳은 한부모 가정이며, 한부모의 85%는 여성임(Destatis 2023b). 또한 의붓가정, 위탁 가정, 입양 가정에서 성장하는 아동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음. 이로 인해 가족 구조가 더욱 복잡해졌으며, 그로 인한 조직, 관계 그리고 갈등관리 또한 주로 엄마들이 처리해야 할 일이 됨.

■ 가족 형태의 다양성과 더불어 문화적 다양성도 증가하고 있음. 2022년 독일 인구의 24%는 이민 배경을 가지고 있음(Destatis 2023c). 외국에서 독일로 이주한 엄마들은 새로운 외국 환경에서 가족 생활을 꾸려나가기야 하며, 가족 네트워크는 점점 더 여러 지역으로 넓혀졌으며, 때로는 국제화 되어가고 있음. 세계화된 직업 세계는 또한 나중에 성인이 된 자녀들이 부모와 떨어져 살게 되는 경우가 증가하며, 업무량의 증가로 이전보다 노년기의 부모를 돌볼 수 있는 경우가 감소함. 따라서 어머니들(및 아버지들)의 경우 가족 외의 지역 지원 네트워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음.

■ 엄마들을 위한 지원 네트워크 부족 - 마더 센터를 통한 지원

- 가족들이 이러한 지원 네트워크를 찾을 수 있는 곳 중 하나는 현재 독일 전역 400여 개가 있는 이른바 마더 센터임. 독일 청소년 연구소(DJI)는 1976년부터 1980년 사이에 육아에 관한 프로젝트를 통해 이러한 센터의 발전 기반을 마련했음. 당시에는 독일 민법 제1356조에 명시된 전통적인 성 역할 모델이 여전히 지배적이었음. 1958년 법에서는 여성이 가사 및 가족 의무와 양립할 수 있는 경우에만 취업할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음. 출산 후 노동 시장을 떠난 여성들은 종종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사회를 위한 중요한 일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으로 고통받았음.

- DJI 연구원들은 당시 연방 가족부의 의뢰를 받아 가족 교육 및 육아 프로그램이 모든 가족에게 동등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음. 연구진은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을 분석하고 엄마들의 자아상과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인터뷰했음. 그 결과, 엄마들은 자신을 자신이 놓인 환경의 전문가로 여기며, 특히 일상적인 문제와 상호 지원의 의미에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다른 엄마들과 교류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음(Jaekel/Tillmann 1988).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DJI 연구진은 마더센터의 개념을 개발했음. 1980년대 초, 가족부는 잘츠기터, 뮌헨, 다름슈타트 세 곳에서 모델 센터를 처음 시행했음. 이후 DJI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다른 지역에 추가로 마더센터를 설립, 개발 및 과학적으로 모니터링했음.

■ 여전히 여성이 무급 돌봄과 가사 노동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음.

- 1970년대 여성 해방 운동과 함께 전통적인 어머니상에 관한 변화가 시작됨. 보육 시설의 보급과 현대 가전제품 기술의 출현으로 여성들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음. 동시에 자가용, 주택, 휴가 여행 등 풍요로운 사회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여성들은 가족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추가 수입을 벌어야 했고, 여성과 엄마들의 취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음.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1977년 독일 민법 1356조의 개정을 이끌었으며, 이에 따라 이제 부부 모두 취업할 수 있고, 상호 합의에 따라 가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됨.

- 1995년에는 15세에서 64세 사이의 여성 중 절반 이상(55%)이 직업 활동을 했으며, 자녀를 둔 여성의 경우 그 수치는 거의 60%에 달했음. 그 후 이 비율은 2022년에 73%로 더 상승하여 18세에서 64세 사이의 엄마들 중 4분의 3 이상(78%)이 직업 활동을 함. 대부분의 워킹맘은 현재에도 여전히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으며, 2022년의 파트타임 비율은 2005년과 마찬가지로 약 3분의 2를 차지했음(Keller/Krner 2023). 지난 50년 동안 여성의 노동 시장 진출이 증가하면서 교육 수준도 지속적으로 상승함. 여성 인구 중 대학 학위를 가진 여성의 비율은 밀레니엄에 접어든 이후 16%(1999년)에서 27%(2022년)로 증가했음.
- 엄마들의 교육과 노동시장 통합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급 돌봄과 가사노동의 대부분은 여성 즉 엄마들이 담당하고 있음. 소득을 창출하는 직업 활동과 무급으로 이루어지는 아동 돌봄이나 가사 노동을 보다 평등하게 나누고 싶다고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 세대들은 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음. 지난 10년간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은 2022년 연방 및 주 통계청에서 실시한 시간 사용 조사(ZVE: Zeitverwendungserhebung) 결과에서 알 수 있을 것임(*두번째 보고서 내용 참조바람). ZVE에서는 10년마다 개인 가구가 어떤 활동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지 조사하고 있음.

■ 여성의 경력 개발에 성공하는 조건을 조사하는 DJI 프로젝트

- 2007년부터 독일 연방 교육 연구부와 유럽 사회 기금(Europäische Sozialfonds)은 수년간 여성의 경력 경로에(Karriereverläufe von Frauen) 관한 DJI의 연구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했음.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부부 관계, 문화적으로 정착된 인식 및 제도적인 기반 조건 등 여성의 경력 발전을 위한 조건을 조사하는 것이었음. 조사는 참여자 자신의 성장 이야기 및 부부 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짐: 첫째는 부부의 경우 첫째, 상호 이해와 지원을 통해 부부 스스로가 맞벌이를 어느정도 가능하게 하는 것. 둘째, 부부 둘 간의 협력 외에 직장과 국가로부터의 지원이 필요함(Bathmann/Cornelissen/Müller 2013). 당시(육아 수당 Elterngeld이 도입된 지 몇 년 지난 2007년) 저자들의 긍정적 변화 지침안에는 직장 내 적극적인 아빠 역할 강화, 육아수당의 육아휴직 기간 연장, 어린이집 확대 등이 이미 포함되어 있음.

■ 직장과의 균형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어린이집

- 지난 20년 동안 제도적으로 어린이집이 상당히 확대되었지만 아직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U3(만 3세 이하) 부문(BMFSFJ 2023)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임. 여성들이 엄마가 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여전히 어렵기 때문임. 현재 여성 1인당 출산율은 1.45명으로 1972년의 1.73명에 비해 크게 감소했으며, 출산을 미루는 여성도 증가하고 있음: 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은 1963년 27.2세에서 2021년 31.5세

로 높아졌음. 연방 통계청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여성 연령 평균 30.4세에 첫 출산을 함.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 손실도 증가했는데, 어린이집 확대에 이러한 경력 단절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국제 비교에 따르면 아동돌봄 인프라가 잘 발달되어 있고 여성 고용률이 높은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Boll 외, 2013).

■ 엄마와 아빠가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의 증가

- 최근 수십 년 동안 성 역할 모델과 더불어 부모 역할에 대한 개념도 변화함. 독일에서 ‘좋은 부모’에 대한 이해도가 변화하고 있음. 점점 더 어려워지는 취업과 직장생활 등을 감안하며, 자녀에게 좋은 출발을 제공하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은 자녀에게 재정적, 시간적 투자를 늘리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약 20년 동안 국제 가족 연구에서 관찰되어 왔으며 ‘부모 역할의 강화’로 묘사되었음(제9차 가족 보고서 전문가 위원회 Sachverständigenkommission des Neunten Familienberichts 2021). 예를 들어, 양쪽 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의 경우 지난 수년간 엄마들의 소득 활동이 증가 하였고, 아빠들의 육아 참여도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2001/2002년 엄마들의 자녀를 위해 쓰는 시간은 하루 1시간 6분에서 2012/2013년 1시간 31시간으로 자녀를 위한 시간이 25분 더 늘어남. 동시에 아빠의 경우 16분(28분에서 44분)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같은 기간 동안 어머니의 소득활동을 위한 시간은 평균 2시간에서 2시간 26분으로 증가함(연방 통계청 2006, 2015).

■ 파트타임 직장 활동이 엄마들의 경제적 자립을 방해함.

- 엄마들의 경제적 자립을 방해하는 요인은 잦은 파트타임 일자리임. 풀타임 또는 거의 풀타임에 가까운 일자리(주당 32시간 이상)를 가진 엄마들의 경우 10명 중 9명이 소득만으로 생활이 가능한 반면, 소규모 시간제 일자리(15~20시간)를 가진 엄마들의 경우 41%만이 해당됨(Kompetenzbüro Wirksame Familienpolitik 2016). 경제적 독립을 가로막는 또 다른 장애물은 여성의 시간당 임금이 남성에 비해 현재 18% 정도 불리하다는 점임.

■ 2022년에는 65세 이상 여성 5명 중 1명이 빈곤 위험에 처할 것으로 예상됨.

- 이는 잦은 파트타임 근무, 소득 잠재력이 낮은 ‘여성 특유의 직업’의 선택, 적은 승진, 빈번한 경력 단절 등 전형적인 여성 직업 노선 때문임(Boll 2015). 자녀가 있거나 가족을 돌보아야 할 때 일을 줄이거나 아예 포기하는 경우 이는 대부분 여성이며, 대부분의 가정에서 가계 경제를 생각할 때 내리는 결정임. 하지만 여전히 높은 이혼율과 한부모 및 노년기 여성의 빈곤 위험을 고려할 때 이는 근시안적인 결정임이 입증되고 있음. 2022년에 여성과 남성의

연금 격차는 27.8%였음. 65세 이상 여성 5명 중 1명(20.9%)은 2022년(Destatis 2023년)에 빈곤 위험에 처했음.

■ 엄마들의 돌봄 노동이 보수를 받는 사회 보장이 필요

- 현재 엄마들은 30년 전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은 교육을 받고 노동 시장에서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음. 이는 가족 소득뿐만 아니라 엄마들 자신에게도 도움이 됨. 그러나 많은 경우 배우자에 대한 재정적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국가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음. 어떤 경우에는 출신 환경의 영향이, 다른 경우에는 개인 자원의 부족이나 어린이집과 같은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부족이 사회적, 경제적 위험 상황을 초래함. 엄마들은 여전히 가족을 지탱하는 일원으로 양육, 교육, 보살핌, 돌봄, 조직을 담당함.

■ 오늘날 엄마들이 직면한 문제점은 60년 전과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음. 가정과 일 사이의 일상적인 균형, 자녀의 요구, 가족의 행정 및 조직 관리, 직업의 요구 및 자신의 요구 사이의 정신적 균형을 이루어야 함.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제도적 지원 구조가 일시적으로 무너진 것처럼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하기가 더욱 어려워짐. 엄마들은 전반적이고 제대로 이루어지는 돌봄 및 의료 시스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심리사회적 지원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 뿐만 아니라, 가족 친화적인 고용 기회와 사회보장제도에서 특히 돌봄 노동에 대한 더 많은 보수 지급이 필요함.

2024년 01월 18일

출처 : <https://www.dji.de/veroeffentlichungen/aktuelles/news/article/1366-muetter-im-balanceakt.html>

2. 가정과 일의 균형은 전문인력 확보에 있어 중요한 사안임.

■ 일하는 엄마와 아빠, 그리고 간병인(가족 구성원이 간병을 하는 경우)의 성공적인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필요한 것과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직장인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음. 이 연구는 리사 파우스와 함께한 ‘성공 요인, 가족(Erfolgsfaktor Familie)’ 기업의 날(Unternehmenstag)의 중점 사안이었음.

■ 9월 20일 베를린의 독일 경제하우스(Haus der deutschen Wirtschaft) 열린 ‘성공 요인, 가족’ 기업의 날 행사에서 기업과 정치인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전문인력 확보’라는 주제로 모임을 가졌음. 리사 파우스 연방 가족부 장관과 피터 아드리안 독일상공회의소(DIHK Deutsche Industrie-Handelskammer) 회장이 참석한 이 행사에서는 Prognos AG의 ‘가족 친화적 고용주: 선호도 연구’ 결과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음.

■ 2,5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일하는 엄마와 아빠, 가족 간병인의 성공적인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고용주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소개됨. 고용주가 조사 결과에서 나온 요구를 고려한다면 기업의 선호도가 높아질 것임. 독일에서 약 1,400만 명이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이거나 가족 간병인이기 때문에 이들은 노동 시장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함. 많은 사람들이 가족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위해 회사를 바꾸거나 급여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함.

■ 리사 파우스 연방 가족부 장관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용주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소홀히 하면 전문인력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족 문제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서 이직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직원이 42%에 달한다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기업의 업무 문화가 얼마나 중요인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일하는 엄마와 아빠, 가족 간병인은 가정과 직업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향후 2년간 좋은 어린이집에 약 40억 유로를 다시 한 번 지원하는 것은 저희에게 중요한 사안입니다”라고 말함.

■ 피터 아드리안, DIHK 회장은 “모든 분야와 지역에 걸쳐 모든 규모의 기업이 전문인력 부족을 주요 비즈니스 위기 중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기업의 4분의 3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과 엄마들의 근무 시간 연장에 대한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노력과 더불어 안정적이고 잘 발달된 유연한 돌봄 서비스가 필수적입니다.”라고 말함.

■ 추가 연구 결과

- 자녀를 둔 여성들의 근무 시간은 외부 요인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음. 따라서 설문 참여자의 60%는 고용주가 어린이집(아동 돌봄) 운영 시간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유연한 시간 활용이 경력 개발의 불이익으로 이어져서는 안 됨. 따라서 필요한 경우,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 기회와 파트타임 관리는 기업의 선호도를 높임.

- 아빠들의 45%는 고용주가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기를 원함. 아빠들은 가정내 일에 따라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기를 원하며, 특히 주당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유연하게 조율하기를 원함.

■ 직원 설문조사는 기업의 날 행사에서 발표된 회사(기업) 설문조사로 보완됨. 기업 응답자의 3/4 (77%)이 전문인력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함. 이는 일과 삶의 균형 전략이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전략보다 우선시되고 있음을 의미함. 여러 요구사항 중 특히 자녀를 둔 여성들의 근무 시간 연장은 회사측에서 큰 이익이라고 볼 수 있음.

■ 기업 네트워크 '성공요인, 가족'

- 전국적으로 8,90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기업 네트워크 '성공요인, 가족'은 가족을 배려하는 인사 정책에 참여하거나 관심이 있는 고용주를 위한 최대 규모의 플랫폼임. 이 네트워크는 2007년 독일 연방가족부와 현재 독일상공회의소에 의해 설립되었음. 가족을 배려하는 인사 정책에 전념하고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모든 기업과 기관은 회원이 될 수 있음. 회원 가입은 무료임.

2024년 09월 20일

출처 :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alle-meldungen/vereinbarkeit-von-familie-und-beruf-wird-fuer-die-fachkraeftesicherung-immer-wichtiger-245776>

☞ 양육지원

1. 육아(부모)수당 개편

■ 2024년 4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부모수당에 대한 새로운 소득 한도가 적용됨. 또한 부모수당 부부 동시 지급에 대한 제도도 개편됨.

■ 현재 정부의 예산 절감 목표와 모든 부모에 대한 부모수당의 감소를 막기 위해 연립정당은 부모수당 변경에 합의했음. 연방 부모 수당 및 육아휴직법(Bundeselterngehd-und Elternzeitgesetz: BEEG)의 새로운 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연방 가족부는 부모수당이 가능한 한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함.

■ 변경사항

1) 육아(부모)수당을 수혜 받을 수 있는 소득 한도액 하향 조정

- 육아(부모)수당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과세 소득 한도(소득기준액 Einkommensgrenze)가 2024년 4월 1일부터 출생하는 자녀의 부모 및 한부모의 경우 200,000유로로 설정됨. 2025년 4월 1일 이후 출생하는 자녀를 둔 부모 및 한부모의 소득 한도는 175,000유로가 됨.
- 변경된 소득 한도를 통해 지급액 감소를 막을 수 있음. 육아(부모)수당은 특히 출산 후 생기는 소득 감소에 큰 영향을 받는 저소득 및 중산층 가정에 중요하므로 지급액 감소를 방지해야 함.

2) 육아(부모)수당 부부 동시 지급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마련됨.

- 기본 육아(부모)수당을 부부가 함께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개월이며,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에만 가능함. 이를 통해 부모가 육아(부모)수당을 번갈아 가며 받을 수 있도록 장려하고자 함. 연구에 따르면 이는 장기적으로 부부가 육아를 분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 아빠가 일정 기간 동안 혼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아빠와 자녀 간의 유대감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이후 가정생활에서 육아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것임.

3) 육아(부모)수당 플러스(ElterngeldPlus)의 예외 및 특수 상황

- 부모 중 한 명이 육아(부모)수당 플러스를 받으면, 다른 부모도 기본 육아(부모)수당 또는 육아(부모)수당 플러스를 동시에 1개월 이상 받을 수 있음.

- 특별하고 힘든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예외가 적용됨. 이러한 부모는 1개월 이상 기본 육아(부모)수당을 부모 모두 동시에 계속 받을 수 있음.

- 출산 예정일 최소 6주 전에 태어난 특히 미숙아의 부모
- 쌍둥이, 세쌍둥이 및 기타 쌍둥이의 부모
- 장애가 있는 신생아 및 형제자매 보너스(Geschwisterbonus)를 받는 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모

■ 소득기준액 하향 조정 관련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63%)이 소득기준액 인하가 옳다고 답함. 소득기준 인하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이는 4분의 1에 불과했음. 소득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응답자의 대다수(64%)도 옳거나 어느 정도 옳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대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득기준액 인하가 잘못되었거나 다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32%에 불과했음.

■ 육아(부모)수당 동시 지급 변경에 대해서도 조사에 참여한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고 있음. 절반 미만(45%)이 찬성하는 반면, 약 4분의 1만이 아빠, 엄마의 육아(부모)수당 동시 지급을 1개월로 제한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응답함. 쌍둥이, 미숙아 및 장애아 부모에 대한 면제 혜택은 응답자의 78%가 폭넓게 지지했음.

2024년 03월 28일

출처 :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alle-meldungen/neue-regelungen-beim-elterngeld-237792>

2. 아버지의 육아수당 신청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 연방 통계청의 최신 조사결과에 따르면, 점점 더 많은 아버들이 육아 수당을 청구하고 있음. 육아휴직을 하고 육아 수당을 받는 아버들의 비율이 46.2%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연방 통계청의 새로운 수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수치는 2021년에 자녀가 태어난 가정을 기반으로 함. 2020년 이전 출생 자녀 가정의 아버가 육아수당을 청구한 비율은 43.7%였음.

■ 육아휴직 중인 아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대

- 육아수당(Elterngeld)과 육아수당 플러스(ElterngeldPlus)는 출산 후 첫 시기에 자녀를 직접 돌보고 싶어 일을 하지 않거나,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부모들을 위한 가족 수당임. 이런 육아수당은 만 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 보육 확대와 함께 여러 사회적 변화를 불러일으켰음. 자녀 출산으로 인한 육아휴직 후 경력을 이어가는 것은 이제 여러 엄마들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고, 육아휴직을 하는 아빠들에 대한 인식이 좀 더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음. 육아수당은 이런 추세에 맞는 성공 사례이며, 연방 통계청의 수치에서 알 수 있듯이 특히 젊은 아빠들 사이에서 육아휴직의 인기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 2007년 육아수당이 도입되기 전에는 약 3.5%의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했지만, 2009년에는 자녀를 위해 휴직하고, 육아수당을 받은 아빠들이 이미 20%를 조금 밑돌았음.

■ 육아수당 플러스 수급자 수 또한 증가 추세임. 연방 통계청의 2021년 연간 통계 발표에 따르면, 육아수당 플러스의 청구 빈도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음. 2021년 육아수당 플러스 수급자의 비율은 34.8%로 전년도 32.8%에 비해 증가했음. 2023년에 육아수당 수급자 중 육아수당 플러스를 청구한 이는 61만 4천 명으로, 엄마의 비율은 40.9%, 아빠의 비율은 17.7%임. 육아수당 수급자 중 육아수당 플러스를 부분적으로 신청할 계획이 있는 이들의 비율은 34.8%였음. 이와 같이 육아수당 플러스 정책도입 이후 신청율이 증가하고 있음. 도입 첫해인 2016년에는 엄마들의 20.1%, 아빠들의 8.2%가 육아수당 플러스를 선택했음.

■ 육아수당 플러스는 일반적으로 기초 육아수당보다 월 지급액이 낮지만 지급 기간은 더 긴 정책임. 주로 일찍 직장에 복귀하여 파트타임으로 일하기를 원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함. 육아수당 플러스를 통해 육아수당 수령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육아수당을 한 달 수령 받는다면, 육아수당 플러스는 두 달 동안 수령 받게 됨.

2024년 07월 12일

출처 :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alle-meldungen/vaeterbeteiligung-beim-elterngeld-erreicht-neuen-hoehstwert-241986>

3. 가족부, 아동과 가족을 위한 지원을 강화

■ 2025년, 연방 가족부의 예산안이 5억 7천만 유로(8,576억원)가 증가한 144억 4천만 유로(21조 6,672억)로 책정됨. 이 예산으로 아동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원하는데 총력을 가하려 함.

■ 연방 내각은 7월 17일 2025년 정부 예산 초안을 승인했음. 연방 가족부 예산 초안은 2025년에 약 144억 4천만 유로의 지출을 예상하고 있음. 이는 2024년에 비해 예산이 약 4% 증가한 것이며, 2025년 연방 가족부의 예산에 5억 7천만 유로가 더 추가된 것임.

■ 2025년 예산 및 아동 패키지(Kinderpaket)의 주요 정책:

- 연방 정부는 아동 빈곤을 퇴치하고 돌봄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저소득층을 위한 아동 추가수당 (Kinderzuschlag) 예산으로 약 33억 유로가 책정되었

음. 아동 추가수당 예산(약 11억 5천만 유로)이 크게 증가한 것은 최근 이 정책의 활용도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임.

- 2025년부터 아동 수당(Kindergeld)과 아동 즉각 보조금(Kinder-Sofortzuschlag) 은 모두 아동 1인당 월 5유로씩 인상될 예정임. 또한 아동 수당은 연간 60유로씩 인상될 예정임. 2026년부터는 아동 수당과 아동세금면제 수당(Kinderfreibetrag)의 지속적 인상에 대한 법적 규정이 생길 것임.
- 어린이집 환경개선법(Kita-Qualitätsgesetz): 연방 정부는 유아 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해 부가가치세 부담률을 높여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19억 9300만 유로(총 약 40억 유로)를 연방 주에 지급할 예정임.

■ 기타 주요정책

- 독일의 아동 및 청소년 복지를 위한 중앙 기금인 아동 및 청소년 계획(Kinder-und Jugendplan)은 2024년과 동일한 수준인 2억 4,300만 유로(3,656억원)로 계속 유지될 것임.
- 2025년에는 가족, 청소년, 노인, 여성, 시민사회 분야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총 11억 유로(1조 6,549억원)(아동 및 청소년 계획 포함)를 연방가족부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사용될 예정임. 이는 현재 재정 계획보다 약 27% 더 많은 금액임.
- 2025년 약 78억 유로(11조 7,385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육아수당 (Elterngeld)은 연방 가족 부 예산 부문에서 가장 큰 법정 수당에 해당됨.

2024년 07월 17일

출처 : <https://www.bmfsfj.de/bmfsfj/lisa-paus-wir-staerken-kinder-und-familien-242610>

4. 부모 가이드를 통한 가족 지원

- 2022년부터 연방가족부는 부모 가이드(Elternbegleitung) 서비스의 지역 정착을 추진하고 있음. 1,200명 이상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모 가이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1,243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설문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음. 연방가족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부모 가이드(상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90%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음. 설문 응답자의 95%가 다른 가족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답함.

- 베를린 기독교 전문대학의 가족 내 조기 교육 연구팀의 “부모에 초점을 두다(Eltern im Blickpunkt)” 연구에 따르면, 2년 전 부모 가이드 출범 이후 “부모 기회(ElternChanceN)”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 카페(Elterncafe)부터 자녀 교육(학교문제)에 대한 부모 상담에 이르기까지 약 2,000명의 초창기 부모 가이드들이 가족 상담 활동을 함.
- 가족 지원 프로그램은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됨. 가족 지원 프로그램은 가족 생활을 더 편하게 해주고(89.8%), 자녀를 더 잘 돌보는 데 도움이 된다고(86.6%) 답함. 특히 특수한 상황에 처한 가족은 부모 가이드 프로그램의 혜택을 더 많이 받음. 설문조사에 참여한 부모 중 대다수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 많은 부모에게 이 서비스는 안정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함. 교육적, 전문적 훈련을 받은 부모 상담사는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 역할을 함.
- 11월에 열린 세 차례의 지역 컨퍼런스에 “부모기회(ElternChanceN) 프로그램”의 활동적인 전문가들과 전국적인 ‘부모 가이드 네트워크(Netzwerk Elternbegleitung)’가 초대되었음. 토론, 지역 정치인의 기초 연설, 대화형 캠프등을 통해 부모 가이드가 어떻게 지역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원동력을 제공함. 부모 가이드가 예방 서비스적 차원에서 어떻게 지역 주요 시설에 좀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다루어짐. 자격을 갖춘 15,000명의 부모 가이드들과의 네트워킹도 중요한 역할을 함. 다른 주제로는 부모 가이드들이 더 많이 학교에 투입되기 위한 초등학교와의 접근성 문제에 대한 토론이었음.
- ESF 플러스 프로그램(ESF Plus Programm): 연방가족부는 13년 동안 부모 가이드를 위한 자금 지원을 함. 부모 가이드들은 가족과 함께 현장에 나가 어린이집, 청소년청(아동 복지청, Jugendamt) 또는 가족교육과 같은 기관과 부모 간의 연결 고리를 형성함. 이들은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을 지원하고, 교육 지원 프로그램 활동을 운영함.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특히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 처한 가족들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장에서 바로 지원할 수 있음. 연방 가족부는 2022년 6월부터 ESF 플러스 프로그램인 “부모 기회(ElternChanceN)”을 통해 일상 현장에 부모 가이드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역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음. 2028년까지 4,500만(45밀리언) 유로의 ESF 및 연방 기금을 사용하여 64개 지역에 지역 부모 가이드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임.

2024년 11월 27일

출처 :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alle-meldungen/familien-profitieren-von-elternebegleitung-250498>

❖ 유아교육·보육

1. 연방 지원을 통한 어린이 보육 서비스 개선

■ 2022년 어린이집 및 사회 참여 개선법(KiTa-Qualitäts-und Teilhabeverbesserungsgesetz: KiQuTG) 4차 모니터링 보고서에 의하면, 어린이집의 교육 전문 인력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지역별 차이가 있음.

■ 연방 가족부 장관 리사 파우스는 “숙련된 전문인력 부족, 코로나 팬데믹의 경험, 유아 교육에 있어 교사와 아동 비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등과 같은 배경을 고려할 때, 어린이집 부문에 대한 투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어린이집 환경개선법(KiTa-Qualitätsgesetz)을 통해 유아교육의 질을 도모하며, 교육성과와 가정환경 간의 연결을 끊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연방 가족부는 현 정부 연합 협정(Koalitionsvertrag)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4차 모니터링 보고서에 의하면, 현 정부의 지원조치가 교사 대 아동 비율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달성하고 어린이집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어린이집의 질을 더욱 높이고 연방 주간의 격차를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라고 말함.

■ 교사 수 증가

-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내 약 6만개의 어린이집에서 긍정적인 발전이 있었음.
- 전국적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 즉 어린이집의 교사 한 명당 돌보는 아동 수가 개선됨. 2022년 기준, 3세 미만 아동의 경우 1:4.0, 3세부터 취학 전 아동의 경우 1:7.8이며, 이는 2019년에 비해 3세 미만 아동의 경우 0.3 정도 줄었고, 3세부터 취학 전 아동의 경우 0.5가 줄어 교사 대 아동 비율이 개선되었음. KiQuTG가 이런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보임. 11개 연방 주에서는 돌봄시간이 연장된 어린이집 또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교사 및 교직원 확대, 교사 및 아동 비율 향상 또는 교육 활동 외 업무 경감을 통해 교육환경 개선을 도모함.
- 어린이집 교직원의 확충은 계속되고 있음. 2022년 3월 1일 기준, 독일 전역의 보육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근무하는 교사 수는 683,000명 이상임. 이는 전년 대비 3.3%, 2019년 대비 12% 증가한 수치임. 2021/2022학년도 신규 유아교육 신입생 수도 총 74,500명으로 전년 대비 약 2% 증가했음. 2018/2019 학년도에 비해 약 5,000명이 증가한 것으로, 약 7% 정도 증가한 수치임. 총 11개 연방 주에서 KiQuTG의 일환으로 전문 인력 채용과 교육을 위한 지원을 함.

- 어린이집 원장 및 부원장의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총책임자가 있는 시설의 비율은 2022년에 다시 증가하여 전국적으로 92.9%에 달했음. 이에 따라 원장 및 부원장이 없는 시설의 비율은 7.1%(2021년: 7.4%)로 감소했음. 2019년 이후 총책임자가 없는 시설의 비율은 2.2% 포인트 감소했음. 연방 7개 주에서는 (KiQuTG)의 일환으로 어린이집 총책임자 역할 강화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짐.

■ 연방 주 간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

-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 주 간에는 여전히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2022년 3세 미만 아동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은 연방 주별로 1:3.0에서 1:5.8 사이였으며, 2019년 이후 연방 주간 교사 대 아동 비율의 수치가 감소되지 않았음.

■ 전국적인 기준 수립을 위한 환경개선발전법(Qualitätsentwicklungsgesetz)

- 장기적으로 어린이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현 정부는 어린이집 환경개선법(KiTa-Qualitätsgesetz)을 전국적인 기준을 가진 환경개선발전법으로 발전시키고자 함. 이는 교사 비율 개선, 언어 교육 및 지원, 수요에 기반한 종일제 프로그램 등의 교육환경에 초점을 맞춤. 환경개선법에 대한 여러 제안을 제시하기 위해 2022년 8월 연방 가족부와 연방 주정부가 지자체와 협동하여 개발하기 시작함.
- 이와 동시에 전문성을 갖춘 교직원을 채용하고 확보하는 데 더욱 노력해야 함. 이는 수요에 맞춰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교육환경의 질 개선, 특히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임. 따라서 연방 정부, 연방 주정부 및 지자체가 함께 유아교육 교사 채용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음.

■ 어린이집 환경개선법(Das KiTa-Qualitätsgesetz)

- 2019년 1월 1일부터 ‘어린이집 환경개선 및 사회참여 증진에 관한 법’(KiTa-Qualitäts- und Teilhabeverbesserungsgesetz: KiQuTG)이 시행되었음. 이 법은 ‘좋은 어린이집 법(Gute-KiTa-Gesetz)’으로 알려진 제1차 어린이 보육의 질적 발전 및 사회참여 증진에 관한 법의 연장선임. 이 법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연방 정부가 연방 기금으로 어린이집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틀을 마련했음. 2023년 1월 1일, ‘아동 보육의 질적 발전과 사회참여에 관한 제2법’, 이른바 어린이집 환경개선법(KiTa-Qualitätsgesetz)에 의해 KiQuTG가 개정되고 그 내용이 더욱 발전하여 2023년과 2024년에도 연방 주정부가

연방 정부의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되었음. 요약하자면, Gute-Kita-Gesetz > KiQuTG > KiTa-Qualitätsgesetz 순서로 발전됨.

2024년 01월 15일

출처 :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alle-meldungen/kindertagesbetreuung-durch-bundesfoerderung-weiter-verbessert-235350>

2. 아동돌봄 질적 향상을 위한 협력

■ 3월 27일, 리사 파우스 연방 가족부 장관과 브레멘의 아동 및 교육 상원의원이자 연방 청소년 및 가족부 장관 회의 의장인 사샤 카롤린 아울렘은 아동 돌봄의 환경개선 발전을 위한 지속적 지원 협약서에 서명했음.

■ 협약을 통해 현재까지 진행된 연방 및 주 정부의 아동 돌봄 환경개선을 확인하고, 아동 돌봄 환경개선을 더 발전시켜 독일 전역에 양질의 표준화된 돌봄 구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명확히 함.

■ 전국적인 기준을 마련한 질적 환경개선법(Qualitätsentwicklungsgesetz) 연방 차원의 연합 합의는 KiTa 어린이집 환경법(KiTa-Qualitätsgesetz)에서 전국적인 기준을 마련한 질적 환경개선법(Qualitätsentwicklungsgesetz)으로의 전환 계획을 의미함. 협약서에서 리사 파우스 연방 가족부 장관과 연방 주 청소년 및 가족부 장관은 연방 정부의 충분하고 무제한적인 재정 지원과 충분한 전문 인력이 있어야만 구속력 있고, 장기적이고 양질의 환경개선을 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함.

■ 2022년 5월 연방 합의와 청소년 및 가족부 장관 회의에서 통과된 결의안을 바탕으로 연방 정부와 주 정부는 체계적이고 열린 논의를 시작함. 연방 가족부 및 연방 주 정부 부처의 대표들은 아동 돌봄의 질적 환경 개선안을 개발하기 위해 2022년 8월부터 유아교육 실무 그룹 모임을 가짐. 이 과정에서 지자체 산하 기관이 긴밀하게 교류했으며, 실무그룹에는 학계 전문가뿐 아니라 현장의 협회 및 단체의 전문가들이 포함됨.

■ 유아교육에 관한 실무 그룹 보고서 발간 “독일의 모든 어린이가 잘 성장하고 동등한 기회를 누리기 - 질 높은 유아교육을 위한 개요서” 보고서가 발간됨. 보고서에는 유아교육 실무그룹에서 개발한 실행 목표와 함께 아동 대 교사 비율 개선, 언어 교육 및 언어 지원, 수요에 기반한 (종일반) 서비스 지원, 시스템 관리 및 모니터링 등 질적 환경 개선을 위한 전국적인 기준에 대한 제안이 수록되어 있음. 보고서 부록에서는 필요 인력, 환경개선기준 비용, 가능한 법적 구조 또는 단계적 절차 등과 같은 실무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음.

■ 아동돌봄 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해 협력하는 연방 및 주 정부 2014년에 연방 정부와 주 정부는 공동 작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어린이집의 환경을 더욱 발전시키고 자금을 확보하기로 합의했음. 유아교육 실무그룹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의 질적 환경 개선을 목표로 위촉되었음. 이는 좋은 어린이 집법(Gute-KiTa-Gesetz 2019~2022년)의 기초가 되었으며, 20대 입법 기간 동안 어린이집 환경법(KiTa-Qualitätsgesetz 2023~2024년)으로 이어져 더욱 발전했음. 연방 정부는 총 약 40억 유로를 각 주에 지원하여 어린이집 환경법을 시행하고 있음.

2024년 03월 27일

출처 :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alle-meldungen/schulterschluss-fuer-mehr-qualitaet-in-der-kindertagesbetreuung-237786>

3. 어린이집 환경의 질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가 다음 단계로 접어듦

■ 종합적인 설문조사 ‘어린이집 돌봄의 기본 여건 개발’(Entwicklung von Rahmenbedingungen in der Kindertagesbetreuung(ERiK0)은 어린이집 환경의 질에 대한 전반적 정보를 제공함.

■ 2024년 3월 초에 세 번째로 시작된 독일 청소년 연구소(DJI) 프로젝트 ‘아동 보육의 기본 여건 개발’, 줄여서 ERiK의 전국적인 데이터 수집이 시작되었음. 이전 조사와 마찬가지로 유아 교육 및 아동 돌봄 시스템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교사, 어린이집 교장 및 교감, 돌봄교사(Kindertagespflegepersonal), 청소년청(Jugendamt) 그리고 돌봄기관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인파스 응용사회과학연구소(infas Institut für angewandte Sozialwissenschaft)와 협력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함. 설문조사에는 제도 내 상황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개별적인 관점과, 어린이집 환경의 기본 조건, 향후 변화 및 도전 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독일 청소년 연구소(DJI)의 프로젝트 팀은 도르트문트 대학교(TU Dortmund)와 협력하여 수집한 설문조사 데이터와 아동 돌봄 관련 정부산하 공식 데이터를 모두 분석하고 있음. 이러한 공식 데이터와 설문조사 데이터의 결합을 통해 ERiK 프로젝트는 어린이집 환경 및 참여 개선법(Kita-Qualitäts- und Teilhabe -Verbesserungsgesetz: KiQuTG)과 연방 가족부(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BMFSFJ)의 연례 보고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조사의 목적은 KiQuTG가 어린이집 환경과 참여에 대한 변화 여부와 변화 내용을 알아보는 것임.

■ 2024년 ERiK 설문조사에는 2020년과 2022년 설문조사의 대부분의 내용이 포함될 것임. 더불어, 심층적인 질문과 최신 주제 및 변화에 관한 항목이 추가될 예정임.

- 예를 들어, 청소년청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돌봄교사 사후 자격 취득 기회와 지자체의 구체적인 지원 서비스 및 재정적 지원(환급) 등이 조사될 예정임.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는 운영자의 활동 영역, 환경 관리 및 전문 상담 업무에 대한 심층 정보 수집이 이루어질 것이며, 교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언어 교육 및 언어 지원에 관한 질문 등이 추가될 예정임.

■ ERiK 프로젝트 총괄자인 시나 팩클러(Sina Fackler)는 “2020년부터 ERiK 설문조사 결과는 아동 돌봄의 기본 조건과 각 지역 상황을 설명하는 데 지속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다양한 관점이 포함되어 있어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라고 강조하며 “일례로 이 프로젝트를 통해 아동돌봄 공간의 가용여부가 공급자 또는 청소년청과 같은 행정적 측면과 이를 직접 실행하는 어린이집과 같은 현장여건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라고 말함.

2024년 04월 05일

출처 : <https://www.dji.de/veroeffentlichungen/aktuelles/news/article/bundesweite-befragungen-zur-kita-qualitaet-gehen-in-die-naechste-runde.html>

4. 어린이집과 종일반 교사인력 확보: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전략

- 아동돌봄 분야의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종합 전략은 아동, 부모 그리고 교육 전문인력의 상황을 개선하고, 새로운 전문교사를 채용하는데 있음. 전문인력의 부족은 육아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점점 더 어려운 요소가 되고 있음. 교사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2030년까지 어린이집에서만 5만~9만 명의 전문 교사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
- 좋은 환경을 갖춘 어린이집 및 종일반 서비스는 교육 기회 제공의 핵심 과제임. 5월 21일, 리사 파우스 연방 가족부 장관은 연방 주정부와 함께 전문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보고서를 발표함. 이는 어린이집 개원 시간 단축, 집단 휴원, 보육교사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생기는 가족, 고용주(회사), 돌봄 서비스 제공자들이 겪어야 하는 고충에 의해 야기됨.
- 전략 보고서는 교육 프로그램 확대와 근무 조건 개선을 권고함. 약 50개의 권고 사항에는 외국 전문 자격증의 인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더 빨리 전문직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함됨. 예를 들어 커리어를 쌓는 정도에 따라 체계적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근무 및 일반 조건이 개선되면 유아교사로서의 전문직 매력도가 더욱 높아질 것임.

■ 보고서의 요약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직업 소개

- 유치원 교사 자격요건 및 교육과정 재정적 지원 등과 같은 다양한 정보 제공, 직업 소개 상담을 강화하며, 다양한 그룹에 접근하며, 이에 적합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
- 어린이집 활동 영역을 넘어, 초등학생을 위한 교육 및 돌봄 프로그램과 아동 및 청소년 복지의 모든 영역에서의 활동 가능성 제시

2) 매력적인 직업교육 및 교사연수

- 수요에 맞춰 교사교육 과정 및 추가 교육과정을 공급하고, 초기 직업교육과정 강화와 보수가 지급되는 교육과정 모델 제공
- 중등학교 (*10학년까지의 졸업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고졸 정도의 교육수준) 졸업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진입 경로 확대
- 경력 개발을 촉진하고 시스템의 투명성 제고
- 기본조건을 충족한 초기 직업교육 및 추가 연수 강화: 초기 직업교육 및 추가 연수 시 보수 지급, 교사 비율에 포함된 교육생 학점 인정 권장, 실무 지도, 학습 장소 간 협력, 수업료 면제 혜택 제공
- 개선된 재교육 지원 기회 활용

3) 잠재적 전문 직업군

- 학습 콘텐츠의 모듈화하여 대면 및 원격 교육 병행 등 초기 교육 및 추가 교육을 유연하게 진행
- 어학 과정, 모범인증(Musterbescheid), 직업 활동을 동반한 자격 취득 기회, 자격증 평가를 위한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통해 외국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들의 고용 개선
- 다부문 전문성 및 그에 수반되는 자격 프로그램 촉진

4) 근무 및 일반 조건

- 근무지 환경을 외부 기관에 의해 정기적으로 검토
- 건강한 근무 조건에 집중하고 정보 및 상담 개선

2024년 05월 21일

출처 :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alle-meldungen/mehr-fachkraefte-in-kitas-und-ganztage-lisa-paus-legt-strategie-zur-fachkraeftegewinnung-vor-240036>
<https://www.bmfsfj.de/resource/blob/240038/23b7b41880a2ca6e962c01271fb1fbca/empfehlungspapier-gesamtstrategie-fachkraefte-in-kitas-und-ganztage-data.pdf>

5. 교육 보고서 2024: 저소득층 가정의 필요가 충족되지 못함.

■ ‘독일의 교육 2024 (Bildung in Deutschland 2024)’ 보고서에 따르면 어린이집과 방과후 돌봄이 지속적으로 크게 확대되고 있지만, 지속적인 공급 격차와 교직원 부족이 존재함.

■ 현재 독일에는 56,000개가 넘는 어린이 돌봄 관련 기관이 있음. 이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수임. 또한 2006년에 비해 약 90만 명의 더 많은 아동이 어린이집과 같은 유아교육 기관을 다님. 이러한 큰 확장에도 불구하고 모든 부모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님. 특히 만 1세와 2세의 경우, 여전히 학부모의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높음. 이는 독일 청소년 연구소(DJI)가 “독일의 교육 2024” 보고서의 일환으로 실시한 분석 결과 중 하나임.

■ 서독의 경우 향후 몇 년 동안 어린이집 자리를 계속 늘려야 할 필요가 있음. 수요를 충족하려면 2035년까지 374,500개에서 505,000개의 어린이집 자리를 추가로 만들어야 함. 동독에서는 인구 감소와 서독에 비해 기존의 어린이집 자리에 대한 수요와 현시점의 필요에 대한 격차가 작기 때문에 최대 12,000개 미만의 어린이집 자리 추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인력 부족 문제는 특히 서독지역이 심함. 동독과 서독의 서로 다른 수요는 인력 상황의 영향도 있음. DJI의 연구 책임자이자 국가 교육 보고 책임자인 수잔느 쿠거 교수는 “동독에서는 수요를 거의 충족하고 있습니다. 추가 인력을 통해 유아교육 환경의 질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서독에서는 향후 10년 동안 훨씬 더 많은 전문 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라고 강조함.

■ 유아교육, 방과후 교육 및 학교 외 활동에 있어서 사회적 편향성

- 독일에서는 이민 배경, 낮은 학력, 전업주부 가정에 불리한 경쟁이 벌어지는 등 자리가 부족한 곳에서는 경쟁이 치열함. 이민 배경을 가진 아동의 3세 미만 그룹과 3~6세 미만 그룹 등 두 연령대 모두, 어린이집 방문 비율이 현저히 저조함. 유아교육 관련 기관을 다니는 것 외에도 이민 이력과 부모의 학력에 따라 가족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과정에서도 차이를 보임. 예를 들어, 이러한 아동들의 가정에서 책을 읽어주는 횟수가 적다는 사실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음.

- 이러한 사회적 편파성은 스포츠 클럽, 음악 학교, 박물관 및 도서관과 같은 학교의 활동이나 유아교육 지원 프로그램의 이용에서도 나타남. 또한 부모-자녀 그룹(Eltern-Kind-Gruppen)과 같은 보편적인 프로그램 사용 역시, 저학력 가정과 빈곤 위험에 처한 가정들의 이용도가 낮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수잔느 쿠저는 “아웃리치 서비스, 즉 가족에게 접근하는 서비스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다가갈 수 있으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함.

■ 취학 연령 아동을 위한 종일반 교육 및 돌봄 서비스

- 유아교육과 마찬가지로 초등학생을 위한 종일제 돌봄의 수요와 공급 사이에 격차가 존재함. 초등학생을 위한 종일반 프로그램 참여율이 2022/23 학년도에는 56%로 증가했지만(2006/07: 21%), 여전히 종일반 교육 및 돌봄에 대한 초등학생 학부모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2023년에는 독일 전역에서 64%가 될 것임. 2022년 종일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학부모의 비율은 동독(6%)보다 서독(11%)에서 더 높았음.
- 종일반 교사의 부족에 대한 불만도 있음. 일부 연방 주에서는 이 분야에서 일하기 위한 대체 자격, 심화 또는 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음. 그럼에도 교육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가 정식 교사 자격 교육을 대체할 수는 없음. 수잔느 쿠저는 “전문 교사 인력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절차는 비판적으로 관찰해야 합니다.”라고 경고함. 다른 한편으로 유아 교육과 학교 부문 간에 교직원 유치 경쟁이 벌어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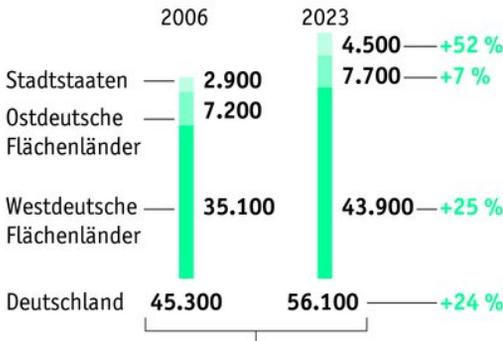
■ 교육 보고서의 주요 주제 및 분석 결과

- 국가 교육 보고서는 올해 10번째로 발간되었음. 이 보고서는 2년마다 독일 교육 시스템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함. 이 보고서에는 공식 통계와 “독일에서의 성장: 일상의 세계 (Aufwachsen in Deutschland: Alltagswelten, AID:A)”, “보육 연구(Kinderbetreuungsstudie, KiBS)”, “아동 보육의 기본 조건 개발(Entwicklung von Rahmenbedingungen in der Kindertagesbetreuung, ERiK)”과 같은 대표적인 대규모 사회과학 설문조사 데이터가 통합되어 있음. 독일 청소년 연구소(Deutsches Jugendinstitut, DJI)는 2006년 국가 교육 보고가 시작된 이래로 광범위한 분석에 참여해 왔음. 이번 보고서는 직업 교육 및 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DJI는 항상 유아 교육, 초등학교 종일반 교육 및 돌봄, 학교 외 활동에 관한 주제를 담당해 왔음.

〈그림 1〉

Fortlaufende Expansion der Anzahl der Kitas gestaltet sich regional unterschiedlich

Kindertageseinrichtungen 2006 und 2023
(Anzahl; Veränderung in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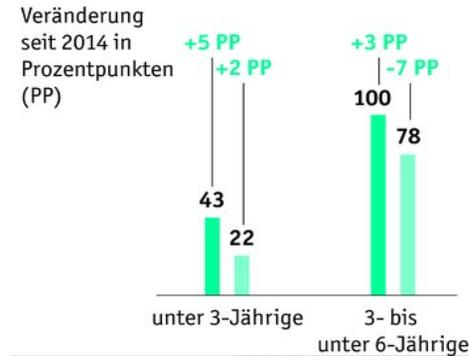
Mehr als **10.000** neue Kitas seit 2006

〈그림 2〉

Kinder mit Migrationshintergrund in Kindertagesbetreuung weiterhin deutlich unterrepräsentiert

Beteiligungsquote nach Herkunft der Eltern 2022 (in %)

■ Beide Eltern in Deutschland geboren
■ Mindestens 1 Elternteil im Ausland geboren



(그림1)

- 어린이집 자리 확장의 지역별 차이:
- 2006년: 대도시 지역 2.900, 동독 지방지역 7.200, 서독 지방지역 35.100, 독일 전체 45.300
- 2023년: 대도시 지역 4.500 (+52%), 동독 지방지역 7.700 (+7%), 서독 지방지역 43.900 (+25%), 독일 전체 56.100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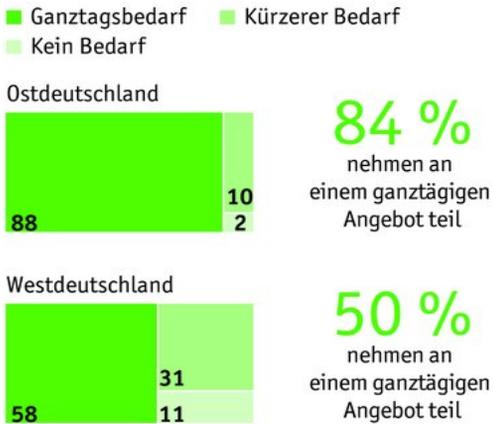
(그림2)

- 이민 배경의 아동들의 어린이집 방문이 현저히 낮음: 2022년 기준
- 초록색: 부모 둘 다 독일에서 태어남
- 밝은 초록색: 부모 둘 중에 한 명 또는 둘 다 외국에서 태어남
- 2014년부터의 변화비율 PP
- 만 3세 이하 이민 배경의 아동 22% (변화율 +2PP), 이민배경이 아닌 가정의 아동 43% (+5PP)
- 만 3~6세: 이민 배경의 아동 78% (변화율 -7PP), 이민배경이 아닌 가정의 아동 100% (+3PP)

〈그림 3〉

Ost-West-Unterschiede in Ganztagsbedarf und -quote bestehen fort

Ganztagsbeteiligungsquote von Grundschulkindern und Elternbedarfsquoten 2023 (in %)



- 동-서독간의 초등학교 종일반 수요 차이 (2023년 기준)
- 초록: 종일반이 필요함, 중간 초록: 종일반은 아니지만 짧은 돌봄이 필요함, 밝은 초록: 필요없음
- 동독: 초록-88%, 중간초록-10%, 밝은 초록-2%, 종일반 돌봄 서비스를 받음-84%
- 서독: 초록-58%, 중간초록-31%, 밝은 초록-11%, 종일반 돌봄 서비스를 받음-50%

2024년 06월 14일

출처 : <https://www.dji.de/veroeffentlichungen/aktuelles/news/article/1428-bildungsbericht-2024-fruehe-bildung-ganztag-und-ausserschulisches-lernen-sozial-stark-selektiv.html>

6. 가정 돌봄에서 자리가 보장된 어린이집 돌봄까지

■ 최근 수십 년에 걸쳐 생후 몇 년간(출생에서 만 3세까지)의 아이들을 돌보는 방식이 크게 바뀌었음. 오늘날에는 3세부터 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거의 모든 어린이가 어린이집에 다님. 심지어 3세 미만 어린이의 3분의 1 이상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데, 1970년대 초반 해도 가정 밖의 돌봄은 잘못되고 위험한 것으로 여겨졌음. 생후 3년 미만의 어린이 수백 명을 평일 시간 단위로 새로 개발된 돌봄 서비스에 맡기는 ‘아동 돌보미(Tagesmutter)’ 모델 프로젝트는 거센 대중의 비판을 불러일으켰음.

■ 아동 돌보미에 대한 학문적 평가는 긍정적임

- 독일 청소년 연구소(DJI)는 당시 연방 청소년, 가족 및 보건부를 대신하여 수년간 이 프로젝트를 모니터링했으며, 당시 어린 아이들이 가정 밖 보육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보다는 사회 발달 측면에서 실제로 혜택을 받았다는 결론을 내렸음. DJI의 ‘유아 및 유아 돌봄(Kinder und Kinderbetreuung)’ 부서의 펠릭스 베르트 박사 등은 “연구 잡지 DJI Impulse에서 ‘아동 돌보미’ 모델 프로젝트는 아동 및 가족사에서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으며, 학문적 평가를 강조합니다.”라고 말함.

■ 아동 돌보미에 대한 법적 자격을 위한 과정 설정

- 다른 전환점을 준 연구 중 하나는 “누가 독일의 아이들을 돌보는가?(Wer betreut Deutschland Kinder?)”라는 DJI 연구였으며, 이는 아동 돌보미의 확대와 그에 따른 법적 자격 부여의 원동력이 되었음. 2004년 말부터 2005년 초까지 7세 미만 자녀를 둔 독일 8,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 조사에서 부모 중 30%가 1세 자녀에 대한 가정 외 돌봄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2세 자녀의 경우 그 수치는 60%에 달했음. “누군가는 어린 유아들의 가정 외 돌봄에 대해 반대하고 거부할 수도 있지만, 부모들의 필요성은 이제 명백히 입증되었습니다.”라고 DJI 연구진은 말함. 당시 서독에서는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지만, 이 연구에 대한 큰 호응으로 인해 이러한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현재는 DJI 돌봄 연구(Kinderbetreuungsstudie)라는 이름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며, 2022년에는 1세 유아 부모의 60%, 2세 유아 부모의 77%가 가정 외 돌봄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했음.

2024년 05월 28일

출처 : <https://www.dji.de/veroeffentlichungen/aktuelles/news/article/1419-von-der-haeuslichen-betreuung-zum-garantierten-kita-platz.html>

7. 연방 내각이 더 향상된 어린이집 환경개선법 초안을 채택함.

- 8월 13일, 연방 내각은 제3차 아동 돌봄 환경개선 및 참여(das Dritte Gesetz zur Weiteren twicklung der Qualit?t und zur Teilhabe in der Kindertagesbetreuung)에 관한 법률 초안을 승인했음. 이 법은 2025년 1월 1일에 발효될 예정임. 이에 따라 연방 정부는 유아교육 및 돌봄 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향후 2년간 총 40억 유로를 연방 주에 지원할 예정임.

■ 리사 파우스 연방 가족부 장관은 “빠듯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향후 2년간 어린이집에 약 40억 유로를 지원한다는 것은 큰 성과입니다. 총 80억 유로가 독일 내 어린이집 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독일 내 어린이집의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뮌헨(독일에서 1인당 소득이 가장 높은 곳), 할레(동독 도시), 겔젠키르헨(독일에서 1인당 소득이 가장 낮은 도시)에서나 어린이들이 어디에서 자라는지에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집에서 동일한 유아교육 환경 표준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저희는 전문 교직원 채용 및 확보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했을 때, 수요에 기반한 돌봄, 언어 지원 강화, 교사 대비 아동 비율 향상 등 다른 모든 중요한 활동 영역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 있을 학교 교육과정 성공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함.

■ 아동 돌봄 환경 개선을 위한 7가지 실천 분야

- 1) 수요를 기반으로 한 공급
- 2) 교사 대 아동 비율
- 3) 자격을 갖춘 전문 교사 채용 및 확보
- 4) 원장 및 부원장(책임자) 역할 강화
- 5) 균형잡히고 지속가능한 급식 제공 및 충분한 체육활동 지원
- 6) 언어 교육 지원
- 7) 돌보미(Kindertagespflege)를 통한 아동돌봄 강화

■ 공간 설계, 시스템 관리 개선, 콘텐츠 관련 문제 해결 또는 연방 기금을 활용한 어린이집 비용 경감과 같은 조치 분야는 앞으로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것임. 위의 조치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과도기가 주어질 예정임. 이러한 비용 감면을 위해 연방 주정부가 사용하는 연방 기금의 비율은 수년 동안 감소하고 있음. 현재 약 15%가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연방 주정부는 추가 연방 기금을 자유롭게 재할당할 수 있으므로, 이런 조치로 인한 어린이집 비용이 인상하리라 예상하지 않음.

■ 전문 교사 채용 및 확보 지원은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로, 연방 정부는 향후 각 주에서 숙련된 인력을 채용하고 확보하기 위해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요건을 도입하고자 함. 따라서 연방 가족부는 이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음.

2024년 08월 14일

출처 :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alle-meldungen/bundeskabinett-beschliesst-entwurf-fuer-weiterentwickeltes-kita-qualitaetsgesetz--243248>

8. 전국적인 종일반 돌봄 서비스 확대

■ 2027년 말까지 연방 정부는 초등학생을 위한 종일반 교육 및 돌봄의 양적, 질적 확대를 위해 약 30억 유로를 지원할 예정이다. 연방 정부와 주 정부는 현재 각 주별 프로그램에 대해 합의했음. 초등학교 자녀를 위한 돌봄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 16개 연방 주에서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 리사 파우스 연방 가족부 장관은 “신학년에는 많은 부모들이 새로운 돌봄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는 초등학생들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방 주정부가 역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종일반 투자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연방 주는 2027년까지 약 30억 유로를 종일반 돌봄 시설 확충, 전문 인력 채용, 리모델링 및 시설 설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질의 종일반 돌봄은 가정 형편에 관계없이 아이들이 공평하게 교육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또한 이런 목표를 추구하고자 최근 연방 정부가 2026년까지 40억 유로를 어린이집 돌봄 환경에 투자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16개 연방 주 모두에서 종일반 돌봄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독일은 더욱 가족 친화적인 사회가 될 것입니다. 저희는 돌봄 서비스 제공에 여전히 격차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종일반 돌봄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생의 56%인 180만 명이 종일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육아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부모, 특히 엄마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숙련된 인력이 부족한 시기에 더 많은 종일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풀타임 근무와 가정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말함.

■ 베티나 스타르크-바칭거 연방 교육부 장관은 “좋은 교육과 돌봄 프로그램은 더 나은 교육 기회와 더 평등한 기회를 위한 열쇠입니다. 따라서 초등학생 연령의 아이들에게 종일 교육과 돌봄을 일찍 시작하고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는 스타트체스 프로그램(Startchance-Program)을 통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가능한 한 많은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양질의 종일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합니다. 결국, 아동 교육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아직 보충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전국적인 자금 지원을 통해 초등학생을 위한 종일제 프로그램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26년부터 점진적으로 시행될 초등학생의 종일 돌봄에 대한 법적 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라고 말함.

■ 연방 정부의 연방 주 및 지방 자치단체 지원

- 이 재정 지원은 종일 교육 및 보육 서비스의 양적 또는 질적 확대를 위한 연방 주, 지방 자치 단체 및 지방 자치 단체 연합의 추가 투자 조치에 대해 적용됨. 건물 및 토지 취득, 신축, 개조, 확장, 에너지 효율 개보수 등을 포함한 공사비용, 종일반 교육 및 돌봄 시설의

장비 구비 등에 사용할 수 있음. 종일반 확장 투자 프로그램은 2023년 봄에 연방 및 주 정부가 체결한 행정 협약에 근거함.

■ 종일반 교육 및 보육에 대한 법적 권리

- 종일반 확대 투자 프로그램은 2021년 종일반지원법(Ganztagstf?rderungsgesetz, F?G)에 규정된 초등학생 아동의 종일반 교육 및 돌봄에 대한 법적 권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2026/27 학년도부터 이 법적 권리는 1학년 아동에게 적용될 예정임. 그 후 2029/30 학년도에는 1~4학년 모든 아동이 종일반 교육 및 돌봄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가질 때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임.

2024년 08월 23일

출처 :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alle-meldungen/ganztagsbetreuung-bundesweit-ausbauen-243542>

9. 가정의 육아 돌봄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

- 연방 가족부의 새로운 통계에 따르면 연방 정부와 주 정부는 어린이집 확충 측면에서 이미 많은 성과를 거두었음. 그러나 독일내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부모의 수요가 공급을 계속 초과하고 있음.

- 독일 연방 가족부는 제9판 ‘아동돌봄 콤팩트(Kindertagesbetreuung Kompakt)’ 보고서를 발간했음. 최신 통계에 따르면 2023년에는 전년보다 많은 수의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돌보미를 통한 돌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의 수요가 계속해서 공급을 초과하고 있음. 또한 3세 미만 아동의 참여율, 즉 같은 연령대 인구 중 어린이집이나 돌보미를 통한 돌봄을 받는 아동의 비율은 여전히 동독과 서독 간에 큰 차이가 있음.

- 리사 파우스 연방 가족부 장관은 “2023년에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아동에게 어린이집에 다니는 것이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는 좋은 소식이며 우리나라에서 유아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점점 더 많은 부모들이 어린 자녀를 위한 좋은 돌봄 기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계속해서 공급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연방 주 정부와 함께 어린이집 환경 개선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 이후에도 어린이집 환경개선법을 지속하고 2025년과 2026년에 총 40억 유로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전문인력을 채용,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돌봄 자리와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좋은 어린이집 환경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이 교육의 시작을 여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함.

■ 참여율 (Beteiligungquote)이란?

- ‘아동돌봄 콤팩트’ 보고서에서는 ‘돌봄 비율(Betreuungsquote)’과 ‘돌봄 수요(Betreuungsbedarf)’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아동 돌봄의 확대 현황과 수요를 설명했음. 그러나 돌봄 개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유아교육 및 돌봄(ECEC) 시스템을 충분히 정의하지 못함. 이러한 이유로 현재 ‘참여율(Beteiligungquote)’과 ‘부모의 필요/수요(elterlicher Bedarf)’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기본 데이터와 산출 방법은 변경되지 않음. 참여율은 특정 연령대의 어린이가 어린이집에서 얼마나 많이 돌봄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줌.

■ 여전히 높은 부모들의 수요

- 2023년 3월 1일 기준, 전국적으로 만 3세부터 취학 연령 아동 2,690,925명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음. 이는 전년보다 약 3만 9,000명이 증가한 수치임. 따라서 전년도와 같은 비율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

■ 돌봄시설(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세 미만 아동 수도 전년보다 약 1만 8,000명 늘어난 856,584명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 따라서 3세 미만 아동의 참여율도 다시 상승했음. 2023년에는 전국적으로 36.4%를 기록했음.

■ 어린이집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의 돌봄 수요는 아직 충족되지 않고 있음. 특히 3세 미만 아동의 경우 더욱 두드러짐. 부모의 수요와 참여율의 차이는 14.6%p임. 만 3세부터 취학 연령 아동의 참여율은 91.3%임. 이는 이 연령대의 거의 모든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아동 돌보미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필요는 96.7%로 약간 더 높음.

■ 뚜렷하게 드러나는 지역적 차이

- ‘아동돌봄 콤팩트’ 보고서 제9판에서는 동독과 서독의 서로 다른 상황을 자세히 살펴봄. 독일 동부 연방 주에서는 수년 동안 인구통계학적으로 아동 수가 크게 감소했지만 어린이집의 공급 상황은 비교적 양호한 편임. 반면 서독에서는 전체 인구 중 아동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부모의 수요와 유아교육 및 돌봄 공급 사이에 여전히 큰 격차가 존재함.
- 또한 일상에서 일어나는 돌봄 문제에 대한 통계도 처음으로 드러남. 3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의 약 47%와 3~5세 자녀를 둔 부모의 44%가 계획되지 않은 어린이집 휴업에 영향을 받았다고 답함. 서독의 부모들이 동독의 부모들에 비해 어린이집의 운영 시간 제한에 대해 더 자주 보고함.

■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임.

- 아동 돌봄을 확대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이 필요함. 2026/27학년도부터 초등학생을 위한 종일제 돌봄이 점진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유아/돌봄 교사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임. 따라서 연방 가족부는 연방 주 및 기타 여러 이해관계자와 함께 아동, 부모, 교육 전문가들의 상황을 개선하고 새로운 유아 및 돌봄 전문가를 채용하기 위해 ‘어린이집 및 종일제 교육 전문가를 위한 종합 전략(Gesamtstrategie Fachkr?fte in Kitas und Geanztag)’을 발표했다.

■ 어린이집 환경 개선 증진 및 개발(KiTa-Qualit?t f?rdern und weiterentwickeln)

- 연방 정부는 또한 어린이집 환경개선법을 통해 연방 주정부가 어린이집과 돌보미를 통한 돌봄의 질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2023년과 2024년에 연방 정부는 이를 위해 약 40억 유로를 지원할 예정임. 이 기금은 무엇보다도 수요에 따른 돌봄 공간 기반 서비스 제공, 전문 인력 채용 및 확보, 어린이집 관리 강화 및 언어 교육 증진에 사용될 수 있음.
- 또한 연방 정부와 주 정부는 아동 돌봄의 질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있음. 2025년 연방 예산 준비의 일환으로 연방 정부는 2024년 이후에도 KiTa 환경 개선법을 지속하고, 그 내용을 더욱 발전시키기로 결정함. 연방 정부는 이를 위해 2025년과 2026년에 총 약 40억 유로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임.

2024년 09월 05일

출처 :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alle-meldungen/zahl-der-kinder-in-der-kindertagesbetreuung-weiter-gestiegen-243104>

10. 독일 연방 정부는 어린이집 환경 개선을 위해 40억 유로를 추가 투자하기로 함

■ 연방 의회는 어린이집 환경 개선법(KiTa-Qualit?tsgesetz)의 추가 개발을 위한 입법 절차를 완료함. 향후 2년 동안 연방 정부는 더 좋은 유아교육 환경과 돌봄을 위해 40억 유로를 추가로 투자할 예정임.

■ 어린이집 환경개선법은 추가 투자를 통해 유아교육 환경 개선과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환경 표준을 마련하고자 하며, 다음 7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음. 각 연방주는 연방 정부의 지원금을 다음 분야에만 사용할 수 있음.

- 수요에 맞는 공급(어린이집의 자리가 필요한 만큼 공급되는 것)
- 교사-아동 비율 개선
-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 채용 및 확보
- 원장 및 부원장 역할 강화
- 균형 잡히고 친환경적인 급식 제공 및 체육교육 강화
- 언어 교육 증진
- 아동돌보미(Kindertagespflege: 가정집에서 아동을 돌보는 형태) 강화

■ 환경개선을 위한 필수 분야: 1) 전문 인력 채용 및 확보, 2) 언어교육

- 앞으로는 각 연방 주에게 위 두 가지 분야가 의무화될 것임. 전문 인력 즉 전문 교사의 확보가 어린이집 환경 개선에 있어 주요 전제 조건이기 때문임. 언어는 교육과 참여의 측면에서 가장 기본적인 초석을 마련하기 때문임.

■ KiTa 환경개선법의 추가 개발은 모니터링 및 평가의 결과와 2024년 3월부터 전국적인 어린이집 환경 표준을 위한 유아교육 협회(AG Fr?he Bildung)의 권장 사항(보고서 ‘독일 내 모든 어린이를 위한 평등한 교육 및 기회. 유아교육 환경 향상을 위한 개요’ Gutes Aufwachsen und Chancengerechtigkeit f?r alle Kinder in Deutschland. Kompendium f?r hohe Qualit?t in der fr?hen Bildung)을 기반으로 함. 목표는 유아 돌봄의 질을 개선하고 기존의 지역간 차이를 조율하여 전국적인 어린이집 환경 표준을 마련하는 것임.

■ KiTa 환경 개선 및 참여 개선법(KiTa-Qualit?ts-und Teilhabeverbesserungsgesetz)

- 2019년부터 연방 정부는 어린이집과 돌보미를 통한 돌봄의 질과 유아교육 참여를 개선하기 위해 연방 주정부에 KiTa 환경 개선 및 참여 개선법(KiQuTG)을 지원하고 있음.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연방 정부는 이를 위해 이미 약 95억 (9,5 billion) 유로를 지원했음. 연방 주정부는 추가 자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안을 연방 정부와의 계약을 통해 규정함.

2024년 10월 18일

출처 :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alle-meldungen/bundesregierung-investiert-weitere-vier-milliarden-euro-in-kita-qualitaet-247664>

11. 어린이집의 연방주별 격차 및 통합 지원 현황

■ KomDat(연구소 매거진)의 10월호는 어린이집 운영시간과 휴무일에 대해 다룸. 이는 어린이집이 부모, 특히 직장인 부모들의 필요 및 수요를 충족하고,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중요한 요소임. 어린이집 운영시간과 휴무일을 살펴보았을 때, 동독과 서독 간, 개별 연방 주 간 차이가 있으며, 동독 어린이집들은 서독에 비해 아침 일찍 문을 열고 오후 늦게 문을 닫음. 이에 따라 2023년 동독의 어린이집은 서독 어린이집보다 매일 평균 1.5시간 이상 더 오래 운영함.

■ 동서독의 차이는 어린이집의 휴무일수에도 있으며 평균적으로 서독 휴무일수가 동독보다 훨씬 높음. 주 정부의 규제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주 정부 차원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나타남. 예를 들어,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작센주(Sachsen 동독에 위치한 주정부)의 어린이집은 평균 7.5일, 바이에른주(Bayern 서독에 위치한 주정부)의 어린이집은 평균 26.8일을 휴원함(공휴일, 주말 제외).

■ 주별 통합 지원의 격차. 포용적인 아동 및 청소년 복지 서비스를 위한 사회법 9항(SGB IX)

- 연방 주에서는 복지 서비스의 조기 개입을 위해 서비스 및 필요를 판단하는 도구와 규정을 각각 자체적으로 제정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유아교육과 같은 통합 지원의 자금 지원도 연방 주 자체적으로 규제할 수 있음. 따라서 활용 범위도 주마다 다를 수 있음.
- 사회법 9항SGB IX은 연방 차원의 통합 지원 정책 중 하나임. 이에 따른 통합 지원은 일반적으로 모든 연령대의 (잠재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됨. 미성년자와 관련된 혜택에는 주로 사회 참여 혜택, 교육 참여 혜택 및 의료 재활 혜택이 포함됨. 반면에 직장 생활 참여에 대한 혜택은 미성년자에게는 사회법 9항에 의하지 않으며, 주로 연방 고용청 담당임. 연방 차원의 SGB IX에 따른 통합 지원은 2020년과 2022년 사이에 전체적으로 약 13% 증가함.

■ 2023년 입양 데이터 - 입양 건수 감소와 통계의 새로운 기능

- 2023년 독일의 입양 건수는 3,601건으로 1991년 통계가 도입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전체 입양에서 의붓자녀 입양이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음. 새로운 통계 기능으로 입양 형태의 변화만을 관찰하는 것이 아닌 여러 새로운 기능이 통합됨. 예를 들어 부모 포기 및 입양에 관한 정보 또는 사회법 8 섹션 33 33 SGB VIII에 따른 위탁 가정을 통한 돌봄 등 입양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실무에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함.

2024년 10월 24일

출처 : <https://www.dji.de/veroeffentlichungen/aktuelles/news/article/1496-laenderdisparitaeten-in-der-kita-und-bei-eingliederungshilfen.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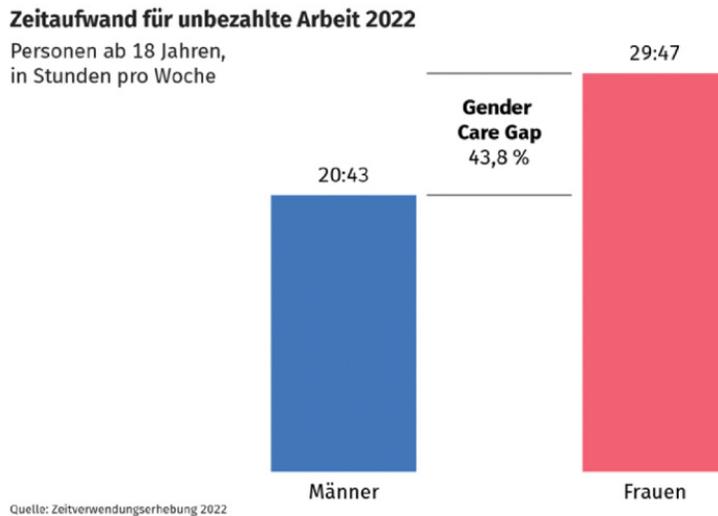
❖ 기타

1. 남녀 돌봄 시간 차이에 관한 통계청의 발표

■ 2월 28일, 독일 연방 통계청은 2022년 시간 사용 조사(ZVE)의 데이터를 발표했음. 이 조사는 독일 사람들이 육아, 가사, 자원봉사, 업무 등 특정 활동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지 보여줌. 시간 사용 조사(ZVE) 2022의 일환으로 약 1만 가구, 2만 명이 자발적으로 평일 이틀과 주말 하루 동안의 일상 활동에 대해 서면으로 설문조사를 받았음.

■ 이 조사는 성별 돌봄 격차, 즉 여성과 남성이 무급 돌봄 노동에 소비하는 시간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음. 이번 조사에 따르면 이 격차는 43.8%임.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무급 돌봄 노동에 하루에 43.8%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하루 77분의 차이임. 즉, 남성은 일주일에 21시간 미만, 여성은 30시간 미만을 무급 돌봄 노동에 소비함(그림 1). 여성들이 하는 무보수 일의 절반 이상이 전형적인 가사일로 식사준비, 집안 청소, 빨래임(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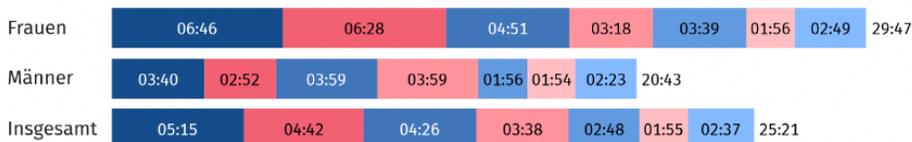
〈그림 1〉



〈그림 2〉

Unbezahlte Arbeit 2022

Personen ab 18 Jahren nach Arbeitsbereichen, in Stunden pro Woche



- Zubereitung von Mahlzeiten, Hausarbeit in der Küche
- Instandhaltung von Haus und Wohnung, Ändern und Pflegen von Textilien
- Einkaufen, Haushaltsorganisation
- Gartenarbeit, Pflanzen- und Tierpflege, Bauen und handwerkliche Tätigkeiten
- Betreuung, Pflege und Unterstützung von Haushaltsmitgliedern
- Ehrenamt und freiwilliges Engagement, Unterstützung anderer Haushalte
- Wegezeiten im Zusammenhang mit unbezahlter Arbeit

Quelle: Zeitverwendungserhebung 2022

무보수 일의 종류

- 남색: 식사 준비, 부엌에서 보내는 시간
- 진분홍: 가사일
- 파란색: 장보기 또는 집안 행정
- 분홍색: 정원, 식물, 동물, 집수리
- 연파란색: 가족 구성원 돌봄, 지원
- 연분홍색: 봉사활동
- 하늘색: 무보수일 장소로 가는 시간

■ 지난 2012년과 2013년에 실시된 시간 활용도 조사와 비교하면 성별 돌봄 노동 시간 격차가 좁혀진 것으로 나타남. 당시에는 52.4%였고 그 차이는 하루 87분이었음.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아빠들 4명 중 1명은 소득 근로 시간을 줄이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엄마들 4명 중 1명은 일과 커리어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를 원했음.

■ 2022년 자녀가 없는 여성의 경우 1주간 소득 활동에 할애하는 시간은 22시간 24분, 자녀를 둔 여성의 경우 17시간 42분,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가 6세 이하인 경우 12시간 53분, 자녀의 나이가 6~18세인 경우 일주일에 21시간 29분,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의 경우 자녀가 없는 여성에 비해 평균 일주일에 9.5시간 적게 일함(그림 3).

〈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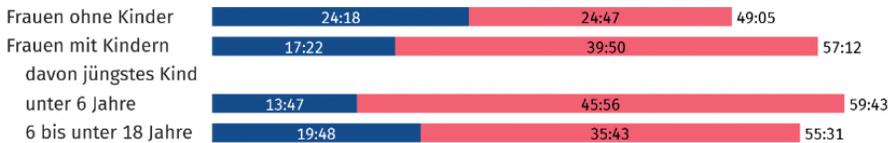
Erwerbsarbeit und unbezahlte Arbeit von Frauen

Frauen im Alter von 18 bis 64 Jahren mit und ohne Kinder im eigenen Haushalt, in Stunden pro Woche

2022



2012/13



■ Erwerbsarbeit ■ unbezahlte Arbeit

Abweichungen rundungsbedingt. Quelle: Zeitverwendungserhebung 2022

파란색: 소득 활동, 빨간색: 무보수 일

■ 성별 돌봄 격차는 경제적 평등과도 관련이 있음.

- 현재의 성별 돌봄 격차는 여성이 여전히 남성보다 무급 돌봄 노동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음을 보여줌. 이는 수익성 있는 일자리를 구하는 데 부족한 시간이며 임금, 경력 기회, 경제적 자립, 연금 수급에 영향을 미침. 따라서 여성과 남성이 소득 업무와 돌봄 노동에 어떻게 시간을 배분하느냐는 사회적으로도 중요하며 성 평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침.

2024년 02월 28일

출처 :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alle-meldungen/statistisches-bundesamt-veroeffentlicht-neue-zahlen-zum-gender-care-gap-236794>

2. 가족 구조와 이혼 가정의 아동돌봄 현황 조사

■ 독일의 가족들은 부모의 이혼 후 다양한 구조로 살고 있으나, 공식 통계에 제대로 집계되지 않은 상황임. 가정에 거주하지 않는 부모, 부모-자녀 관계, 부모간의 관계에 관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고, 이는 여러 연구 결과 간의 차이를 초래함. 이러한 지표는 이혼 및 별거 후 자녀와 부모가 어떻게 지내는지 이해하기 위해 중요함.

■ 이러한 이유로 독일 청소년 연구소(DJI)의 ‘독일에서 성장한다는 것: 일상의 세계(Aufwachsen in Deutschland: Alltagswelten-AID:A)’ 연구에는 ‘이혼 후 가족(Post-Separation Family-PSF)’ 설문조사 모듈이 포함되어 있음. 최근 발간된 영문 DJI preprint ‘독일에서 이혼 가정에서 성장한다는 것에 대한 연구를 위한 잠재력 강화(Enhancing Potentials for Research on Post-Separation Families Using the Growing up in Germany Panel)’에서는 이 모듈이 독일의 다양한 가족 구조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기여한 점을 강조하고 부모와 자녀의 주관적 안녕과 건강, 경제적 어려움, 부모의 교육 및 고용 등 AID:A에서 수집한 정보의 연구 잠재력을 개괄적으로 설명함.

■ 서구 사회의 높은 별거 및 이혼율과 별거 후 가족 구조의 형태가 다양하고 복잡해졌으며, 이와 관련한 데이터 기록은 사회적 논의와 정치적 결정시 중요한 기반을 마련함. AID:A는 가정의 일상생활, 갈등, 부모들의 자녀돌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함. 여기에는 한부모 가정, 재혼가정, 자녀와 같이 살고 있지 않는 부모에 대한 정보도 포함됨. 두 가지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2019년 독일에서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의 23%는 이혼 후(별거* 독일에서는 이혼과 별거에 큰 차이가 없음, 이혼은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가 법적 절차를 밟아 헤어진 경우인데, 독일에는 혼인 신고 없이 사는 부부가 많음) 가정이었음(그 중 자녀와 사는 한부모 가정 17%, 재혼 가정 6%). 이혼 후 가정의 미성년 자녀 중 약 12%는 2019년에 한 달에 8회 이상 떨어져 사는 다른 부모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음.

■ 영문 프리프린트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함.

<https://www.dji.de/veroeffentlichungen/literatursuche/detailansicht/literatur/34978-enhancing-potentials-for-research-on-post-separation-families-using-the-growing-up-in-germany-panel.html>

2024년 04월 23일

출처 : <https://www.dji.de/veroeffentlichungen/aktuelles/news/article/1409-familienkonstellationen-und-be-treuungssituation-von-familien-nach-einer-trennung-in-deutschland-besser-erfassen.html>

3. 가족 보고서 2024

■ 위기의 시기는 가족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가족들은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독일 정부의 가족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가족 보고서 2024는 독일 가족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여줌.

■ 5월 15일에 발표한 올해 보고서에 따르면 가족 관계는 격변의 시기에 안정감을 제공하고, 자녀를 둔 부부는 파트너로서 가정과 일의 책임을 분담하기를 원하며, 위기에도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음.

■ 가족 보고서 2024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최근 몇 년간의 위기는 특히 가족에게 큰 타격을 주었음.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들은 미래에 대해 비교적 확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46%는 미래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인구 평균인 42%에 비해 높은 수치임.
- 가족 관계는 격변의 시기에 안정감을 제공함. 평균적으로 82%의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에 가족의 도움을 받는다고 답함. 또한 가정에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자녀가 없는 사람들보다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더 높음.
- 독일 정부의 가족 정책 계획은 전체 인구와 부모들 사이에서 특히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음. 부모 중 92%가 자녀 수당(Kindergeld) 인상에 찬성함. 70%는 기본 아동생활 수당(Kindergrundsicherung) 제도의 도입을, 77%는 가족출발시간(Familienstartzeit)의 도입을 환영함.
-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족은 긍정적인 의미를 갖지만, 동시에 매우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음. 독일 동부와 서부의 가족의 삶도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음. 예를 들어, 구동독에는 서독보다 한부모가정 (25%:19%)과 동거 부모 가정(혼인 신고를 안하고 같이 살면서 자녀를 키우는 가정, 21%:10%)이 더 많음.
- 어린이집의 3세 미만 아동 보육률은 다시 증가하여(2023년 36.4%) 2006년과 비교하면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했음.
- 부모가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10년 전보다 더 많아졌음(아빠: 하루 평균 +28분, 엄마: 하루평균 +33분 증가). 아빠의 육아 책임 의식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엄마가 육아를 대부분 담당하고 있음.

- 많은 부모들이 부부가 파트너로서 가정과 직장의 책임을 분담하기를 원함. 하지만 이를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의 엄마들 중 75%가 육아를 대부분 담당하지만, 48%만이 이를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음.
- 파트너로서 육아 및 직장생활을 서로 분담하는 부부의 가정은 좋은 가정 분위기, 부모와 자녀 간의 친밀한 관계, 가족 구성원간의 지지 등에 관해 긍정적 보고를 함.
- 과거에 비해 아빠가 유일한 생계부양자인 경우가 줄어들었음. 전통적인 외벌이 모델을 가진 가족의 비율은 2008년 33%에서 2022년 26%로 감소했음. 워킹맘의 비율은 같은 기간 63%에서 69%로 증가했음.

■ 가족 보고서는 공식 통계, 과학적 연구 및 대표적인 인구 조사를 바탕으로 독일 가족의 다양한 생활 실태를 설명함. 올해로 8번째를 맞이하는 가족 보고서는 장기적인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재의 사회 발전 상황을 다루며 연방 정부의 가족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가족 보고서는 연방가족부에서 발행하며 2009년부터 발간되기 시작하여 2014년까지는 매년, 그 이후에는 2~3년마다 발간되고 있음. 마지막 가족 보고서는 2020년 12월에 발간되었음.

2024년 05월 15일

출처 :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alle-meldungen/familienreport-2024-zeigt-familien-gebenhalt-239482>
<https://www.bmfsfj.de/resource/blob/239468/a09d21ecd295be59a9aced5b10d7c5b7/familienreport-2024-data.pdf>

4. 부모의 이혼에 대처하기

- 가족이 해체되면 자녀는 갈등과 스트레스에 대처해야 함. 따라서 상담 서비스는 부모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청소년을 직접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함.
- 부모의 별거는 자녀의 삶에 혼란을 줌. 부모는 이미 오랫동안 다투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더 이상 평상시처럼 자녀를 돌보지 못할 수 있음. 일상이 바뀌고 익숙한 환경을 잃을 수도 있음. 이러한 상황은 아이들을 불안하게 하고 때로는 모순되는 강한 감정을 유발할 수 있음.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와 헤어지는 것을 슬퍼하며 부모가 다시 만나기를 희망함. 많은 아이들이 현재 곁에 없는 부모를 그리워함. 때론 부모 중 한 명 또는 두 명에게 매우 화가 나서 부모를 비난하기도 하지만 스스로를 탓하기도 함. 어떤 이들은 별거 또는 이혼으로 가족 간의 긴장이 완화되는 편안함을 경험하기도 함. 어떤 아이들은 폭발적인 분노로 반응하고, 어떤 아이들은 사회적 위축이나 불안으로 반응함.

■ 부모 이혼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감정들을 직면하고, 새로운 생활환경에 적응하는 것에 아이들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 이는 다른 분야에 쓸 수 있는 자원을 고갈하게 되며, 아이들에게 스트레스 징후로 이어질 수 있음. 일부의 경우 분노의 폭발이나 반항적 행동 증가와 같은 소위 외현적 이상 증상을 나타냄. 또 다른 이들은 사회적 위축, 불안 또는 우울증과 같은 내현적 이상 증상을 나타냄. 반복되는 야뇨증과 같은 발달의 퇴행도 발생하며, 학교에서의 집중력 장애나 수면 장애 또는 복통과 같은 정신 신체적 문제도 발생함(Swartz-den Hollander 2017). 대부분의 어린이는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스트레스 징후가 감소하지만, 일부의 경우 이러한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지기도 함 (Schmidt-Denter 2001). 아이들이 이혼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는 다양한 요인의 상호작용에 따라 달라짐. 자녀의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는 부모 간의 지속적이고 파괴적인 갈등임 (Harold/Sellers 2018). 특히 자녀가 갈등에 깊이 관여하고 부모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 자녀에게 스트레스가 가중됨 (Zimmermann 외. 2023, Schrodt/Affi 2018). 그 외에도 부모가 양육에 얼마나 잘 협력하는지,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는지, 부모와 자녀 관계의 질, 자녀가 양육 방식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정도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함 (R?cker 외. 2023, Lamela 외. 2016, Weaver/Schofield 2015). 이러한 모든 요소에 대한 정보는 상담 서비스의 중요한 출발점이기도 함.

■ 부모가 이혼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은 자녀가 어떻게 그에 적응하는지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모와의 상담은 매우 중요함. 실제로 부모는 이혼(별거) 기간 동안 매우 불안해하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음. 2022년에 독일에서 1,030명의 별거 또는 이혼 상태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부모 중 절반 이상이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44%는 상담이나 중재(Mediation)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답했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부모 중 1/3 이상은 자신이나 배우자가 이혼 과정에서 상담을 받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답했음. 이혼 가정의 일상생활에 대한 일기 연구에 의하면, 이혼한 부모는 법적 체계에 대한 정보, 자녀 돌봄에 대한 규율, 상대방 부모와의 협력 개선, 자녀의 이혼에 대한 대처, 새로운 생활환경에 대한 자신의 대처 및 적응에 대한 정보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음(Zimmermann 외. 2024, 곧 발표 예정).

■ 부모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과학적으로 근거 있는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갈등과 이혼 극복하기: 일상적인 도움, 조언 및 갈등 해결”이라는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온라인 플랫폼 STARK (Uemminghaus/Zimmermann/Lux 2023)가 개발되었음. 이 웹사이트는 법률 및 경제 정보 외에도 부모에게 돌봄 모델 선택에 대한 지원, 상대방 부모와의 갈등을 줄이고 협력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한 실질적인 팁, 이혼에 대처하고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제공함. 또한 부모는 자녀와 자녀의 연령에 맞는 방식으로 이혼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법과 돌봄 방식에 대한 자녀의 요구, 자녀가 부모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방법,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방법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음. 이 웹사이트를 사용한 적이 있는 이혼 부모를 대상으로 한 초기 설문조사에서 이 서비스는 긍정적이고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Amberg 외, 2024).

- 이혼 중인 부모는 체계적인 그룹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음. 유용한 정보 뿐만 아니라 보다 건설적인 의사소통 전략과 같은 새로 배운 것을 지지적인 환경에서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이러한 프로그램은 부모가 이혼에 더 잘 대처하고, 갈등을 줄이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실용적인 대처법을 가르쳐 자녀의 안녕을 고려하도록 돕기 위해 고안되었음.
- 특히 “자녀에게 초점(Kinder im Blick)” 과정은 부모의 안녕과 갈등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대조군에 비해 이 과정에 참여한 부모의 자녀는 발달과 이혼 대처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입증됨. 독일에서 제공되는 이혼 부모를 위한 다른 구조화된 프로그램으로는 지역에 따라 “곤경에 처한 아이들”(Ganser 외. 2023), “싱글 또는 따로 양육하기”(Hensel/Thomas/B?hmert 2010), “우리 둘”(Wehrauch/Sch?fer/Franz 2014) 과정이 있음.
- 마지막으로 육아, 부부 및 생활 상담 센터(Erziehungs-, Paar und Lebensberatungsstelle)와 청소년 복지관(Jugend?mter)에서 제공하는 별거 및 이혼 상담 서비스는 이혼 가정 지원의 중심축을 이룸. 그룹 프로그램과는 달리 개별 문제를 더욱 면밀히 다루고 개별 상담 또는 양쪽 부모와의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부모를 통한 간접적인 경로 외에도 해당 아동과 청소년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지원도 중요함. 이러한 프로그램의 목표는 아동에게 어려운 상황에서 안정감과 방향성을 제공하고,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전략을 제공하며, 부모에게 자신의 요구를 표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어야 함. 이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자녀들은 부모에게 추가적인 부담, 상처를 주거나 부모의 갈등이 심화될 것을 우려해 자신의 요구사항을 보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따라서 STARK 온라인 플랫폼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직접 대상으로 함. 이 사이트에서는 이혼의 여러 가능한 이유와 결과, 그리고 자녀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음. 또한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과 부모 간의 갈등을 다루고 자신의 필요와 요구를 표현하는데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조언과 연습을 제공함. 이 웹사이트를 이용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대부분 긍정적이고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됨(Amberg 외, 2024). 체계적인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되어 현재 그 효과를 테스트 중임. 특히 부모가 심한 갈등을 겪고 있을 때 학교 사회복지사나 상담사 등 중립적인 사람에게 털어놓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음. 많은 상담 센터에서는 같은 상황에 놓인 아동들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아동 그룹도 제공함. 이를 통해 아이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아성취도도 강화할 수 있음. 자녀가 심하거나 지속적인 스트레스 징후를 보인다면 심리 치료 지원을 받는 것도 추천함.
- 부모의 이혼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상당한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안겨 줌. 그러나 부모가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위해 곁에 있고, 자녀의 필요에 부응하며, 자녀를 중요한 결정에 참여하게 한다면, 자녀는 이러한 위기에 더 강해질 수 있음. 새로운 생활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면 미래의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길 수 있음.

2024년 12월 19일

출처 : <https://www.dji.de/veroeffentlichungen/aktuelles/news/article/1526-die-trennung-der-eltern-bewaeltigen.html>
<https://www.dji.de/ueber-uns/themen/trennungskinder/die-trennung-bewaeltigen.html>

5. 2025: 가족, 돌봄 그리고 민주주의에 관한 새로운 원동력

■ 2025년 1월 1일부터 아동수당(Kindergeld)은 아동 1인당 월 255유로로 인상됨. 또한 2025년 1월 1일부터는 기본생활 지원 혜택(Grundsicherung) 또는 아동 보조금(Kinderzuschlag: KiZ)을 받는 각 아동에 대한 즉시 보조금(Sofortzuschlag)이 월 20유로에서 25유로로 인상됨. 아동 수당과 즉시 보조금이 각각 5유로씩 인상되면 아동 보조금의 최대 금액은 월 297유로가 됨.

■ 부모가 자녀의 최저 생계 수준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소득은 과세되지 않음. 세금 면제는 아동면세수당(Kinderfreibetrag)에 의해 보장됨. 2025년 1월 1일부터 아동 면세 수당은 연간 9,540유로에서 9,600유로로 60유로 인상됨.

■ 2025년 1월 1일부터 어린이집 환경개선법(KiTa-Qualitätsgesetz)의 지속과 발전으로 어린이집의 유아 교육과 보육의 질이 더욱 강화될 것임. 이러한 법적 변화는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자금이 보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연방 주에서, 보다 목표 지향적인 방식으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임. 어린이집 환경개선안은 다음과 같음.

- 가족의 필요에 더 잘 맞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
-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 전문 인력 (교사) 채용과 확보
- 원장 및 원감의 역량 강화
- 어린이집의 건강한 식단과 충분한 운동 장려를 위한 투자
- 더 나은 언어교육 보장과 특히 추가 지원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한 지원 강화
- 가정 돌보미(Tagesmutter und -vater)의 전문성과 근로조건 개선

■ 연방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2025년과 2026년에 연방 주에 각각 약 20억 유로를 지원할 예정임.

■ 2025년 1월 1일부터 아동에 대한 최소 양육비가 인상됨. 앞으로 양육비 선지급금 (Unterhalt svorschuss: 양육비를 내야하는 부모 중 한명이 양육비를 내지 않거나 못할 경우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아동은 양육비 선지급금과 아동 수당을 합한 금액으로 다음과 같은 월별 금액을 받게 됨.

- 0~5세 아동의 경우 482유로(2024년보다 2유로 인상)
- 6~11세 아동의 경우 554유로(3유로 인상)
- 12~17세 청소년은 649유로(4유로 인상)

■ 2025년부터 아동 수당이 최소 양육비보다 5유로 더 인상됨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금액은 소폭 감소할 것임.

- 0~5세 아동의 경우 227유로(2024년보다 3유로 감소)
- 6~11세 아동의 경우 299유로(2유로 감소)
- 12~17세 청소년은 394유로(1유로 감소)

■ 2025년 5월부터 자영업자의 부모수당(육아수당) 신청이 더 쉬워짐. 부모들은 육아휴직 신청서를 더 이상 서면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앞으로는 이메일 등으로 대체할 수 있음. 이를 통해 신청 절차와 부모와 고용주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간소화될 것임.

2024년 12월 27일

출처 :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alle-meldungen/2025-neue-impulse-fuer-familien-pflege-und-demokratie-252290>

영국

양육지원		
1	근로 부모들, 주당 15시간 및 30시간 무상보육을 어떻게 받는가?	124
유아교육·보육		
1	보육비 지원 확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우려	127
2	아이돌보미, 초등학교 포괄적 보육 안내 지침에 포함되다	128
3	유아교육 및 보육 부문 채용 캠페인 실시	129
4	보육부문 확대에 관한 정부의 발표	130
5	유아교육 및 보육 연합(EECC), 새로운 구조와 개혁(New Rescue and Reform)에 관한 성명서 발표	131
6	유아교육 및 보육 전문가 협회(PACEY), '2024 Childminding Week' 기념 아이돌보미를 위한 성명서 발표	132
7	유아교육 및 보육 확대에 관한 지자체 설문조사 결과	133
8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연례조사 'Pulse Check 2024' 발표	134
9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정부 지원 보육 서비스	135
10	영국 노동당, 12개월 이내 300개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 설립 약속	136
11	잉글랜드 교육기준청, 'Big Listen' 협의회 결과 발표	138
12	학교 기반 유치원, 1,500만 파운드 자금 지원으로 시작	139
13	아이돌보미를 대한 규정 유연화	141
14	보육 및 유아교육 제공자 설문조사 결과	143
15	유아교육 확대를 위한 20억 파운드 이상의 지원 확대	146
기타		
1	교육기준청, 학교평가 조사관을 위한 정신건강 인식 교육 실시	148
2	Sure Start, 취약계층 아동의 GCSE 결과를 크게 향상시킴	149

● 양육지원

1. 근로 부모들, 주당 15시간 및 30시간 무상보육을 어떻게 받는가?

■ 9개월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 부모들은 이제 매주 15시간의 무상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정부는 9월 1일부터 이 연령대를 포함하도록 확대된 이 제도가 부모들이 다시 직장으로 복귀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음. 이 제도는 2025년 말부터 5세 이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확대될 예정이지만, 수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한 보육장소가 부족하고, 인력 부족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음.

■ 무상보육 서비스 대상

- 잉글랜드에서는 보육비 지원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미 일부 무상 보육시간이 제공되고 있음. 새로운 보육시간 자격을 얻으려면 대부분 부모가 연간 £9,518 이상 £100,000 미만 소득이 있어야 함.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자녀의 나이와 부모가 근로 중인지, 특정 혜택을 받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무상보육 서비스 내용

- 1) 2024년 4월부터 2세 아동을 위한 주당 15시간 무상보육
- 2) 2024년 9월부터 9개월 아동을 위한 주당 15시간 무상보육
- 3) 이미 제공되고 있는 3세와 4세 아동을 위한 주당 30시간 무상보육
- 4) 2025년 9월부터 5세 이하 모든 아동을 위한 주당 30시간 무상보육.

※ 기존에 일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1) 2세 아동을 위한 주당 15시간 무상보육
- 2) 3세와 4세 아동을 위한 주당 15시간 무상보육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모 중 한 명이 근로 중이거나 특정 혜택을 받는 경우 주당 30시간의 무상보육 혜택 자격이 있음.

■ 무상보육 서비스 신청 방법

- 부모는 자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기 시작 전에 신청해야 함. 신청 후 3개월마다 세부 정보를 다시 확인해야 하므로, 일찍 신청한 경우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변경사항이 없는지 다시 확인해야 함. 다음 학기는 1월에 시작되며, 9개월 이상의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주당 15시간 또는 30시간의 무상보육을 신청할 수 있음. 정부 홈페이지에서 각 연령대별 신청 마감일을 확인할 수 있음. 승인이 되면, 공식적으로 등록된 보육 제공자에게 제공할 코드를 받게 됨. 무상보육 시간은 학기 동안 연간 38주 동안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으나, 일부 제공자가 주당 사용 시간을 줄이는 경우 이를 52주 동안 제공할 수 있음.

■ 무상보육 시간으로 커버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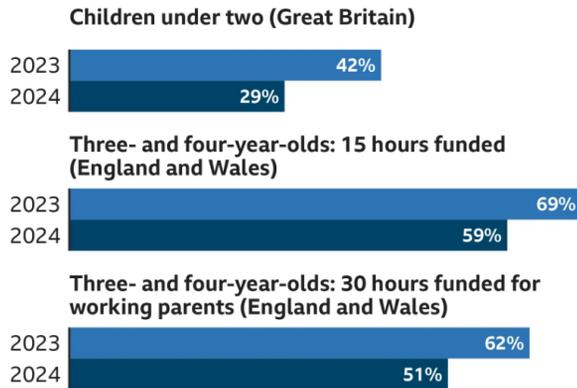
- 정부는 무상보육 시간을 제공하는 보육 제공자에게 지불하는 시간당 요금을 인상하고 있지만, 많은 경우 이 요금이 보육비용 전부를 충당하지 못함. 그래서 일부 제공자는 식사, 기저귀, 자외선 차단제, 외부활동과 같은 추가 비용을 청구함. 교육부는 모든 추가 비용은 자발적이며, 부모가 원한다면 음식을 직접 준비해 보내거나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여 완전히 무상으로 보육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음. 그러나 자선 단체 Pregnant Then Screwed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약 23%가 추가 요금 때문에 무상 보육 시간을 이용할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남.

■ 영국에서 보육비용은 얼마나 비싼가?

- 아동 자선 단체 Coram에 따르면, 영국에서 2세 미만 아동을 위한 주당 50시간 전일제 보육비용은 2024년에 평균 15,709 파운드로 예상되며, 이는 2023년의 15,000 파운드 미만에서 증가한 수치임. 실제 비용은 거주 지역에 따라 상이하지만 2024년의 평균 비용은 영국 전일제 근로자의 평균 급여의 약 45%에 해당함.

■ 보육 장소가 충분한가?

- 교육부는 2025년 9월까지 약 85,000개의 보육 장소와 40,000명의 교직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국가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제도의 실행 가능성을 시험하기 위한 계획되었던 3,500만 파운드 상당의 파일럿 프로그램 취소되며 계획 실현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초래했다고 함. Coram에 따르면,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에서 어린이집과 아이돌보미 제공이 감소하였으며, 2024년에는 2세 미만 아동을 위한 공간이 충분한 지방 당국의 비율이 2023년 42%에서 29%로 줄었음.



Note: Based on responses from 184 out of 207 councils in 2024 and 191 councils in 2023. Eligibility for funded childcare varies between UK nations

■ 정부는 아이돌보미 등록자들에게 600 파운드의 현금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에이전시를 통해 등록할 경우 200 파운드를 지급함. 교육부는 아직 등록 인원예 대한 구체적인 숫자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2023년 전체적으로 보육 인력이 4% 증가했다고 밝힘. 그러나 가정에서 보육을 제공하는 아이돌보미의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음.

■ 정부는 2024년 예산에서 보육 제공자들에게 2년 동안 안정적인 지불을 보장할 것이라고 발표함. 교육부 장관 브리짓 필립슨은 보육시간 확대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충분한 자리를 확보하고 이를 제공할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도전”이 될 것이라고 함.

■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에서 제공되는 보육 지원은 무엇인가?

- 영국 전역에서 3세와 4세 아동들은 일부 무상보육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에서는 다른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각 지역에서 보육은 공식적으로 등록된 제공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

■ 세금 면제 보육제도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 부모는 영국 전역에서 적용되는 세금 면제 보육 제도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음. 부모가 온라인 보육 계정에 8파운드를 입금할 때마다 정부가 2파운드를 추가로 지급하며, 자녀당 연간 최대 2,000파운드까지 지원되며, 장애 아동의 경우 4,000파운드까지 지원됨. 무상보육 시간 적격 부모들도 세금 면제 제도를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2024년 08월 30일

출처 : <https://www.bbc.com/news/education-62036045un/>

❖ 유아교육·보육

1. 보육비 지원 확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우려

- 보육비 지원 확대에 관한 새로운 Coram Childcare 설문조사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원 계획의 본격적인 실시예 앞서 충분한 보육 공간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153개 지방자치단체 중 92개 지역이 응한 이번 조사에서는 응답 지역의 60%가 2024년 4월 수요를 충족할 만큼 충분한 장소가 있을 것이라는 데에 ‘확신함’ 또는 ‘매우 확신함’ 이라고 답했음. 이는 2024년 9월 확대에 대해서는 27%, 2025년 9월 확대에 대해서는 12%만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과 비교됨.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19%는 ‘잘 모르겠음’으로 답했으며, 2025년 9월 확대 시행에 대해 훨씬 더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줌.
- 보육 제공자는 보육 지원 30시간 확대를 성공적으로 제공하는데 여러 가지 상당한 장벽이 있음을 언급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음.
 - 지역 보육 인력(88%)
 - 특수교육(SEND, special education needs and disabilities, 특별한 교육적 필요와 장애 아동)을 위한 보육 장소의 충분성(64%)
 - 특수교육(SEND) 아동 지원을 위한 자금(55%)
 - 보육을 위한 지역 건물 또는 공간(58%)
- 잠재적인 촉진 요소로는 ‘장소를 제공하려는 공급자의 의지’와 ‘장소 신청을 가능하게 하는 IT 시스템’ 이 포함되었으며, 두 요소 모두 촉진/중요한 촉진 요소라고 29%의 응답자가 언급함.
- 응답자의 약 3분의 1은 전반적으로 이용가능한 보육 장소가 더 적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비용 부담 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가족 그리고 SEND 아동을 위한 보육 장소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함.
-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Dingley’s Promise 성명서의 데이터와도 연관이 되는데, 그들의 연구에서 보육시설의 85%가 보육비 지원 비율 변경으로 인해 SEND 아동 지원을 위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므로 향후 SEND 아동 지원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힘.

■ Coram Childcare 설문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음.

<https://www.familyandchildcaretrust.org/childcare-survey-2024-early-release>

2024년 01월 25일

출처 : <https://www.pacey.org.uk/news-and-views/news/news-coram-survey-shows-local-authorities-concern/>

2. 아이돌보미, 초등학교 포괄적 보육 안내 지침에 포함되다

■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는 잉글랜드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에게 포괄적 종합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와 위탁 기관의 역할에 관한 안내 지침을 발표함. 이 지침은 학교와 위탁 기관의 역할을 개괄적으로 제시하고, 광범위한 전국 단위 보육 프로그램에의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두 기관을 모두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음.

■ 잉글랜드의 포괄적 보육에 관한 정부의 포부는 다음과 같음.

- 부모가 일하거나 공부할 수 있게 함.
- 취약 아동을 지원함.
- 아동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풍성한 활동을 제공함.
- 학부모를 학교로 유입함.
- 학교 일과의 원활한 시작과 출석을 지원함.
- 학교와 지역사회 시설에 비용을 투자함.

■ 현재 80%의 학교가 포괄적 보육의 일부 형태를 제공하지만, 최소 40% 학교는 원하는 시간에 부모가 일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보육시간을 제공하지는 않음. 만약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보육이 가능하다면 일하기를 원하거나, 더 오래 근무하기 원하는 부모들 중 26%는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것으로 추정됨.

■ 이 지침에는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 관한 포괄적 보육을 위한 충분한 장소를 확보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이를 위해 학교, 위탁기관, PVI 제공자(아이돌보미와 보육 제공자)와 협력하여 필요할 경우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기존 서비스를 확대할 것임. 프로그램은 기존 포괄적 보육 시장과 통합하고 이를 방해하거나 대체하지 않는 지역 공동체의 기존 자산과 이해를 바탕으로 구축되어야 함.

- 아이돌보미는 대부분 가정 내에서 근무하는 반면, 최대 근무시간의 절반만 가정 외 장소에서 일할 수 있음. 가정 내 아이돌보미가 가정 외 장소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대하고 더불어 가정 외 보육만을 하는 아이돌보미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 정부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변경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또한 부모들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게 하려면 포괄적 보육의 비용이 저렴해야 함. 학교는 학부모 통신문과 같은 기존의 의사소통 루트를 활용하여, 학부모와 보호자가 보육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면세 보육(Tax-Free Childcare) 및 보편적 신용 보육(Universal Credit Childcare)과 같은 정부 보조금 제도를 홍보할 것으로 예상됨.
- 학교 현장에서 포괄적 보육을 제공하기 어려운 학교들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최소한 부모들이 적합한 보육 제공에 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이 경우 부모들이 학교 일과와 포괄적 보육 사이에 자녀를 데려오거나 데려다주도록 하는 일들을 요구해서는 안 됨.

2024년 02월 08일

출처 : <https://www.pacey.org.uk/news-and-views/news/news-childminders-included-in-wraparound-childcar/>

3. 유아교육 및 보육 부문 채용 캠페인 실시

- 올해 4월부터 시작하는 잉글랜드 무상 보육의 사상 최대 확대를 앞두고 교육부는 유아교육 및 보육 부문의 취업을 독려하기 위하여 TV, 영화, 온라인, 라디오, 그 밖의 옥외 광고를 통해 전국적인 채용 캠페인을 시작함.
 - 채용 캠페인 웹페이지 <https://earlyyearscares.campaign.gov.uk/>
- 잉글랜드 전역의 20개 지자체에 적용되는 보육 부문 인력 확충을 위한 1,000파운드 상여금 지급을 개시하였는데, 이는 보육 인력 확충과 실업 문제 해결, 그리고 더 많은 보육 시설 제공을 위함임. 신규 임용자 및 복직자에게 세금 감면 현금 지급금이 제공될 것임.
- 이러한 'Do Something Big' 채용 캠페인은 직무교육, 유연한 근무시간, 그리고 젊은이들의 삶을 형성하고 지원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다양한 보육 부문에서의 직업 경로와 발전 기회를 강조함으로써 보육 부문 전반에 걸쳐 채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 정부는 또한 어린이집과 보육 제공자들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확실하게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함. 정부가 지자체 세율을 발표하고 8주 이내에 지자체는 세율을 확정해야 함. 또한 모든 지자체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역 지원금 비율을 낮어도 2월 말까지 확정해야 함.

- 지난해 10월 정부는 포괄적 보육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에 2억 8,900만 파운드를 배정했으며, 현재 센트럴 베드퍼드셔, 웨스트민스터와 캔싱턴 및 첼시 이중 자치구, 노퍽, 케임브리지셔 등 4개 지역에서 이를 확정함. 2024년 4월부터 포괄적 보육을 확대 실시할 예정임.

2024년 02월 02일

출처 : <https://www.gov.uk/government/news/childcare-recruitment-campaign-launched>

4. 보육부문 확대에 관한 정부의 발표

- 교육부의 발표에 의하면, 2025년 9월까지 추가 교직원 40,000명과 신규 보육공간 85,000개가 필요하다고 밝힘. 교육부는 자격 제도 확대 도입 1단계에 대한 데이터 및 85,000개의 신규 보육공간 제공을 위한 보육부문의 과제에 대해 발표함.
- 교육부의 최신 자료에 의하면, 195,355명의 2세 유아가 이미 정부지원 보육공간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지난 2017년 3, 4세까지의 무상보육 확대와 궤적을 같이하는 것임. 더불어, 교육부는 모든 지자체의 보육공간이 부모들의 요구를 충족하고 있다고 보고받음.
- 한편, 교육부는 2025년 9월까지 2023년 대비 총 40,000명의 추가 교직원과 170,000개의 신규 보육공간이 필요함을 인지하였음. 필요한 보육 공간 중 약 절반은 시스템 내에서 이용 가능하고, 절반은 새롭게 마련되어야함.
- 공간 마련을 위해 교육부는 사용되지 않는 학교 공간을 보육장소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음. 이번 여름에 진행될 학교 공간 시범사업에는 소수의 사립, 자발적, 또는 독립 보육제 공자를 학교 및 대학의 잉여 공간과 연계하는 내용이 포함됨.
- 정부는 올해 초 전국 단위 채용 캠페인을 시작하였으며, 이번 캠페인은 더 많은 사람들을 보육 분야로 유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나, 그동안 저임금, 고된 노동, 저평가로 인해 일터를 떠날 수 있는 숙련되고 열정적인 보육종사자들을 유지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지는 않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 현재 아이돌보미 컨설팅은 근무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일부 영역들을 다루고 있음. 다만, 이는 보육현장을 떠나는 아이돌보미들이 다른 어떤 유형의 보육제공자보다 많은 상황에서 이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음. 아이돌보미 컨설팅은 아이돌보미 부문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아니며 자금 부족, 장시간 근무, 지원 부족 등 근본적인 이슈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 정부가 2025년 9월까지 85,000개의 새로운 보육장소를 창출해야 한다면, 아이돌보미 감소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전국단위 채용 캠페인에서 아이돌보미를 중요하게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2024년 04월 19일

출처 : <https://www.pacey.org.uk/news-and-views/news/news-government-releases-data-on-the-expansion/>

5. 유아교육 및 보육 연합(EECC), 새로운 구조와 개혁(New Rescue and Reform)에 관한 성명서 발표

- 유아교육 및 보육 연합(The Early Education and Childcare Coalition, EECC)은 지난 5월 17일 에, 잉글랜드의 유아교육 및 보육 부문을 개혁하겠다는 제안이 포함된 새로운 성명서를 발표함. (*EECC는 해당 부문의 변화를 요구하는 30개 이상의 조직으로 구성된 그룹임)

- 이러한 새로운 구조 및 개혁 성명서(The new Recue and Reform menifesto)는 정부에 3가지 핵심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있음.

- 1) 모든 어린이들은 그들의 부모가 감당할 수 있는 양질의 보육제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 2) 모든 유형의 보육제공자들에게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재정 지원을 약속하라.
- 3) 유아교육 및 보육 부문의 인적자원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투자하라.

- 이러한 성명서를 뒷받침하면서, 유아교육 및 보육 연합은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유권자들의 관점과 관련된 새로운 연구를 발표함.

- 이 연구에 의하면, 유권자의 71%가 어린이들은 그들의 부모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유아교육 및 보육을 받을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 유권자의 67%는 유아교육 및 보육에의 투자가 국가 전체에 유익하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59% 보다 증가한 수치임.
- 유권자의 53%는 잉글랜드의 유아교육 및 보육의 이용가능성에 관하여 우려를 표하였는데, 응답자의 40%는 보육제공을 찾기 어렵다고 응답하였고, 49%는 너무 비싸서 감당하기 어렵다고 응답함.

2024년 05월 17일

출처 : <https://www.pacey.org.uk/news-and-views/news/news-early-education-and-childcare-coalition-laun/>

6. 유아교육 및 보육 전문가 협회(PACEY), '2024 Childminding Week' 기념 아이돌보미를 위한 성명서 발표

■ 유아교육 및 보육 전문가 협회(Professional Association for Childcare and Early Years, PACEY)는 '2024 Childminding Week'를 기념하기 위해, 어린이들이 그들의 생애의 가장 좋은 출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급락하는 아이돌보미 수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의 긴급 조치를 촉구하는 아이돌보미를 위한 새로운 성명서(New Manifesto for Childminders)를 발표함.

■ 유아교육 및 보육 부문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있으며, 특히 아이돌보미들은 급격한 속도로 이 분야를 떠나고 있음. 보육 제공의 중요한 부분인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이용 가능한 잉글랜드 보육시설 126만 개 중 166,000개를 제공하고 있으며, 웨일즈에서의 79,000개 중 12,800개를 제공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이러한 인프라를 잃을 위험에 처해 있음. 현재 감소율로 보면, 2035년까지 잉글랜드에는 단 1,000명의 아이돌보미만 남을 것으로 예측됨. 또한 2023 Independent Review of Childminding에 따르면 웨일즈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여 2018년과 2022년 사이 23%의 아이돌보미 인력이 감소했고 계속 같은 속도로 감소하고 있음.

■ 아이돌보미들은 고도로 숙련되고 열정적인 보육전문가들임. 그러나 현재 슬프게도 다양한 장벽(비용 상승, 불충분한 자금 수준, 교육 부문 내 지속적인 인식 부족 등)에 직면해 있음. 수년에 걸쳐 정책과 보육시스템의 개선은 급격한 인력 감소 및 이탈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실패함.

■ 잉글랜드의 한 아이돌보미는, "우리가 모든 아이들의 배움의 여정을 돕고 그들의 생애의 최고의 시작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단지 탁아 서비스로 취급당하고 있다"고 말함.

■ PACEY는 아이돌보미 부문의 개선과 회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함.

- 1) 아이돌보미 자격취득 교육 지원을 위한 보편적, 국가적 자금 지원 프로그램
- 2) 아이돌보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접근 가능한 연수 지원 및 사회적 고립감 감소와 정서적 지원 제공
- 3)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자금 지원 시스템 및 급여
- 4) 웨일즈 아이돌보미가 정부 지원 양질의 보육 및 유아교육을 어려움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일관된 접근방식
- 5) 비부모 친척에 대한 보육 자금 지원을 제외하는 현행 규정 개정

- 6) 모든 지방 당국이 지역 내 기존의 포괄적인 보육 제공 상황을 점검하고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저해하지 않도록 의무를 다 할 것
- 7) 아이돌보미 고유의 직무 환경 반영하여 유니버설 크레딧 시스템 개선
- 8) 아이돌보미들이 체감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역 계획, 상업적 폐기물 및 환경 건강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명확히 하기 위한 통합적, 국가적 접근
- 9) 현재 취약 아동에 대한 불공평한 보육적 접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아이돌보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의 가치 존중 및 역할 강화

■ 위의 내용은 성명서 원문에서 발췌함

<https://www.pacey.org.uk/Pacey/media/Website-files/A-manifesto-for-Childminders.pdf>

2024년 05월 13일

출처 : <https://www.pacey.org.uk/news-and-views/news/news-pacey-launches-its-manifesto-for-childminders/>

7. 유아교육 및 보육 확대에 관한 지자체 설문조사 결과

■ Coram Family and Childcare는 잉글랜드 유아교육 및 보육의 확대에 관한 지자체의 최근 조사 결과를 발표함. 조사에서 확대에 관한 지자체의 첫 번째 단계시행 과정과 그 다음 두 단계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던짐.

- 1단계: 2024년 4월: 적격 부모의 2세 유아에 대한 15시간
- 2단계: 2024년 9월: 9개월 이상 영아~ 취학연령 아동에 대한 15시간
- 3단계: 2025년 9월: 9개월 이상 영아~ 취학연령 아동에 대한 30시간

■ 개시 1단계(2024년 4월)에 관해 물었을 때, 시의회의 절반 이상(52%)이 새로운 자격을 획득하기를 원하는 적격 부모 모두 또는 대부분이 이용 가능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설문조사에 참여한 지자체의 53%는 인력 문제를 해당 정책 시행의 가장 큰 장벽으로 지적함.

■ 앞으로의 확대 단계(2024년 9월, 2025년 9월)의 경우, 41%의 지자체가 이번 확대 정책 시행에 자신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지난 1월 설문에서의 응답보다 28% 증가한 수치임.

■ 일부는(11%) 2025년 9월 개시를 확신한다고 응답하였으며, 75%는 이러한 확대 정책 시행에 있어서 가장 큰 우려와 관심 사항은 지역의 인력 문제라고 응답함.

2024년 06월 27일

출처 : <https://www.pacey.org.uk/news-and-views/news/news-latest-from-coram-family-and-childcare-on-ch/>

8.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연례조사 ‘Pulse Check 2024’ 발표

■ EECC(Early Education and Childcare Coalition)와 More in Common은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대중의 인식과 태도에 관한 연례조사인 ‘Pulse Check 2024’를 실시함. 유아교육 및 보육에 대한 국가차원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대중의 인식에 관한 연례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해당 부문에 대한 대중의 관점과 평가를 이해하고자 함. 또한 최근 정책의 개발에 관한 의견수렴 및 정책의 효과성 파악, 필요한 다음 단계는 무엇인지에 관한 대중의 의견을 파악하고자 함. 이 신규 연구는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영국 유권자들의 높은 지지를 보여줌.

■ 올해 Pulse Check 2024는 역대 최대 규모의 유아교육 및 보육 확대 정책이 시행 중인 가운데, 총선 발표를 불과 몇 주 앞두고 실시됨. 지난해 조사에서는 대규모 보육 예산에 관한 대중의 반응을 파악했다면, 올해 조사에서는 보육 확대의 초기 영향뿐만 아니라 유아교육 및 보육 부문과 가구가 느끼는 광범위한 재정적 부담에 대해 다루고 있음.

■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의 68%는 차기 정부가 초등학교 만큼 유아교육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생각함. 같은 비율로 유아교육에 관한 더 많은 자금 지원이 장기적으로는 국가에 유익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44%는 현재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자금 지원이 장기적으로는 국가 비용을 절약하게 할 것이라고 여김.

■ 5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의 81%는 영국 내 보육시설의 이용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전체 유권자 중 80%는 영국 내 어디에서나 유아교육 및 보육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 참고로 지난해 Pulse Check 2023의 결과에서는, 영국 유권자의 42%가 유아교육 및 보육 부문의 개혁이 다음 총선에서 누구에게 투표할지를 결정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59%는 해당 부문의 투자가 단지 부모에게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에 유익한 것이라고 답함. 또한 다수(40%)의 응답자는(비록 그것이 더 높은 세금 납부를 의미한다고 할지라도) 유아교육 및 보육에 더 많은 납세자의 돈을 투자하는 것을 지지하며, 부모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59%가 같은 응답을 함.

2024년 06월 07일

출처 : <https://www.earlyeducationchildcare.org/pulse-check>

9.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정부 지원 보육 서비스

- 2024년 9월 2일부터, 생후 9개월 이상의 자녀를 둔 수십만 명의 근로 부모들은 매주 15시간의 정부 지원 보육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초등학교 연령의 자녀를 둔 부모들을 위해, 새로운 “랩어라운드(wraparound)” 돌봄 서비스가 학교 수업 전후로 제공될 예정이며, 이는 부모의 육아휴직 종료부터 초등학교 졸업 시점까지의 유아교육 및 보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장기 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것임. 이를 통해 부모의 직업 선택 폭을 넓히고, 자녀의 인생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와 동시에, 정부는 내년 9월부터 지원 시간을 늘려 30시간의 서비스 지원을 제공하고자 함. 다만, 부모들에게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례 없는 수준의 보육 시설과 인력 공급이 필요함. 이에 따라 일부 부모들은 내년에 원하는 1순위 보육기관을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음. 이에, 정부는 필요한 추가 보육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교실을 새로운 보육 장소로 활용하기 위한 추가 계획을 제시할 예정임.
- 브리짓 필립스 교육부 장관은 “이미 유아교육이 최우선 과제임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부터 9개월 이상 된 유아를 위한 매주 15시간의 보육과 함께, 초등학교 아동들을 위한 더 많은 랩어라운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상당한 도전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일부 부모들에게는 쉽지 않을 것이며, 아이들이 처음으로 유치원에 입학하거나 부모들이 근무 시간을 늘릴 수 있게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정부의 일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이 계획의 다음 단계를 실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부모들의 보육 자격을 주당 30시간으로 두 배로 늘리기 위한 계획을 확실히 실행할 것입니다”라고 말함.
- 국립 어린이집 협회(National Day Nurseries Association)의 CEO인 퍼니마 타누쿠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투자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지지한다. 이는 자녀들에게 최고의 출발을 제공하고 부모들이 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가족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이라며 “어린 시기 아이들을 지원하는 것은 그들이 학습 기초를 다지고, 특히 취약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의 경우 더 밝은 미래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는 데 중요하다. 우리는 모든 아이들이 유아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기를 열망하며, 유아기 투자는 아이들의 교육과 인생 기회를 향상시키는 데 큰 성과를 거둘 것이다”라고 말함. 또한 “유아교육 관계자들은 추가적인 필요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으며, 이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으므로 그들을 위한 추가적인 훈련 자원은 매우 환영받을 것이다”라고 밝힘.
- 전국적으로, 2025년 9월까지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2023년 대비 약 85,000개의 추가 보육장소가 필요하며, 이는 지난 5년 동안 증가한 수의 두 배 이상에 해당함. 이 수치는 지역마다 매우 다르며, 약 20개의 지역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두 배 많은 보육시간이 필요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세 배 많은 증가가 필요함. 부모와 가족을 위해 적절한 지역적 계획이 마련되도록 지방 당국과의 작업이 진행 중임.

-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시간 확대는 교육부 장관의 비전인 강력한 기초 위에 구축된 유아교육 및 보육 시스템을 통해 아이들이 학습 준비가 된 상태로 학교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첫걸음에 불과함.
- 성장과정에서 질적 저하가 없도록 정부는 최소한 2025년 3월까지 유아교육 강화 실천 허브 프로그램의 연장을 발표함. 이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내에서 그룹을 결성하여, 증거기반 실천을 공유하고 조언을 제공하며, 지속적인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줌.
- 또한,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유아교육 관계자를 위한 추가적인 자원이 제공되며, 다음 달부터 새로운 온라인 교육 모듈과 평가 지침이 출시되어, 추가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더 잘 파악하고 평가하며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2025년 1월부터는 초등학교 연령 아동을 위한 더 많은 랩어라운드 돌봄 장소가 제공될 것임. 정부의 재정 지원의 결과로, 학교는 부모들에게 각 지방 당국에 새로 임명된 랩어라운드 돌봄 담당자를 안내할 수 있으며, 부모들이 필요한 랩어라운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지원을 제공할 것임.

2024년 08월 30일

출처 : <https://www.gov.uk/government/news/government-funded-childcare-offer-to-kick-in-from-next-week>

10. 영국 노동당, 12개월 이내 300개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 설립 약속

- 영국 교육부 장관 브리짓 필립슨은 내년 9월까지 잉글랜드 학교에 300개의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이 문을 열 것이라고 약속하였는데, 정부는 무상보육 도입에 앞서 보육장소를 확보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는 상황임.
- 필립슨 장관이 이끄는 교육부는 내년 9월부터 9개월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30시간의 무상보육이 시작되기 전까지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음. 필립슨 장관은 이번 달 잉글랜드 내 학교의 빈 교실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그 결과 300개의 신규 어린이집이 내년 9월까지 문을 열게 될 것이라고 말함.
- 노동당은 이전 정부의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인력과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학교들은 2025년 4월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예정임. 보육시

설이 문을 여는 시기에 맞춰 보육비용의 80%가 국가에서 지원될 예정이지만, 인력 채용에 대한 우려가 있음. 필립스 장관은 부모들에게 1지망으로 선택한 보육기관을 이용할 수 없을 수도 있다면 서, “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함.

- 이 계획의 시작은 새로운 시스템을 시험하고 그 실행 방법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임. 필립스 장관은 학교들이 이 시행안을 도입하려는 의욕이 크다고 하며, 특히 이것이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대한 준비를 하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강조함. 필립스 장관은 “학교들이 말하기를, 유아기에 양질의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와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학교 자체와 학교장 사이에서 학교 내 어린이집 교실을 더 많이 제공하겠다는 의지가 높다. 이미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같은 장소에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것은 매우 편리한 점이 될 것이다. 또한 학교에서 형성할 수 있는 유대감과 아이가 학교 입학 전에 1년간 발전할 수 있는 기회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덧붙임.
- 필립스 장관은 무상보육 시간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부모들이 민간 보육제공자에게 상당한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이에 드는 상당한 비용 때문에, 필립스 장관은 정부가 부모들이 보육비를 절감하고 여성들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발달 측면에서도 혜택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함. 이는 영아들과 언어 발달이 크게 지연된 아이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초등학교의 통계에서 비롯되었음.
- 필립스 장관은 “우리는 투자된 자금을 활용해 교육 수준을 높이고, 아이들이 학습 준비를 갖추고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직원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고,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부모들에게 약속한 보육장소 제공과 더불어 폭넓은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하며, “부모들이 약속받은 권리를 쉽게 이용하게 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갔을 때 이미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함.
- 재무장관 레이철 리브스는 월요일 연설에서, 초등학교에 무료 조식 클럽을 도입하는 등 또 다른 중요한 교육적 투자를 언급하며, 반복적으로 사립학교 수업료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필립스 장관의 계획을 지지함. 필립스 장관은 사립학교 수업료가 평범한 사람들의 희생 속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함. “최근 몇 년간 수업료가 엄청나게 상승했으며, 사립학교는 우리나라 대부분 부모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라고 말함.

2024년 09월 25일

출처 : <https://www.theguardian.com/education/2024/sep/25/labour-pledges-300-new-state-nurseries-in-england-within-12-months>

11. 잉글랜드 교육기준청, 'Big Listen' 협의회 결과 발표

■ 9월 3일, 잉글랜드 교육기준청(Ofsted)은 "새로운 장의 시작"을 알리며 Big Listen 협의회 결과를 발표함. 교육 환경에 가해지는 압박을 줄이고, 교육 부문과의 관계를 개선하며, 아동을 위한 양질의 교육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변화를 발표함. 변경 사항에 대한 전체 설명은 아래 링크에서 읽을 수 있음.

<https://www.gov.uk/government/consultations/ofsted-big-listen/outcome/hearing-feedback-accepting-criticism-and-building-a-better-ofsted-the-response-to-the-big-listen#early-years>

■ 유아교육의 경우 교육기준청은 또한 다음과 같은 변화를 추진할 예정임.

1) 개편된 유아교육 점검 및 규제 체계 도입

- 아동 발달에 더 적합한 점검 및 규제 체계가 도입될 것이며, 그 중심에는 영국의 초기 아동 발달 기초 단계(EYFS)가 있음. 이 개편된 점검 체계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라는 섹션에 명시된 원칙과 Big Listen에서 수렴된 의견, Best start in life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할 것임.

2) 생활기록부(report card) 도입

- 부모와 양육자에게 교육 제공자에 대한 더 세밀하고 묘사적인 보고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효과성 등급 체계를 폐지하고, 새롭게 도입되는 생활기록부(report cards) 양식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임.

3) 정부의 보육 수요 충족 계획 지원

- 초등학교 부지에 3,000개의 보육시설을 여는 것을 지원하며,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모든 지원자가 선택사항과 절차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등록 안내문을 개편할 것임.

4) 보육시설 등록과 관련된 법률 재검토

- 보육시설 등록 허점을 이용하여 허위로 시설을 등록하는 사람을 규제하기 위해 관련된 법률을 재검토함. 특히, 나이가 많은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시설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들을 더 철저히 평가하는 절차를 만들고자 함. 현재 등록된 기관 중 10%를 점검하고 있음.

- 5) 조사관 교육 개선을 위해 교육기준청 Academy 도입
 - 아카데미에서는 모든 직원의 채용, 교육 방식 등을 변화시킬 것이며, 여기에는 유아교육 조사관을 더 효과적으로 채용하는 방법도 포함될 것임.
- 6) 지역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지역 통찰 서비스(area insights service) 개발
 - '보육 사막과 오아시스' 프로젝트를 통해 국가적으로 보육 공급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시각화할 예정임.

■ 이번 Big Listen 협의회에는 총 16,033명이 응답했으며, 이 중 절반 가량이 유아교육과 관련된 질문에 응답함. 결과 전문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함.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ofsted-big-listen-supporting-documents>

2024년 09월 03일

출처 : <https://www.pacey.org.uk/news-and-views/news/news-ofsted-publishes-outcome-of-big-listen-consu/>

12. 학교 기반 유치원, 1,500만 파운드 자금 지원으로 시작

- 수천 가정의 자녀들은 거주하는 지역에서 접근 가능하고 비용이 적절하며 높은 품질의 유아교육을 받을 기회를 한 걸음 더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게 되었음. 정부는 지난 17일 3,000개의 학교 기반 유치원을 제공하기 위한 계획의 첫 단계를 시작했기 때문임.
- 초등학교는 총 1,500만 파운드의 자본금 중 최대 15만 파운드까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계획의 첫 번째 단계로 최대 300개의 신규 또는 기존보다 확대된 유치원을 잉글랜드 전역에 지원할 예정임.
-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달 두 번째 단계의 보육 약속을 이행하면서 추가로 321,462명의 아동이 주당 15시간의 정부 지원 유아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음.
- 이 조치는 정부의 기회 미션(Opportunity Mission)의 일환으로, 출신 배경과 기회 사이의 불공정한 연결을 끊고 모든 아이에게 최상의 출발을 제공하며, 아이들의 삶의 기회를 향상시키고 부모의 근로 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아교육 부문과의 관계를 재정립함.

- 이번 단계의 실행은 지방 당국과 유아교육 기관 간 협력에 기인함. 교육부 장관은 아동 중심 정부의 새로운 시대를 약속했으며, 유아교육 부문과 협력하여 의미 있는 장기 개혁을 추진하면서 이후 더 어려운 단계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할 것임.
- 이번 제도는 유아교육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가정에게 이용가능한 시간대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임. 이것은 정부가 비용지원 시간 외의 상당히 높은 추가 비용 부담에 직면한 부모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는 이유임. 이러한 추가 비용에는 기저귀, 점심 또는 기타 소모품에 대한 필수 지출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비용지원 보육시설에 대한 이용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됨.
- 앞으로 몇 달간 정부는 지방 당국 및 유아교육 기관들과 협력하여 추가 비용에 대한 지침을 명확히 하고, 부모가 과다 비용 청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방 당국 차원의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임.
- 브리짓 필립슨 교육부 장관은 “모든 아동이 누구인지, 어디 출신인지, 부모의 소득이 얼마인지에 관계없이 훌륭한 유아교육을 받을 기회를 가져야 한다. 새로운 학교 기반 유치원은 가장 필요한 곳에 수천 개의 추가 공간을 제공하여 기존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지리적 위치가 양질의 보육에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내년 9월까지 일부 부모들은 원하는 1순위 자리를 배정받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부모가 부여받은 시간을 이용하고 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함.
- 교육부에 의하면, 서비스 30시간 확대를 위해서는 내년 9월까지 약 70,000개의 추가 공간과 유아교육 교사 35,000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가장 취약한 지역들에서 상당한 확대가 필요함. 지역의 절반가량이 9월 학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용력을 10%에서 20%까지 늘려야 하며, 일부 지역은 20% 이상의 늘려야함. 전통적으로 가계 소득이 낮은 노섬벌랜드(Northumberland), 플리머스(Plymouth) 및 로더럼(Rotherham) 지역이 이에 포함됨.
- 유아교육 기관들과 학교들은 학교 기반 유치원 프로그램 신청 시 최신 데이터를 고려하고, 지방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제안이 지역적 필요에 어떻게 대응할지 개요를 제시하고, 결과적으로 정부의 아동 기회 증대 계획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유아교육 부문의 모든 영역들이 아동에게 필요한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는 데 귀중한 역할을 하지만, 학교는 지역 사회의 중심에 있음. 비울상, 학교 기반 유치원은 현재 특수한 교육적 필요를 지닌 아동을 더 많이 돌보며 가장 취약한 지역에서 더 많은 자리를 제공하고 있음.

- 학교 기반 유치원은 현재 이직률이 낮고, 초등학교 1학년과 초기 초등교육 사이에 일부 교직원들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으며, 정부는 유아교육 부문에서의 커리어를 유도하기 위한 확대된 채용 캠페인을 통해 유아교육 부문과 협력하고 있음.
- 가장 취약한 아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기존 시장의 중요한 역할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학교 기반 유치원 자금은 학교운영 기관, 민간운영 기관, 자원봉사 제공기관, 아이돌보미를 통해 제공되는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음.
- 전국 학교 리더 연합의 사무총장인 폴 화이트먼은, “학교 기반 유치원은 유아교육 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사회 내에서 수요가 있고 학교에 여유 공간이 있다면, 정부가 학교 기반 유치원 제공을 확대하는 것은 합리적인 조치이다. 관심 있는 학교들이 실질적 및 재정적으로 이 과정을 잘 지원받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는 지속 가능한 유아교육 인력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확장이나 유치원 개설을 고려하는 학교는 이 지원금을 신청하고, 미래에 관심이 있는 학교는 교육부에 관심 등록을 권장한다”라고 말함.

2024년 10월 17일

출처 : <https://www.gov.uk/government/news/school-based-nurseries-plan-kicks-off-with-15-million-funding>

13. 아이돌보미를 대한 규정 유연화

- 2024년 11월 1일부터 아이돌보미들이 더 쉽게 이 직종에 입문하고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연한 규정이 시행됨. 이는 확장된 보육 혜택 제공과 모든 아동에게 최상의 출발을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지원하는 것임.
- 새로 유연화된 규정은,
 - 비가정 시설에서만 근무하는 아이돌보미(비가정 아이돌보미)에 대한 분류 신설
 - 아이돌보미의 등록 하에 함께 근무할 수 있는 총 인원 수를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증원
 - 아이돌보미와 가정 기반 보육 제공자(CODP)가 가정 외 시설(커뮤니티 홀이나 학교 등)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유연성 확대
 - 기반 보육 제공자(CODP) 운영 인원을 기존의 최소 4명에서 5명 이상으로 증원(11월 1일 이전에 등록했거나 등록을 신청한 기반 보육 제공자(CODP)는 여전히 4명 이상으로 운영 가능) *현재 아이돌보미 보육 서비스의 경우 최소 절반을 가정 내에서 제공해야 하고, 최대 3명과 함께 일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음.

-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2024년 11월 1일부터 보육교사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1) 아이돌보미 (가정 기반), 2) 비가정 아이돌보미
- 이미 등록된 아이돌보미는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 없이 새로 유연화된 혜택을 누릴 수 있음. 모든 아이돌보미는 이제 보육교사 등록 하에 최대 4명과 함께 일할 수 있음.
- 가정 기반 보육교사는 집과 가정 외 시설에서 운영하는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일부 시간은 반드시 가정에서 운영해야 함. 가정에서 일하기를 원하지 않거나 불가능한 보육교사들은 '비가정 보육교사'로 등록하여 비가정용 시설에서만 돌봄을 제공할 수 있음.
- 가정 기반 보육 제공자(CODP) 관련 변경사항은? 11월 1일부터 가정 기반 보육 제공자(CODP) 제공 인원이 최소 4명에서 5명 이상으로 증원됨. 이는 아이돌보미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인원이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는 것에 따른 변경사항임. 11월 1일 이전에 가정 기반 보육 제공자(CODP)로 등록했거나 신청한 사람은 4명 이상으로 계속 운영할 수 있음.
- 11월 1일 이후에 아이돌보미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선호하는 운영 방식에 따라 등록 유형을 선택할 수 있음. 새로운 유형인 '비가정 아이돌보미'는 집에서 일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적합함. 이들은 하차와 픽업을 포함하여 가정 내에서 운영할 수 없음. 집에서 일부 시간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일반적으로 자신의 집) '가정 기반 아이돌보미'로 등록할 수 있음.
- 이러한 변화가 안전 및 보육 제공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가? 아이돌보미는 이미 운영 시간의 50%를 가정 외 시설에서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 장소에 상관없이 동일한 양질의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음. 교육기준청과 아이돌보미 에이전시(CMA)는 법적 책임에 따라 각 유형 보육의 안전성과 질을 계속 규제하고 비가정 시설을 승인할 것임. 모든 아이돌보미는 유아기 기초 단계(Early Years Foundation Stage) 법정 프레임워크 또는 General Childcare Register의 아이돌보미 요건을 준수해야 함.
- 유아기 기초 단계(Early Years Foundation Stage)에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약간의 수정이 있을 예정이며, 이 내용은 10월 11일에 공개됨. 이는 '아이돌보미'라는 용어가 모든 아이돌보미 유형에 적용됨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임.
- 교육부는 이번 기회를 통해 기존의 자격 요건에 대한 명확성을 높일 예정이며, 특히 레벨 6의 교사 대 아동 비율에 포함될 자격 요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추가할 것임. 이 변경은 Qualified Teacher Status(QTS), Early Years Teacher Status(EYTS) 또는 Early Years Professional Status(EYPS)를 보유한 사람들만 레벨 6의 교사 대 아동 비율에 포함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임. 이는 기존 정책에 대한 명확화일 뿐이며, 자격 요건과 비율 요건에는 변경이 없음.

- 이러한 변화가 아이돌보미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가? 이 조치들은 아이돌보미들이 더 많은 사람과 함께 일하거나 가정 외 장소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을 확장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함. 또한 ‘비가정 아이돌보미’ 유형은 가정에서 일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아이돌보미는 여전히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한 결정을 내릴 책임이 있으며, 새로운 유연성이 자신의 사업에 적합한지를 스스로 판단해야 함. 예를 들어, 더 많은 아동을 돌보거나 부모에게 더 매력적인 장소에서 운영하여 사업 확장을 통해 발생하는 추가 수입이 비용을 상쇄할 수 있을지를 고려할 수 있음.
- 교육기준청과 아이돌보미 에이전시가 변경사항에 대한 세부 정보 및 신규 유형의 아이돌보미 신청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안내를 제공할 예정임.

2024년 10월 09일

출처 : <https://www.foundationyears.org.uk/2024/10/new-flexibilities-for-childminders/>

14. 보육 및 유아교육 제공자 설문조사 결과

- 12월 12일, 영국 교육부는 잉글랜드 내 보육 및 유아교육 제공의 주요 특성에 대한 데이터를 발표함. 이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함.
 - 제공자 특성
 - 등록된 보육 장소의 수
 - 보육을 받는 아동의 수
 - 교직원 특성과 자격
 - 비용

■ 제공자 특성

- 2023년에서 2024년 사이, 전체 보육 제공자 수는 1,700개(3%) 감소하여 54,700개로 줄어듦. 이는 2022년에서 2023년 사이 관찰된 5% 감소보다 낮은 수치임. 학교 기반 및 그룹 기반 제공자 수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나, 2023년에서 2024년 사이 아이돌보미(childminder) 수는 7% 감소함. 지역의 빈곤 정도와 제공자 비율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가장 빈곤한

지역에서 아이돌보미는 전체 제공자의 35%를 차지하며, 그룹 기반 제공자(3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였음. 아이돌보미는 학기 중과 방학 모두 운영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유형(89%)으로 나타남.

■ 보육 장소의 수

- 2023년에서 2024년 사이, 잉글랜드에 등록된 보육 장소의 수는 44,400개(3%) 증가하여 1,602,500개로 추정됨. 아이돌보미의 등록된 보육 장소의 수는 13% 감소함. 아이돌보미의 보육 아동 연령 분포는 고르게 나타났으며, 2세 미만 29%, 2세 34%, 3~4세 38%로 나타남. 2024년 기준 평일 평균적으로, 아이돌보미들은 78,100명의 아동을 전일제 보육으로 등록했으며 이는 2023년의 86,400명에서 8,300명(10%) 감소한 수치임.

■ 아이돌보미

- 2024년 기준, 보육 교사의 20%가 보조 인력을 고용했으며, 이는 2023년(19%)과 유사한 비율임. 추가로, 7%의 아이돌보미가 보조 인력을 고용할 계획이라고 답했으며 이는 2023년과 동일한 비율임. 11%는 정기적으로 다른 아이돌보미와 협업한다고 보고했으며 이는 2023년의 13%와 유사한 수준임. 8%의 아이돌보미는 1명 이상의 자신의 자녀를 돌보며, 6%는 한 명의 자녀를, 1%는 두 명의 자녀를, 나머지 1%는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돌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교직원 자격 및 특성

- 75%의 아이돌보미는 레벨 3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11%의 아이돌보미는 레벨 6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있음. 79%의 아이돌보미는 백인 영국인(White British)으로 추정되며, 이 비율은 사립 그룹 기반 제공자(78%)에서 가장 낮고, 자원봉사 그룹 기반 제공자(87%)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아이돌보미의 47%는 50세 이상이며, 25세 미만은 1%, 25~39세는 17%, 40~49세는 34%로 나타남.

■ 보육제공자 재정

- 아이돌보미의 인건비는 전체 비용의 77%를 차지하며, 이는 보조 인력(있을 경우)과 아이돌보미 자신의 급여를 포함함. 두 번째로 큰 비중의 항목은 식비로 나타남.

■ 무상 보육 및 세금 감면 보육

- 2세 아동의 무상 보육(15시간) 제공 비율이 2023년 24%에서 2024년 78%로 크게 증가함. 평균적으로 44%의 아이돌보미가 부모들이 무상 보육 시간을 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아이돌보미는 특정 시간대에 무상 보육을 제한할 가능성이 가장 낮으며, 거의 90%가 제한 없이 제공함. 2024년 기준, 94%의 아이돌보미가 세금 감면 보육료(Tax-Free Childcare) 결제를 받을 수 있도록 등록했으며, 이는 2023년의 91%에서 증가한 수치임. 아이돌보미를 통해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 중 50%가 세금 감면 보육료를 사용함.

■ 특수교육 요구 및 장애(SEND)

- 2018년 이후, 최소 한 명의 SEND 아동을 돌보는 보육제공자 비율이 증가함. 그러나 2023년과 2024년의 비율은 동일함. 학교 기반 및 그룹 기반 제공자는 아이돌보미보다 더 많은 아동을 돌보기 때문에, SEND 아동을 돌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학교 기반 제공자: 85%
- 그룹 기반 제공자: 88%
- 아이돌보미: 25%

■ 제공자 요금 및 지원율

- 2024년에도 보육 교사는 가장 낮은 시간당 요금을 유지함. 2세, 3~4세 아동의 경우, 사립 그룹 기반 제공자가 가장 높은 시간당 요금을, 아이돌보미가 가장 낮은 요금을 부과함. 2세 미만 아동의 경우, 유치원 학급 제공자가 가장 높은 시간당 요금을 부과함. 아이돌보미는 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2024년 12월 12일

출처 : <https://www.pacey.org.uk/childcare-and-early-years-provider-survey/>

15. 유아교육 확대를 위한 20억 파운드 이상의 지원 확대

■ 유아교육 제공자들은 2025년 9월부터 정부 지원 30시간 유아교육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전년 대비 20억 파운드 이상의 추가 투자를 받게 됨. 이는 더 많은 아동이 만 5세에 학교에 입학할 준비가 되어 있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비용과 질 높은 유아교육 접근성을 늘리는 정부의 목표 중 하나임.

■ 지난주 총리는 정부의 변화를 위한 계획(Plan for Change)을 발표하며, 2028년까지 기록된 75%의 아동이 학교에 입학할 때 양호한 발달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계획을 밝혔음.

■ 개선된 지속가능한 유아교육 시스템은 이러한 목표의 핵심임. 경제 기반 개선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유아교육 확장을 위해 전년 대비 30% 이상 투자를 늘리며 총 예산을 80억 파운드로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음.

■ 보육제공자들의 시간당 지원금은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지방 당국별로 다르나, 평균적으로 시간당 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증가함.

- 만 2세 미만: 11.54 파운드(시간당)
- 만 2세: 8.53 파운드(시간당)
- 만 3~4세: 6.12 파운드(시간당)

■ 또한 정부는 어린이집, 아이돌보미, 그 외 보육제공자들이 내년 9월까지 35,000명의 추가 교직원과 70,000개의 새로운 보육 장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올해 말 할당될 7,500만 파운드 규모의 보조금 확대를 발표함.

■ 정부는 또한 유아교육 학생 프리미엄(Early Years Pupil Premium, EYPP)에 대해 사상 최대의 인상을 단행해 자격이 있는 아동 1명당 연간 최대 570파운드로 45% 이상 인상할 예정임. 이번 전례 없는 인상은 유아교육이 가장 필요한 지역에서 이러한 아동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만 5세에 학교에 입학할 준비를 마치고 최고의 인생 기회를 얻도록 돕기 위한 투자임.

■ 교육부 장관 브리짓 필립슨은, “질 높은 유아교육은 정부의 ‘변화를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매년 수만 명의 어린이가 학교에 입학할 준비를 갖추도록 보장하는 약속의 핵심이다. 우리가 직면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배경과 성공 사이의 연결고리를 끊고 모든 아이들에게 최고의 시작을 제공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미래에 투자할 것이다. 유아교육은 1일차부터 저의 우선순위였다. 더 많은 아동에게 학교에 준비된 상태로 입학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기회를 변화시키고, 교실의 모든 아이들의 삶의 기회도 변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함.

■ 유아교육 및 보육연합(Early Education and Childcare Coalition) 이사 사라 로난은, “정부가 ‘변화를 위한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유아교육 학생 프리미엄(EYPP)의 큰 인상을 발표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이는 연합 회원들이 오랫동안 요구해 온 사항이다. 개혁된 유아교육 및 보육시스템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교육적 불평등에 대한 결단력 있는 조치는 그 작업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오늘 발표된 유아교육 학생 프리미엄(EYPP)의 인상은 모든 어린이가 공정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보여주는 명확한 신호로 환영한다”고 언급함.

2024년 12월 10일

출처 : <https://www.gov.uk/government/news/over-2-billion-boost-to-secure-expansion-in-early-education>

●● 기타

1. 교육기준청, 학교평가 조사관을 위한 정신건강 인식 교육 실시

- 마틴 올리버 경은 영국 국왕의 교육, 아동 서비스 및 기술 수석 검사관으로 임기를 시작하면서 잉글랜드 교육기준청(Ofsted)이 평가하고 규제하는 모든 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인 “Big Listen”을 개시한다고 밝힘.
- 이번 학기 후반부터 시작되는 Big Listen을 통해 현재 교육기준청(Ofsted)이 실시하고 있는 평가와 규제 방식의 장단점에 대한 학부모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수렴하고자 함.
- 가장 먼저 루스 페리의 비극적인 죽음에 관련한 사인조사에 대한 교육기준청(Ofsted)의 대응에 초점을 맞출 예정임. *참고: 루스 페리는 13년 동안 캐버삼 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했으나, 지난 2022년 학교평가 시 낮은 등급의 평가를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음. 이 사건 이후 교육기준청(Ofsted)의 평가 방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 마틴 경은 일부 개정된 학교평가 내용과 더불어 추후 몇 주 안에 사인조사 결과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고자 함. 또한 학기 첫 주에 조사관들의 정신건강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봄 학기의 학교 정기평가는 1월 말에 시작될 것이라고 발표함.
- 1월 2째주에 모든 조사관을 대상으로 초기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 세션에는 잉글랜드 정신건강 응급처치(Mental Health First Aid England)에서 제공하는 교육과 지원이 포함될 것임. 잉글랜드 정신건강 응급처치(Mental Health First Aid England)는 모든 조사관을 대상으로 하는 향후 정신 건강 인식 교육 프로그램을 주도할 예정이며, 이 훈련의 자세한 내용은 출판물로 제작하여 전문 직종 전반에 반영하고자 함.
- Big Listen은 학부모와 전문가들이 교육기준청(Ofsted)의 현재 평가 및 규제 방식의 장단점을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임. 이는 최고 수준의 교육과 돌봄을 확실히 하겠다는 교육기준청(Ofsted)의 목표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학부모와 교육기준청(Ofsted) 평가 및 규제 부문이 더욱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협력하겠다는 결심을 보여주는 것임. 학부모와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기회 등이 포함된 Big Listen 운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번 학기 후반에 나올 예정임.

2024년 01월 02일

출처 : <https://www.gov.uk/government/news/sir-martyn-oliver-begins-term-at-ofsted-with-mental-health-awareness-training-for-inspectors>

2. Sure Start, 취약계층 아동의 GCSE 결과를 크게 향상시킴

■ 영국 재정연구소 The Institute for Fiscal Studies(IFS)의 새로운 연구에 의하면, 5세 미만 유아가 있는 가족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는 잉글랜드 최초의 대규모 프로그램인 ‘Sure Start’가 저소득층 아동의 교육적 성취를 크게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프로그램의 초기에 설립된 Sure Start 센터에서 그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음. 특히, 센터는 지원받기 어려운 가족을 위한 큰 예산 규모와 성공적인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 연구는 포괄적 가족 지원을 통한 잘 짜여지고 자금이 충분한 조기 개입이 아동발달을 촉진하고 향후 개인과 사회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국제 연구 결과와 일치함.

■ Sure Start는 1999년부터 2010년 사이에 5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통합하는 ‘one-stop shops’ 네트워크에서 확대됨. 여기에는 산전-산후 건강 서비스, 양육지원, 영유아기 학습 및 보육, 부모 취업 지원이 포함됨. Sure Start는 연간 최대 25억 파운드 예산을 집행했으나, 이후 상당수 센터가 폐쇄되거나 규모가 축소되고 Family Hubs로 통합되면서 예산이 2/3 이상이 감소함.

- Family Hubs 프로그램은 전 연령대 아동을 위한 지역 서비스를 계획하고 제공하고자 하는 새로운 장소 기반 계획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75개 지자체에서 3억 파운드의 재정 지원을 받게 됨.

■ Nuffield 재단이 자금을 지원한 이번 연구는 Sure Start가 16세까지의 아동의 교육적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첫 번째 결과를 제공함. 연구자들은 1999년부터 2010년까지 프로그램 확대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발견함.

- 1) Sure Start 센터를 이용하면 초·중등학교를 통해 아동의 학업 성취도가 향상됨. 모든 아동 중, Sure Start 센터 근처에 사는 아동이 멀리 사는 아동보다 GCSE 수준에서 0.8점 더 높은 점수를 받음.
- 2) 저소득층 아동과 소수민족 배경의 아동 사이에서 그 영향이 매우 불균형적으로 나타남. 센터 근처에 거주하는 경우 무상급식(FSM) 대상 아동의 GCSE 성적이 3등급 향상됨. Sure Start는 무상급식 적격 아동과 부적격 아동을 통틀어 유색인종 아동에게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3) Sure Start는 특수교육 요구(SEN)에 대한 지원을 어린 나이에는 확대하다가 청소년기에는 축소함. 특히 16세에는 ‘교육, 건강 및 의료 플랜’의 감소폭이 컸으며, Sure Start 센터 근처에 거주하는 아동의 이용률은 멀리 사는 아동보다 9% (또는 연간 1,000명 이상) 감소함.

- 4)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은 Sure Start 지역 프로그램화 단계인 2003년 이전에 개소한 센터에 의해 전적으로 주도되었음. 2000년대에 운영된 센터들은 나중에 개소한 센터보다 더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추가 지원이 필요한 많은 가족에게 다가갔으며 서비스를 설계함에 있어 지역사회 지원을 많이 받았음.
- 5) 학업 성취도 향상 및 특수교육 요구 감소라는 점 외에도 이전 연구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이 프로그램에는 아동의 입원 감소에 의한 다른 이점도 있음. 향후 작업은 아동의 사회복지 및 청소년 범죄를 포함한 다른 성과로 확대되고 아동 삶 형성에 있어서 Sure Start의 역할에 대한 포괄적인 그림을 제공할 것임.

2024년 04월 09일

출처 : <https://ifs.org.uk/news/sure-start-greatly-improved-disadvantaged-childrens-gcse-results>

스웨덴

임신·출산지원		
1	여성 건강을 위한 중요한 투자, 국가 출산계획	152
2	Visby 지역의 집중 치료 및 출산	154
3	산모 건강 관리, 출산 의료 및 여성 건강에 대한 투자	154
양육지원		
1	육아휴직 수당에 대한 보다 통일된 규정 제안	156
유아교육·보육		
1	학생의 학습 발전을 추적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기 위한 교육청의 임무	157
2	유치원과 학교 도서 보급을 위한 국가 보조금 마련	157
3	정부 주도 교사 협의회 개최	158
4	유치원 내 감염을 줄이기 위한 지침 개정	159
5	보육교사가 되기 위한 적합한 교육	160
6	교육청, 봄 개정 예산에서 학교에 5억 크로나(SEK) 지급 예정	161
7	이제 모든 학생들은 사서가 배치된 학교도서관을 이용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162
8	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수업시간 규정	163
9	유치원 교직원의 스웨덴어 역량 기준 마련	164
10	새학기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법률	165
11	정부는 휴대폰 없는 학교를 만들고 싶어한다	166
12	어린이와 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유치원과 학교 내 교직원 채용 제한 확대	167
13	학교 내 도서들과 독서를 위한 정부의 막대한 투자	167
14	교육청의 복지 분야 종사자 대상 언어 교육 임무 연장	168
15	지속되는 높은 초등학교 결석률과 정부의 대응 방안	169
16	2025년 스웨덴 아동과 학생들을 위한 새 책에 4억 8천만 크로나 지원	170
아동·청소년지원		
1	공공기관 내 아동권리 인식 증진을 위한 노력	171
2	주거복지센터 내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 및 보안 강화	172
3	폭력이나 기타 위험에 노출된 아동에 대한 보호 강화	173
4	정부의 아동 보호 강화 법안	174

●● 임신·출산지원

1. 여성 건강을 위한 중요한 투자, 국가 출산계획

- 국가적인 차원의 산모 돌봄 계획은 전국적으로 안전하고 평등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 접근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포부가 담겨있음. 이 계획은 국가 전체 진료망을 포괄하며 전국의 산모 진료 발전을 위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할 것임.
- 보건부 장관 Acko Ankarberg Johansson은 다음과 같이 말함. “정부는 이미 1차 예산에서 국민 출산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그 작업은 이미 실현되고 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출산 진료의 지역적 차이를 좁히기 위해 이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여성은 거주지역에 따라 임신과 출산 중에 어떤 진료와 관심을 받는지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 국민 출산계획은 산모 돌봄 발전을 위한 명확한 방향을 설정해야 하며, 전체 진료망 즉 임신, 출산 및 그 이후의 진료 및 예방 조치를 포괄할 것임. 무엇보다도 진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적 차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지역 내 보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개선 작업을 지원할 것임.
- 스웨덴 산부인과 진료는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으나, 여러 문제점과 함께 클리닉 및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함. 공급되는 진료기술 및 근무여건이 좋지 않고, 산후 진료도 부적절하고 불평등한 경우가 있음. 모든 임신 및 출산 여성과 그들의 배우자는 보다 인간중심적이고, 안전하며, 접근 가능하고, 평등한 진료를 받아야 함. 이를 위해서 의료 시스템은 임신 진료를 넘어 여성 일생의 성 및 재생산 건강까지로 관심을 넓혀야 함. 국민 출산계획의 다른 목적은 투자 성과를 평가하고 예산을 잘 규제할 수 있도록 계획 목표와 세부목표를 모니터링하는 것임.
- 평등한 진료와 여성 건강 및 출산 진료에 대한 광범위한 투자여성 진료는 오랫동안 관심의 중심에서 소외되어 왔으며 인간중심적이고, 안전하며, 평등하고, 접근 가능하도록 개발될 필요가 있음. 여성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에 대한 잘 알아야 되며, 이는 근본적 평등에 관한 중요한 문제임. 정부는 평등한 돌봄과 여성 질병 및 건강에 대한 관리 및 연구 분야 중에서도 가정 낙태 가능성을 조사하고 여성 질병 및 건강에 대한 연구 자금을 늘리기를 원함.
- 정부는 또한 국가를 대신하여 스웨덴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과 출산 관리 및 여성 건강 분야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음. 이번 합의에 따라 지역들은 무엇보다도 임신, 출산, 산후관리 기간 동안 더욱 사람 중심적이고, 접근 가능하며 평등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힘쓰고, 농촌 지역의 산모 진료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음.

- 공공의료서비스는 건강 증진 및 예방 노력에 중점을 두고 평생의 관점에서 성인 및 청소년 여성의 성 및 재생산 건강과 관련된 진료 요구를 충족하도록 조정되어야 함. 일차 진료는 정보와 조언 제공, 건강 증진 및 예방 조치 제공, 진료, 치료 및 필요한 경우 환자를 전문 진료로 의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함.
- 합의의 또 다른 중요한 실천 영역은 성폭력과 할례와 같은 생식기 절단에 노출된 소녀와 여성에 대한 진료가 접근 가능하고 평등해야 하며 지식 기반이어야 한다는 것임. 협약에 포함된 기금은 성폭력이나 할례와 같은 생식기 절단에 노출된 사람들을 위해 치료를 촉진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 여기에는 명확한 치료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포함됨.
- 국립보건복지위원회의 제안2024년 1월, 국가보건복지위원회는 정부를 대신하여 국가 출산계획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현재 정부 부처 내에서 추가적인 준비가 진행 중임. 국가보건복지위원회의 국가계획 제안에는 6가지 영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최종 목표와 하위 목표가 정의되어 있음. 계획은 장기적이어야 하며, 최종 목표와 하위 목표는 5~7년 이내에 달성 가능해야 하며 이는 다음과 같음.
 1. 더욱 응집력 있는 진료체계
 2.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관리 강화
 3. 역량공급 강화
 4. 현재 지식에 대한 접근성 향상
 5. 더욱 조화롭고 평등한 출산 관리
 6. 산후관리 강화 및 발전
- 국가보건복지위원회는 또한 산모 돌봄 발전을 위한 성과 기반 방안을 개발하고, 국가계획 제안과 관련 행위자들로부터 성과 기반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업무를 담당함.
- 2024~2025년에는 평등한 진료, 여성 건강 및 출산 돌봄을 위해 총 SEK 16억 크로나가 배정될 것으로 추산되며, 이 기금 중 SEK 1억 5천만 크рона는 인구의 대부분이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의 산모 건강 관리 및 출산 관리 개발 노력을 위해 특별 배정되었음.

2024년 03월 08일

출처 : <https://www.regeringen.se/artiklar/2024/03/nationell-forlossningsplan-en-viktig-satsning-pa-kvinnors-halsa/>

2. Visby 지역의 집중 치료 및 출산

■ 지역 순방의 일환으로 보건부 장관 아코 요한슨은 5월 29일 고틀란드 지역 내 *Visby를 방문했음. 이번 방문은 응급실, 중환자실 및 출산에 대한 연구 방문과 함께 Visby 병원에 중점을 두었음.

* Visby: 비스뷔는 스웨덴의 고틀란드섬 해안에 있는 휴양도시이다. 스웨덴의 자치단체 가운데 배와 항공 교통만으로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 보건부 장관 아코 요한슨은 다음과 같이 말함. “고틀란드지역 의료서비스는 가까운 의료 이웃이 없는 섬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우수한 접근성을 제공하면서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는 점은 고무적이다.”

■ 보건부 장관은 Visby 병원의 응급실을 방문하여 운영 관리자 파닐라 피터슨과 부서 관리자 조세핀 텀트룬드와 함께 특히 여름에 많은 방문객을 응대하기 위해 어떤 변화를 모색하는지, 필요한 다양한 기술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함.

■ 보건부 장관의 두 번째 연구 방문은 중환자실이였으며, 또한 장관은 운영 관리자인 피아 스틸만으로부터 교통 옵션 등 섬에서의 운영과 관련된 비즈니스의 어려움에 대해 들을 수 있었음.

■ 산부인과 병동 방문은 운영 관리자인 오사 헤드크비스트가 주도했으며, 그는 섬의 산부인과 진료의 질, 조건 및 과제에 대해 이야기함.

2024년 05월 29일

출처 : <https://www.regeringen.se/artiklar/2024/05/intensivvard-och-forlossning-i-visby/>

3. 산모 건강 관리, 출산 의료 및 여성 건강에 대한 투자

■ 스웨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25년 산모 건강 관리, 출산 의료 및 여성 건강 강화를 목표로 새로운 협약을 체결함.

■ 산모 건강 관리와 출산의료서비스는 본질적으로 안전하고 확실하지만, 높은 수준의 관리에도 불구하고 특히 지역 간 경제 불평등과 관련하여서는 지속적인 과제가 존재함. 또한 여성관련 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에는 결핍과 개선사항이 있으며, 특히 더 많은 지식과 명확한 관리 체계가 필요함.

■ 협약에 따라서 정부는 2025년에 지방에 대략 15억 크로나를 배정하고, 그 중 1억 5천만 크로나는 농촌 지역의 산모 건강관리 및 출산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할당됨.

■ 협정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계획이 포함됨.

- 보다 평등한 산모 건강관리 및 출산의료서비스 달성
- 임신, 출산, 산후 관리에 촘촘한 관리 체계와 지속적인 의료서비스 구축
- 모든 여성에게 출산 후 개인의 필요에 따라 의료서비스와 지원 제공
- 국가 지침과 지식 지원을 바탕으로 의료진의 근무 여건 강화
- 산모 건강 관리 및 출산의료서비스 내 조산사 및 기타 전문직의 장기적인 역량 공급 보장(예를 들어, 건강 증진 및 예방 활동과 같은 노력을 통해 여성의 성 및 생식 건강에 대한 의료서비스 개선)
- 주로 소녀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질병 및 상태에 대한 명확한 진료 의뢰 경로를 포함한 의료 체계 개선
- 성폭력과 여성 할례를 경험한 소녀와 여성을 위한 접근 가능하고, 평등하며, 지식에 기반한 의료 지원

■ 보건부 장관 아코 안카베리 요한손은 다음과 같이 말함. “산모 건강 관리와 출산의료서비스가 긍정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번 투자를 통해 모든 여성이 어느 지역에 살든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 지방자치단체 의료 대표단 회장인 안나레나 호게루드는 다음과 같이 말함. “모든 여성은 의료서비스를 통해 안전함을 느껴야 하며, 이 기금을 통해 지방들은 여성을 위한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진료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이러한 성과를 거두었다.”

2024년 12월 23일

출처 :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4/12/satsning-pa-modrahalsovard-forlossningsvard-och-kvinnors-halsa/>

☞ 양육지원

1. 육아휴직 수당에 대한 보다 통일된 규정 제안

- 휴무일 동안의 육아휴직 수당 지급 규정은 육아휴직 수당의 보상 수준에 따라 다름. 사회부는 현재 모든 직업군의 근무시간 및 업무 범위와 관련하여 동일한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제안을 제출함. 이 제안의 목적은 소득 손실과 육아휴직 간의 연관성을 명확히 하기 위함임. 법률 변경 사항은 2025년 4월 1일부터 발효될 것으로 제안됨.
- 육아휴직 수당은 질병수당 수준으로 지급될 수 있음. 예를 들어 부모의 질병수당은 적격 소득(SGI)에 따라 정해지거나 가장 낮은 수준인 하루 SEK 180크로나가 지급됨. 질병수당 적격 소득이 없거나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기본 수준인, 하루 SEK 250크로나의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음.
- 현재 질병수당 수준의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받을 경우, 해당 부모는 주말이나 기타 휴무일 바로 직전이나 직후에 대한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요건이 있음. 이 요건은 ‘최저 및 기본 수준 수당’에는 적용되지 않음.
- 육아휴직 수당은 무엇보다도 한 부모가 자녀를 돌볼 때 상실된 근로소득에 대한 보상이므로, 정부는 이미 질병수당이 적용받는 요건을 부모의 연속적인 육아휴직에도 적용하고 ‘최저 및 기본 수준 수당’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함.
- 질병수당 수준과 동일한 ‘최저 및 기본 수준 수당’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규정이 통일되고 육아휴직 수당이 자녀를 돌봄으로써 잃게 되는 근로소득에 대한 보상성격이 분명해짐.

2024년 04월 18일

출처 :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4/04/forslag-om-mer-enhetligt-regelverk-for-foraldrarforsakringen/>

❖ 유아교육·보육

1. 학생의 학습 발전을 추적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기 위한 교육청의 임무

■ 모든 학생이 학습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사가 그들의 학습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함. 이에 정부는 2024년 규정서에 교육청에게 지도서 작성을 위해 교육자료와 평가지원을 개발하고 개선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함.

■ 교육부 장관 룯타 에드홀름은 다음과 같이 말함. “교사는 학생들의 지식과 발전 영역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 이는 특히 읽기, 쓰기, 계산과 같은 기본 능력 영역에 적용된다.”

■ 학생에게 적시에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청은 예비 초등 수업의 필수 조사 자료와 초등 1학년 평가지원을 어떻게 개발 및 개선하여 학생들의 지식수준을 더 잘 드러내고,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분석할 것임. 교육청은 또한 지역 및 국가 차원에서 새로운 통계 자료 수집을 통해 학생들의 초기 지식 발달 상황을 어떻게 더 잘 모니터링할 수 있는지 분석할 것임. 해당 업무에는 교육청이 이민자 학생들의 지식능력평가에 사용되는 조사 자료와 해당 조사 자료를 가장 잘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도 포함됨.

- 2024년 11월 15일까지 교육부에 결과가 보고되어야 함.

■ 이 제안은 스웨덴 민주당, 온건당, 기독교민주당, 자유당 간의 합의에 기초하고 있음.

2024년 01월 03일

출처 :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4/01/uppdrag-till-skolverket-for-att-oka-mojligheterna-att-folja-elevers-kunskapsutveckling/>

2. 유치원과 학교 도서 보급을 위한 국가 보조금 마련

■ 어린이와 학생들은 책에 대한 적절한 접근성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정부는 도서 구매를 위한 새로운 주정부 보조금을 마련함.

■ 2024년 국가 보조금으로 1억 7,600만 크로나가 배정되었으며, 이는 책 한 권 가격이 200크로나 정도라고 가정하면 책 권수는 약 880,000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됨. 이 국가 보조금 신청은 교장이 할 수 있으며, 첫째에 유치원은 물론 초등학교 저학년, 특수학교 및 사립학교를 위해 소설 및 비소설 도서를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음. 2025년부터는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특수 고등학교들도 정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음.

■ 2024년에 이 국가 보조금을 받으려면, 교장은 학교 양식과 보조금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인쇄 서적을 구입하기 위해 자신의 자금을 따로 확보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됨.

■ 교육부 장관 로타 에드홀름은 다음과 같이 말함. “스웨덴 학생들의 독해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으며 초등학생 중 20% 이상이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되돌리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그 중 특히 유치원과 학교에는 더 많은 책이 필요하다. 이제 우리는 유치원 내 도서관을 만들고, 학교 도서관을 흥미로운 책들로 채울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2024년 02월 19일

출처 :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4/02/fler-bocker-till-forskolor-och-skolor/>

3. 정부 주도 교사 협의회 개최

■ 현재 정부는 스웨덴 교사 연합회와 함께 진행되는 교사 협의회를 주도함. 교사 협의회에서 교육부 장관 로타 에드홀름은 교사 및 유치원 교사들과 학교 문제를 논의할 예정임. 첫 번째 교사 협의회는 3월 15일에 룬드에서 개최됨.

■ 올해, 2024년에 교육부 장관 로타 에드홀름은 교사 협의회에서 교사 및 유치원 교사와 만나 학교 및 유치원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할 예정임. 교사 협의회는 정부 주도로 스웨덴 교사 연합회와 함께 교육부가 계획하고 시행함.

■ 교육부 장관 로타 에드홀름은 다음과 같이 말함. “저는 교사 및 유치원 교사들과 협력하여 그들에게 중요한 문제와 스웨덴 학교 및 유치원 발전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전국의 교사들과 유치원 교사들이 무엇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또한 무엇이 효과가 없는지에 대한 그들의 생각, 아이디어 및 제안들에 대해 더 많이 듣고자 한다.”

■ 정부가 이러한 주도권을 잡은 것은 교사 마리아 위만이 교육부총리와 교육부 장관이 교사 협의회를 통해 교사들과 만나야 한다는 희망을 표현한 신문의 칼럼을 통해서 임.

■ 각 교사 협의회는 참가자들과 교육부가 공동으로 정한 것이며, 첫 번째 교사 협의회는 3월 15일 룬드에서 열리며 감소하는 PISA 결과와 향후 교육 과제를 다룸. 다음 교사 협의회는 4월 10일 보로스에서 열릴 예정이며, 가을에는 스웨덴 중부와 북부에서 두 차례 더 협의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각 교사협의회에는 다양한 교사들과 유치원 교사들이 참여할 것임.

2024년 03월 14일

출처 :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4/03/regeringen-tar-initiativ-till-ett-lararrad-skolminister-lotta-edholm-traffar-larare-och-forskollare/>

4. 유치원 내 감염을 줄이기 위한 지침 개정

■ 공공보건청은 정부로부터 ‘유치원 내 감염’ 지침을 개정하라는 임무를 받음. 당국은 유치원, 유치원장 및 유치원과 협력하는 기타 행위자에게 배포할 새로운 지침을 작성함. 이것은 취학 전 아동의 감염 확산 방지 활동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또한, 공공보건청은 다양한 유형의 감염이나 전염성 질환과 관련하여, 아동이 정상적으로 유치원에 머물거나 유치원에 복귀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한 특정 권장 사항을 제공하고자 함.

■ 감염사슬 끊기

- 유치원 내에서는 기관이 위생, 청소, 식품 취급 및 야외 활동에 대한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감염 사슬을 끊을 수 있음. 아동이 국가 아동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는 것 또한 아픈 아동이 집에 머무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함.
- 기본 규칙은 아픈 아동과 교직원들은 유치원 활동에 다시 참여할 수 있을 때까지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임. 기침이나 콧물과 같은 가벼운 증상이 양호한 경우 유치원에 다니는 데 장애가 되지 않음.
- 감염으로부터 회복하는 기간은 무엇보다도 개인의 나이, 면역체계 및 감염원이 체내에 유입되는 양에 따라 개인차가 있음. 공중보건국의 지침은 아동의 회복을 촉진하고 감염 확산 위험을 줄이며 아동에게 사회 및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보호자와 교사 간 의사소통: 아이의 전반적인 상태에 관해 유치원과 보호자 사이의 소통이 중요함. 보호자와 교직원의 평가가 다를 경우, 아이가 유아원의 정규 활동에 참여할 만큼 활력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교직원의 평가임. 공중 보건 당국의 권장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아동과 교직원은 전반적인 상태가 좋아지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때까지 집에 머물러야 함. 가벼운 콧물이나 기침이 있는 아동은 전반적인 상태가 좋은 경우 유치원에 등교할 수 있음. 일반적 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은 아이가 감염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소 24시간 동안 발열이 없고, 유치원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만큼 활력이 넘치는 것을 의미함.

- 배가 아픈 어린이는 구토, 설사, 발열 등의 증상 없이 이틀 동안 집에 있어야 함.
- 매일 야외활동을 하는 것은 감염 확산을 줄이고 웰빙을 높이기 위한 사업의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됨.
- 손 위생, 청소, 기저귀 갈기 및 기타 중요한 위생 지침을 마련하고 따라야 하며 식품 위생, 식품 취급 및 발병 관리에 대한 지침도 준수해야 함.

■ 노인 및 사회 보험부 장관 Anna Tenje 은 다음과 같이 말함. “유치원은 아이들의 발달에 매우 중요하고 부모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아이들이 유치원에 많이 출석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하다. 아픈 자녀를 돌보기 위해 사용되는 부모휴가의 비중은 2023년에 소폭 감소했지만, 팬데믹 이전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특히나 어린 자녀를 둔 모든 부모에게 중요한 결정이다. 가벼운 콧물이나 기침 외 특정 어려움이 없다면 자녀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다.”

■ 교육부 장관 로타 에드홀름은 다음과 같이 말함. “유치원은 아이들에게 인생에서 성공하고 균등한 삶의 기회 제공하기 위한 핵심 부분이다. 유치원이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출석 여부가 중요하다. 그렇지만 아이가 아플 때는 당연히 유치원에 출석할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정된 지침은 유치원내 교직원들을 지원하고 유치원내 감염 확산을 줄일 수 있다.”

2024년 04월 10일

출처 : <https://www.folkhalsomyndigheten.se/nyheter-och-press/nyhetsarkiv/2024/april/vagledning-till-for-skolan-for-att-minska-risken-for-smittspridning/>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4/04/regeringen-har-tagit-emot-uppdaterade-riktlinjer-for-att-minska-smitta-i-forskolan/>

5. 보육교사가 되기 위한 적합한 교육

■ 보육교사는 유치원에서 가장 규모가 큰 집단이며 어린이의 안전, 보호 및 사회적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함. 오늘날 보육교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다양하나 교육 프로그램들은 학생들이 처음 맡게 되는 직무에 더욱 적합해야 함.

■ 보육교사를 위한 직업 훈련은 고등학교, 성인 교육 및 공교육에서 제공되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존재함. 즉,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같은 직업 군 안에서도 다른 역량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함.

■ 더불어, 성인교육에서 보육교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교육을 흡수할 만큼의 스웨덴어에 대한 사전 지식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누가 지역사회 성인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교육부 장관 로타 에드홀름은 “오늘날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중 네명 중 한 명꼴로 다른 국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는 미래의 많은 보육교사들이 스웨덴 언어 발달 지원이 필요할 수 있는 어린이들과 함께 일하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보육교사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스웨덴어를 익히는 것은 특히나 중요하다.”라고 전함.

- 자격 평가의 어려움은 보육교사 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성인 교육과정에도 해당됨.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성인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며, 오늘날에는 자격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불분명함.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교육이 너무 어렵다는 이유로 교육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또한 지자체마다 평가기준이 매우 다를 수 있음.
- 따라서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성인교육 책임자를 위한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이는 교육 대상자 자격을 평가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임. 특히 교육 대상이 교육 내용을 소화할 수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춰야 함. 교육청은 또한 성인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보육교사 교육과정에 스웨덴어 또는 제2 언어로서의 스웨덴어가 어떻게 포함되어야 하는지 검토할 것임.
- 보육교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고등학교 학생들은 교육 및 사회사업에 중점을 둔 어린이 및 여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공부함. 이는 경비원, 개인 보조원, 학생 보조교사를 교육시키는 것과 동일한 방향임. 최근에는 예비 보육교사들은 아이들과 함께 일하는 것에 더욱 초점을 맞춘 교육을 받아야 함. 따라서 교육청은 고등학교 내 보육교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검토하여 아이들과 함께 일하는데 더욱 효과적이고 적합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2024년 05월 07일

출처 :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4/05/utbildningen-till-barnskotare-ska-bli-mer-andamalsenlig/>

6. 교육청, 봄 개정 예산에서 학교에 5억 크로나(SEK) 지급 예정

- 정부는 2024년 봄 개정 예산에서 5억 크로나(SEK)를 학교 시스템에 추가했음. 교육청은 인플레이션이 교육과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어린이들과 학생들의 생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 자금을 신속하게 학교에 지급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으며, 이 자금은 학교 시스템으로 직접 전달되어야 함.
- 교육부 장관 로타 에드홀름은 다음과 같이 말함. “높은 인플레이션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증가를 의미하고 학교와 유치원에 많은 부담을 안겨준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빨리 이 자금을 학교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이 자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6~19세 어린이와 청소년 수에 비례하여 나누어져야 하며, 이는 자금이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 초등학교, 방과 후 센터, 고등학교, 특수 고등학교 및 시립 성인 교육 등 전체 학교 시스템에 분배된다는 것을 의미함. 5억 크로나(SEK)는 약 100만 권의 교과서 비용 또는 6개월 동안 약 1,320개의 교수직에 대한 급여 비용에 해당함.

2024년 06월 20일

출처 :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4/06/skolverket-ska-skyndsamt-betala-ut-de-500-miljoner-regeringen-avsatte-till-skolorna-i-varandringsbudgeten/>

7. 이제 모든 학생들은 사서가 배치된 학교도서관을 이용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 읽고 쓰는 법을 배우는 데 가장 좋은 조건은 책, 종이, 연필과 가까워지는 것임. 그러나 현재 학생들에게는 교과서, 소설 그리고 사서가 배치된 학교도서관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함. 따라서 정부는 독서 시간을 늘리고, 독해력을 향상시키며, 학교에서 화면 시청 시간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시행함. 추가 단계로, 정부는 모든 학생들이 사서가 배치된 학교도서관을 이용할 권리를 가짐을 내용으로 한 법률 협의회를 결정함.
- 교육부 장관 로타 에드홀름은 다음과 같이 말함. “학교 복도에 있는 책장을 학교도서관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모든 학생들은 교육을 받은 사서가 배치된 학교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직원이 있는 학교 도서관은 학생들의 읽기 능력과 여러 과목들을 학습하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 문화부 장관 파리스 릴제스트란드는 다음과 같이 말함. “학교 도서관은 또한 학생들의 미디어 지식과 정보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보를 검색하고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고,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고, 반민주적 바람이 불고 있는 시대에, 이러한 제도는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 오늘날 학교 도서관에 대한 운영 방식은 학교에 따라 다름. 어떤 학생들은 많은 책, 다양한 매체, 숙련된 사서가 있는 완벽한 시설을 갖춘 학교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반면, 다른 학생들은 작은 방에 몇 권의 책들만 가지고 있음. 이 제안은 학생들이 소속 학교의 학교도서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을 의미하며 학교 도서관은 별도의 공간을 갖추어야 함.
- 더불어 학교도서관에 사서를 배치하자고 제안함. 학교도서관 사서는 교사와 함께 학생들의 독서 능력과 독서에 대한 관심을 강화할 수 있으며, 사서가 학교도서관의 자료와 환경을 적극적으로 정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을 의미함.
- 교장은 학교도서관의 목적이 어떻게 달성되어야 하는지를 명시하고 학교도서관이 학생들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떻게 학생들의 학습에 기여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도서관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함. 이는 학교의 질을 높이고 평등을 강화할 수 있음. 이 제안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및 특수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될 것임.

- 제안에 해당하는 비용은 2025년 2억 1,600만 크로나, 2026년 이후 4억 3,200만 크로나로 추산됨. 법률 변경 사항은 2025년 7월 1일부터 발효되도록 제안됨.

2024년 06월 17일

출처 :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4/06/nu-ska-alla-elever-fa-ratt-till-bemannade-skolbibliotek/>

8. 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수업시간 규정

- 교사와 유치원 교사가 핵심 업무인 수업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더 나은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음. 오늘날에는 수업을 계획하고 점검할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그리하여 교사협동조합은 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수업 시간은 물론 수업 계획 및 후속 조치에 대한 시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환경이 변화하기를 희망함.
- 교육부 장관인 로타 에드홀름은 다음과 같이 말함. “교사는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어린이와 학생들의 학습 및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교사가 자신의 주요 업무, 즉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 수업 시간에 대한 규정은 1995년 이후로 규정화되지 않았음. 그 이후로 교사의 수업 시간을 늘리는 것은 학교에서 돈을 절약하는 방법이 되었음. 이는 교사가 때때로 많은 수업시수로 수업을 계획하고 점검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함. 교육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교사가 수업을 계획하는 데 시간이 매우 부족하다고 인식함. 게다가 많은 교사들은 직장에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이러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교사가 학교를 떠나는 경우가 많아짐.
- 이에 정부는 유치원 교사와 교사들의 행정 부담 경감에 대한 조사에 추가 지시를 내렸으며, 원래 지시에 더해 조사관은 교사의 수업 전후 교육 시간을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음. 조사 기간을 연장되었으며 늦어도 2025년 3월 3일까지 이 과제를 제출해야 함.
- 스웨덴 민주당의 교육 정책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말함. “교사들의 수업, 계획 및 점검 시간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질이 강화될 수 있다.” 온건당의 교육 정책 대변인인 다음과 같이 말함. “지난 7년 동안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직을 선택하는 교사의 수가 증가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여 교사와 유치원 교사에게 좋은 근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기민당의 교육 정책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말함. “교직의 위상을 높이려면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는 교직이 더욱 매력적이게 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교사나 유치원 교사가 되기를 선택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교사라는 직업에 머물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07월 01일

출처 :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4/07/larares-och-forskollarares-undervisningstid-ska-regleras/>

9. 유치원 교직원의 스웨덴어 역량 기준 마련

■ 오늘날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 네명 중 한명은 이민자 가족 배경을 가지고 있음. 이에 모든 어린이가 스웨덴어를 잘 습득하려면 유치원내 직원들의 스웨덴어 역량이 중요함. 그러나 불행히도 오늘날의 실정은 그렇지 않음. 따라서 교육청은 유치원내 교직원들이 어느 정도의 스웨덴어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규정하고자 함.

■ 어린이의 언어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유치원내 활동이 일관되며 양질이어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유치원내 교직원의 역량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

■ 교육부 장관 로타 에드홀름은 다음과 같이 말함. “아쉽게도 유치원내 교직원의 스웨덴어 지식이 부족한 경우들이 있다. 이는 문제이며, 특히 많은 어린이들이 스웨덴어가 아닌 다른 모국어를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어린이들의 스웨덴어 지식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유치원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 이에 정부는 교육청에 유치원 목표 달성을 위한 일반적인 권고사항을 수정하고 유치원 교직원이 갖춰야 할 스웨덴어 역량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함. 목표는 유치원에서 교직원이 아동의 스웨덴어 발달을 촉진하고, 초등학교 시작 전 언어 발달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을 갖도록 하는 것임. 교육청의 일반적인 권고사항은 유치원 운영 규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원장, 유치원 교사 및 기타 유치원 직원의 행동강령에 대한 권장 사항이며, 이는 또한 감독의 기초가 될 수 있음.

2024년 08월 27일

출처 :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4/08/regeringen-vill-fortydliga-kraven-pa-forskole-personalens-kunskaper-i-svenska/>

10. 새학기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법률

■ 개학을 맞이하면서 스웨덴 전역의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새로운 법률이 발효됨. 이는 교재에 대한 권리, 특수학교에 대한 보다 공정한 지원금, 그리고 사회와 자연과학 관련 과목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 학생 선택 과목을 없애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교재 접근성 강화

- 교육법에는 학생들의 지식 습득을 위한 교과서, 기타 교육 보조 자료 및 학습 도구에 대한 권리가 명시되어 있음. 교사 교육 과정에서는 학생들이 졸업하기 위해 교과서, 기타 교재 및 학습 도구를 사용할 줄 알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야 한다는 새로운 졸업 목표도 도입됨. 이러한 변화의 목적은 학생들이 적절한 교재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임.

■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더 공평한 지원 제공

-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은 추가 지원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 이 지원금은 시에서 학교에 지급하는 기본 금액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임. 여기에는 교실 환경의 조정, 소규모 학습 그룹을 위해 설계된 맞춤형 학습 환경, 높은 교사 비율 및 특수 교육 전문성이 포함될 수 있음.
- 목표는 학교 시스템을 더욱 평등하고 공정하게 만들어 장기 결석을 겪는 어린이와 학생, 맞춤 학습 환경이 필요한 학생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는 특히 신경정신과적인 장애가 있는 학생에게 적용됨. 이 명확해진 규정은 특히 특별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독립된 특수학교들이 예측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 학생 선택과목 폐지

- 초등학교에서 학생 선택과목이 사라지게 됨. 이는 더 많은 수업 시간이 필요한 과목의 교육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임. 선택과목에 배정되었던 시간은 주로 사회, 자연 관련 과목들과 특정 실용 미술 과목들에 재분배됨. 법률 및 규정에 대한 변경 사항은 2024년 7월 1일부터 발효됨.

2024년 08월 12일

출처 :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4/08/skolstart-har-ar-de-nya-lagarna-som-galler-for-skolan/>

11. 정부는 휴대폰 없는 학교를 만들고 싶어한다

- 최근 PISA(국제 학생 평가 프로그램) 조사에서 스웨덴 학생들의 성적과 휴대전화 사용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음.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면 학생의 안전, 학습 및 지식 습득을 촉진할 수 있음. 정부는 현재 학교 수업 중 휴대폰 및 기타 전자 통신 장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어떻게 계획할 수 있는지 조사관에게 의뢰했음.
- 고등교육부 장관 요한 퍼손은 다음과 같이 말함. “많은 스웨덴 학생과 교사에게 혼란스러운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문제는 흔한 일입니다.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은 학생들이 보다 조용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 교육부 장관 로타 에드홀름은 “휴대폰은 심지어 밤에도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휴대폰 화면은 엄청난 관심을 끄는 힘을 가지고 있어 어린이와 성인을 소극적으로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학교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함.
- 조사관은 휴대폰과 스마트 시계 등 기타 전자 통신 장비를 학교에서 매일 수합하는 규정이 실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 조사할 것임.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휴대폰 사용 예외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임. 조사관은 학생이 휴대폰 양도를 거부하더라도 휴대폰을 수집할 수 있다는 제안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도 이 과제의 일부이며, 이 규정은 유치원, 초등학교 및 이에 상응하는 학교 형태와 방과 후 센터들도 포함함. 이 과제는 늦어도 2025년 3월 3일까지 보고되어야 함.
- 조사관은 학교 안전을 강화하고 안전한 학습 환경을 촉진하는 광범위한 임무에 관해 협의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징계 및 기타 특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교직원의 권한과 책임이 법률에 추가로 명시할 수 있는지 분석할 예정임.

2024년 09월 25일

출처 :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4/09/regeringen-vill-gora-skolan-mobilfri/>

12. 어린이와 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유치원과 학교 내 교직원 채용 제한 확대

- 정부가 학교와 유치원 내 신입직원 채용 제한을 확대하기로 함. 새로운 법안은 심각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함 임.
- 교육부 장관 로타 에드홀름은 다음과 같이 말함. "학교는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장소여야 하며, 심각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학교 내 일자리가 주어지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 심각한 범죄에는 성범죄, 아동포르노 범죄, 살인, 과실치사, 가중폭행, 유괴, 가중강도 등이 포함됨. 정부는 특히 형법에 새로운 범죄가 도입되고 과격화와 범죄 연루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 많은 범죄가 이러한 통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
- 어떤 범죄를 추가로 등록제한 대상으로 다루어야 하는지 검토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 중임. 본 조사는 늦어도 2025년 1월 31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해야 할 것임. 정부는 특정 범죄들은 보다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테러범죄법에 따른 범죄와 미성년자가 관련된 범죄들은 이미 등록제한에 포함한다고 결정함. 또한, 학교 조사관은 이러한 범죄들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력이 있는 교사 및 유치원 교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예정인데, 이는 교사 책임 위원회(LAN)에 교사 자격 취소에 대한 통지를 보내기 위함임.

2024년 10월 10일

출처 :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4/10/utokad-registerkontroll-av-personal-i-forskola-och-skola-ska-starka-skyddet-for-barn-och-elever/>

13. 학교 내 도서들과 독서를 위한 정부의 막대한 투자

- 학생들이 읽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학교 과목 학습의 기초이며, 장기적으로는 교육을 이수하고 노동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침. 스웨덴에는 44주차에 도서 방학이 있으며, 도서관, 방과후 센터, 유치원, 레저 공원, 스포츠 클럽 및 가정에서 더 많은 독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
- 교육부 장관 로타 에드홀름은 다음과 같이 말함. "학교 사서는 아이들의 독서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학생들의 독서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사서가 있는 학교 도서관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도서 구입을 위한 자금을 따로 마련해 두는 이유이다."

■ 정부는 교육 분야에서 독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됨.

- 모든 학생이 사서가 있는 학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
- 학생들이 교과서, 기타 학습 자료 및 기타 학습 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 또한 학교 교장이 교과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주 보조금도 포함
- 스웨덴 및 국제 소설 읽기 목록은 교사가 수업을 위해 문학 작품을 선택해야 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
- 유치원과 학교를 위한 도서 구매에 투자
- 독서국가를 위한 힘 모으기: 시민사회, 학계 그리고 기업 대표들의 협의회로부터의 자문
- 스웨덴 아동도서연구소에 대한 보조금 증가

2024년 10월 25일

출처 :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4/10/regeringen-gor-stora-satsningar-pa-lasning-och-bocker-i-skolan/>

14. 교육청의 복지 분야 종사자 대상 언어 교육 임무 연장

■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 네 명 중 한 명은 다문화 배경을 가지고 있음. 이는 대부분의 유치원 교직원들이 스웨덴어가 모국어가 아닌 아이들과 함께 일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아이들에게는 언어 발달을 위한 지원이 필요할 수 있음. 동시에, 유치원 내에는 스웨덴어 실력이 부족한 교직원도 존재함. 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에서 복지 분야 종사자를 위한 언어교육 프로그램을 연장할 것을 제안했으며, 여기에는 유치원 교직원도 포함됨. 그리하여 이와 관련한 교육청의 임무도 연장됨. 2025년에 투자될 SEK 4천만 크로나의 예산은 언어 교육을 위한 활동에 사용되며, 이 프로그램은 2026년까지 계속될 예정임.

■ 교육부 장관 로타 에드홀름은 다음과 같이 말함. “어린 시기의 언어 학습이 중요한 기초가 되므로, 모든 어린이가 스웨덴어를 조기에 습득할 수 있도록 유치원에서 스웨덴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교직원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모든 어린이에게 중요하지만, 특히 집에서 스웨덴어를 접하지 못하는 어린이들에게 더욱 중요하다.”

- 교육청은 유치원을 포함한 복지 분야 종사자들의 스웨덴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제공하는 임무를 맡고 있음. 이러한 활동에 시간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이미 2024년 교육청 규정 지침서를 수정하여 관련 임무 연장을 결정했음. 이 연장은 국회가 예산안에서 정부의 제안에 동의할 경우 유효함.

2024년 11월 04일

출처 :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4/11/skolverket-far-forlangt-uppdrag-om-sprak-traning-for-anstallda-i-valfarden/>

15. 지속되는 높은 초등학교 결석률과 정부의 대응 방안

- 교육청의 새 보고서에 따르면 초등학교 결석률이 여전히 높은 상태이며, 동시에 결석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는 부족한 실정임. 이에 정부는 학교의 결석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결석 현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했음.
- 교육부 장관 로타 에드홀름은 다음과 같이 말함. “결석률이 여전히 높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일이며, 학교는 소외, 범죄, 약물 남용 및 건강 문제를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보호 요인들 중에 하나이다. 따라서 학교는 높은 결석률을 보이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 학교사회복지팀은 학생들의 출석률을 높이고 안정적이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며, 학생들에게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와 사회복지 서비스가 협력하는 방식임. 정부의 학교사회복지팀 지원 보조금은 현재 스웨덴 전역에서 총 294개의 팀 설립에 기여했음. 이 지원금은 수요가 매우 높아 2023년과 2024년 신청 규모가 지원 한도를 초과했음. 이는 이 문제에 대한 필요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리하여 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에서 보조금을 5천만 크로나 추가하여 총 3억 크로나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음. 만약 학교 운영자와 사회복지 서비스가 2025년 동안 이 추가 예산으로 새로운 학교사회복지팀을 설립한다면, 약 60개의 새로운 팀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임.
- 정부는 또한 더 많은 특수교사를 양성하고, 소규모 학습 그룹을 운영하여 학교가 학생들에게 초기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데 투자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보조금을 통해 지원됨.
- 학생 결석의 원인과 현황에 대한 더 많은 정보도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안전과 학습 환경 강화에 관한 조사를 통해 전국적인 결석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제안을 제출하도록 지시함. 이 데이터베이스는 학생 결석에 대한 체계적인 추적과 평가를 가능하게 할 것임. 해당 작업의 일환으로 조사는 학교 규칙의 적절한 수준에서 유효한 결석과 무효 결석에 대한 정의를 제안할 것임. 조사에서는 신경발달장애, 명예 관련 폭력 및 억압, 아동 납치 등 특정 측면들은 특별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임.

2024년 11월 21일

출처 :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4/11/rapport-visar-pa-fortsatt-hog-skolfranvaro-i-grundskolan---har-ar-regeringens-atgarder/>

16. 2025년 스웨덴 아동과 학생들을 위한 새 책에 4억 8천만 크로나 지원

■ 아이들과 학생들이 책에 대한 접근성이 원활하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2024년에 문학 및 실용서적 구매를 위한 국가 보조금을 도입했음. 처음에는 유치원, 예비초등학교,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했으나, 2025년부터는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확대 적용됨. 이에 따라 보조금도 2024년의 SEK 1억 7천6백만 크로나에서 2025년에는 SEK 4억 8천만 크로나로 증가됨. 이는 국내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위한 약 240만 권의 새 도서에 해당됨.

■ 정부 보조금은 독서 시간을 늘리고 화면 시청 시간을 줄이기 위한 정부 노력의 일환임. 2025년 보조금이 4억 8천만 크로나로 증가한다는 것은 책 한 권의 가격을 200크로나 기준으로 계산하면 내년엔 약 240만 권의 새 책이 국내 유치원과 학교에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2024년에는 보조금에 대한 관심이 컸으며, 정부는 2024년 보조금으로 1억 7천 6백만 크로나를 책정했는데, 이 중 약 1억 6천 8백만 크로나가 승인되어 약 84만 권의 책을 구매하는 데 사용되었음.

■ 교육부 장관 로타 에드홀름은 다음과 같이 말함. “이는 전국 유치원들과 학교들에게 큰 지원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유치원 도서관을 새로 만들거나, 여러 문학 작품의 학급 세트를 구매하거나, 학교 도서관 선반을 새로운 책들로 채워 학생들의 독서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문화부 장관 파리스 라예스트란드는 다음과 같이 말함. “우리는 스웨덴이 독서를 즐기는 나라가 되길 원한다. 이를 위해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책에 대한 접근성이 쉬워야 한다. 독서는 세상을 이해하고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얻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독서가 주는 기쁨과 연대감을 경험하는 데도 중요하다.”

2024년 12월 21일

출처 :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4/12/480-miljoner-for-nya-bocker-till-sveriges-barn-och-elever-2025/>

❖ 아동·청소년지원

1. 공공기관 내 아동권리 인식 증진을 위한 노력

- 정부는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2024년 지침서에 명시된 새로운 사업을 통해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공공기관 내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데 앞장서고자 함. 이 계획은 특히 아동의 참여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이며, 당국과 공공기관의 활동은 아동에게 접근 가능하고 적합해야 할 것임.
- 2017년부터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에서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으며, 사업 평가를 맡은 국무부는 인식 향상 사업이 성공적인 투자라고 평가했음. 여러 노력을 통해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재무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에게 여전히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힘.
- 아동 옴부즈맨은 여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특히 취약한 상황에 놓인 아동이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방안, 업무 방식,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보급할 예정임. 더불어, 아동이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 어느 곳에 문의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소개된 웹사이트를 개발해야 함. 해당 웹사이트에는 담당부서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아동과 보호자가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야 함.
-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에서 아동 및 성인에게 아동권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문의에 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할 예정임. 또한,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 자체사업이나 국가사업은 아동에게 적합해야 하며, 아동에게 홍보하고 접근이 용이하도록 해야 함.
 - 차별금지 옴부즈만, 보건 및 사회복지 감독관, 국립 기관 관리국 역시 해당 기관의 사업이 아동에게 적합하며, 사업 홍보와 접근성을 높이는데 노력해야 함.
- 아동권리에 기반한 접근법과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관료들이나 전문가들이 아동 권리에 대한 지식과 아동권리 협약 조항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함. 따라서 정부는 주 행정청이 사회복지, 학교, 정신의학을 포함한 의료서비스, 가족법, 양육 지원 등 아동과 관련된 사업에 아동권리를 접목하는 방법을 공유하도록 함. 이것에는 기관 간 경험 공유도 포함됨. 해당 업무의 핵심은 의사결정과정의 접근방식에 있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아동이 직접 의견을 개진하고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는 원칙임.

- 공무원에게 지식을 제공하고 관련 역량을 강화를 위해 정부는 Uppsala 대학에 아동권리 교육 프로그램을 위탁했음. 대학의 주요 기능 중 하나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에 대한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것임.
- 범죄피해자 부처는 아동권리 및 아동폭력 경험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사법제도 내 법률보조원 및 변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정보 자료를 개발하고 배포하는 역할을 담당함.

2024년 01월 10일

출처 : <https://www.regeringen.se/artiklar/2024/01/regeringen-vill-oka-kunskapen-om-barnets-rattigheter-hos-offentliga-aktorer/>

2. 주거복지센터 내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 및 보안 강화

- 정부는 주거복지센터의 돌봄서비스 개선을 위해 특별 조사관을 파견할 계획임. 조사관은 개인 기반 돌봄서비스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와 주거복지센터 내 직원들의 권한 확대 가능성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할 것임. 이것은 보호망의 중요한 부분인 주거복지센터 내 어린이와 청소년의 보안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다음과 같이 말함. “하루에 세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범죄 조직에 모집된다. 상황이 긴급하므로 정책을 변경하고 있다. 주거복지센터의 돌봄서비스는 더 개별화될 것이다. 아동과 청소년마다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예방 활동은 정치적 요구가 아니라,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들이다. 우리는 점진적으로 스웨덴을 더욱 안전하게 하려고 한다.”
- 사회복지부 장관 카밀라 월터슨은 다음과 같이 말함.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은 안전한 양육과 밝은 미래를 누릴 권리가 있다. 또한 지역사회 보호를 받는 어린이와 청소년은 안전하고 확실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전체 돌봄망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 일시적 또는 지속적으로 가정 환경에 머물 수 없는 아동은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신의 집이 아닌 다른 집에 배치되는 경우 가장 일반적인 배치 형태는 가정집임. 또 다른 배치 형태는 주거복지센터, 지원 주택 또는 국립 기관 위원회의 특별 청소년 보호주택이 있음. 주거복지센터에 머물고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은 사회복지법 또는 특별청소년보호법률의 지원을 받아 그곳에 배치되었음.

- 오늘날 주거복지센터의 돌봄서비스 내에 큰 과제가 있음. 예를 들어, 주거복지센터 내 무기와 마약들이 존재하며, 센터에 배치된 어린이와 청소년이 범죄 네트워크에 의해 착취되고 모집되어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발생함. 센터 내 직원들이 안전과 보안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과 각기 다른 돌봄 요구 사항을 가진 어린이와 청소년이 함께 배치된다는 사실로 인해 돌봄 실행이 어려워지고 있음. 이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잘못된 배치로 인해 위험에 계속하여 노출될 수 있음을 의미함.
- 주거복지센터의 돌봄서비스는 보호망의 중요한 부분으로, 배치된 어린이와 청소년, 직원 모두의 안전과 보안을 위한 것임. 직원에게 유해한 행동을 방지하고 긍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과 보호가 제공되어야 함.
- 이를 고려하여 정부는 주거복지센터 내 돌봄 차별화를 강화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개별적인 돌봄 요구와 권리를 더 잘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기 위해 특별 조사관을 파견할 것임. 또한 조사관은 주거복지센터에 특수 권한을 도입 필요성과 조건도 조사할 것임. 즉, 주거복지센터 내 외부인 체류 제한, 전자 통신 제한, 소변 샘플 관리, 객실 검사 및 승인되지 않은 물건 처리에 관한 특수 권한을 말함. 해당 조사 결과는 2025년 5월 9일까지 보고되어야 함.

2024년 02월 07일

출처 :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4/02/regeringen-vill-starka-tryggheten-och-sakerheten-for-barn-och-unga-i-hem-for-var-d-eller-boende/>

3. 폭력이나 기타 위험에 노출된 아동에 대한 보호 강화

- 정부는 폭력과 기타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보호시설에 배치된 아동의 안전과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제안을 법률심의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함. 법률 변경 사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것으로 제안됨.
- 여러 연구에 따르면 스웨덴의 200,000명 이상의 어린이가 다양한 형태의 폭력이나 기타 학대가 있는 가정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평등국의 조사에 따르면 양육권, 주택, 접근권 사건 등에서 폭력이 흔히 발생함.
- 법무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말함. “폭력이나 기타 학대로부터 아동의 권리는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며, 부모의 접촉 의사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이는 양육권, 주거, 사회화 문제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개혁이다.” 사회복지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말함. “아이들의 안전한 양육과 밝은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이며, 우리는 부모와의 접촉 시 아동의 권리를 강화하고 확보하기 위한 일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새로운 사회복지법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평가할 때 아동의 의견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아이들이 자신이 두려워하는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으며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법안도 이에 부합한다.”

■ 아동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입법회의 회부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제안됨.

- 아동과 접촉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보다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가 우선하도록 부모법이 개정됨.
- 특정 사건의 경우, 법원은 아동이 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지 평가할 때 심리학자로부터 전문가 의견을 구할 의무가 생김.
- 부모법은 보호시설에 배치된 아동의 양육권이 가정의 부모에게 가야 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을 명시해야 함.
- 아동의 보호자는 보호자가 아동의 부모가 아닌 경우에도 공공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

2024년 07월 04일

출처 :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4/07/starkt-skydd-for-barn-som-utsatts-for-vald-eller-andra-krankningar/>

4. 정부의 아동 보호 강화 법안

■ 정부는 폭력 및 기타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가정에 배치된 아동의 안전과 안정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것임.

■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 이 법안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음.

- 아동이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아동과 접촉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보다 우선시하도록 부모법이 개정됨.
- 특정 어려운 사건의 경우, 법원은 아동이 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지에 대해 평가할 때 심리학자로부터 전문가 의견을 구할 의무가 있어야 함.
- 부모법은 양육가정에 배치된 아동의 양육권이 양육가정 부모에게 이전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을 분명하게 명시해야 함.
- 아동과 그 보호자는 보호자가 아동의 부모가 아닌 경우에도 양육권을 가지고 있으면 공공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짐.

■ 법무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말함. “모든 어린이에게 폭력과 학대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줄 사회를 보장해줘야 한다. 아이에게 해를 끼치는 위험이 있을 시에는 부모와의 만남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양육권, 양육장소, 면접교섭권에 관해서는 아동이 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아동과의 만남은 부모의 결정이 아닌 아동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제안이 아동의 양육권, 주거 및 활동과 관련하여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데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사회복지부 장관 카밀라는 다음과 같이 말함. “정부는 아이들에게 안전한 양육과 밝은 미래를 제공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중요한 법안을 제출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어떤 아이도 자신이 두려워하는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

2024년 09월 17일

출처 :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4/09/regeringen-lagger-fram-forslag-pa-starkt-skydd-for-barn/>

호주

임신·양육지원		
1	임신부터 입학까지 원스톱 쇼핑이 가능한 온라인 허브	178
2	임산부와 아이 지원 및 돌봄을 위한 뉴사우스웨일즈주의 새로운 계획	179
3	남호주 정부, 유아기 발달을 다루는 새로운 캠페인 시작	180
4	가족수당(Family Payments) 변경: 유급 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휴직 퇴직연금 증가	182
유아교육·보육		
1	뉴사우스웨일즈 주 Start Strong 프로그램 한눈에 보기	184
2	서호주 근교지역에 유아교육·보육교사 유치를 위한 보조금 지원	186
3	2024년 2월부터 개정된 영유아 학습 프레임워크 적용	187
4	퀸즐랜드, 유아교육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실시	189
5	빅토리아주, 유아기 STEM 프로그램 소개	193
6	호주 연방정부의 유아 보육 및 교육 위한 2024~25년 예산배정: 보편적인 유아교육 및 보육 구축을 위한 다음 단계	194
7	초등학교 전이를 위한 프로그램	196
8	아동 교육·보육 분야에서의 아동의 사진 촬영 및 공유 시 국가 모델 규정 권장	197
9	아동 교육 및 보육인력 임금 인상	198
10	빅토리아주, 2025년부터 유치원 데이터 보고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 도입	199
11	보편적인 유아교육과 보육을 향한 길	200
12	빅토리아 공립학교에 진학하는 아동을 위한 '스쿨 세이빙 보너스(School Saving Bonus)' 프로그램 실시	202
13	더 좋고 공정한 학교를 위한 협의회 2025-2034	203
14	유아교육·보육 시설 추가 설립을 위한 2천만 달러 투자 착수	205
15	호주 연방정부 아동보육 보조금 데이터 보고서-2024년 9월 분기	206
아동·청소년 지원		
1	타즈메니아 주, 유아기 포용 서비스 시작	213
2	빅토리아주, 장애 포용 프로그램을 통한 장애 학생에 대한 지원 확대	214
기타		
1	호주 2024~2034 유아기 전략 발표	217
2	빅토리아 주, 국제 놀이의 날을 기념하다	219
3	NSW 주정부 "잠금 전 확인(Look Before You Lock) 프로그램"으로 차량 탑승 중인 아동의 안전 증진 모색	220

❖ 임신·양육지원

1. 임신부터 입학까지 원스톱 쇼핑이 가능한 온라인 허브

- NSW(뉴사우스웨일즈) 정부는 2월 26일 부모, 양육자 및 가족이 임신부터 초등학교 입학까지 아동을 위한 정부 서비스, 유치원 리베이트 및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웹사이트인 “더 나은 시작을 위한 부모 및 양육자 정보 허브(the Brighter Beginnings Parent and Carer Information Hub)”를 출시함.
- 부모 및 양육자 정보 허브는 부모와 양육자에게 자녀의 생애 첫 5년 동안 생활비 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아동의 인생에서 최고의 출발을 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음.
- 이전에는 정보를 찾는 부모들이 서로 다른 NSW 및 호주 정부 웹사이트를 탐색해야 했지만, 부모 및 양육자 정보 허브는 이러한 정보들을 하나로 모아 부모가 아동의 연령에 맞는 서비스와 지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줌. 웹사이트에는 다양한 임신 단계와 아동의 삶을 위한 신체 건강, 정신 건강 및 복지, 영양, 놀이 및 발달, 관계, 재정적 조언 및 지출 관련 또는 환부에 대한 조언 및 지원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음.
- NSW 정부는 아동의 생애 첫 5년이 향후 아동 인생의 결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허브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음. 아동의 초기 5년의 기간 동안 아동의 두뇌는 빠르게 발달하며, 긍정적인 관계와 경험을 통해 밝은 미래를 위한 토대가 마련됨.
- 호주 조기 발달 인구 조사(Australian Early Development Census) 데이터에 따르면 NSW의 어린이 5명 중 2명은 학교를 시작하기 전에 발달적으로 위험하거나 취약한 상태에 있다고 보고함.
- 부모와 양육자를 위한 허브가 정부가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제공하는 새로운 지원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봄.
- 이 허브의 구축은 NSW 주 전역에 100개의 공립 유치원을 제공하기 위한 7억 6,900만 달러라는 엄청난 투자를 포함하는 NSW 정부의 초기 노력의 일부이며, 약 절반의 신규 유치원은 시골 지역에 위치해 있다고 발표함.
- NSW 정부는 또한 교육이 가장 필요한 지역의 비정부 학교 부지에 50개의 유치원을 짓거나 업그레이드하는 데 6천만 달러를 약속했으며, 장학금 프로그램을 통해 NSW의 아동보육 및 교육 종사자 수를 늘리는 데 최대 2,940만 달러를 투자함. 이 장학금 프로그램에는 엄청난 수의 지원자가 몰렸음. 이 외에도 NSW 정부는 도움이 필요한 지역의 아동보육 서비스를 위한 자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1,700만 달러를 제공함.

- 프루 카(Prue Car) 부총리 겸 교육 및 조기 교육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말함. “이 웹사이트는 초보 부모를 위한 훌륭한 자료이다. 아동의 인생에서 처음 5년은 그들의 미래에 매우 중요하다. 알아야 하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부모와 보호자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었던 지금까지의 상황을, 혼란을 줄이고 아동의 인생 형성에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웹사이트의 목적이다.”
- NSW 보건 및 지역 보건 장관 라이언 파크(Ryan Park)는 아래와 같이 전함. “지금의 NSW 정부는 처음부터 아동과 그 가족의 건강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는 인생의 매우 중요한 초기 단계에 모든 가족이 의료 시스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다. 아동의 성장과 번영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간단한 일들이 있으며, 이 새로운 허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훨씬 쉽게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소중한 아기가 가족에게 찾아오는 것은 멋진 일이지만 정말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을 수도 있다. 이 허브는 가족이 필요한 지원을 받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고객 서비스 및 디지털 정부 장관 지하드 디(Jihad Dib)은 “아동은 우리 주의 미래 지도자이며 NSW 정부는 모든 가족에게 중요한 서비스와 정보에 대한 지원과 접근권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디지털 솔루션은 부모와 양육자가 올바른 길을 유지하고 아동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능한 최고의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허브는 부모와 양육자로부터 아동 교육자, 건강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전체 지역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설계되었으며, 가족이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말함.

2024년 02월 26일

출처 : <https://education.nsw.gov.au/news/latest-news/online-hub-a-one-stop-shop-from-pregnancy-to-start-of-school>

2. 임신부와 아이 지원 및 돌봄을 위한 뉴사우스웨일즈주의 새로운 계획

- 라이언 파크(Ryan Park) 보건부 장관은 3월 14일 새로운 주 정부 계획인 “Pregnancy Connect”를 발표함. 이 계획은 뉴사우스웨일즈주 전역의 임신·출산기 여성에게 적용되나, 특별히 뉴사우스웨일즈주 시골 및 벽지 지역의 여성을 위한 전문 출산 관리의 조기 접근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임. “Pregnancy Connect”는 연간 619만 달러의 지속적인 투자로 지원될 것임. 해당 계획으로 주 전역의 가족들은 산모와 아이가 임신기간 동안 더 많은 돌봄을 받는 혜택을 받게 될 예정임.
- 이번 발표는 임신부터 5세까지 아동의 초기 생애 경험의 중요성을 알아보기 위해 뉴사우스웨일즈주 보건부(NSW Health)가 주최하는 “2024년 생애 첫 2000일 심포지엄(The First 2000 Days 2024 Symposium)”의 내용과 동일함. 심포지엄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수요자의 목소리가 서비스 기획 및 제공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임. 여기에는 실제 경험이 있는 여성, 원주민 가족과 시골 및 벽지에 거주중인 가족들이 포함됨.

■ 임신 중 자신의 건강과 복지에 큰 위험이 있다고 인식한 여성은 산전 관리를 임신 초기부터 정기적으로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음. 이러한 지원에는 더 높은 수준의 돌봄이 필요한 임산부를 위한 가상 진료 서비스와 안전한 이송서비스가 포함될 것임. 또한 이 계획을 통해 위험한 상황에 처한 임산부와 그들의 가족들이 자주 겪는 탈구감(a sense of dislocation)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현재 프로그램을 주도할 정규직 조산사 12명과 산부인과 전문의 8명을 모집 중에 있음. 전문인력 확보를 통해 신규 산부인과 팀이 기존 시골 및 벽지 지역에서 근무 중인 산부인과 의사를 지원함으로써 직원의 고립감을 줄여줄 수 있을 것임.

■ 라이언 파크 (Ryan Park) 보건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말함. “뉴사우스웨일즈주 정부는 평생 지속될 수 있는 건강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동의 생애 첫 2000일이 아동의 신체·인지·사회·정서적 건강에 중요한 시기이며, 그것이 평생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Pregnancy Connect”를 통해 산모가 집에서 가까운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이 계획은 조산사 및 산부인과 인력에 대한 투자이며 이를 통해 모든 지역의 보건 직원 수도 증가될 것입니다. 아동과 그 가족을 잘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고 노력함으로써 우리는 큰 변화를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더 건강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2024년 03월 18일

출처 : https://www.health.nsw.gov.au/news/Pages/20240318_00.aspx

3. 남호주 정부, 유아기 발달을 다루는 새로운 캠페인 시작

■ ‘Words Grow Minds’는 초기 아동 발달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생애 첫 3년 동안 아동의 긍정적인 참여를 높이기 위해 부모, 양육자 및 지역 사회와 소통하는 남호주의 유아기 캠페인임.

■ ‘Words Grow Minds’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어린 자녀를 위해 최고를 원하지만 때때로 그들의 자녀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음. 이 캠페인은 부모와 양육자가 아기와 아동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음. 이 핵심은 태어날 때부터 함께 이야기하고, 놀고, 읽고, 노래하는 것처럼 간단한 것임.

■ 이 캠페인은 아동의 초기 뇌 발달과 조기 참여가 아동의 첫 3년과 평생에 걸쳐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최신 신경과학적 증거를 기반으로 함. 또한 이것은 남호주 유아 서비스 기관, 보건 전문가, 영유아 전문 교수 및 주 정부 부서의 광범위한 협의와 의견을 바탕으로 개발되었음.

■ 이 캠페인은 지역사회 내에서도 다양한 영유아 서비스 및 플랫폼을 통하여 전달되고 있으며, 해당 플랫폼에는 ‘아기와 대화하고, 놀아주고, 책을 읽고, 노래를 불러주세요’를 실천할 수 있는 부모 및 아동 지원 자료가 게시되어있음.

■ 남호주 학부모들은 캠페인의 일부로 자원 패키지에 접근할 수 있음. 남호주 전역에 위치한 Safer Family Services* 사무소에서 가족당 한 개의 패키지가 제공되며, 지역사회 개발 코디네이터 (Community Development Coordinators) 및 집중 가족 서비스(and Intensive Family Services) 실무자를 통해 제공됨. 자원 패키지는 아래와 같음.

- 대화 카드
- 그림책
- 활동
- 매트
- 정보 책자

* Safer Family Services는 가정폭력으로부터의 피해, 방치 등의 위험에 처한 아동과 가족에게 도움과 지원을 제공하며, 세대 간 트라우마 패턴을 깨기 위해 의도적이고 강력하게 개입함으로써 가정에서 안전하게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의 수를 늘리고 문화 및 지역 사회와의 연결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남호주 주정부의 지원서비스임.

■ 집에서 아동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책과 놀이 활동을 부모와 양육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동의 참여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부모가 책과 놀이 활동을 접할 때, 아동의 상호작용 수준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며, 이를 통해 아동과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즐겁고 보람있는 일인지 다시 한 번 깨닫게 됨.

■ 남호주 전역의 ‘Words Grow Minds’ 시행이 아동 교육 및 보육에 대한 왕립 위원회의 권장사항 중 하나로 받아들여짐. 그 중 5개는 아동의 생애 첫 3년 동안 더 많은 가족에게 다가가고 지원하려는 계획임.

2024년 03월 12일

출처 : <https://dhs.sa.gov.au/news/2024/new-campaign-tackles-early-childhood-development>

4. 가족수당(Family Payments) 변경: 유급 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휴직 퇴직연금 증가

■ 2025년 7월 1일부터 가족이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 금액이 다시 증가함. 증가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파트너 또는 남편이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 일수 증가
- 파트너 또는 남편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 일수 증가

■ 2023년 7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생했거나 입양한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호주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됨.

■ 육아휴직 급여 비율은 일반적으로 매년 7월 1일(새로운 회계년도 시작)에 변경됨. 따라서 급여 비율이 신청시기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 만약 7월 1일 이후에 신청할 경우, 새로운 회계년도에 의해 책정된 급여 비율을 받게 됨. 이 비율은 자녀가 태어나거나 입양된 시기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신청일을 기준으로 적용됨.

■ 현재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은 세전 하루 \$183.16, 주 5일당 \$915.80임. 이는 국가 최저 임금의 주간 요율을 기준으로 한 것임.

■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유급휴가나 무급휴가 전이나, 휴가 기간 동안, 또는 휴가 기간 이후에 급여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음. 가능한 회사 휴가는 다음과 같음:

- 출산 또는 육아휴직(maternity or parental leave)
- 연차 휴가(annual leave)
- 장기 근속 휴가(long service leave)

■ 사용 가능한 육아휴직 급여 일수: 자녀의 생년월일 또는 입양일에 따라 엄마가 받을 수 있는 일수가 결정됨. 파트너(남편)가 있는 경우, 파트너(남편) 역시 자녀의 출생 또는 입양 날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 일수가 결정됨.

자녀의 출생 또는 입양날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날짜
2023년 7월 1일 이후	100일 또는, 주 5일 근무 기준 20주
2024년 7월 1일 이후	110일 또는, 주 5일 근무 기준 22주
2025년 7월 1일 이후	120일 또는, 주 5일 근무 기준 24주
2026년 7월 1일 이후	130일 또는, 주 5일 근무 기준 26주

- 한부모의 경우, 위에 제시된 날짜의 육아휴직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음. 하지만 만약 원할 경우, 또 다른 한쪽 부모(전 파트너 혹은 전남편)와 육아휴직 급여를 공유하도록 승인 할 수도 있음.
- 현재 파트너(남편)가 있는 경우에는, 책정된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를 파트너(남편)와 결정하여 공유할 수 있음. 파트너(남편)가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 일수는 다음과 같음.

자녀의 출생 또는 입양날짜	파트너(남편)가 받을 수 있는 일수
2023년 7월 1일 이후	10일
2024년 7월 1일 이후	10일
2025년 7월 1일 이후	15일
2026년 7월 1일 이후	20일

- 육아휴직 급여 일수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경우 아동의 엄마와 파트너(남편)가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 최대 10일까지 가능함. 여기에 몇 가지 예외가 적용됨.
- 쌍둥이나 세 쌍둥이 등 다태아를 낳은 경우에는 자녀 한 명에 대해서만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음. 지불 시작 시기는 청구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육아 휴직 급여는 과세 대상임. 급여는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고, 받고 싶은 일수를 책정하여 받을 수도 있음.
- 육아휴직 퇴직연금: 2025년 7월 1일 이후에 태어나거나 입양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경우, 호주 국세청(ATO)은 이 급여에 대해 12%의 퇴직연금 기여금을 지급할 예정임. 이 금액은 신청자의 퇴직연금 기금으로 직접 지급됨. 2025년 7월 이후 신청된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퇴직연금 기여금은 기존 회계연도가 끝난 후, 새로운 회계연도인 2026년 7월부터 지급될 예정임.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면 자격자에 한하여 퇴직연금 기여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며, 자신의 급여 지급액 만큼의 기여금이 현재 이용하는 연금기금으로 지급됨.

2024년 10월 02일

출처 : <https://www.servicessaustralia.gov.au/changes-if-you-get-family-payments?context=64479>
<https://www.servicessaustralia.gov.au/how-much-parental-leave-pay-you-can-get-for-child-born-or-adopted-from-1-july-2023?context=64479>

❖ 유아교육·보육

1. 뉴사우스웨일즈 주 Start Strong 프로그램 한눈에 보기

■ 아동이 학교를 시작하기 전에 구조화된 놀이 기반 학습에 참여하면 평생 학습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기술이 발달됨. 특히, 유아교육을 통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아동, 즉 또래 아동보다 더 취약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에게 중요함.

■ 유아 생애 초기의 지속적인 지원이 생애 후반에 더 나은 경제적, 사회적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 이미 알려져 있음. 강력하고 안정적인 유아교육은 모든 유아의 생애와 학습에 있어서 가장 좋은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임.

■ 유치원과 종일보육의 Start Strong 프로그램은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모든 유아를 위한 교육을 지원함. 해당 프로그램에는 아동 개혁 합의 및 보육비 감면이 포함되어 있음.

■ Start Strong 프로그램 목표

- 유치원 교육의 가격 접근성 향상
- 유치원 교육의 질 제고
- 유아를 위한 향상된 성과 도출
- 취학 전 양질의 유아교육 프로그램의 등록 및 출석 장려

■ Start Strong 프로그램은 다음 원칙에 따라 운영됨.

- 원주민 유아 및 사회적 불이익을 겪고 있는 유아를 포함한 모든 뉴사우스웨일즈 주 유아는 취학 전 몇 년 동안 연간 최소 600시간의 질 높은 유아교육 및 보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는 유아에게 권장되는 최소 참여 기준임.
- 제공되는 서비스는 연간 최소 600시간이라는 권장 수준을 충족하기 위해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는 유아의 등록 및 출석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임.
- 모든 서비스는 지역사회 내 모든 유아의 유아교육 요구를 반영한 학습 환경과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임.

- 부모와 보호자는 유아교육 및 보육 프로그램의 질이 자녀의 발달 요구를 충족시킨다는 확신을 가짐.
-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모든 가족이 양질의 유아교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격 접근성이 있어야함.
- 유아가 초등학교로 전이가 잘 되도록 지원함.

■ 원주민 아동 지원

- 교육부의 1차 단계 전략은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원주민 아동을 위한 양질의 유아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임. 이 전략의 목표는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모든 원주민 유아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평생 학습을 위한 강력한 시작을 위해 그들의 문화와 정체성을 포용하도록 지원받는 것임. 전략의 일환으로 교육부는 원주민 유아와 그 가족을 위한 문화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문화 안전 프레임워크(Cultural Safety Framework)에 대한 작업도 추진하고 있음.
- 1차 단계 전략의 목표
 -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원주민 유아의 교육 참여를 지원함. 여기에는 원주민 유아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받을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서비스를 통해 최소 600 시간의 아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완전한 지원을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음.
 -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재정지원 모델이 원주민 유아의 질 높은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데 가장 적합하도록 보장함.
 - 원주민 아동을 위한 유아교육 및 초등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원주민 문화에 적합한 프로그램 전환 서비스가 지원됨.
 - 유아교육 서비스가 지역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맺도록 보장됨.

■ 다문화 아동 지원

- 다문화 유아는 또래에 비해 유아교육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으며, 발달 취약성을 겪고 학교를 시작할 가능성이 더 높음.
- 교육부는 다문화 가족과 유아가 겪는 교육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고 있음. 이는 향후 유아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유아교육에 대한 참여를 늘리기 위한 Start Strong 프로그램의 기반을 제공할 것임.

■ 프로그램 성과

- Start Strong 프로그램은 성과 중심 접근방식을 통합하여 이전의 결과물 평가에 중점을 두면서 동시에 아동 성과 평가도 이루어짐.
- 뉴사우스웨일즈 주 교육부에서는 프로그램 목표 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개발했음. 이 부분은 앞으로 더 자세히 설명될 질, 등록률, 경제성, 참여 및 결과 프레임워크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 당위성 부분에서 더 자세히 설명될 예정임.

2024년 01월 15일

출처 : <https://education.nsw.gov.au/early-childhood-education/operating-an-early-childhood-education-service/grants-and-funded-programs/start-strong-funding/start-strong-overview>

2. 서호주 근교지역에 유아교육·보육교사 유치를 위한 보조금 지원

■ 서호주 근교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은(LGA, Local Government Authorities) 유아교육·보육 교사와 아동의 보호자를 서호주 근교지역으로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

■ 근교지역 유아교육·보육 종사자 프로그램을 위한 유치 및 유지 패키지는 아동 교육 및 보육 인력을 지원하는 계획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에 연간 최대 25,000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함.

■ 주 정부는 근교지역의 유아교육 및 보육 인력 유치 및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부터 4년에 걸쳐 1,000,000달러를 투입함. 현재 두 차례에 걸쳐 지원금이 전달되었으며 총 530,869달러가 유아교육 및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서호주 근교지역의 각 지방자치단체들에 전달되었음. 2차 지원금에는 교사를 위한 숙박 및 이주 보조금 지원, 기존교사를 위한 연수, 신규 교사를 위한 교육 비용 부담 등이 포함됨.

■ 3차 보조금 지원을 위해 현재 운영되는 보조금 프로그램들을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의견을 제공하도록 하였음. 해당 의견수렴을 통하여 가정교육 지원에 중점을 두는 등 보조금 프로그램이 일부 변경되었음.

- 3차 보조금 지원신청은 2024년 1월 22일~3월 1일까지임. 더불어, 지원자들을 위한 온라인 세미나가 1월 29일에 개최될 예정임.

■ 서호주 아동교육부 장관 사빈 원톤은 “서호주 근교지역은 유아교육 및 보육 인력을 구축하는 데 있어 지역 특유의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정부의 교사 유치 및 유지 프로그램은 지역문제에 대한 지역적 해결책을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교사 유치 및 유지 패키지는 근교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각 지역의 유아교육 및 보육 서비스와 협력하여 인력을 늘리고 더 많은 가족이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기회이다”라고 말함.

2024년 01월 22일

출처 : <https://www.wa.gov.au/government/media-statements/Cook-Labor-Government/Grants-to-attract-childcare-educators-to-regional-WA-20240122>

3. 2024년 2월부터 개정된 영유아 학습 프레임워크 적용

■ 국가 품질 체계(National Quality Framework)에는 아동의 학습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두 가지 승인된 학습 프레임워크가 포함되며 2024년 2월부터는 개정된 학습 프레임워크가 적용됨. 자세한 개정 내용은 국가품질체계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음.

https://www.acecqa.gov.au/sites/default/files/2023-01/Belonging_Being_And_Becoming_V2.0.pdf

■ 학습 프레임워크는 영유아 교사와 교육자에게 양질의 학습 및 발달을 설계, 전달, 평가하도록 지원함. 전국적으로 승인된 두 가지 학습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음.

- 0-5세의 소속감, 존재감 그리고 자아형성
(Belonging, Being and Becoming, for children aged 0 to 5)
- 학령기 아동을 위한 나의 시간과 우리의 장소
(My Time, Our Place, for school-aged children.)

■ 소속감, 존재감 그리고 자아형성(Belonging, Being & Becoming: The Early Years Learning Framework)의 영유아기 학습 프레임워크는 영유아의 출생부터 학교 입학을 포함한 5세까지의 아동의 학습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지침서임. 본 프레임워크는 호주 정부가 주 및 지역 정부, 유아교육 및 보육 부문, 대학의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개발함.

■ 영유아기 학습 프레임워크 주요 개정 내용

〈비전〉

- 비전, 원칙, 실천, 결과를 포함하여 프레임워크 전반에 걸쳐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섬주민의 관점 강화

〈교육방법론과 교사 전문성 실천〉

- 비전과 계획 주기 간의 연계 강화

〈원칙〉

- 지속적인 학습과 반성적 실천 원칙 강화
- 협력적 리더십과 팀워크를 촉진하는 새로운 원칙 도입
- 새로운 지속 가능한 원칙 도입
-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섬주민 관점에서의 새로운 원칙 도입
- 높은 기대와 공정성 원칙 강화
- 관계적 교수법을 포함하여 안전하고 존중받고 상호적인 관계 원칙 반영
- 다른 전문가와의 파트너십 강화

〈실천〉

- 전체론적 접근의 의미 명료화
- 놀이 중심 학습과 의도성 간의 연결 강화
- 문화적 능력 대신 문화적 대응력 사용
- 학습, 발전 및 웰빙을 위한 평가

〈학습 성과〉

- 원칙, 실천 및 학습 결과를 지원하기 위한 지침 확대 및 강화

■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서비스 제공자들은 이 프레임워크의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 자체적 전략을 개발하도록 권장되며, 국가품질체계 웹사이트에서 유아기 학습 프레임워크를 구현하도록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음.

<https://www.acecqa.gov.au/nqf/national-quality-standard/quality-area-1-educational-program-and-practice>

2024년 02월 01일

출처 : <https://www.education.gov.au/early-childhood/national-quality-framework/approved-learning-frameworks>

4. 퀴즐랜드, 유아교육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실시

■ 자격을 갖춘 유아교육 종사자들은 퀴즐랜드 아동이 양질의 교육을 받아 튼튼하게 시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매우 중요함. 이에 퀴즐랜드 교육부는 유아교육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직업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한 주요 계획을 발표함.

■ 장학금 및 보조금

- 퀴즐랜드 유아교육 전문가들이 자격을 향상시키고 더 나은 진로의 혜택을 누리며 더 높은 업무 만족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새로운 맞춤형 장학금 및 보조금을 제공함.
- 진로 자격증 프로그램
 - 새로운 '진로 자격 프로그램(Qualifications Pathways Program, QPP)'은 더 고급 유아교육 자격증을 공부하고 희망하는 교사에게 포괄적인 멘토링 서비스와 장학금을 지원함.
 - 이 프로그램은 유아교육자가 유아교육 및 보육 수료증 III(Certificate III), 유아교육 및 보육 졸업장(Diploma), 교육 학사-유아교육 및 보육(Bachelor) 또는 Graduate Diploma 수준(유아교육 교사로 인정되는 자격증)의 자격을 수료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는 동시에 만성적인 인력난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퀴즐랜드 정부는 이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다음의 9개의 기관과 협력할 예정임.
 - Goodstart Early Learning
 - The Creche and Kindergarten Association Limited
 - The Gowrie (Qld)
 - G8 Education
 - Affinity Education Group
 - Australian Childcare Alliance Queensland (ACA Qld)

- Early Learning and Care Council of Australia
- Lutheran Education Queensland (QLECS)
- Queensland Child Care Services
- 실습제도, PPS
 - 실습제도(Practicum Placement Scheme, PPS) 시범사업은 실습에 참여하는 동안 예비 교사에게 임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함. 교육부에서 말하는 '예외적인 상황'을 인정받고 아직 유아교육 학위(Early Childhood degree)를 수료하지 못한 교사가 '실습제도, PPS'에 따라 2024년에 유급으로 실습을 할 수 있게 됨.
- 유아기 수업준비일(Planning day) 보조금
 - 정부 승인을 받은 유치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사를 지원하기 위해 교사들은 2024년에 2회에 걸쳐 수업준비일(Planning day)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 종일 보육 교육 전문가들은 수업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며, 이러한 수업준비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기술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이므로 때때로 정규 근무시간 이어나 교육업무 이외의 시간에 진행됨.
 - 보조금은 2회에 걸쳐 각각 서로 다른 시기에 제공될 것임.

■ 시골 및 벽지 지역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유아교육 지원

- 호주 시골 및 벽지 지역 유아기 교사 교육 프로그램(The Early childhood Remote Area Teacher Education Program, RATEP)은 원주민 유아교육자의 전문성과 고용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RATEP(유아기)는 퀸즈랜드의 시골 및 벽지 지역에서 제공되는 지역사회 기반의 원주민 유아교육 프로그램으로써, RATEP을 통해 교사는 자신의 원주민 공동체에서 생활하고 일하는 동안 유아 교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업그레이드할 수 있음.
- 이용 가능한 자격은 다음과 같음.
 - 유아 교육 및 보육 수료증 III
 - 유아교육 및 보육 졸업장
 - 교육 학사(유아 교육 및 보육)

- 교육제공 방식은 원거리에서 공부하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자신의 거주지역에서 온라인과 대면 수업 방식을 혼합하여 이루어짐. 학생들은 고등교육 교사와 RATEP 유아교육 코디네이터로부터 지속적인 학습 지원을 받게 됨.

■ 유아교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Early Childhood Training Skill Sets)

- 유아교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Early Childhood Training Skill Sets)는 퀸즐랜드 정부의 “Higher Level Skills”라는 프로그램에 의해 제공되는 보조금으로, 교사가 해당 부문에서 취업 또는 경력을 높이는데 필요한 더 높은 수준의 기술을 습득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됨.
 - 보건 또는 지역사회 부문에서 팀을 이끌고 조정하는데 필요한 기술 및 역량 발전을 위한 지원
 - 지원 지역사회 부문에서 복합지원이 필요한 가족과 아동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와 지원

■ 인력 계획(Workforce Planning)

- 효과적인 인력 계획은 유아교육에 있어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요구 사항으로 인력난을 해결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유능하고, 자신감 있고, 자격을 갖춘 교사가 양질의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포괄적인 인력 계획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위한 지원을 시작했다.
- 인력 계획은 다음의 사항을 구분해야함.
 - 유아교육 인력의 현재 및 기존 역량은 무엇인가
 - 미래에 요구되어지는 역량은 무엇인가
 - 인력 격차는 어떠한가
 - 격차를 좁히기 위한 전략 및 대안은 무엇인가
- 인력 계획 전략 및 대안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됨.
 - 훈련
 - 전문성 개발
 - 모집
 - 유아교육의 장점
 - 보유 전략

- 4개의 자기 학습 모듈(Self-pace module)을 포함하는 ‘인력 계획’ 온라인 과정은 기존 인력 계획을 개선하는 데 사용 가능하며, 이 모듈은 인력 계획을 처음 접하는 직원은 물론 경험이 풍부한 실무자들도 이용할 수 있는 확장 가능한 콘텐츠를 제공함. 온라인 과정 외에도 ‘인력 계획 양식’과 ‘인력 계획 가이드’는 유아교육 서비스 기관이 효과적인 인력 계획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고안되었음. 인력 계획 양식의 사용은 필수가 아니며 인력 계획 개발 지침을 위한 예시로서 제공되었음.
- 현재와 미래의 인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역 정보에 기반하여 서비스별로 계획이 개발되고 실행된다면, 유아교육 및 보육 서비스가 모든 아동에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양질의 프로그램 을 제공하는 데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여겨짐.

■ 시골 및 벽지 지역민들을 위한 프로그램(Rural and Remote Residential Program)

- 시골 및 벽지 지역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유아교육 수료증 III’ 또는 ‘유아교육 자격’ 취득을 돕기 위한 학습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시골 및 벽지에 거주하는 유아기 교육자들을 지원하고 있음.
- 교육부는 2015년부터 퀸즐랜드 북부의 케언즈 지역의 자격이 있는 유아교사를 위해 분기별로 주거지역권을 나누어 일주일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고 있음.
-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교육자는 등록된 교육 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교육을 받음.
 - 유아기 교육 수료증 III / 유아기 교육 졸업장
 - 유아교육 현장 방문에 참여하여 학습 단위에 해당하는 이론 관찰 및 실습
 - 초청 연사와 교류하여 이론과 실무 간의 연결 구축
 - 다른 유아교사와의 네트워킹 및 협력 기회

2024년 04월 09일

출처 : <https://earlychildhood.qld.gov.au/careers/training-and-capability-building>

5. 빅토리아주, 유아기 STEM 프로그램 소개

■ 빅토리아주에서는 아동과 유아교사를 위한 STEM 학습 및 활동이 소개됨.

■ Small BYTE 카드: 유아교사가 기술을 사용하여 아동의 배움을 촉진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으며, 다음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Small BYTE 카드 사용은 빅토리아주의 아동 조기 학습 및 개발 프레임워크(Victorian Early Learning and Development Framework, VEYLD)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아동이 자신감을 가지고 평생 학습자가 되도록 지식과 기술 정보를 제공함.

- 온라인상에서 자료 및 전문가 접근
- 가족이 아동의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평가, 피드백 및 기록 개선
- 추가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교육격차 해소

■ 4가지 STEM 프로그램

1) 미래 혁신가: STEM 및 조기 학습 역량 구축

- 빅토리아 박물관은 빅토리아주 교육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미래 혁신가: STEM 및 조기 학습 역량 구축’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3-4세의 아동, 교육자 및 교사들에게 무료 프로그램을 제공함. 대면 교사연수 세션은 브림뱅크(Brimbank) 시의회 또는 광역 단테농(Greater Dandenong Local Government Areas) 지방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곳에서 이용 가능함.

- ① STEM Curious: 아동 조기 학습 및 개발 프레임워크를 교육자와 교사들이 자신들이 가르치는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2시간짜리 전문가용 학습 프로그램으로, STEM을 유아기 환경의 중요한 도구로 소개하여 교육인력들이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임.
- ② STEM Beyond: 아동의 가족이 ‘STEM 렌즈’를 통해 더 효과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는 1시간짜리 온라인 세미나임.

2) 자연속의 아동(Bush kinders)

- 자연 환경 탐험과 같은 야외 체험활동은 아동에게 유익하며 아동의 건강과 안녕에 긍정적 역할을 함.

3) NMC 호라이즌 프로젝트(NMC Horizon Project)

- 유아교육 분야의 학습, 교육 및 창의적 탐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규명하고 설명하기 위해 진행된 연속 연구 프로젝트로서, 매년 최신 연구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는 Horizon 보고서를 발간함.

4) 레츠 카운트(Let's Count)

- 스미스 패밀리(The Smith Family)의 레츠 카운트 프로그램은 교사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교사로 하여금 부모 및 가족이 일상생활에서 수학을 사용하여 아동의 수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함. 전문가용 온라인 프로그램은 특히 3-5세의 수학 학습에 중점을 두고 있음.

2024년 04월 02일

출처 : <https://www.vic.gov.au/stem-early-childhood>

6. 호주 연방정부의 유아 보육 및 교육 위한 2024~25년 예산배정: 보편적인 유아교육 및 보육 구축을 위한 다음 단계

■ 2023년 호주 정부는 '저렴한 보육(Cheaper Child Care)' 투자를 통해 백만 가구 이상이 본인부담금을 줄이는 결과를 얻었음. 이번 2024-25년 연방정부 예산은 호주의 미래 개혁을 위한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투자함으로써 이런 계획을 계속 구축하는데 사용될 것임. 정부의 이번 예산 책정으로 보육 보조금(CCS) 프로그램의 지불 및 정확성을 강화(Strengthening payment and accuracy)함으로써 2024-2025년 회계년도(2024년 7월 1일 시작)부터 앞으로 4년간 4억 1,070만 달러의 순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됨.

■ 정부는 유아교육 및 보육 인력의 임금 인상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기로 약속함. 더 자세한 내용은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의 진행상황을 고려한 후 최종 결정될 예정임. 정부는 이러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2024-2025년 회계년도부터 2년간 IT 및 결제 서비스에 3,000만 달러를 투자할 것임.

■ 정부는 또한 생산성 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의 조사보고서(2024년 6월 30일까지 제출할 예정)와 유아교육 및 보육 비용에 대한 호주 경쟁 및 소비자 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보고서의 권고 사항을 고려할 것임.

■ 지불 및 정확성 강화(Strengthening payment and accuracy)

- 2024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청렴성’ 조치를 위한 자금 지원에는 다음이 포함됨.
 - 1) 교육부에 다음 두 부문을 위한 8,420만 달러 지원(및 현재 진행 중인 연간 1,840만 달러는 계속 지원)
 - 교육, 감사, 규정 준수 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
 - 2025년 7월 1일부터 가정보육(Family Day Care 및 In Home Care) 제공업체가 보육 지원금 차액을 직접 징수하도록 의무화함.
 - 2) 보육 보조금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해 Services Australia에 830만 달러 지원(및 현재 진행 중인 연간 120만 달러는 계속 지원)
 - 3) ECEC (아동교육 및 보육) 제공업체가 호주 조세 시스템에 만족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호주 국세청에 480만 달러 지원
 - 4) ECEC 부문과 관련하여 높은 부를 가진 사람들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호주 거래 보고 분석 센터(Australian Transaction Reports and Analysis Centre)에 130만 달러 지원(및 현재 진행 중인 연간 30만 달러는 계속 지원)

■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지원

- ‘포용 지원 프로그램(Inclusion Support Program, ISP)’을 통해 추가로 9,840만 달러가 제공될 것임. 이 자금은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아동지원서비스의 잠재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임.
- 모든 ECEC 서비스는 포괄적이어야 하지만 일부 서비스에 관하여는 추가 지원이 필요함. ‘포용 지원 프로그램’은 서비스가 모든 부분에서 포괄적일 수 있게 구현하도록 도우며, 일례로 교육자의 수를 확대하여 접근 장벽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음.
- 헤딩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는 지난 4년 동안 크게 증가하여 2022~2023년에는 19,000명 이상의 아동이 수혜를 받았고, 약 5,600개의 서비스가 지원받음.
- 이 추가 자금은 ‘포용 지원 프로그램’이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포용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임.
- 정부는 또한 호주의 ECEC 시스템에 대한 생산성 위원회 조사보고서를 고려하여 서비스에 관한 접근성 및 포괄성을 정할 것임.

2024년 05월 15일

출처 : <https://www.education.gov.au/early-childhood/announcements/budget-202425-next-steps-building-universal-early-childhood-education-and-care>

7. 초등학교 전이를 위한 프로그램

- NSW주 울릉공 남쪽에 있는 쿠나와라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아동들은 최근 쿠나와라 초등학교의 ‘책임감 있는 애완동물 소유 프로그램(The Responsible Pet Ownership Program)’을 통해 자신이 좋아하는 동물과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상호 작용하는 방법을 배웠음. 호주 가정 중 절반 이상이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으며, 이들은 애완동물, 특히 아동이 주변에 있을 때, 자신이 키우는 애완동물을 돌볼 책임이 있음.
- NSW 지방 정부 사무국(Office of the Local Government NSW)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유아교육 및 보육 서비스 센터와 학교를 방문하여 부모와 어린 자녀에게 동물과 함께 안전을 유지하는 방법을 교육함. NSW 지방 정부 사무소에 따르면 2023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NSW에서 1,213건의 개의 공격이 접수되었으며, 이 공격의 약 3분의 2가 사람과 관련되었음.
- 4세와 5세의 유치원 아동들은 이 프로그램을 위해 특별히 방문한 교육자 수 터너와 그녀의 미니어처 슈나우저의 도움을 받아 노래, 역할극, 춤을 통해 강아지 주변에서 안전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웠음.
- 쿠나와라 공립학교 교감인 미셸 디슨은 ‘책임감 있는 애완동물 소유 프로그램(The Responsible Pet Ownership Program)’은 유치원 아동이 참여할 수 있는 학교의 많은 과외 활동 중의 하나라고 말함. “유치원 아동을 활동에 통합시키는 우리 학교의 모델은 아동이 유치원이라는 벽 너머의 세상과 소속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상호작용을 가르쳐 아동이 동물과 관련된 위험을 인식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동물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도 배울 수 있게 한다. 더불어 우리 유치원 아동들이 자아 정체성을 키우고, 학교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쿠나와라 초등학교의 일부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 경험을 함께 즐기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말함.
- 쿠라나와 공립 유치원을 포함한 NSW 공립학교에 위치한 병설 유치원들은 현재 ‘큰’ 학교(초등학교)를 시작하기 전 해에 아동이 무료로 배울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양질의 놀이 기반 학습을 제공하고 있음. 각 유치원에는 자격을 갖춘 교육자가 배치되어 있으며 법적으로 규정된 국가 품질 표준을 충족하거나 표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아동이 해당 연도 7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4세가 되는 경우 학년 초부터 유치원에 등록할 수 있음. 유치원은 초등학교로 진학하는 중요한 전환 단계이며 쿠라나와 공립 유치원과 같은 많은 유치원은 학교의 일상 학습 및 사회 활동을 잘 통합시키고 있음.

- 또한 NSW 공립학교에는 지리적으로 고립된 아동들을 위한 2개의 원격 유치원을 포함해 101개의 유치원이 있음. NSW 정부는 2027년까지 공립학교에 100개의 공립 유치원을 추가로 설립할 예정이며, 그 중 49개는 NSW 주의 시골 및 벽지 지역에 위치될 것임.

출처 : <https://education.nsw.gov.au/news/latest-news/preschoolers-learn-paw-fect-way-to-pat-a-dog>

8. 아동 교육·보육 분야에서의 아동의 사진 촬영 및 공유 시 국가 모델 규정 권장

- 호주 국가 품질 체계는 각 주 및 준 주 정부와 협력하여 유아교육·보육 서비스 내 아동의 사진 및 영상 촬영, 공유, 저장 시 전자기기 사용에 대한 아동 안전 관련 권장사항을 발표함. 발표된 사항은 국가 모델 규정(National Model Code)에 나와 있음.
- 국가 모델 규정 이행은 자발적이지만, 각 주 정부는 아동의 사진 촬영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함.
 - 아동의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하려면 서비스 기관에서 제공한 전자기기만 사용해야 함.
 - 사진 및 영상 촬영이 가능한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 전자기기는 응급 상황, 건강 관련 및 가족의 요구와 같이 승인을 받은 경우나 목적을 제외하고는 아동의 교육·보육 시 휴대할 수 없음.
 - 아동의 사진과 영상을 저장하고 보관하는 데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함.
- 국가 품질 체계에서 시행한 아동 안전 조치에 대한 검토(Review of Child Safety Arrangements under the National Quality Framework)에 의하면, 국가 품질 체계가 지속적인 품질 개선에 중점을 둔 강력한 규제를 가진 제도임을 확인함. 다만, 아동의 사진 및 영상 촬영, 공유, 저장 등 아동 안전에 관해서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 승인된 기관과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보육 서비스는 국가 모델 규정의 권고사항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채택하도록 권장됨. 실제로 많은 기관에서는 이미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 국가 모델 규정은 교육·보육 기관이 아동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도록 지원할 것이며, 향후 아동 안전 관련 규제 평가 시 기관 및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도움이 될 것임.
- 국가 모델 규정은 0~5세 아동(종일 보육 및 유아원/유치원 서비스)을 교육하고 돌보는 승인된 기관 기반 서비스를 위해 설계되었음. 다른 유형의 ECEC 서비스 제공자 및 시간 외 보육 서비스를 하는 교사는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여 유사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 국가 모델 규정 관련 각종 가이드라인 및 자료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https://www.acecqa.gov.au/national-model-code-taking-images-early-childhood-education-and-care>

2024년 07월 01일

출처 : <https://www.acecqa.gov.au/latest-news/National-Model-Code-Taking-images-in-early-childhood-education-and-care>

9. 아동 교육 및 보육인력 임금 인상

■ 2024년 8월 8일, 호주 정부는 ‘신규 근로자 유지 수당(New worker Retention Payment)’을 통해 유아교육 및 보육(ECEC) 인력에 대한 임금 인상 지원을 발표함.

■ 12월부터 2년간 지급되는 이 지급액은 다음과 같은 임금 인상을 지원함.

- 고용 첫 해에는 현재 호주 아동 교육 서비스 임금 인상율에 10% 추가
- 고용 두 번째 해에는 15% 추가

■ 2024~25년 연봉검토(annual wage review)를 통해 2024년 7월 1일부터 유아교육 및 보육인력 연봉의 인상율이 3.75%로 결정되었고, 위의 수당은 이 인상된 임금내역을 기준으로 지급될 것임.

■ 지급을 위해서는 보육 및 교육 기관에서 수당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은 2024년 10월부터 가능하고 12월부터 임금인상 내용이 적용될 예정임. 수당 지급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이 적용됨.

- 향후 12개월 동안 기관에서는 보육 및 교육 수수료 인상을 4.4% 이하로 제한함.
- 보조금 조건을 충족하는 부분이 있다면 직원들이 받을 수 있게 함.
- 임금 인상을 통해 적격 직원에게 모든 지원 자금을 전달해야함.

■ 보육 보조금(CCS) 승인 서비스에서 일하는 유아교육 및 보육(ECEC) 근로자는 이 수당신청 자격이 되며, 지원 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곧 발표될 예정임.

■ 이번 임금 인상은 호주 아동에게 고품질의 유아교육 및 보육(ECEC)을 제공하는 데 있어 인력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여짐.

- 유아교육부 장관인 앤 알리 박사는, “아동 교육 및 보육 인력의 가치를 적절하게 평가하는 것은 인력을 유치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하며 호주 가족이 누려야 할 보편적인 조기 학습 부문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아동의 학습과 발달은 물론 경제에 대한 노동력 참여를 지원하려면 양질의 유아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말함.
- 유아교육부는 가정보육(Family Day Care) 및 가정 내 보육(In Home Care) 부문과 협의하여 해당 인력에게 지원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고안해 낼 예정임.

2024년 08월 08일

출처 : <https://www.education.gov.au/newsroom/articles/wage-increase-early-childhood-workforce>

10. 빅토리아주, 2025년부터 유치원 데이터 보고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 도입

- 2025년 1월부터 빅토리아주에서는 유치원 보고 및 원아 출석에 관한 데이터 수집에 관하여 “Arrival”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됨. 2024년 8월 1일 목요일, 빅토리아주 교육부는 유치원 데이터 보고를 위한 현 시스템인 KIMS(유치원 정보 관리 시스템)를 대체할 새로운 시스템인 “Arrival”을 아동 교육지원 센터들에게 배포함.
- 새로운 시스템은 빅토리아주 정부의 지원자금을 받는 유치원에서 아동에 관한 데이터를 보다 쉽게 보고할 수 있도록 특별히 구축되었음. 또한 아동의 유치원 참여 및 결과 개선을 목표로 아동의 일일 출석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고하는 기능도 포함시킴.
- 아동 교육센터들과의 협력을 통해 수집될 이 데이터는 빅토리아주 아동의 유치원 참여를 촉진시키려는 주 정부의 계획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이를 통해 빅토리아주 아동은 양질의 유아교육과 완전한 학습 및 발달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2025년 1월 새롭게 시행될 시스템 도입을 앞두고 빅토리아주 교육부서는 유아교육 서비스 제공자가 이 시스템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지원을 계속할 예정임. 직접적인 이메일과 빅토리아 영유아기 소식지인 the Early Childhood Update를 통해 서비스 기관들과 소통할 것이며, “Arrival” 홈페이지를 통해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전환에 관한 모든 최신 정보와 자료를 소개할 예정임. 또한 빅토리아주 교육부의 “Arrival” 전담팀에서 추가적인 질문이나 지원을 담당할 수 있음.

2024년 08월 08일

출처 : <https://www.vic.gov.au/early-childhood-update-august-2024/new-system-reporting-kindergarten-data>

11. 보편적인 유아교육과 보육을 향한 길

■ 호주 생산성 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은 9월 18일에 유아교육 및 보육 서비스(ECEC)를 제공하고 있는 유치원, 가정 보육(Family Day Care), 학교 시간 외 보육 및 가정 내 보육(Home Care) 부문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공개함. 이 보고서는 보편적 ECEC 시스템의 모습과 이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개혁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함. 이러한 개혁은 ECEC 가용성, 포용성, 경제성, 품질 및 형평성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다루고 있음. 또한 ECEC 서비스 접근의 어려움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고 아동과 가족을 위한 더 나은 결과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권고함.

■ 구체적으로 호주 정부에서는 호주의 모든 가족이 접근가능하며, 공평하고 포용적인 고품질의 보편적인 유아교육 및 보육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0~5세의 모든 아동이 연간 48주 동안 매주 최소 30시간 또는 3일간 ECEC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음.

■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개혁이 이루어질 경우 현재 유아교육 및 보육 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저소득 및 중간 소득의 가정의 아동의 ECEC에 대한 수요가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더욱이 아동을 위한 서비스가 가족의 요구에 부응해 더 포괄적이고 접근가능하게 되면서, 부모의 노동력 참여율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생산성 위원회는 호주 전역의 ECEC 부문과 학계, 관련 지지 단체 및 일반 대중 등 수백 명이 참여한 조사 보고서를 통해 권고사항을 도출함.

■ 보편적 ECEC 시스템이라는 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호주 정부는 먼저 유아교육 및 보육 비용이 저소득층 아동이 접근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함. 따라서 이번 보고서에서는 활동성 테스트*를 폐지하고 소득이 최대 80,000달러인 가족에 대한 보육 보조금 비율을 시간당 요금 상한선의 100%까지 인상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활동성 테스트(activity test)란, 호주 정부에서 가족에게 아동 보육지원을 얼마나 제공할지를 결정하는 4가지 구성 요소 중 하나로, 부모가 '인정된 활동(일이나 자원봉사 등)'의 범위에서 보낸 시간을 기반으로 2주마다 받는 보조금이 결정되는 것을 말함. 보조금은 유아교육 및 보육 서비스 시간으로 제공됨. 예를 들어, 부모가 2주 당 48시간 이상의 활동을 하는 경우, 아동은 최대 100시간까지 보육 보조금을 받고, 16~48시간 사이는 72시간의 보조금을, 8-16시간은 36시간의 보조금을 지원받지만, 8시간 미만의 활동을 하는 경우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음. 저소득층의 가정의 경우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데보라 브레난 생산성 위원회 부국장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거나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아동이 양질의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해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아동들이 유아교육 및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가장 낮다”라고 말함.
-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보육 보조금과 관련된 가족의 노동시간, 공부 및 자원봉사하는 시간을 평가하는 활동성 테스트가 저소득층 가족의 아동보육 서비스 이용을 가로막는 장벽이며, 부모의 노동 참여를 장려하는데 실제로 도움이 거의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그러므로 활동성 테스트가 없어져야 한다고 언급함. 브레난 부국장은 또한 “자녀가 일주일에 최소 3일 동안 ECEC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부모가 얼마나 일하느냐에 달려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함.
- 이 외에도 정부가 ECEC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해당 분야에서 일을 시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맞춤형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이미 해당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더 나은 멘토링, 전문성 및 경력 개발을 제공해야 한다고 언급함. 이러한 조치는 최근 발표된 급여 개선과 함께 해당 분야가 오랫동안 겪고 있던 채용 및 근속유지 문제를 일정 부분 완화할 것으로 보임. 마틴 스토키 위원장은 “우리는 해당 부문의 인력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유아교육 및 보육제도의 보편적인 시스템을 향한 진전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급여와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ECEC 전문직의 경력 개발을 개선하기 위한 더 많은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라고 말함.
- 보편적 보육을 달성하기 위해서 호주 정부는 불이익을 겪고 있는 지역과 시골 및 벽지 지역에 ECEC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추가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장함. 리사 그룹 생산성 위원회 국장은 “호주의 일부 지역에는 유아교육 및 보육서비스가 거의 없다. 이러한 서비스 격차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더 많은 지원금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함.
- 정규 학교 시간 외 보육에 대한 접근성 확대 필요성 또한 제기됨. 보육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공립학교에서 정규 학교 시간 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주 및 준 주 정부의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보고서는 접근성과 가용성을 높이면서 보육의 품질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며, 규제 시스템에 대한 확대 지원과 부모와 서비스 제공자들을 위한 더 나은 정보제공을 통하여 품질 향상에 대한 투자를 권고하고 있음.
- 정부는 또한 ECEC 서비스가 모든 아동을 포용하도록 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함. 스토키 위원장은 “정부와 ECEC 서비스가 원주민 아동을 위한 격차 해소 협약의 약속을 달성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는 모든 서비스 분야가 문화적 안전성을 지킴과 동시에 원주민 공동체 통제 조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자금 지원 모델에 대한 노력과 해당 부문의 역량에 투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말하며 “모든 아동이 환영받을 때 보육 시스템이 보편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호주 정부는 아동의 능력이나 문화적 배경과 관계없이 모두가 포용될 수 있도록 지원자금을 인상해야 한다" 라고 말함.

2024년 09월 18일

출처 : <https://www.pc.gov.au/inquiries/completed/childhood/report#media-release>

12. 빅토리아 공립학교에 진학하는 아동을 위한 ‘스쿨 세이빙 보너스(School Saving Bonus)’ 프로그램 실시

■ ‘스쿨 세이빙 보너스(School Saving Bonus)’ 프로그램은 2024년 4학기 빅토리아주 학령기에 있는 학생의 부모 및 양육자에게 2025년 학교 생활 활동비에 사용할 수 있는 400달러를 지원함. 여기에는 2025년 1학기에 학교(유치원 포함)에 등록된 4세 아동의 부모와 양육자가 포함됨. 현재 보육 시설에 다니는 4세 아동의 가족은 2025년에 해당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학부모 및 양육자는 2024년 11월에 빅토리아주 교육부로부터 400달러의 ‘스쿨 세이빙 보너스’가 포함된 이메일을 받게 될 예정임. 가족은 400달러의 보너스로 학교 활동이나 교복 및 교과서 구입 또는 이 모든 것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보너스 신청 방법

- 2025년에 빅토리아주 공립학교에 다니게 될 자녀의 부모 및 양육자는 2024년 10월 18일 금요일까지 다음의 두 가지 일을 완료해야 함.
- 학교 등록하기: 2025년에 학교 준비 과정을 시작하려면 가족은 해당 자녀를 등록해야 함.
- 연락처 확인하기: 가족들은 최신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학교에 제공해야 함.

■ ‘스쿨 세이빙 보너스’ 수혜자

- ‘스쿨 세이빙 보너스’는 빅토리아 주 공립학교에 다닐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모든 학생의 가족과 양육자를 대상으로 제공됨. 하지만 유학생이나 홈스쿨링을 하는 학생, TAFE에 재학중인 학생은 지원에서 제외 됨.
- 공립학교 학생이 아니더라도 소득 조사 증명을 통해 ‘Camps, Sports and Excursions Fund 보조금’을 받은 학생은 스쿨 세이빙 보너스 지원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음.

■ 유치원 아동 부모를 위한 정보제공

- 2025년에 유치원(Prep)으로 등록하는 아동이 있는 부모는 '부모 및 양육자를 위한 뉴스레터 정보 제공지'를 다운받아 이 보너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 및 지원금을 받는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음. 다문화 가정의 부모 및 양육자를 위한 번역 자료도 제공됨.

■ '스쿨 세이빙 보너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총리 및 교육부 장관의 홍보영상을 통해 알 수 있으며, 13개 언어로 번역되어 제공되고 있음.

<https://www.vic.gov.au/school-saving-bonus>

2024년 09월 04일

출처 : <https://www.vic.gov.au/early-childhood-update-september-2024>

13. 더 좋고 공정한 학교를 위한 협의서 2025-2034

■ 모든 학생은 어릴 때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학교 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음. 호주 수도인 ACT(캔버라) 주의 공립학교는 “더 좋고 공정한 학교를 위한 협의서(2025~2034): Better and Fairer Schools Agreement(2025~2034)”를 통해 10년 동안 2억 5천만 달러 이상의 추가 지원금을 받게 됨.

■ 이 지원금은 캔버라 주정부가 기존에 공교육에 지원한 자금을 기반으로 캔버라 주의 모든 학생이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강력한 투자계획임. 이는 '형평성과 우수성', '학습과 참여를 위한 복지',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인력'이라는 세 가지 핵심 영역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에 관한 지원을 의미함.

■ 형평성과 우수성

- 주정부는 모든 캔버라 공립학교에 다음의 네가지 주된 내용이 포함된 "Strong Foundations"라는 새로운 개혁 프로그램을 실시 할 예정임. 이 프로그램은 읽기 쓰기 및 수리력 교육 전문가 집단이 권장한 사항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음. 주정부의 이러한 투자를 통해 모든 학생은 증거 기반의 읽고 쓰는 능력과 수리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고 평생 학습을 위한 강력한 기초를 세울 수 있음.

1) 도움이 가장 필요한 학생과 학교를 타겟으로 하는 다중구조(multi-tiered) 지원 시스템.

- 2) 초등학교 1학년의 파닉스(phonics, 발음중심 어학교수법) 및 수리력 점검.
- 3) 초등학생을 위한 읽기 쓰기 및 수학영역 지도.
- 4) 교사를 위한 전문 학습 교재 및 양질의 커리큘럼 교재들

■ 학습과 참여를 위한 복지

- 캔버라 주는 다음에 대한 추가 투자를 통해 계속해서 학생의 건강과 복지를 우선시할 것임.
 - 1) 학생들의 복지 및 학습에 관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ACT 공립학교는 지역사회 코디네이터 및 정신 건강 전문가 역할을 확실히 할 것임.
 - 2) 최신 연구와 증거를 기반으로 하여 학교 내 괴롭힘과 문제시되는 학생의 행동을 학교가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늘릴 예정임.
 - 3) '학교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ACT 주 공립학교를 더 잘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함과 동시에 유연한 교육방법들을 확대함으로써, 대다수의 학생과는 다른 특별한 학습 프로그램이나 수정된 학습 프로그램이 교육에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할 예정임.
- 이러한 투자는 캔버라 주 공립학교 학생들이 전인격적이면서 맞춤형 교육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할 것임. 또한 학교가 안전한 곳이며 학생들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학생 자신의 요구 사항을 가장 잘 충족하는 방식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임.

■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인력

- 현재 캔버라 주정부의 교사, 학교 지도자 및 학교 직원들은 최고의 수준이며, 이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할 예정임. 이 투자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밝은 미래를 세우는 데 있어, 교사와 학교 지도자가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에 그 가치를 두고 있음.
 - 1) 주요 건강 및 복지 프로그램에 투자.
 - 2) 교사와 학교 지도자가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인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량 감소 계획을 구현.

- ‘더 좋고 공정한 학교를 위한 협의서 (2025-2034)’는 장애 학생을 더욱 포용하며, 올바른 연합 의료 서비스가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교육 중단 위험이 있는 학생들을 위한 유연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캔버라 주에서 이미 진행 중인 지원 서비스를 기반으로 더욱 보완하는 작업을 함.

2024년 11월 19일

출처 : <https://www.education.act.gov.au/about-us/all-news-and-news-alerts/news-items/november-2024/better-and-fairer-schools-agreement-2025-2034>

14. 유아교육·보육 시설 추가 설립을 위한 2천만 달러 투자 착수

- 교육 기관이 부족한 지역의 아동을 위해 추가적인 유아교육·보육 시설을 짓기 위한 2천만 달러 지원프로그램이 신규 착수됨. 부족 지역의 유아교육·보육 기관은 자금지원을 위한 신청서를 지금 접수 할 수 있음.
- 뉴사우스웨일스(NSW) 주 정부는 새로운 교육서비스 구축을 가속화하거나 가장 필요한 지역의 교육 시설을 확장하는데 노력함으로써 수백 명의 가족이 추가적으로 유아교육 및 보육을 받을 수 있음.
- 새로운 “조기 학습 장소 구축 프로그램(Building Early Learning Places Program)”은 31개 대상 지역에 위치한 적격의 비영리재단의 지역사회 유치원과 종일 보육 센터 및 ACCO(원주민 공동체가 운영하는 조직, Aboriginal Community Controlled Organization) 교육서비스 업체가 제공하는 유아교육·보육 기관을 지원할 예정임. 31개 대상 지역은 시드니 서부 및 남서부, 일라와라, 남부 해안, 중북부 해안, 중앙 고원(Central Tablelands), 중앙 서부 평원(Central Western Plains) 및 북부 고원(Northern Tablelands) 지역임.
- 새로운 프로그램은 유아교육 및 보육 시설이 부족한 지역사회의 0~6세 아동을 위해 주당 최소 300개의 추가 시설을 마련하여 아동이 자신의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최고의 교육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
- NSW 보육 및 경제 기회 기금(NSW Childcare and Economic Opportunity Fund)에 기반한 이 최신 계획은 주 전역의 더 많은 가족이 집 근처에서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유아 교육 및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의 계획의 일부임. 주된 계획은 다음과 같음:
 - 100개의 새로운 공립 유치원을 지어 9,000명 이상의 아동이 추가로 무료 유치원 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함.

- 2024~25년 미취학 아동을 둔 가족이 총 4억 3천만 달러 이상의 유치원 비용을 경감받을 수 있게 함.
- 2천만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제공하여 유아교육 및 보육 서비스가 새롭고 혁신적인 운영 방법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계획임. 주말 보육과 유연한 아동의 등하원 시간으로 가족의 요구 사항이 더 잘 반영될 것으로 보임.
- ECEC 교육자와 교사의 연계를 위해 1,700만 달러 이상의 장학금 및 전문 개발 지원금이 제공될 예정.
- 비즈니스 기술을 가진 아동 교육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비즈니스 역량 개발 프로그램에 500만 달러 이상 지원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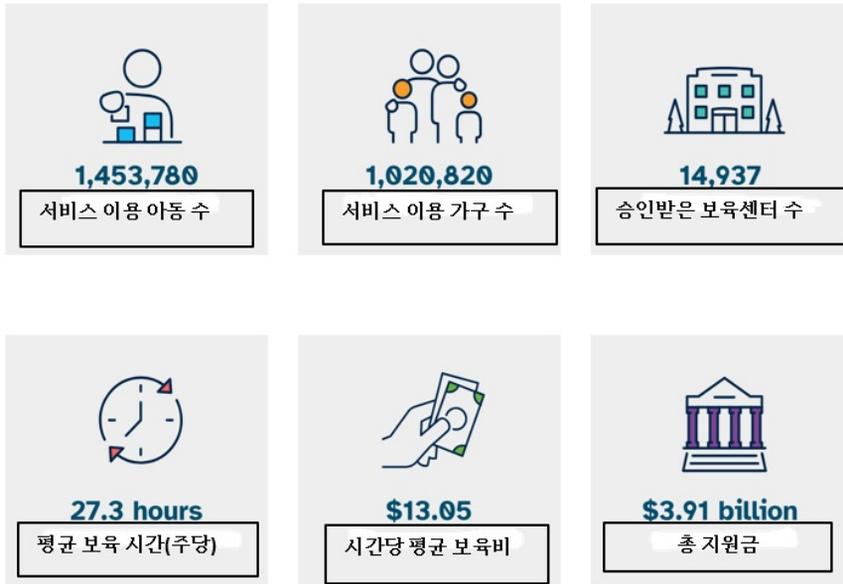
■ 부총리 겸 교육 및 조기 학습부 장관인 프루 카는 “이 프로그램은 가족이 조기 아동 교육 및 보육에 대한 더 많은 접근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지역사회를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아동이 학교에 성공적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입학 전 몇 년동안 양질의 유아교육 제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것이 바로 현재 크리스 민 정부가 뉴사우스웨일스주 가족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이유이다. 우리는 배경이나 우편번호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유아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싶다.”라고 말함.

2024년 11월 20일

출처 : <https://education.nsw.gov.au/news/latest-news/-20-million-investment-for-hundreds-more-early-childhood-places>

15. 호주 연방정부 아동보육 보조금 데이터 보고서 - 2024년 9월 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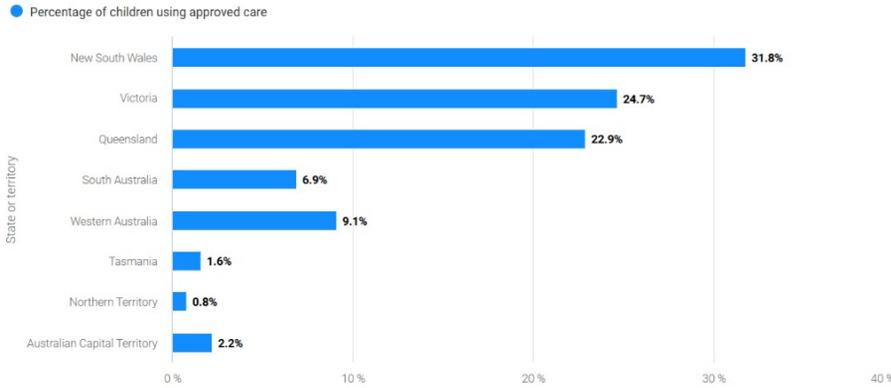
■ 이 보고서는 2024년 9월 분기 동안 아동 보육 보조금(CCS, Child Care Subsidy)을 받은 보육기관 및 이용 아동과 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제공함. 가정내 보육(In Home Care)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서비스의 종류(유형), 상태, 이용현황이 분석에서 제외됨.



■ 아동

- 1,086,610가구의 1,523,470명의 아동이 아동 보육 보조금 서비스를 이용함. Services Australia는 1,020,820가구의 1,453,780명의 아동에게 서비스 이용번호를 제공하였고, 이 숫자는 2023년 9월 분기보다 1.1% 증가한 수치임. 0~5세 아동의 50.4%, 0~12세 아동의 35.3%가 승인된 보육 서비스에 참여함.
- 보육서비스 참여 아동의 58.2% (845,980명)가 센터 기반 보육 서비스에 다님. 39.0% (566,600명)가 학교 시간 외 보육 서비스에 다님. 4.9% (71,340명)가 가정보육(Family Day Care)에 다님.
- 뉴사우스웨일스(NSW)주는 승인된 보육센터를 이용하여 보육 서비스에 참여한 아동의 비율이 31.8% (461,860명)로 전체 주 중에서 가장 높았고, 남호주(SA)는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음 (2.7%인 2,640명의 아동이 증가함). 전국적으로 41,380명의 아동이 추가 보육 보조금을 받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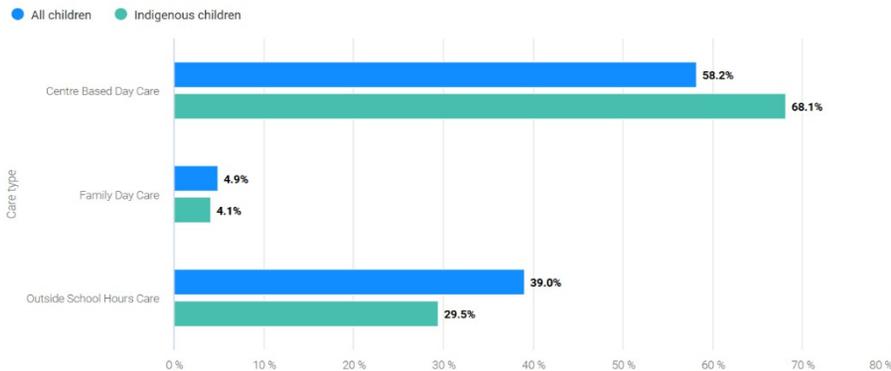
주 및 준 주정부별 승인된 보육 서비스에 참여하는 아동 - 2024년 9월 분기



Source: Department of Education administrative data extracted from the Services Australia Enterprise Data Warehouse

- 65,070명의 원주민 아동이 보육 서비스에 참여. 이는 2023년 9월 분기보다 5.6% 증가한 수치임. NSW주는 보육 서비스에 참여하는 원주민 아동의 비율이 36.9%로 가장 높았음. 호주 원주민 아동의 68.1%가 센터 기반 보육시설에 다녔고, 전체 호주 아동의 58.2%가 센터 기반 보육시설에 다님. 학교 시간 외 보육 서비스에 참여한 원주민 아동은 29.5%이며, 전체 호주 아동의 39%가 학교 시간외 보육 서비스에 참여하였음.

보육 유형별 참여하는 아동의 수 (원주민 아동 대 호주 전체 아동) - 2024년 9월 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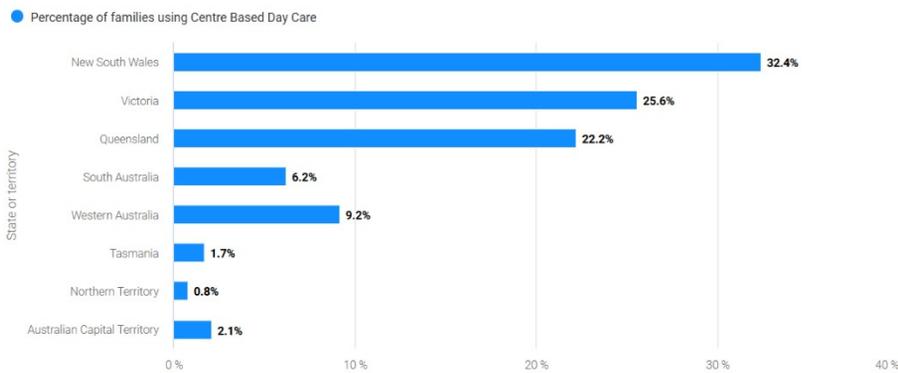


Source: Department of Education administrative data extracted from the Services Australia Enterprise Data Warehouse

■ 가정

- 1,020,820 가구가 승인된 아동보육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이는 2023년 9월 분기보다 1.1% 증가한 수치임. 센터 기반 보육시설 이용 가구 수는 1.1% 증가(7,250가구) 하였고, 학교 시간 외 보육을 이용하는 가구 수는 2.4%(9,770가구) 증가하였음. NSW주는 센터 기반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가구의 비율이 32.4% (224,500 가구)로 전체 호주 주 중에서 가장 높았음. 총 29,600 가구가 추가 보육 보조금을 이용하였으며, 190,130 가구가 다자녀 보조금을 지원 받음.

주 및 준 주별 센터 기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가구 - 2024년 9월 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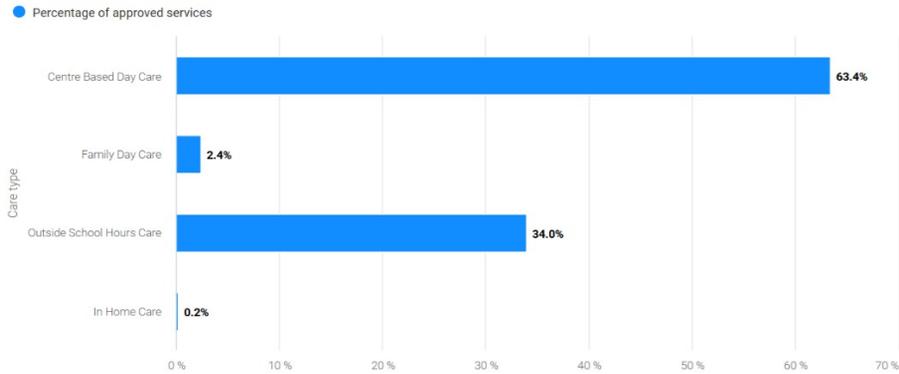


Source: Department of Education administrative data extracted from the Services Australia Enterprise Data Warehouse

■ 서비스

- 해당 분기 동안 14,937개의 정부 승인 보육 서비스가 운영되었음. 센터 기반 보육 서비스는 9,472개 센터로 전체 서비스의 63.4%를 차지하였고, 학교 시간 외 보육 서비스는 5,077개로 전체 서비스의 34.0% 였음. 2023년 9월 분기와 비교하면, 센터 기반 보육 서비스 수가 3.8% (345개 센터) 증가함. 학교시간외 보육 서비스 수는 1.8% (90개) 증가함. 가정보육 수는 6.1% (23 개) 감소함.

보육 유형별 승인된 서비스 - 2024년 9월 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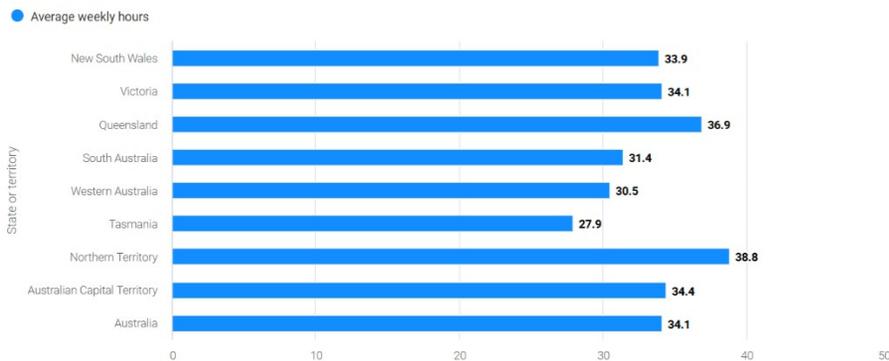


Source: Department of Education administrative data extracted from the Services Australia Enterprise Data Warehouse

■ 보육 서비스 이용

- 호주 아동은 평균 주 당 27.3시간의 보육 서비스에 참여 하였고, 이는 2023년 9월 분기보다 0.7% 증가한 수치임. 노던 테리토리(NT) 준 주는 38.8시간으로 주당 평균 참여 시간이 가장 높았음. 태즈매니아(TAS) 주는 주당 평균 보육 서비스 참여 시간이 27.9시간으로 가장 낮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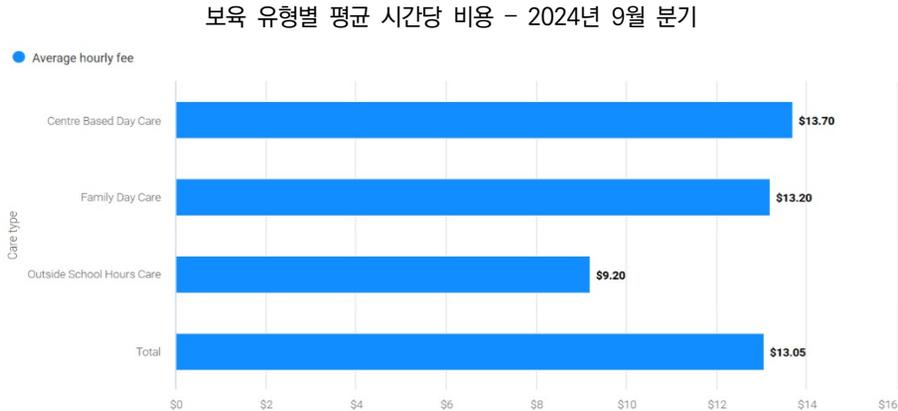
주 및 준 주별 아동의 센터 기반 보육 서비스 평균 참여시간 (주 당) - 2024년 9월 분기



Source: Department of Education administrative data extracted from the Services Australia Enterprise Data Warehouse

■ 보육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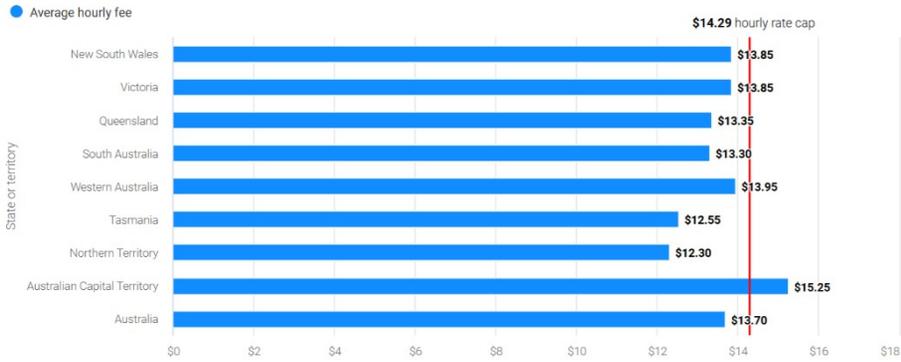
- 호주의 평균 시간당 보육비 \$13.05로 2023년 9월 분기보다 7.0% 증가했음. 학교 시간 외 보육은 시간당 \$9.20로 평균 시간당 요금이 가장 낮았으며, 센터 기반 보육은 시간당 \$13.70로 가장 높았음.



Source: Department of Education administrative data extracted from the Services Australia Enterprise Data Warehouse

- 미취학 연령 아동에 대한 센터 기반 보육 서비스의 시간당 요금 상한선은 \$14.29 였음. ACT 주(\$15.25)를 제외하고 모든 주와 준주에서는 상한선보다 낮은 평균 시간당 요금을 부과하였음.
- 전국적으로 센터 기반 보육 서비스의 70.3%가 시간당 요금 상한선 이하의 평균 시간당 요금을 받았음. 학교 시간 외 보육의 88.0%가 서비스 비용의 상한선인 \$12.51보다 적게 받았고, 가정보육의 56.3%가 비용 상한선인 \$13.24 보다 적게 받음.
- 통계 영역 레벨 3(SA3)에 의한 센터 기반 보육 서비스의 시간당 비용에 대한 데이터에 따르면 시간당 비용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일반적으로 캔버라, 시드니, 멜번 및 퍼스의 일부 지역이었음.

주 및 준 주별 센터 기반 보육서비스 평균 시간당 비용 - 2024년 9월 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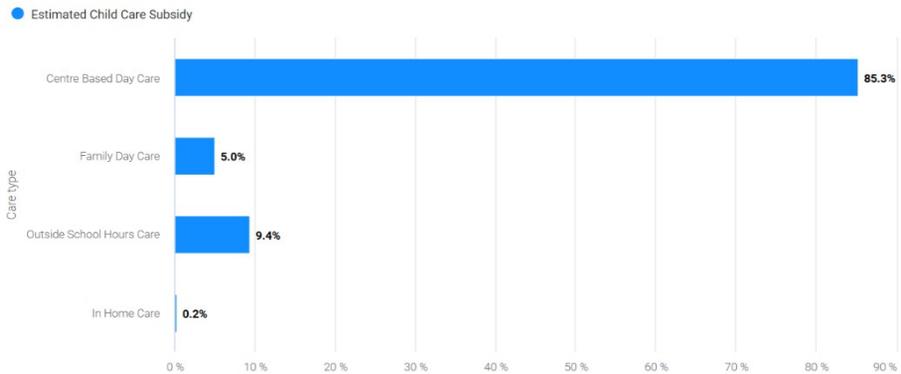


Source: Department of Education administrative data extracted from the Services Australia Enterprise Data Warehouse

■ 지원금

- 아동 보육 및 교육에 관한 호주 정부의 총 지출은 약 39억 1천만 달러였고, 여기에는 보육 보조금 및 추가 보육 보조금이 포함되었음. 추가 보육 보조금은 1억 8,260만 달러였고, 총 예상 지출은 2023년 9월 분기보다 9.7% 증가했음. 보육 보조금의 대부분인 33억 3천만 달러(85.3%)는 센터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족에게 지원되었음. 9.4%는 학교 시간 외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족에게 지원되었음.

보육 유형별 예상 보육 보조금 - 2024년 9월 분기



Source: Department of Education administrative data extracted from the Services Australia Enterprise Data Warehouse

2024년 12월

출처 : <https://www.education.gov.au/early-childhood/early-childhood-data-and-reports/quarterly-reports-usage-services-fees-and-subsidies/child-care-subsidy-data-report-september-quarter-2024>

❖ 아동 청소년 지원

1. 타즈매니아 주, 유아기 포용 서비스 시작

- 유아기 포용 서비스(Early Childhood Inclusion Service, ECIS)란 추가 지원이 필요한 0~4세 아동을 위한 무료 발달 지원 서비스로서, 가족과 협력하여 모든 아동을 유능한 학습자로 육성하고 포용적인 조기 교육 환경과 지역 사회 환경 안에서 성장하는 데 그 목적을 둠. 유아기 포용 서비스는 타즈매니아 주의 ‘아동 청소년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호바트, 론세스톤, 버니 및 데본포트에 지원센터가 있음.
- 이 서비스는 발달 지연 및 장애가 있는 아동(출생~4세)의 발달 과정에서의 성취를 극대화하기 위해 가족 및 기타 전문가와 협력하여 진행됨. 또한, 아동과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유아기 프로그램과 지원을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학습을 극대화시키고, 각 아동에게 맞는 조정 (adjustment)과정을 통해 아동이 성공적으로 그 다음 발달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함.
- 유아기 포용 서비스는 가족이 아동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교사라고 인식하고, 가족이 아동의 학습과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모델이라고 봄. 이 서비스는 교육 및 지역사회 환경에서 가족과 협력하여 각 아동의 포용적 지원을 계획하는 데 중점을 둠. 여기서 포용이란, 각 아동의 강점과 관심을 인정하면서, 모든 아동이 양질의 학습 프로그램에 성공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함. 이는 모든 아동이 오래 친구들로부터 배우고 상호 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유아기 포용 서비스는 교육 환경에서 유아기 통합 지원을 제공함. 즉, 발달 지연이나 장애가 있는 아동에게 치료적 중재를 제공하는 국가 장애보험제도(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NDIS)의 조기 아동 접근법(Early Childhood Approach, ECA)과 함께 작동함.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지원 서비스 및 가족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전체에서 지원하는 접근 방식을 구현함으로써,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가족이 더 좋은 혜택을 받아 좋은 결과를 가지도록 하는데 그 목표가 있음.
- 타즈매니아 주의 ‘아동 청소년 교육부’는 발달 지연 및 장애가 있는 모든 아동에게 보다 포용적인 교육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는 ‘연방법(Commonwealth Legislation)’ 및 ‘교육에서의 장애 기준 2005 (Disability Standards for Education 2005)’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음.
- 교육부는 전체 지역사회가 아동 지원방법을 공유함으로써 고품질의 포용적 지원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의 내용을 공유 함.

- 거주하는 지역에서 각 가정이 아동의 조기 학습 환경에 접근할 수 있도록 모든 서비스와 협력함.
- 아동 발달에 필요한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적절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사회와 가정을 연계함.
- 아동에게 필요한 맞춤형 포용적 지원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을 제고함.
- 협력을 통해 아동과 가족이 성공적으로 그 다음 발달 단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함.
- 국가 장애보험제도(NDIS)의 조기아동 접근법 (ECA)을 포함한 기타 유아기 통합 서비스와 협력하여 아동을 위한 팀을 구성함.

■ 유아기 포용 서비스는 아동이 유치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 매년 1월 1일 기준, 4세가 되는 모든 아동은 지역 유치원에 등록할 수 있음. 다만, 가족이 자녀를 유치원에 등록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유아기 포용 서비스는 추가 1년 동안 제공되지 않음.

■ 부모는 자녀를 유아기 포용 서비스에 추천할 수 있음. 소아과 의사, 일반의, 아동 건강 및 양육 서비스(CHAPS) 및 보육 전문가를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도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추천을 할 수 있음.

2024년 07월 09일

출처 : <https://www.decyp.tas.gov.au/learning/early-years/early-childhood-inclusion-service-ecis/>

2. 빅토리아주, 장애 포용 프로그램을 통한 장애 학생에 대한 지원 확대

■ 빅토리아 주정부는 '장애 포용'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능력을 가진 빅토리아주의 모든 학생이 학교와 삶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약 16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음. '장애 포용' 프로그램은 2021년에 시작하여 2025년까지 빅토리아 공립학교에 도입하며, 다음의 조치를 통해 장애를 가진 학생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음.

■ '장애 포용'은 학교 시스템 전반에 걸쳐 포용적 교육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계획을 도입하고 있으며 다음은 '장애 포용' 시스템과 관련된 계획임.

- 다양한 학습자 허브
- 포용적인 교실환경에서의 전문 학습
- 포용 교육 프로그램 석사과정
- 교육학(학습 장애) 준석사 프로그램
- 포용 지원 코칭
- 빅토리아 청각 장애인 교육 기관

■ 이러한 계획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접근성이 확보됨.

- 전문가의 전문성
- 코칭
- 전문적인 학습
- 증거를 기반으로 한 지침 및 자원
- 교직원을 위한 장학금

■ 장애 포용 프로그램은 학교와 가족이 학생의 강점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 파악하고, 장애학생을 돕기 위해 학교가 할 수 있는 교육적 조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학생의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요구 사항을 이해하는 핵심 관련자들(학생, 가족, 교직원 등)이 함께 프로그램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구성함. 프로그램의 진행을 위해 새롭게 진행자를 뽑고, 그 진행자는 학교와 가족이 새로운 접근 방식을 통해 협력할 수 있도록 도움. 애니메이션 비디오(<https://vimeo.com/738441934>)가 부모/양육자에게 프로그램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제작됨.

■ 단계별(tiered) 자금 모델

- 장애 포용(Disability Inclusion)은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친구들과 동일하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학교에 추가 자금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자금 지원 모델임. 이 새로운 모델은 장애 학생의 다양한 요구를 고려하여 경제적 지원을 하는 구조화된 접근 방식을 기반으로 함. 또한 이 모델은 학생 자원 패키지(Student Resource Package) 라는 지원의 일부임.

■ 빅토리아주 공립학교와 가족은 장애 포용 프로그램을 통해 자원, 지원 및 지도의 혜택을 받게 됨. '단계별(tiered) 자금 모델'과 '장애 포용 프로파일'은 5년에 걸쳐 단계적 적용을 해오고 있음. '정책 및 자문에 관한 지침'에 단계별 자금모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음.

■ 정책 및 자문에 관한 지침에는 학교와 가족이 각각의 학생의 강점, 요구 사항 및 교육 조정을 식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고안된 '장애 포용 프로파일'의 진행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관련 사례연구는 다음의 링크에서 잘 보여주고 있음.

1년차(2021년)	2년차(2022년)	3년차(2023년)	4년차(2024년)	5년차(202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이사이드 반도 - 바윈 - 로던 캠퍼스페 - 5개의 지원 포용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멜버른 외곽 - 중부고원 - 말리 - 2개의 지원 포용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너 킵스랜드 - 오븐 머레이 - 서부 멜버른 - 3개의 지원 포용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멜버른 북동부 - 남부 멜버른 - 브림뱅크 멜튼 - 골번 - 2개의 지원포용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 메리백 - 아우터 킵스랜드 - 위메라 남서부 - 멜버른 이너 이스턴

2024년 12월 03일

출처 : <https://www.schools.vic.gov.au/disability-inclusion>

❖ 기타

1. 호주 2024~2034 유아기 전략 발표

■ 호주 정부는 아동과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비전을 제시한 유아기 전략(The Early Years Strategy)을 개발함. 이 전략은 호주 정부가 아동 중심 정책 개발의 우선순위를 두고 지원하는 방법과 향후 10년 동안 유아기 지원 및 서비스에 대한 투자 목표를 명시함. 2024년 5월 7일에 사회서비스부 장관 아만다 리즈워드 의원과 유아교육부 장관 겸 청소년부 장관 앤 알리 의원이 이 전략을 발표함.

■ 호주 정부는 유아기 아동과 가족 지원 방안 이행 상황을 발표했음. 호주 정부는 아동을 위해 10년에 걸쳐 세 가지 실행계획을 시행할 예정임. 이 계획은 호주 아동을 위한 유아기 전략(The Early Years Strategy)의 비전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단계를 제공하며, 2024년 남은 기간동안 첫번째 실행 계획과 결과 대비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측정 가능한 지표를 제공하는 결과들을 개발할 예정임.

■ 유아기 전략(The Early Years Strategy) 개요

1) 기본원칙

- 아동 가족 중심
- 강점 중심
- 가족 및 지역사회 존중
- 공평하고 포용적이며 다양성 존중
- 과학적 근거 기반

2) 중점분야

- 영유아기 중요성 강조
- 부모, 양육자 및 가족 역량 강화
- 지역사회 지원 및 협력
- 책무성과 협응력 강화

■ 호주는 전략 수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침

1) 1단계: 전략 개발(2023)

- 전국 유아기 정상회담(National Early Years Summit)은 2023년 2월 17일 호주 국회의사당에서 열렸으며 100명 이상의 대표가 모임.
- 2023년 초, 펄스 서베이(pulse survey)를 통해 2,240개 이상의 응답을 받음.
- 350개 이상의 공개 제출을 받은 토론 문서
- 호주 전역에서 39개의 원탁회의(roundtable)가 오프라인 및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으며 750명이 넘는 참가자가 참여함.
- 3세에서 5세 사이의 아동 115명과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상담함.

2) 2단계: 전략 초안

-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온라인 설문조사가 진행되었으며 400개 이상의 응답을 받음.
- 부모 및 양육자 참여

3) 기타: 자문단 구성

- 전략 개발을 알리기 위해 정부에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초기 전략 자문단이 구성됨. 자문단의 구성원은 유아기 아동과 그 가족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통찰력과 전문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협력할 것임.

■ 이 전략 및 실행 계획은 초반에는 정부의 기존 투자를 기반으로 구축될 예정이며, 유아기 전략과 중점분야가 일치함.

■ 영유아기 관련 정부 투자 전문은 다음을 참조

https://www.dss.gov.au/sites/default/files/documents/05_2024/early-years-strategy-2024-2034.pdf

2024년 05월 07일

출처 : <https://www.dss.gov.au/families-and-children-programs-services/early-years-strategy>

2. 빅토리아 주, 국제 놀이의 날을 기념하다

- 2024년 6월 11일 화요일, 세계 놀이의 날(International Day of Play: IDOP)을 맞아 모든 아동의 놀 권리가 존중되는 세상을 위한 촉구에 동참하자. 유엔 총회는 모든 아동의 놀 권리가 존중되고, 보호되고, 충족되기 위한 관심 촉구를 위해 공식적으로 매년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날을 제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킴. 이는 아동의 성장과 잠재적 발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 놀이를 통해 아동은 주변 사람, 장소, 사물과 소통하여 자신의 세계를 이해하게 됨. 끈기, 호기심, 상상력과 같은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모두 놀이 중에 발달되며 아동이 평생동안 배움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함.
- 호주의 빅토리아 주는 아동의 놀이를 주도함. 놀이 기반 학습은 아동의 인지 능력과 전반적인 웰빙을 개발하고 육성하는 데 핵심임. 이 잘 알려진 교육방법은 “빅토리아 초기 학습 및 개발 프레임워크 (Victorian Early Years Learning and Development Framework, VEYLDF)”에서 아동 주도 학습과 성인 주도 학습의 교차되는 부분에서 설명되고 있음.
- 아동은 성인 주도 및 자기 주도적 탐구와 상상력이 결합되는 환경에서 가장 잘 학습함. 이러한 환경은 어른이 아동의 관심에 반응하고 놀이를 통해 아동이 학습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아동의 관심을 키우며, 아동의 지적 능력과 신체적, 사회적 능력 뿐 아니라 창의적 능력도 자극하게 됨.
- 부모와 양육자가 놀이를 아동의 학습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는 “미취학 아동을 위한 놀이 기반 학습(Play-based learning for preschoolers)” 웹사이트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음. 여기에는 미취학 아동의 연령별 놀이방법과 실내 및 실외 놀이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 있음.
- 교육자를 위한 놀이 기반 학습에 대한 정보는 “왜 놀이 기반 학습인가(Why Play-based learning?)” 웹사이트에 업로드됨. 이 사이트는 아동이 놀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장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또한 ‘2023년 최고의 시작, 최고의 삶 2023년 교육 리더 컨퍼런스(2023 Best Start, Best Life 2023 Educational Leaders Conference)’에서 호주 연구 위원회 수상자 매를린 플리어 교수의 놀이 기반 학습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녹화 영상을 통해서도 아동의 놀이를 학습에 적용하는 것에 관한 내용을 알 수 있음.

2024년 06월 11일

출처 : <https://www.vic.gov.au/early-childhood-update-june-2024/international-day-play>

3. NSW 주정부 “잠금 전 확인(Look Before You Lock) 프로그램”으로 차량 탑승 중인 아동의 안전 증진 모색

- NSW 주정부는 차량에 아동을 혼자 두는 것의 위험을 강조하기 위해 새로운 안전 인식 프로그램을 시작함. “잠금 전 확인(Look Before You Lock)”은 유아교육 및 보육 부문에서 차량에 탑승 중인 아동에게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관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여기에는 아동이 차량 안에서 홀로 방치되지 않도록 매번 차량을 잠그기 전에 차 내부를 점검하는 것이 포함됨.
- 500개 이상의 유아교육 및 보육 서비스와 가정 보육 서비스의 통학 제공업체가 “잠금 전 확인(Look Before You Lock)”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지급받음(탑승 아동의 수를 세는 카운터기, 클립보드 폴더, 스티커 등).
- NSW 유아교육 및 보육 규제 당국 완화 전무이사인 니콜라스 배코는 차량에 혼자 남겨진 아동은 유아교육 및 보육 서비스 환경에서 가장 위험한 문제 중 하나이며 아동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함.
- 호주 보험회사인 NRMA 데이터에 따르면 2023-2024 회계년도 동안 NSW주에서 자동차에 갇힌 아동에 관련된 신고가 677건이 보고되었음. 또한 NSW 음부즈맨 아동 사망 검토팀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0일 사이에 NSW주에서 6명의 아동이 의도하지 않게 차량에 남겨진 결과로 사망했다고 보고함.
- 주 정부는 유아교육 및 보육 서비스 기관이 “잠금 전 확인” 프로그램 자료를 직원과 공유하고, 이를 관행에 포함시키며 직원, 가족 및 지역 사회와 안전한 교통 관행에 대한 메시지를 공유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유아교육 및 보육 기관과 교육 제공자는 이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온라인 디지털 툴킷(online digital toolkit)에 접근하여, 각 기관의 자체 플랫폼에서 이를 다운로드하고 공유할 수 있음. 이 웹페이지에는 프로그램 소개 툴킷 및 포스터, 엽서, 소셜미디어에 업로드 가능한 사진과 아동을 위한 활동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아동의 가족들도 아동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교통 절차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육기관에 문의하도록 권장받고 있음.
- 새롭게 변경된 국가 품질 프레임워크(National Quality Framework)는 보육기관, 센터 및 학교로 이동시 차량 탑승 아동의 안전한 이동에 관한 정책, 절차 및 위험 평가 강화를 위한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위 요구에 중점을 두고 있음.

2024년 10월 16일

출처 : <https://education.nsw.gov.au/news/latest-news/look-before-you-lock-program-promotes-child-safety>

2024 육아정책연구소
해외정보수집원

국가	성명
일본	이소연
미국	우문주
독일	양영임
영국	윤수진
스웨덴	김아연
호주	이옥현

2024년도

해외 육아정책 동향 정보 자료집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우 04535]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9층
TEL. 02-398-7700 FAX. 02-398-7798